

중국 역사학계의 청사연구 동향

-한국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9

중국 역사학계의 청사연구 동향 - 한국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유장근 외 지음

동북아역사재단은 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관련 연구와 정책개발을 통해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2006년 9월 설립하여 출범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내외 석학들과 더불어 동북아의 역사문제와 영토문제 등에 대해 많은 연구 성과를 축적하였고, 동북아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역사인식을 모색하고 그것을 전파하기 위한 지적·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제 재단은 동북아에서 역사화해와 우호협력의 사상과 인식을 생산하고 발신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동북아의 정세는 유동적이어서 역사문제와 영토문제가 언제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할지 모릅니다. 우리 재단이 추구하고 있는 역사와 영토 주권의 수호, 상생을 위한 역사인식의 창조와 공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공동체상의 수립 등에는 걸림돌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한일, 한중 역사연구 분야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개별 연구를 뛰어넘어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역사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상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재단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각국의 연구자들과 더 깊고 강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며 동아시아 연구의 중심으로 확고한 위상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만주’라고 알려진 ‘중국 동북’의 역사는 당면한 고구려사 등의 역사갈등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상을 구축하기 위해서 차분하게 연구를 진행해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만주는 고대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관련이 있고 특히 한반도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와도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또한 향후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에도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만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한국고대사 문제에 머물지 말고 시기상으로는 연구주제에서 폭과 깊이를 더하여 새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만주와 관련된 연구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진행해왔습니다.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북방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비롯하여 이 지역의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주제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하는 『중국 역사학계의 청사연구 동향 - 한국관련 분야를 중심으로』는 이러한 의도에서 시작한 첫 성과물입니다. 국내에서 이 지역을 하나의 연구분야로 설정하고 연구를 시작한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에 연구성과의 축적도 많지 않으며 연구자도 매우 적은 실정을 감안하여 초기의 연구방향을 기존의 국내외 연구 동향 파악과 자료정리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가 그간의 우리 학계의 연구 공백을 메워가면서 향후 해야 할 연구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연구 결과의 출간을 통해 만주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연구자들이 많아져서 이 분야 연구가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만주연구가 중국과의 역사분쟁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새로운 연구지평을 열어나가고, 중국과 한국이 역사 문제에 대해 화해를 하고 함께 손잡고 연구하는 새로운 연구 분야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와 인접해 있는 중국 동북지역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교류 확대에도 활용되는 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길지 않은 연구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옥고를 제출해준 연구책임자 유장근 교수를 비롯한 공동연구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고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이 동북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역사연구와 정책개발의 싱크탱크로 확고한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 어린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9월 25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정재정

| 차례 |

책머리에 ... 10

‘청사공정’의 ‘청조흥기사’ 서술방향 | 홍성구

I. 머리말 ... 19

II. ‘청조흥기사’의 개념과 연구의 관점 ... 27

1. ‘청조흥기사’라는 용어와 개념 ... 27

2. ‘청조흥기사’의 시간적 범위와 연구의 관점 ... 31

III. 중국 학계 선행연구의 주요 논쟁 ... 41

1. ‘만주’의 명칭 문제 ... 42

2. 만주족 사회의 성격 문제 ... 43

3. 명청전쟁의 성격과 입관의 역사적 의미 ... 45

4. 민족정책에 대한 평가 ... 47

IV. ‘청사’의 ‘청조흥기사’ 서술방향 ... 49

V. 맺음말 ... 55

중국의 ‘강건성세’ 열풍과 청사연구 | 차혜원

I. 머리말 ... 59

II. ‘강건성세’ 인식의 전통과 현재 ... 62

- 1. 학계의 동향…62
- 2. 성세열풍과 역사 대중화…70
- III. 청사공정 주도층의 역사인식과 활동…76
 - 1. 청사연구소의 동향…76
 - 2. 최근의 성세연구…82
- IV. ‘성세’공세에 대한 비판적 움직임…88
- V. 맺음말…95

최근 중국에서의 청대사 연구동향의 분석 | 김형중

-특히 조청관계사와 국경문제 연구를 중심으로

- I. 머리말…101
- II. 최근의 조청관계사와 국경문제 관련 자료의 출판 현황…105
- III. 최근의 조청관계사와 국경문제에 대한 연구동향…120
- IV. 맺음말-전망과 모색…134

최근 중국의 청대 대외관계사 연구동향 | 정혜중

-조청관계사 연구를 중심으로

- I. 머리말…151
- II. 대외관계사 연구에서 ‘조선’의 위상…154
- III. 중국의 조청관계사 연구시각…168
- IV. 중국의 예치시스템론의 분석…179
- V. 맺음말…183

‘만청 식민주의’를 둘러싼 중·외 학계의 논의 | 유장근

- I. 문제의 제기-비교사와 패러다임의 변화... 187
- II. 만주어 자료와 만주 군주의 성격 ... 193
- III. 18세기의 팽창과 식민지형 관리체계 ... 204
- IV. 한족의 변강 이주와 식민지적 성격 ... 213
- V. 맺음말을 대신하여-알타이 문화권과 한국 역사의 위상 ... 223

참고문헌 ... 231

Abstract ... 246

찾아보기 ... 25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연구 동기

21세기 들어 중국의 역사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국가가 청대의 역사를 새롭게 편찬하는 ‘국가청사찬수공정(약칭 청사공정)’일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사업에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데다, 그에 걸맞게 1,500여 명의 학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진행된다는 외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공정은 새로운 근대 역사학의 방법과 전통적인 기전체 방식을 절충한 데다, 마오주의 역사이론까지 덧붙여져 세계사에서 일찍이 보기 드문 체제의 역사서 편찬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

기왕의 청사연구는 한족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중국사의 장구한 흐름 속에서 최후의 전통 왕조로 파악하는 것이었다. 곧 이민족의 중국 지배, 유례

없는 번영과 갑작스런 쇠퇴, 청영전쟁 곧 아편전쟁에서의 패배와 ‘근대’의 시작, 이에 이어지는 내외의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강운동과 혁명이 라는 큰 줄기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줄기의 배후에는 통치자인 황제를 비롯한 만주족이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화되어 갔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 청사공정은 바로 이러한 큰 흐름을 바탕으로 ‘생태환경지’, ‘인구지’, ‘회문교당지(會門教黨志)’ 등과 같은 최신 성과를 수용하여 편찬되고 있다.

반면 구미 학계에서는 1990년대 이후 위와 같은 청대사 패러다임에 근본적으로 도전하여 왔다. ‘신청사(New Qing History)’라 불리는 이 경향은 이제 세계의 청사 연구자는 물론이러니와 중국 내의 청사학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내용은 만주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청대사를 재구성하는 것인 바, 여기에는 청제국의 유목제국적 전통, 다민족국가의 건설, 광대한 영토 확보, 만청 식민주의적 성격, 현대국가와의 연속성 등 종래 크게 주목하지 않았거나 미약했던 부분을 오히려 더 중시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대사 연구의 새로운 경향을 한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우리 연구팀이 주목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 동북아역사재단의 후원 아래 먼저 청사공정에 관한 기본적인 조사를 2007년에 수행하였고,¹ 계속하여 중국에서의 청대사 연구가 인민공화국 성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청사공정과 연계시키는 한편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검토하는 작업이었다.

청사공정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또한 국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학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탐색하는 데에도 두어졌다. 잘 아는 바와 같

1 정혜중·김형중·유장근(2008), 『중국의 청사공정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이 중국의 주요 학술사업은 정부와의 조율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청사공정에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역사학에 대한 학술정책을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의 의도는 또한 동북공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술상의 문제가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데 있기도 하다. 청사공정에서도 특히 이를 우려하여 청과 조선의 관계나 국경선 문제 등을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기왕의 인식틀이나 연구성과를 순식간에 벗어나기는 어렵다. 오히려 중국의 청사학계는 그 틀과 성과를 바탕으로 청사공정에 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2. 내용 소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주제를 가지고 청대사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제1주제는 「‘청사공정’의 ‘청조홍기사’ 서술방향」이다. 이 글에서 중요한 점은 청조의 흥기 과정과 요인 중에서 사회의 안전과 통합을 분석한 부분이다. 곧 다민족성의 확대에 따라 후금(後金) 사회에 대두한 침예한 모순과 그에 따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였는가 하는 데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홍타이지 시대에는 한족을 우대하며 만·한 간의 갈등을 잠재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서 파생된 개념이 ‘만족민족공동체’라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뜻하는데, 이는 현재 중국에서 주창하고 있는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을 가능하게 하는 배경 논리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이다. 곧 다민족국가의 토대로서 청조홍기사를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2주제는 「중국의 ‘강건성세’ 열풍과 청사연구」이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강희 황제 때부터 건륭 황제에 이르는 시기 동안에 청이 가장 번영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중요하게 제기된 견해는 강희·건륭 시기의 성세 연구의 계기가 오늘날의 중국 사회와 비교하기 위해 진행된 느낌이 강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1990년대 말의 중국 사회를 성세로 설정하고, 이 성세가 쇠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부패방지라는 것이다. 성세 연구에서 탐오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성과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또한 개방에 대한 저항이나 지도력의 쇠퇴 등을 강조하는 까닭 역시 21세기의 중국이 계속 성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대명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청대 성세 연구는 역사학이 현실정치를 위해 복무하는 이른바 ‘영사사학(影射史學)’의 특징이 상당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이 두 시대의 성세를 비교하려는 의도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이에 대해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것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제3주제는 「최근 중국에서의 청대사 연구동향의 분석 - 특히 조청관계사와 국경문제 연구를 중심으로」이다. 이 글에서 중요한 사실은 조청관계사와 국경문제에 대한 자료 출판이 중국 내에서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예전에 출간된 『청계외교사료(淸季外交史料)』, 『청광서조중일교섭사료(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청계중일한관계사료(淸季中日韓關係史料)』뿐만 아니라, 『조선이조실록 중의 여진사료선편』, 『조선이조실록 중의 중국사료』, 『청실록조선사료적편』 등이 속속 간행되었다. 곧 중국 내의 전통적 사료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이나 청실록에 들어 있는 청 관련 자료와 조선 관련 자료까지 망라하여 양국과 관련된 자료집을 거의 빠짐없이 편찬하고 있다. 게다가 21세기에 들어 그간 공간되지 않았던 당안자료, 예컨대 『훈춘부도통아문

당(揮春副都統衙門檔)], 『동북변강당안선집』 등은 기왕에 참고할 수 없었던 대형 자료집이다. 또 『중조변계연혁과 계무교섭사료회편[中朝邊界沿革及界務交涉史料彙編]』은 양국 사이의 국경문제에 관한 자료집인바, 이러한 자료집의 출간으로 사실상 중국은 자국 측의 입장과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적 근거와 학문적 뒷받침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다. 한국 측도 최근에 이르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펴낸 『조선시대 북방사 자료집』이나 『백두산 정계비 자료집』, 『국역 《동문회고》 강계 사료』 등이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다. 미흡한 것은 기본자료의 출간뿐만이 아니다. 전문적인 연구도 부족하려니와 기왕에 출간된 교과서, 대중용 역사서 속에서 백두산 정계비나 간도 문제를 임의로 해석하여 서술하는 등, 선부른 민족주의 감정을 앞세우는 태도를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연구 부분에서도 중국 학계는 개설서나 논문집을 출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점차 주제와 범위를 좁힌 본격적인 학술서 연구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 있는 부분은 한국에 유학 온 중국 연구자들의 성과를 점차 중국 학계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제4주제는 「최근 중국의 청대 대외관계사 연구동향 - 조청관계사 연구를 중심으로」이다. 1990년대 이후 이 분야에 관한 중국 학계의 연구는 전반적으로 이전보다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중·외관계 연구성과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청영전쟁 이후 각국과의 불평등조약체제 부분이며, 그 다음이 국경문제, 각국과의 대외교류, 문화교류 등의 순이다. 이 중에서 조선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인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양국 사이의 경제관계 연구이며, 두 번째는 조공과 관련된 연구, 세 번째는 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조·청관계 연구, 네 번째는 문화교류에 대한 연구 등이다. 최근의 연구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조공제

도에 관한 것으로, 이는 청사공정 속에서 한중관계사가 중요한 연구항목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로는 ‘방교지(邦交志)’라는 전지(典志) 속에서 조선, 월남, 류큐 등을 포함시켜 서술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쉬운 것은 한국 측의 연구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데 있다.

제5주제는 「‘만청 식민주의’를 둘러싼 중·외 학계의 논의」이다. 이 논문은 1990년대 이후 서구 학계에서 새로이 제기된 이른바 ‘만청 식민주의’라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것은 대략 청의 영토와 다민족국가의 틀이 현대 중국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청대사를 검토하는 작업이고, 이 특징 중의 하나가 ‘만청 식민주의’라는 점이다. 곧 동시대의 유럽 식민주의와 형태상 유사한 면이 청제국에도 보이고 있는데, 예컨대 준가르제국의 정복 이후 이곳에 실시한 대규모 한족 이민, 현지의 지배관행 존중, 이번원이라는 식민기구를 통한 통치, 현지에 대한 민족지 조사와 지도 작성 등에서 식민주의적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 학자들은 18세기의 팽창이 내포하고 있는 ‘근대적 요소’에 대해 일부 동의하기도 하지만, 식민주의는 서구 학자들이 청대의 조공체제나 국가 내부의 구조적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한다. 그에 대신하여 제기하는 이론이 천하국가론 등이다.

또한 위와 같은 논의를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이 논문에서 조금 다루어졌다. 그중 하나는 만청제국을 유목제국이라는 아이덴티티 속에서 다루게 될 때, 이른바 알타이 문화 벨트와 관련한 한국 역사는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을까. 다른 하나는 청조의 군사적 특성과 식민주의가 대조선관계에 어떻게 반영되었을까 하는 과제를 문제 제기 차원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3. 과제

이상의 연구를 요약해 본다면, 청사공정과 관련된 청사연구의 주된 흐름은 역시 청조의 흥기와 쇠퇴를 오늘날의 중국과 연계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조의 흥기 부분에서는 다민족국가의 토대가 강조되고 있으며, 강희·옹정·건륭 시대의 흥성과 쇠퇴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쇠퇴의 요인을 부패에서 찾는 작업은 오늘날 당과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대 난제임을 보여준다. 아울러 한국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오늘날의 양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문화 교류 부분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자료의 편찬에서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전되어 있어 이 자료들이 장래의 연구에 표준으로 쓰일 가능성도 높다.

청사공정에서는 관계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조선, 월남, 류큐 관계를 ‘방교’라는 틀 속에서 서술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 틀 내에서 대외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성격은 조공관계이다. 현실과 과거의 전통 사이에서 절충을 본 셈이다. 하지만 그 저류에는 여전히 정치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천하 국가 의식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것이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그들의 위상을 드러내는 한 방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도 이 틀 내에서 조청관계를 연구할 것인가, 아니면 이에 도전할 만한 새로운 이론, 예컨대 ‘만청 식민주의’와 같은 패러다임을 통해 청과 인근 국가와의 관계를 검토할 것인가가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19세기 후반기 들어 위기에 처했다고 인식한 청 정부가 왜 종래의 조공질서를 포기하고 무력침략을 통해 주변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의문과 연계되어 있다.

중요한 문제는 한국 학계 내부에도 있다. 한국의 중국 사학계는 예전에

비해 연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연구의 질과 양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다. 그럼에도 청사연구는 명청사연구의 일환이거나 근현대 중국연구라는 틀로 양분되어 있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는 청말 시기까지 명청사의 범주 속에서 다루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청과 현대 중국과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세계 학계의 청사연구 경향과 전혀 다른 길이다. 이 문제는 한국의 청사연구를 한족의 시각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 알타이 지역권이라는 시각에서 볼 것인지의 여부와도 관련된 큰 과제이다. 서구 학계에서 1980년대에 새로이 등장한 이른바 ‘신청사그룹’의 핵심 의제 속에 ‘만청 중심주의’가 놓여 있으며, 이는 당연히 한국을 포함한 알타이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상호관련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한국 학계는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독자적인 연구틀과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연구성과가 공공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 의도처럼, 국가의 정책에 반영되고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용으로도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중국은 과거의 중국이 아니며,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양국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단순하지 않으며, 이것이 오랫동안 굴곡 많은 관계를 유지하여 온 까닭이기도 하다. 따라서 두 나라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역사를 되짚어가면서 그 내부에 쌓인 모순을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리가 애초에 의도했던 바이기도 하다.

2009년 4월 20일

필자를 대표하여 유 장 근

‘청사공정’의

‘청조흥기사’ 서술방향

홍성구 | 경북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I. 머리말

II. ‘청조흥기사’의 개념과 연구의 관점

III. 중국 학계 선행연구의 주요 논쟁

IV. ‘청사’의 ‘청조흥기사’ 서술방향

V. 맺음말

I. 머리말

21세기 한국 역사학계의 화두 중 하나는 ‘탈민족’이다. 지난 세기에 이룩한 한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1990년대부터 동포인 중국 조선족을 비롯한 중국 인들과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또 결혼을 위해서 한국으로 대거 이주해 들어오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는, 특히 공장지대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여러 인종·종족·민족의 다양한 문화의 조화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 사회의 모습이 현저해졌다. 이에 따라 ‘단군의 자손’으로서 단일민족임을 자부하던 우리의 인식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학교에 입학하는 아동 중에 혼혈아동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교교육에서 언제까지나 단일혈통의 민족의식을 강조한다면, 이는 혼혈아동들을 사회의 소수자로 소외시켜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에 사회 전반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민족’의식, ‘민족’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당연한 방향전환일 것이다. 그런데 역사학계에서 ‘민족’이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은 훨씬 오래되었고, 여러 인종·종족·민족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의 조화와 공존을 전제로 하는 ‘다문화’ 사회의 의식과는 조금 동떨어진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두 가지 문제를 결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에 존재하거나 혹은 존재했었던 여러 민족과 국가는 오랜 시간 얽히고설킨 복잡미묘한 관계를 맺으며 역사를 만들어 왔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어느 민족은 일개 작은 부족에서 흥성하여 제국을 건설하였다가 사라져버렸는가 하면, 부침(浮沈)의

영육 속에서도 어렵사리 끈기 있게 그 생명력을 유지해 온 민족도 있다. 또 오랜 역사 속에서 늘 당당한 패자(覇者)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온 듯 보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이민족의 말발굽 아래에서 정복당한 쓰라린 기억을 애써 감추고 있는 민족도 있다. 그리고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라는 고립된 환경에도 불구하고 대륙과의 교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오늘의 번영을 이룩한 민족도 있다. 이렇게 흘러온 지난 역사가 만들어 낸 오늘날 동아시아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몽골 등이 각각 국가의 모습을 가지고 공존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근대 전환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현재와 같은 ‘nation state’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구성인자인 ‘국민’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때 ‘민족’은 ‘국민’을 형성하는 데 더없이 좋은 씨앗이자 토양이 되었다. 그리고 ‘민족’의 결속을 강화하고, ‘nation state’가 필요로 하는 ‘국민’을 만들어 내는 데에는 역사만큼 유용한 도구가 없었다. 이를 위해서는 ‘민족’과 ‘국민’의 이름으로 인접국가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적지 않은 갈등을 겪어야만 하였다. 제국주의 시대의 침략과 식민통치는 그러한 갈등이 가장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형태로 표출된 예라고 하겠다. 그리고 현재에도 그 갈등을 봉합하고 치유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서로 관계를 맺어 왔던 과거의 사실(史實)에 대해서 자기중심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끊임없이 새로 뿌리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역사학계가 ‘민족’ 문제 해결방향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탈민족’은 서로 다른 ‘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갈등의 씨앗인 ‘민족’ 개념을 근본적으로 비판함으로써 ‘민족’의 명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대 ‘민족’ 개념이 ‘nation state’의 존재 근거가 되었던 만큼, ‘민족’ 개념이 계속해서 기능하는 한 ‘민족’ 혹은 ‘국민’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국가 간의 갈등은 해소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앞에서 언급한 ‘다문화’ 사회의 모습은 한 사회의 통합을 위해 그 사회 구성원인 다양한 ‘민족’의 문화를 인정하고 공존과 공영을 모색하는 가운데 새로운 문화의 창출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를 ‘탈민족’의 문제와 함께 생각해 보면, 하나의 ‘nation state’ 내부에서는 서로 다른 ‘민족’의 공존과 공영이라는 명분이 비교적 쉽게 실천의 방향을 찾아가는 반면, 서로 다른 ‘nation state’ 간에 발생하는 ‘민족’ 혹은 ‘국민’ 감정의 갈등은 상대적으로 해결방향을 모색하는 것조차 어렵고, 그 실천은 더욱 불가능해 보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nation state’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운동은 ‘민족’ 혹은 ‘국민’의 존재이유를 인정하는 전체 하에서 ‘nation state’가 주도하는 내부로부터의 은밀한 ‘국민’ 만들기이고, ‘nation state’ 간의 갈등은 외부와의 대립을 통한 노골적인 ‘국민’ 만들기이다. 이런 점에서 ‘탈민족’의 논리는 유효하지만, 또 그만큼 그 논리를 실천하기는 어렵다. 그만큼 근대의 ‘민족’과 ‘국민’ 개념은 우리가 탈피하기 어려운 애증의 대상인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역사전쟁’은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21세기 벽두부터 중국이 추진하였던 이른바 ‘동북공정’이 한국 사회에 던진 충격이 컸던 이유는 한국 사회의 통합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의 ‘국민’ 만들기도 그만큼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인의 반발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국민’ 만들기를 위해 필요한, 어쩌면 유도되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지도 모르는, 또 하나의 길이였는지도 모른다. 사실 중국의 ‘동북공정’은 거대한 ‘중화민족’ 만들기 프로젝트의 작은 부속에 불과하다.

오늘의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하며 이미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올라섰고, 이에 걸맞는 정치적·문화적 위상을 차지하고 싶어한다. 1840년 아편전쟁에서의 패배 이래 치욕과 좌절의 역사를 걸어왔던 중국이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중국의 위상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유지되어야만 하고, 다시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사회적 안정이 요구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가에서 고도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소득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 다양한 갈등구조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중국에서도 개혁·개방 이래, 계층 간·지역 간·민족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국 정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의 하나가 바로 중국 내 소수민족 문제이다.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는 자칫하면 중국을 다시 분열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는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 문제에는 주변국의 이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특히 미국과 유럽의 중국 정책의 중요한 측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중국의 입장에서는 ‘통일다민족국가’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당성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 거대 과업이 바로 ‘중화민족’ 만들기에 다름 아니다.

‘동북공정’과 더불어 ‘중화민족’ 만들기의 하부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되는 사업 중에 다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이 바로 ‘청사공정(淸史工程)’이다. 원론적으로 보면, ‘청사공정’은 왕조교체가 이루어지면 전 왕조의 역사를 편찬하는 중국의 오랜 역사적 전통에 명분을 두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이른바 왕조시대의 역사편찬 방식인 ‘정사(正史)’ 편찬이 왜 필요한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오늘의 중국이 지향하고 있는 국가발전 전략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리라는 점을 어

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역사편찬과 해석에 국가가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현대 역사학의 입장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에 관한 이론(異論)과 논쟁이 활발한 한국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은 국가가 역사편찬을 주도할 만큼 국가권력이 민간 학계를 압도하고 있는 사회이고 그만큼 왕조시대 ‘정사’ 편찬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역사적 의의까지 부여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청사공정’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범국가적으로 ‘청사공정’을 추진하는 까닭은, 그것이 ‘중화민족’ 만들기라는 거대 과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청사공정’에 대한 모니터링은, ‘동북공정’의 예와 같이 그 결과를 예견하고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역사왜곡에 대비한 학문적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수준을 넘어서,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어떻게 서술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중국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오늘날 중국이 지향하고 있는 국가체제와 세계질서의 모습을 그려보는 단계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

청조는 오늘날 중국이 표방하고 있는 ‘통일다민족국가’의 원형(原型)을 만들었다고 평가되는 왕조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당성을 과시하는 장으로서 ‘정사’ 편찬이 더없이 좋은 소재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청조의 역사 중에서도 ‘청조흥기사(淸朝興起史)’는 ‘통일다민족국가’ 청조의 태동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청조의 역사는 사실상 1583년 누르하치가 부조(父祖)의 원수를 갚기 위해 군사를 일으킨 때부터 시작된다. 그 후 누르하치는 여진부족을 통합하여 후금(後金)을 건설하였고, 이어 홍타이지는 만주족과 몽골족, 그리고 한족을 아우르는 대청(大清)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1644년에 마침내 입관(入關)에 성공함으로써 청조는 중국을 지배하는 정복왕조가 되었다. 이어지는 17세

기 후반에서 18세기까지의 130여 년은 ‘강옹건성세(康雍乾盛世)’로 일컬어지며 전에 없던 전성기로 기록되고 있다. 비록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국내 사회모순이 심화되고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소수민족으로서 자신들보다 100배나 많은 인구를 가진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268년이라는 오랜 기간을 지배하며 민족 정체성(ethnic identity)을 유지한 청조의 역사는 세계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역정이었다. 청조가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 해답은 누르하치가 기병한 이후 중국 정복에 이르기까지의 ‘청조흥기사’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시기(1583~1644)의 역사는 서로 다른 부족 간·종족 간·민족 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다민족국가의 성격을 구축해 가는 끊임없는 통합과 확대 그리고 혁신의 과정에 다름 아니었고, 입관 이후 청조가 이룩한 ‘통일 다민족’ 제국의 축소판이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끊임없는 통합과 확대 그리고 혁신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무엇인가?

누르하치는 건주여진(建州女眞)에 속한 일개 부족의 리더로서 건주여진을 통합하고, 나아가 여진부족 전체를 통합하였다. 그런데 누르하치가 기병할 당시 대부분의 여진은 여전히 수렵과 채집을 통해 생산한 가죽[貂皮]과 삼(蔘) 등을 명(明) 등과 무역하여 얻은 이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것이 여진부족의 경제력의 거의 전부였다. 게다가 명은 여진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여진이 명과 무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족단위로 분산시켜 놓았다. 이것이 여진이 부족단위로 파편화되고 결합을 이루지 못한 이유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르하치는 여진의 여러 부족을 정복하여 대명무역권(對明貿易權)을 통합하면서 자신의 경제력을 키우고 여진부족을 통합해 갔다. 하지만 통합된 여진 사회를 유지하는 데는 대명무역권의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었

다. 무역만으로는 지속적인 재생산 구조를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안정된 요동의 농업경제가 필요하였다. 누르하치의 요동 진출은 바로 이러한 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홍타이지는 팔기제도(八旗制度)로 상징되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요동의 한족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 차하르 몽골을 통합하여 동북아시아의 한족·만주족·몽골족 세계의 군주로 군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역시 요동의 농업경제만으로는 이렇게 확장된 청조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것이 홍타이지가 끊임없이 산해관을 넘어 중국 내지로 진출하려고 시도했던 이유이다. 이처럼 누르하치의 기병에서 청조의 입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는 통합과 확대를 통해 이룩한 체제를 지탱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과 확대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었다. 부족단위로 파편화되어 있던 여진의 당시 상황에서 보면, 여진부족 내부에는 오늘날 상상하는 것만큼 동족의식이 강하지 못하였다. 대명무역권이 부족단위로 분산되어 있었던 만큼 여진부족 사이에는 경쟁의식이 더 강하였다. 그러므로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진족 내부의 동족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이후 요동의 한족과 차하르 몽골을 통합하면서 여진족 내부의 결속 강화와 더불어 한족·몽골족 등 서로 다른 민족 사이의 모순과 갈등의 극복이 또 하나의 과제로 등장하였다. 여진족의 동족의식을 강화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여 그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여진족과 한족 그리고 몽골족을 하나의 국가체제 아래에서 통합하기 위해 청조는 부족체에 기초한 전통적인 유목적 분권체제를 극복하고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자기혁신에 매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홍타이지 시기에 전개된 권력투쟁은 분권적 전통 속에서 중앙집권을 향해 나아가는 험난한

여정의 출발이었다. 이것이 ‘통일다민족국가’ 청조를 만들어 낸 혁신의 과정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순치제와 강희제 시기를 거쳐 옹정제 시기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¹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청조는 부족과 민족의 통합, 지배영역의 확대, 그리고 ‘통일다민족국가’를 향한 혁신의 역사로 시작하였다. ‘청조흥기사’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청조흥기사 연구동향을 정리하는 작업은 단순히 중국 학계가 진행해 온 청조사 연구의 학술적 경향을 정리하는 작업일 뿐 아니라, ‘통일다민족국가’인 오늘의 중국이 청조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청사공정’의 배경과 지향점을 기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사공정’의 ‘청조흥기사’ 서술방향을 기늠하기 위하여 ‘청사공정’을 주관하고 있는 ‘국가청사편찬위원회(國家淸史編纂委員會)’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화문사망(中華文史網, <http://www.historychina.net>)’에 전재(轉載) 혹은 게재되어 있는 연구성과를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중화문사망’에서 증시하는 연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것이다.² 그러나 그에 앞서

1 이상 청조의 통합과 확대 그리고 혁신의 과정에 관한 내용은 이시마시 다카오 지음, 홍성구 옮김(2009), 『대청제국 1616~1799』, 휴머니스트 참고.

2 ‘중화문사망’에서 ‘청조흥기사’ 연구성과를 다루고 있는 부분은 ‘前淸史研究’ 항목이고, 모두 36편의 논저가 전재 혹은 게재되어 있다. ‘청사공정’을 통해 편찬될 ‘淸史’는 ‘正史’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학계의 연구성과를 망라하는 형태의 역사편찬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학계의 연구에는 다양한 주장과 견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망라하는 형태를 취한다면 학계를 위한 연구사 정리의 성격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사’ 편찬은 ‘청사’ 전반에 적용될 큰 틀

이미 발표되어 있는 연구사 정리를 활용하여 일반적인 중국 학계의 청사(淸史) 연구성과, 특히 ‘청조흥기사’ 연구의 경향을 파악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화문사망’에 전재 혹은 게재된 연구와 그동안 학계에서 주목하고 강조했던 일반적인 연구경향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청사공정’의 ‘청조흥기사’ 서술방향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³

II. ‘청조흥기사’의 개념과 연구의 관점

1. ‘청조흥기사’라는 용어와 개념

만주족이 주체가 되어 중국을 정복한 왕조인 청조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꼽으라면 일반적으로 1644년의 입관(入關)과 1840년의 아편전쟁을 이야기한다. 두 사건은 모두 시대의 성격을 구별할 만한 기준이 되는

의 역사인식에 대한 합의하에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는 형식으로 그러한 역사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점에서 ‘중화문사망’에 전재 혹은 게재된 연구를 검토하는 것이 ‘청사공정’에서 편찬할 ‘청사’의 서술방향을 기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청조흥기사’와 관련하여 ‘청사공정’에서 강조하는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서술할 것이다.

³ 다음과 같은 연구사 정리를 참고하였다. 陳生璽·杜家(1991), 『淸史研究概說』, 天津教育出版社; 高翔(1999), 「伍十年來的淸史研究」, 『淸史論叢』; 李治亭(1995), 「建國四十年來淸前史研究述評(上)」, 『歷史教學』 第12期; 李治亭(1996), 「建國四十年來淸前史研究述評(下)」, 『歷史教學』 第1期; 鈔曉鴻·鄭振滿(2003), 「二十世紀的淸史研究」, 『歷史研究』 第3期; 穆鴻利(2004), 「關於淸前史研究的幾個問題的思考」, 『滿族研究』 第3期. 그리고 2003년 이후에 발표된 연구성과는 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매달 발행하는 『中國史研究動態』를 참고하였다.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그중에서도 1840년 아편전쟁을 근대의 기점으로 삼는다는 점은 대체로 국내외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644년의 입관이라는 사건은 그 이전을 청조사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서부터, 포함시킬 수 있다면 청조사의 상한은 언제까지이며, 그 성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편의상 1644년의 이 사건을 기준으로 ‘입관 전(入關前)’과 ‘입관 후(入關後)’로 구별하는 표현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중국 학계에서는 청조가 입관하기 이전의 역사를 규정하는 용어로 ‘청입관전사(淸入關前史)’, ‘청전사(淸前史)’, ‘전청사(前淸史)’, ‘선청사(先淸史)’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청전사라는 용어는 청입관전사의 약칭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⁴ 그런데 우리의 검토대상인 ‘중화문사망’에서는 전청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 분명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청전사라는 용어와 대비시켜 놓고 보면 전청사는 ‘청 이전의 역사’라는 의미로 읽힌다. 이렇게 보면 청전사와 전청사가 모두 입관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를 구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1644년 이전을 청사의 범위에서 포함시키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보면, 전자는 다소 애매한 반면, 후자는 명백하게 청사에 포함시키지 않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의 선청사라는 용어는 선진사(先秦史)라는 용어와 비교되어 청조 이전의 모든 역사를 포괄하는 듯한 어감이 드러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중국 학계에서는 대체로 앞의 세 가지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어쨌든 1644년 입관이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사실만

4 李治亭(1995), 앞의 글.

은 틀림없기 때문에 입관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입관을 기준으로 한 시기 구분에는 장성(長城)에 대한 중국인의 전통적인 관념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로부터 장성은 농경민족인 한족과 북방의 유목민족을 구별하는 경계였고, 중국의 전통적인 화이론(華夷論)은 장성을 기준으로 내(內)·외(外)와 화(華)·이(夷)를 구별하였다. 따라서 장성은 중앙정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지의 여부를 구별하는 기준으로도 기능하였다. 장성 이북을 근거로 한 정권은 아무리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정권이라도 중앙정권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반대로 장성 이남의 중원을 차지한 정권은 허약하기 짝이 없는 정권이라도 중앙정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관념이 지금까지도 중국 학계에 통용되고 있으며, 사실 현재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그러한 관념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중원 중심적이고 한족 중심적인 역사인식이다. 그러므로 1644년 입관은 시기구분의 중요한 분수령으로서 충분한 의미를 갖는 역사적 사건이지만, ‘입관’을 시기구분의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입관을 계기로 만주족이 주체인 청조가 중국을 정복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사건의 역사적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만, ‘입관’을 시기구분의 용어를 사용하면, 입관 이전 청조 정권의 성격이 일률적으로 마치 명조의 지방정권인 듯이 규정되거나, 혹은 입관 이전의 역사가 청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등 역사인식에서 적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1644년 입관 이전의 청조사를 ‘청조흥기사’라는 용어로 표현하고자 하며, 본 연구에서도 ‘청조흥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⁵

5 물론 ‘청조흥기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필자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

중국 학계에서 이와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자로는 왕징쩌[王景澤]가 있다. 그는 최근 연구에서 웨이크먼(F. Wakeman)의 논리⁶를 활용하여 청조 ‘개국(開國)’의 역사를 단순히 청조와 명조가 최고 통치권을 놓고 다투는 과정이 아니라, 16세기 중기에서 17세기 중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정치세력이 중국을 놓고 각축을 벌이다가 청조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결말을 맺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청조개국사’는 당연히 청조의 기원이 되는 누르하치의 기병과 누르하치에 의한 여진부족 통일의 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이 단계가 여진(만주)족이 중국을 놓고 정치적인 각축에 참여하게 되는 당연한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⁷

하는 것은 아니다. ‘청조흥기사’라는 용어를 사용한 대표적인 저작 중 하나인 周遠廉(1986)의 『清朝興起史』(吉林文史出版社)가 다루는 범위는 1583~1626년이다. 누르하치의 기병에서 누르하치의 死去에 이르기까지를 청조 흥기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孟森은 일찍이 1930년대 北京大學의 강의에서 ‘滿洲開國史’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孟森(1992), 『滿洲開國史』, 上海古籍出版社. 이후 2006년 中華書局에서 孟森著作集의 하나로 재간행되었다]. 여기에서 다루는 범위는 만주족의 시조인 부쿠리 용손에서 누르하치의 아버지인 탁시에 이르기까지이다. 누르하치의 여진부족 통일을 ‘만주구륜(만주국)’의 성립으로 보는 시각에 근거한 것으로 짐작된다.

6 Frederic Wakeman(1985), *The Great Enterpris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여기에서 다루는 시기는 대체로 1583년 누르하치 흥기에서 순치제(1644~1661) 시기까지이다.

7 王景澤(2002), 『清朝開國時期八旗研究(1583~1661)』, 吉林文史出版社.

2. ‘청조흥기사’의 시간적 범위와 연구의 관점

중국 학계에서는 청사를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 청사의 시간적 범위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청조사의 하한을 1911년 신해혁명으로 인식하는 데에는 학계의 이설이 거의 없지만, 그 상한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서로 다른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는 곧 청조흥기사의 상한도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① 1644~1911년(268년간)
- ② 1636~1911년(275년간)
- ③ 1616~1911년(295년간)
- ④ 1583~1911년(328년간)

①~④는 각각 1644년의 입관, 1636년의 ‘대청(大清)’ 수립, 1616년 후금 건국, 1583년 누르하치의 기병을 청조사의 시작으로 파악한다.

①은 청조가 중국을 지배하는 전국 정권의 성격을 갖게 되는 계기가 1644년 입관(入關)이므로 청조사는 1644년을 상한으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이다.⁸ 이러한 시각은 1644년 청조가 입관하기 이전의 역사는 당시 전국 정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명사(明史)의 범위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견해는 1644년 입관이라는 사건에 중국을 통치하는 중앙정권의 교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명조와 청조 양 왕조의 권력

8 ‘청입관전사’ 혹은 그 약칭으로서 ‘청전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1644년과 1840년을 분기로 ‘청입관전사’, ‘청사’, ‘근대사’로 시기를 구분한다. 이 경우 ‘청입관전사’는 청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주체의 민족적 차이가 가지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으로는 만주족 정권으로서의 청조의 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②는 청조의 역사는 당연히 ‘대청(大清)’이라는 국호(國號)를 처음 사용한 1636년을 상한으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이다.⁹ 여기에서 강조하는 1636년 홍타이지의 ‘대청’ 선언은 청조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청’이라는 국호에 얽매어 후금 정권과 대청 정권의 연속성을 간과하여 청조사의 발전과정을 유기적으로 파악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③은 누르하치가 여진부족을 통일하고 처음으로 국가 권력을 수립한 1616년을 청조사의 상한으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이다.¹⁰ 1616년 후금의 건국이야말로 여진(만주)족의 국가인 청조의 출발을 알리는 선언이었다는 점에서 청조 국가의 역사를 가장 전면적으로 이해하는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견해는 1616년 후금을 건국하기까지 누르하치가 전개한 활동과 여진부족의 통합과정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청조사를 국가의 역사로만 파악하게 된다. 물론 청조사를 ‘대청’이라는 국가의 역사로 보는 것도 당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청조사는 청조를 수립한 여진(만주)족의 역사이기도 하다. 여진족의 역사를 떼어놓고 청조사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다만 후금 건국 이전의 여진족의 역사를 어떻게 다루느냐를 문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9 李澍田 主編(1990), 「前言」, 『先清史料』(『長白叢書』4集), 吉林文史出版社.

10 鄭天挺은 1616~1644년의 28년간을 關外期로 설정하고 명사에 편입시켜 설명하고 있다. 鄭天挺(1980), 『清史簡述』, 中華書局.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누르하치의 군사 활동이 시작된 1583년을 청조사의 상한으로 설정하는 ④의 견해가 여진(만주)족이 주체가 된 정권으로서의 청조 국가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가장 적절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후금 건국 이전에 존재했던 오랜 여진족의 활동 중에서도 특히 1583년 누르하치의 기병이 후금 정권 수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청조흥기사’의 하한을 설정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비교적 공통된 시각이 있다. 청조 초기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라면 역시 1644년의 입관을 꼽을 수 있다. 현재까지 중국 학계는 물론 다른 외국의 학계에서도 1644년 입관을 ‘청조흥기사’의 하한으로 설정하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1583~1644년의 61년간을 ‘입관전사(入關前史)’로 규정하고 청사의 범주에서 다루고 있는 다이이(戴逸)의 입장¹¹이 중국 학계의 시각 중에서는 필자가 언급한 ‘청조흥기사’의 시간적 범위와 가장 근접한 시기구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¹² 다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입관전사’라는 용어는 1644년 이전의 역사를 명사(明史)의 시각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청사(淸史)의 시각에서 볼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시기구분과 관련하여 한 가지 사족(蛇足)을 덧붙이면, 청조사의 하한을

11 戴逸 主編(1980), 『簡明清史』, 人民出版社; 戴逸(1983), 「談淸史研究」, 『文史知識』 第3期.

12 한편 최근의 연구 중에는 清代前史의 범위를 1616~1649년(도르곤 사망)으로 설정한 견해도 제시되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청 태종 사후 실제 통치자는 도르곤이 없으므로 전통적으로 1644년 명의 멸망과 청의 입관을 기준으로 前史의 하한을 규정하는 시각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색다른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袁閻琨·蔣秀才(2004), 『清代前史』, 瀋陽出版社.

청조가 멸망하는 1911년으로 설정하는 데에 학계의 이견이 없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 학계에서는 1840년 아편전쟁까지를 청사의 연구범위로 삼고 그 이후는 근대사로 구분하여 다루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¹³ 이러한 상황이 1644년 이전의 역사를 본격적인 청조의 역사로 다루지 않고 명사의 범주로 이해하는 입장과 만나면 실제 청사연구의 대상은 1644~1840년(196년간)으로 국한된다. 지극히 왜곡된 형태의 청사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처럼 현재 중국 학계에서 청사는 실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이와 같은 청사 이해에도 한족 중심의 역사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중국사와 청사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이러한 중국 학계의 한족 중심적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역설적이지만 중국에서 시도하고 있는 일련의 역사 문제에 관한 ‘공정’이 우리의 시각을 교정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은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시선을 연구관점에 관한 문제에 집중시켜 보기로 하자. 앞에서 언급한 ①~③의 견해는 청조흥기사의 기점을 정권 혹은 국가의 성립과 그 성격변화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청조의 역사를 국가의 역사로 바라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청조사를 중국사의 범주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중국 국가사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1644년 입관 이전의 역사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이다. 청조가 중국 역사의 마지막 왕조였다는 것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하지만 청조가 만주족의 왕조였다는 점도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 점은 중국사에서 청조사가

13 李治亭(1995), 앞의 글.

가지고 있는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이다. 따라서 청조사를 이해하는 시각에는 중국 국가사로서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만주족의 관점, 나아가서는 그들이 활동하였던 북아시아라는 공간에서 펼쳐진 북방민족(비한족 혹은 유목민) 세계의 맥락에서 파악하는 관점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점은 입관 전의 역사를 이해할 때 특히 요구되는 관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①~③의 견해는 정권을 수립하기 이전에 여진(만주)족이 북방민족으로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성장·발전하였는지에 대한 관심을 청조사 체계 안으로 수렴하지 못한다. 여진(만주)족의 성장과 청조의 발전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북방민족적 요소는 한화의 대상으로 다루어질 뿐 그 자체로서 청조의 발전에 끼친 영향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는다. 여진(만주)족의 역사는 단지 국가 혹은 정권 성립의 배경으로서 다루어질 뿐, 북방민족사로서의 맥락을 청조 국가사와 직접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청조를 북방민족의 왕조라는 측면에서 주목하기보다는, 중국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있어 왔던 왕조 ‘교체’를 이룬 왕조의 하나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중국사에서 청조의 입관이 결과적으로 명조에서 청조로의 왕조 ‘교체’를 이루어낸 사건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러한 시각으로는 입관을 통해서 새로운 ‘정복’왕조가 출현하였다는 사실을 정당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입관을 단순하게 왕조 ‘교체’라고 이해하는 시각에서 보면, 누르하치가 정권을 수립하기 이전의 역사는 당연히 당시 중앙정권이었던 명조 역사의 일부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1583년에 있었던 누르하치의 기병은 자연스럽게 명조 내부에서 일어난 ‘반란’의 성격을 갖게 된다. 즉, 여진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누르하치가 ‘흥기’ 혹은 ‘기병’한 것이 아니라, 명조 치하에서 여진족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계속하여 일으킨 ‘민족반란’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청조 역사의 기점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는 청조사를 어떻게 규정하고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중국

사 체계 내에서 청조사에 어떠한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중국 학계에서는 당연히 청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파악한다. ‘청대사(清代史)’라는 용어에 반영되어 있는 의미를 천착해 보면, 중국사 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역대 왕조의 역사 가운데 ‘청대(清代)’의 역사라는 의미가 강하다. 1923년 처음으로 청조의 역사를 편찬한 샤오이산(蕭一山)이 청조의 역사는 ‘청대 중국의 역사’이지 ‘아이신 기오로씨의 왕조사’가 아니라는 관점¹⁴을 표방한 이래 중국 학계는 이와 같은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청조의 역사는 이민족인 만주족이 한족의 중국을 정복한 역사가 아니라, 중국에 속한 여진(만주)족이 정권을 수립하여 중국을 통치한 시기의 역사로서 다른 왕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근래 외국 학계, 특히 미국 학계에서는 청사가 ‘만주족 왕조의 역사’라는 점을 강조하는 시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른바 ‘New Qing History(新清史)’라는 관점이다. ‘신청사’의 시각은 유목적 전통을 가진 내륙 아시아(inner Asia) 지역이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면서 역사적으로 성장·발전해 왔다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신청사’는 이러한 맥락에서 만주족의 민족적 정체성을 강조하고, 이것이 청조 역사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처음부터 청조는 중국 왕조의 하나가 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주족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북방(내륙) 아시아의 유목적 전통을 계승하면서 여기에 농경민족인 한족의 농업국가적 전통을 접목한 새로운 성격의 국가였다.

물론 중국 학계에서는 이러한 ‘신청사’의 연구 시각을 받아들이고 있지

14 蕭一山(1923), 『清代通史』, 商務印書館.

않는 것 같다. 한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통일다민족국가’ 중국의 입장에서 북방 아시아를 무대로 유목적 전통 속에서 성장한 만주족이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에 기반하여 중국을 정복하고 통치하였음을 강조하는 ‘신청사’의 시각은 중국이 추구하는 이른바 ‘중화민족’의 이상과는 동떨어진 논리로 보일 것이다. 게다가 ‘신청사’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북방(내륙) 아시아의 유목적 전통을 강조한다는 것은 만주(동북)를 중국과는 이질적인, 즉 중국의 농경문화와는 구별 혹은 대립되는 북방의 유목문화에 뿌리를 둔 지역으로 이해함으로써 만주를 중국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것은 ‘신청사’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신청사’의 논리를 바라보는 중국의 우려라고 하는 편이 사실에 맞는 표현일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우려는 학술을 학술로만 다루지 않는 지금까지의 중국의 상황에 비춰 볼 때 얼마든지 가능한 추론이다. 일찍이 20세기 전반에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논리로 활용되었던 ‘만선사관(滿鮮史觀)’ 혹은 ‘만몽사관(滿蒙史觀)’이 이와 유사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면 중국의 이러한 우려도 이해가 된다.

여기서 잠시 미국 학계의 ‘신청사’ 시각과 일제시기 일본 학자들이 주장했던 ‘만선사관’ 혹은 ‘만몽사관’의 시각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해 두고 싶다. ‘만선사관’ 혹은 ‘만몽사관’은 몽골·만주·조선으로 이어지는 문화가 계통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성이 중국의 한족 문화와의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중국의 화북지역은 오히려 이러한 북방문화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이러한 논리를 활용하여 일본이 조선·만주를 넘어 몽골까지 지배해야 한다는 역사적 근거로 삼았고, 이를 바탕으로 괴뢰 만주국을 건국하고 일본·조선·만주·몽골·중국(한족)이 조화를 이루며 공영해야 한다는 오죽협

화(五族協和)의 논리를 만들어 내고 자신들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정치적 논리를 제거하고 순수한 학문적 논리만을 놓고 보면, 사실 몽골·만주·조선의 문화적 계통적 유사성과 중국 한족 문화와의 차이점을 언급한 논리는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신청사’가 내륙아시아 역사의 독자성과 한족 문화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여기에 뿌리를 둔 만주족의 창조가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중국을 정복하고 통치하였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논리는 ‘만선사관’ 혹은 ‘만몽사관’에서 강조했던 논리와 매우 유사해 보인다.

그런데 우리 학계에서는 최근 이러한 미국 학계의 ‘신청사’ 논리를 매우 신선한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의 하나로서 더욱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이 만주·몽골이 역사적으로 중국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논리이기 때문에 ‘신청사’의 논리는 분명히 중국과 만주·몽골의 문화적 차이를 부각시키는 데 유용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비슷한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선사관’·‘만몽사관’은 일제가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식민사관이기 때문에 그 학문적 논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없이 그 용어의 사용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담겨 있는 학술적 논리를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되어 있는 것이 현재 우리 학계의 현실이다. 그러면서도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신청사’의 시각은 역사해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신선한 논리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어떠한 정치적 논리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할 역사학이, 이것이 식민사관을 비판하는 가장 핵심적인 논리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식민사관 비판이라는 또 하나의 정치적 도그마를 설정해 놓고 스스로를 속박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만선사관’·‘만몽사관’에서 강조하였던 논리에서는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 논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미국 학계의 ‘신청사’에서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사실 미국 학계의 ‘신청사’ 논리도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만선사관’·‘만몽사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전후 일본 학계의 만주 연구의 성과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만선사관’·‘만몽사관’을 식민사관이라고 비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과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도 왜곡이지만,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현실을 합리화하고, 더 나아가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는 정치적 논리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그 식민통치를 합리화하는 정치논리를 걷어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학문적 논리를 재평가해 볼 여지는 없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이유이다.

만주는 우리 스스로 역사적으로 우리 조상의 활동무대였다고 생각하는 공간이고, 이 공간에서 우리는 수백·수천 년간 숙신·읍루·말갈·여진(모두 만주족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다) 등으로 불리던 민족과 어울려 살아왔다. 그럼에도 우리 학계는 아직도 그 공간과 거기에서 삶을 영위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 낸 문화에 대한 우리 나름의 독자적 시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비판받아 마땅한 현실이 아닌가. 이것이 식민사관에 대한 비판이 하나의 정치적 도그마가 되었다고 비판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고, 이것은 지금까지 한족 중심적인 시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였던 우리 학계의 중국사 인식체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중국 학계에서도 외국 학계의 동향을 고려하며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중국사를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청사에 관한 예를 들어보면, 상인성[向陰生]·뤄샤오둥[羅曉東]은 청사를 전체 중화문명의 역사적 흐름에서 파악함과 동시에 세계 역사의 변화과정에 놓고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들에 따르면, 청사를 세계사의 흐름에 놓고 보면,

청조는 봉건전제제도를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강화하였고, 객관적으로 중국 역사발전의 과정을 늦추어 결국 중국을 세계사적인 흐름의 대세에서 낙후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청사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는 배경에는 중국 사회의 발전이 정체된 책임을 만주족의 집권으로 돌리고, 만약 한족이 계속 정권을 담당하였다면 중국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였을 것이라는 한족 우월주의가 버티고 있는 것 같다. 18세기 이른바 ‘강옹건성세(康雍乾盛世)’는 의심할 바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청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논리의 근거는, ‘강옹건성세’로 인하여 중국은 결과적으로 발전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결국 청대 후기에 일찍이 없었던 치욕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내몰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역사상 공전의 번영이 결국 유감의 시대를 만들어 낸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논리이다.¹⁵ 여기에는 만주족 정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지나치게 작위적인 시도가 엿보인다.

물론 중국 학계가 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다. 그것은 청조가 중국의 ‘대일통(大一統)’에 공헌하였다는 점이다. 그것은 현재 중국이 표방하고 있는 ‘통일다민족국가’의 성격을 확정한 때가 청조 시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을 만주족 정권의 특별한 공헌으로 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중국 역사는 이미 고대부터 한족의 우수한 문화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주변의 여러 민족이 우수한 한족 문화에 흡수·동화되는 한화(漢化)를 통해서 다민족성의 전통을 만들어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다양한 주변 민족의 문화에 대한 포용성과 이를 동화·융합할 수 있는 역량이 한족 문화의 중요한 특징으로 꼽힌다. 그러므로 청조의 ‘통일다민족국가’로서의

15 向陰生·羅曉東(2005), 「試論清史的基本特徵」, 『貴州社會科學』第3期.

성격은 만주족이 이룩한 특별한 성과가 아니라, 만주족이 입관함으로써 필연적으로 나타난 역사적인 결과인 셈이다. 다시 말해서, 만주족의 입관은 만주족의 한화를 전제로 한 것이고, 입관 이후의 역사는 한화된 만주족을 통해 중국의 영역이 확대된 역사로 이해되는 것이다.

III. 중국 학계 선행연구의 주요 논쟁

이제 중국 학계의 청사에 대한 선행연구가 주로 어떠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선행연구의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청사공정’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국문사망’에 전재 혹은 게재되어 있는 연구 성과가 학계의 연구경향과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중국 학계의 청사연구 전체를 놓고 보면 수많은 논쟁이 있어 왔지만, 청조흥기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논쟁을 정리하면 다음의 네 가지를 꼽을 수 있다.

- ① ‘만주(滿洲)’의 명칭 문제
- ② 만주족 사회의 성격 문제
- ③ 명청전쟁의 성격과 입관(入關)의 역사적 의미
- ④ 민족정책에 대한 평가

그 각각의 논쟁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 ‘만주’의 명칭 문제

‘만주’라는 명칭의 정확한 유래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칭조 스스로는 입관 이전에 누르하치가 여진부족을 통합함으로써 세운 나라의 이름(國號)이자, 후에는 민족명으로도 사용하였던 명칭으로 인식하였고, 일본 학자들은 대체로 지명으로, 중국의 경학자(經學者)들은 민족의 명칭으로 이해하였다. 명선 [孟森]은 ‘滿洲’는 원래 ‘滿住’라고 썼는데, 당시 최고 추장을 일컫는 칭호라고 보았고, 세귀진(謝國楨)은 불교와 관련 있는 용어라고 보고 불교의 ‘만수(曼殊)’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였다. 정텐팅(鄭天挺)은 ‘만주’가 지명 혹은 국명이라는 설을 비판하고 부족의 명칭으로 이해하였다. 왕중환(王鐘翰)은 여진(女眞)이라는 명칭은 ‘제신(諸申)’에서 유래한 것으로 제신과 여진은 음(音)이 같고, 원래 일부 여진인을 지칭하는 민족의 명칭으로 사용된 것인데, 여진인에 대한 한인의 반감을 완화하기 위해 민족의 명칭을 ‘만주’로 바꾼 것이라고 하였다.¹⁶ 이와 같이 ‘만주’라는 명칭의 유래와 의미 변천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만주’를 민족의 명칭으로 이해하고 있고, 공식적으로는 ‘만족(滿族)’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대체로 ‘만주’를 민족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후술하겠지만, 이때의 ‘만주’는 단순히 ‘여진’이라는 명칭을 변경하여 칭하는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민족 명칭을 ‘만주’라고 변경하였던 당시에는 이미 후금(淸)이라는 국가를 구성하는 민족이 다양해졌다. 여기에는 여진은 물론이고, 몽골과 요동 지역의 한인, 거기에 소수의 조선인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중국 학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16 鈔曉鴻·鄭振滿(2003), 앞의 글.

‘만주’라는 민족 명칭은 여진을 주체로 하여 성립한 정권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민족공동체에 부여된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 점이 ‘청사공정’의 결과로 나오게 될 ‘청사’의 ‘청조흥기사’ 서술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만주족 사회의 성격 문제

만주족 사회의 성격 문제는 1950~1970년대에 걸쳐 추진된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며 전개된 중국 학계 청사연구의 주된 논쟁점 중 하나였다. 만주족 사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관 이전 여진 사회가 어떠한 발전단계에 놓여 있었는가, 또 어떻게 원시사회에서 발전하였는가, 노예제 사회를 거쳤는가, 봉건제는 어느 시기에 확립되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논쟁의 초점은 만주족 사회가 노예제 단계를 거쳤는가의 여부로 모아지고,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대별된다.

- ① 노예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원시사회에서 봉건사회로 바로 진입하였다는 견해
- ② 원시사회에서 노예사회를 거쳐 봉건사회로 발전하였다는 견해

①의 입장에 있는 학자는 상위에[尙鉞],¹⁷ 모동인[莫東寅],¹⁸ 장웨이화[張維華]¹⁹ 등이다. 이들은 누르하치 시기에는 아직 가장노역제(家長奴役制) 단

17 尙鉞(1995), 「清代前期中國社會之停滯·變化和發展」, 『教學與研究』 第6·7期.

18 莫東寅(1958), 「明末建州女真的發展及其建國」, 『滿族史論叢』, 人民出版社.

19 張維華(1954), 「滿族未統治中國前的社會形態」, 『文史哲』 第10期.

계 혹은 가족족장제(家族族長制)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홍타이지 시기에 이르러 전제적인 중앙집권적 봉건사회로 진입하였다고 본다.

②는 다수의 학자들이 지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봉건사회로 진입한 시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 먼저 리순[李洵]²⁰은 건주여진이 15·16세기에 이미 전기봉건제 단계로 진입하였고, 입관 전까지 약 200년간 전기봉건제에서 발달된 봉건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보았다. 옌충넨[閻崇年]²¹은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노예사회에서 봉건사회로의 전환을 완성하였다고 보았고, 정텐팅²²은 후금 정권을 수립한 시기에도 여진 사회는 아직 노예제 단계에 있었고 누르하치 후기에서 홍타이지 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봉건제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하였다. 왕중헌²³은 요심(遼瀋)지역에 진입한 후 ‘계구수전(計口授田)’을 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노예제에서 봉건제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홍타이지 시기에 이르러 봉건제가 최종적으로 확립되었다고 하였다. 저우위안렌[周遠廉]²⁴은 1580년대 이전은 아직 원시사회 말기에 해당하며, 1587년 무렵 노예제 사회로 진입하였고, 요심지역에 진입하면서 봉건제로의 진입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리홍빈[李鴻彬]²⁵

20 李洵(1978), 「公元15世紀到17世紀中葉建州女真社會問題性質的探討」, 『吉林師大學報』第4期.

21 閻崇年(1984), 「清入關前滿洲的社會經濟形態」, 『社會科學輯刊』第4期.

22 鄭天挺(1962), 「清入關前滿族的社會性質」, 『歷史研究』第6期; 鄭天挺(1979), 「清入關前滿族的社會性質續探」, 『南開學報』第4期.

23 王鐘翰(1963a), 「滿族在奴爾哈赤時代的社會經濟形態」; 王鐘翰(1963b), 「皇太極時代滿族向封建制的過渡」, 『清史雜考』.

24 周遠廉(1979a), 「從“諸申”身分的變化看入關前滿族的社會性質」, 『社會科學輯刊』第1期; 周遠廉(1979b), 「關於滿族從奴隸制向封建制過渡問題」, 『社會科學輯刊』第4期.

은 노예제의 특징으로 가내종족노예제(家內種族奴隸制)를 지적하고 진정한 봉건화는 강희 초기에 비로소 완성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견해들을 살펴보면, 각각의 주장이 봉건제의 시작과 완성을 엄밀하게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고, 또 그 강조하는 내용이 후금 정권의 수립, 요심지역으로의 진출, 홍타이지의 중앙집권화 등으로 구별되지만, 리홍빈의 견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입관 이전에 만주족 사회가 봉건제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리고 논쟁의 내용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만주족 사회의 성격 논쟁은 주로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제기된 문제로, 여전히 유물사관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당시 중국 학계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논쟁은 입관 이전 만주족 사회의 발전 수준을 가늠해 보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청사공정’의 서술방향과는 다소 동떨어진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논쟁이 ‘청사’ 서술에 반영된다면, 아마도 논쟁의 초점이 되었던 노예제 단계를 거쳤는지의 여부, 그리고 봉건제 단계로 진입한 시기 등의 문제보다는 후금정권 수립을 가능하게 했던 당시 여진 사회의 발전 수준을 가늠하는 정도로 서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3. 명청전쟁의 성격과 입관의 역사적 의미

입관 전까지의 명과 후금(청)의 전쟁, 그리고 입관 후 전개된 청의 정복전쟁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의 문제는 입관 전 명조와 청조의 관계 및 청조

25 李鴻彬(1979), 「清入關前滿族的社會性質」, 『社會科學輯刊』第2期.

의 역사적 지위를 규정하는 문제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입관 이전의 역사에 대한 평가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청조흥기사’를 이해하는 관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몇 가지 서로 다른 평가가 존재한다.

- ① 전국 통치권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이었지, 민족전쟁도 민족정복전쟁도 아니었다는 견해²⁶
- ② 중앙정부와 지방 반란정부 간의 전쟁이었다고 평가하는 견해²⁷
- ③ 새로운 통일다민족국가 형성과 발전을 위한 역사적인 길을 개척한 전쟁이었다는 견해²⁸
- ④ 민족정복전쟁이었다는 견해²⁹

①과 ②는 명청전쟁을 통치권을 둘러싸고 전개된 내전이었다고 보는 입장이고, ③과 ④는 서로 다른 민족 간에 벌어진 정복전쟁이었다는 입장에서 있다. 그리고 후자의 두 경우에서 ③은 전쟁의 결과 중국이 통일다민족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의의를 강조한 반면, ④는 만주족이 한족을 정복하였다는 전쟁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③과 같은 입장은 명청전쟁을 통해서 결국 ‘통일’정권이 재건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명청전쟁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³⁰인 반면, 리순은 청조가 정권을 탈취함으로써 봉건사회

26 孫文良(2005), 『明清戰爭史略』, 江蘇教育出版社.

27 張玉興(1981), 「關於薩爾滸戰役性質的商榷」, 『北大學報』第4期.

28 劉建新(1986), 「論明清之際的松錦決戰」, 『清史研究集』第4輯.

29 薛虹(1984), 「中國古代史上的民族關係和堅持民族原則問題」, 『史學集刊』第4期.

30 王思治(1985), 「明清之際的歷史應置于世界範圍來考察」, 『史學集刊』第3期; 孫文良·張杰(2005), 『1644年 中國社會大震蕩』, 遼寧大學出版社.

의 해체가 백 년 이상 늦춰졌다고 비판하면서 명청전쟁과 청의 입관, 그리고 청에 의한 ‘통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³¹ 여기에는 만주족이 통일하지 않았다면, 바꾸어 말하면, 한족 정권이 계속 유지되었다면 이후 중국 역사에서 봉건제는 더 일찍 변화에 직면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잠재되어 있다. 역시 만주족 정권을 부정적으로 보려는 작위적인 역사인식이라고 생각된다.

4. 민족정책에 대한 평가

청조는 중국 역사에서 통일다민족국가의 성격을 완성한 왕조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청조의 민족정책은 통일다민족국가의 형성과정과 그것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중요한 문제이자, ‘청조흥기사’의 역사적 의의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청조가 흥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민족정책에 대한 중국 학계의 평가는 시대에 따라 주도적인 견해가 크게 달랐다. 이는 학문이 정치논리에 따라 좌우되는 중국의 현실 때문이었다. 1950년대 이전까지 중국 학계에서는 청조의 민족·종교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 여기에는 ‘반만(反滿)’을 기치로 내걸었던 1911년 신해혁명을 계기로 만주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1932년 일제가 수립한 괴뢰 만주국도 영향을 미쳤다. 1950~1960년대에는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민족대단결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한족 중심의 인식이 강하였기 때문에 한족의 반청운동을 탄압하였던 청조 민족정책의 어두운 측면을 부각시키려는 경향이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회주의 정권의 특성상 농민전쟁사가 주

31 李洵(1985), 「40天興一百年」, 『史學集刊』 第1期.

목받으면서 소수민족의 기의(起義) 및 그 계급성과 민족성 등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고, 역사적으로 소수민족에 가해졌던 모멸과 비하 등의 문제를 시정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1980년대 이후에는 개혁·개방의 성과로 고도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대국을 지향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한족과 중국 내 소수민족과의 갈등을 희석하는 민족정책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가 ‘중화민족’이라는 새로운 민족의 창출이다. 현재 중국에서 민족대단결을 표방하면서 사용하는 민족이라는 개념은, 중국 내 56개의 민족이 곧 하나의 민족이라고 주장하는 ‘중화민족’의 개념이다. 실재하지 않는 민족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근대 ‘nation state’의 기반이 되는 ‘민족’ 혹은 ‘국민’ 만들기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현재적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1980년대 이후부터 청조의 민족·종교 정책에 대해서 ‘중화민족’의 단결을 강화하고 소수민족 지역의 사회발전을 촉진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만주족의 형성도 단순히 여진족이 스스로 그 명칭을 바꾼 것이 아니라, 여진족을 중심으로 요동의 한족과 몽골을 포괄하는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명칭으로 정의하여 ‘만족공동체(滿族共同體)’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만주족은 일반적으로 ‘만족(滿族)’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만족’의 정의는 ‘청대 기인(旗人)의 후예’이다. ‘기인’이란 팔기(八旗)에 속한 사람들이다. 여기에는 팔기만주(八旗滿洲), 팔기몽고(八旗蒙古), 팔기한군(八旗漢軍)이라는 혈통상의 구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인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중국에서 ‘만족’이라고 불리는 만주족은 혈통상으로는 만주족·몽골족·한족을 아우르는 민족 개념이다. 과거 청조를 세운 만주족을 단순히 여진족의 후신이라고 보지 않고, 몽골인과 한인을 포괄하는 ‘만족공동체’라는 개념으

로 정의한 논리에서 현재 중국이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 학계 역시 대체로 ‘중화민족’의 개념을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근래 중국 학계의 청조 민족정책에 대한 연구경향은 한족 문화와 만주족 문화의 융합을 강조하고 있다. 왕중한은 청 전기에 만족의 정치와 사상·문화가 한족 문화와 점차적으로 융합되어 갔음을 고찰하고, 청대 문화는 만한(滿漢) 문화의 화합물이며 중화문화의 유기적인 일부분임을 강조하고 있다.³² 귀청강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사는 만족 문화를 통해서 한족 문화를 새롭게 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였다.³³

IV. ‘청사’의 ‘청조흥기사’ 서술방향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사공정’의 결과물로 편찬될 ‘청사’의 ‘청조흥기사’ 부분의 서술방향을 미리 가늠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중국 ‘국가청사편찬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화문사망’의 ‘전청사연구(前清史研究)’ 항목을 살펴보는 것이다. 여기에 전채 혹은 게재되어 있는 청사 연구성과들은 중국 학계의 수많은 연구 중에서 ‘청사’ 편찬의 주체인 ‘국가청사편찬위원회’가 선택한 것이다. 당연히 ‘청사’ 편찬의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직접적인 목적인 ‘청조흥기사’ 서술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좋은 분석대상이라고 하겠다.

32 王鐘翰(1995), 「清軍入關與滿族的政治思想文化」, 『社會科學輯刊』 第1期.

33 郭成康(2000), 「也談滿族漢化」, 『清史研究』 第2期.

‘중화문사망’에서 ‘청조흥기사’에 해당하는 연구성과를 모아 놓은 항목이 ‘전청사연구’이다. 여기에 전제 혹은 게재된 36편의 논문을 살펴보면, 대체로 입관 이전 정치관계의 변화 및 사회 안정과 통합을 위한 민족정책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선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 그 주요 연구들의 내용을 간단히 검토해 보기로 하자.

먼저 세칭린(謝承仁)의 「명조후기 만한 두 민족 통치계급 간의 투쟁[明朝後期滿漢兩族統治階級之間的鬭爭]」은 명청전쟁이 만·한 양족의 통치계급 사이의 이해충돌로 인해 발생한 전쟁이지, 두 민족 사이의 모순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즉, 만주족이든 한족이든 간에 통치계급은 농민기에 부정적이었고 모두 잔혹하게 진압하였다고 비판한다. 이 논문은 1997년에 발표된 논문이지만 여전히 계급투쟁사관의 시각에서 명청전쟁을 바라보고 있다.

쉬카이(徐凱)와 장팅(張婷)의 공동연구인 「만주 본부족의 구성과 팔기좌령의 분포[滿洲本部族構成與八旗佐領分布]」는 『팔기만주씨족통보(八旗滿洲氏族通譜)』의 분석을 통해 ‘만주민족공동체(滿洲民族共同體)’는 만주인, 몽골인, 고려인, 한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만주민족공동체’에 흡수된 여러 민족은 급속한 만주화(滿洲化)와 더불어 한화(漢化)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입관 이후 중원의 전통문화를 접하면서 한화가 가속화되었다고 본다. 또한 정치체제의 유교화가 진행되면서 만주 문화와 한족 문화의 융합현상도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주청루(朱誠如)의 「청전기 관내외 인구유동과 그 영향[清前期關內外人口流動及其影響]」은 입관 전 요동에서의 만한관계, 특히 누르하치 시기 만한잡거정책(滿漢雜居政策)은 만·한 민족 간 상호 침투와 이해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여 두 민족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았다. 심

지어 그는 요동지역에서 이와 같은 만한공처(滿漢共處)의 국면이 없었다면 청 왕조가 전국을 통일하는 승리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누르하치의 만한잡거정책은 부작용이 매우 심해서 만주족과 한족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작용을 하였다는 점은 일찍이 지적된 바이다. 하지만 주청루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는 만주족이 한족 문화를 이해하게 되고 ‘만한일체’가 진전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입관하여 통일을 달성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여기에도 만주족의 중국 지배는 한화(漢化)의 결과라는 한족 중심적 사관이 내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야오넨츠(姚念慈)의 「팔기몽고와 팔기한군의 건립에 대한 약론[略論八旗蒙古和八旗漢軍的建立]」은 팔기만주, 팔기몽고, 팔기한군은 팔기제를 민족별로 분리하여 편성한 것이 아니라 팔기의 각 기주(旗主)에 속해 있는 만주, 몽골, 한군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들은 동등한 자격으로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구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주청루의 또 다른 논문인 「만족공동체의 형성과 민족융합문제 연구[滿族共同體的形成與民族融合問題研究]」도 ‘만족공동체(滿族共同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것이 여진 혹은 건주여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형성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앞의 야오넨츠 논문과 마찬가지로, 여진(만주), 몽골, 한인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이것은 누르하치가 여진을 통일한 시기부터 이미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었다고 본다.

역시 주청루의 「명대여진과 중앙왕조의 관계를 논함[論明代女眞與中央王朝的關係]」에서는 여진이 줄곧 명조 중앙정부의 통치를 받고 있던 소수민족이었으며, 여진의 각 위(衛)는 명조 중앙정부의 통치하에 있던 지방의 군정(軍政)기구였다고 이해한다. 그리고는 한족과 여진 각 부(部)의 인민들은 통일된 조국의 대가정에서 함께 조국의 변강을 개발하기 위하여 피와 땀을 흘

렸고, 한족과 만주족 인민들은 두 민족 통치자의 압박 아래에서도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중화민족’의 번영과 창성을 촉진하였다고 평가한다. 이 논문은 명대에도 한족과 만주족은 한 나라의 인민으로 삶을 영위한 ‘중화민족’의 일원이었다는 논리로, 계급사관의 입장에서 ‘중화민족’을 합리화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정텐팅(鄭天挺)의 「《청태조무황제실록》으로 본 만족의 족원[從《清太祖武皇帝實錄》看滿族族源]」은 일찍이 명대에도 만족의 씨족(氏族)에는 항상 외족(外族)의 이입(移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만주족이 가진 다민족성의 기원을 더 높이 올려 잡으려고 시도하였다. 이것은 ‘중화민족’의 형성도 그 연원을 더 소급할 수 있다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리즈팅(李治亭)과 왕구이핑(王桂平)의 공동연구인 「누르하치와 흥타이지가 명조를 멸함[努爾哈赤與皇太極亡明辨]」은 명이 농민반란의 와중에서 이자성 농민반란에 의해 멸망하였다는 주장을 비판하며, 명 멸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누르하치의 기병과 요동 점령을 통해서 진행된 청조 발전과 그 연장선상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은, 명이 농민반란에 의해 멸망하였다고 보는 주장은 청조의 입관이 명조 멸망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조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졌다는 전통적인 청조의 입장을 반영하는 역사인식이라고 본다. 그리고 청조가 이러한 주장을 펼친 이유는 여진이 명조에 신속(臣屬)되어 있던 과거 역사를 부정하고 청에 의한 천하통일이 도덕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있다.

스거신(史革新)의 「입관전 청조의 한문화 흡수에 대한 약론[略論清朝入關前對於漢文化的吸收]」은 청이 명을 대신하여 중국을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었던 배경은 입관 전부터 한 문화를 흡수하였기 때문이라는 전형적인 한화론

(漢化論)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디용권[邱永君]의 「만족 형성의 맥락과 역사작용에 대하여[關於滿族形成的脈絡與歷史作用]」도 만족은 조국의 민족 대가정의 구성원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발전과정에서 만족과 한족의 두 민족을 융합하여 하나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만족의 정복이 결과적으로 민족의 융합, 특히 한화에 기여한 사실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역시 전형적인 한화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탕다이자[湯代佳]의 「누르하치 시기 코르친부와 만주의 관계[努爾哈赤時期科爾沁部與滿洲的關係]」는 만주와 몽골 코르친부의 관계를 검토하고, 만주와 몽골 코르친부의 관계가 군사충돌의 단계, 혼인관계를 맺고 조공하는 단계, 귀순하여 결맹하는 단계를 거쳐 우호관계로 발전하였다는 사실을 논증하였다. 누르하치 시기의 만주는 이처럼 몽골 코르친부와 우호관계를 맺음으로써 후환을 제거하고 몽골 차하르부의 름단 한 및 명조와의 대결에 전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만주와 몽골 코르친부의 우호관계는 청조가 통일다민족국가를 형성하는 데 중대한 공헌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중화민족’의 번영과 창성에 유리한 작용을 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만주와 몽골의 관계를 역시 ‘중화민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견해이다.

장위싱[張玉興]의 「청병 입관의 문화적 배경을 논함[論清兵入關的文化背景]」은 청군이 입관할 때에 명조의 신민(臣民)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그 이유를 청이 입관하기 전에 이미 유교문화를 흡수하여 문화적인 준비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청조가 입관에 성공한 진정한 요인을 팔기의 군사력에서 찾기보다는 일찍이 입관 전부터 유교문화를 흡수하여 한 문화에 동화된 문화적 역량 때문이었다고 평가한다. 이 논문 역시 만주족이 중국을 정복하고 오랜 동안 성공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

던 요인을 한화의 결과라고 평가하는 전형적인 한화론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중화문사망’ 게재 논문의 논리를 정리해 보면, 대체로 ‘한화론’과 ‘만족공동체론’으로 대별된다고 하겠다. ‘한화론’은 입관 이전에 이미 만주족과 한족 사이에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문화융합의 과정을 거쳤고, 그 내용은 주로 만주족의 한화 경향으로 진전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입관 전에 진행된 한화가 입관 후 만주족의 성공적인 통치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이다. ‘만족공동체론’은 입관 전부터 만주족의 군사적 정복을 통해서 만주·몽골·한족을 위시한 여러 부족·종족·민족이 하나의 정치체제 아래에서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1636년 홍타이지에 의해서 결정된 여진민족 명칭의 변경은 단순히 여진민족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당시 후금의 정치체제 아래에서 공존하고 있던 여러 민족을 포괄하는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형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논리이다. 물론 이 민족공동체 안에서는 여러 민족의 만주화와 더불어 한화가 동시에 진행되었고, 결국에는 한화의 방향으로 진전되었다는 논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청사공정’에서 추진하는 ‘청사’의 ‘청조홍기사’ 부분은 누르하치의 기병에서 청조의 입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만주공동체’의 형성과정과 ‘한화’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 중국이 ‘통일다민족국가’의 미래상으로 지향하고 있는 ‘중화민족’ 창출의 의도와도 부합하는 논리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편찬될 ‘청사’의 ‘청조홍기사’ 서술방향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만족공동체론’은 일찍이 왕중한이 제시했던 견해를 계승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래에 들어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최신의 연구를 좀 더 소개하면, 저우시펑[周喜峰]의 『청조전기 흑룡강민족 연구[清朝前期黑龍江民族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는 명말 후금 정권

성립시기부터 건륭 말기에 이르기까지 흑룡강 지역 민족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 내용 중 ‘청조홍기사’와 관련된 부분은 흑룡강 지역의 민족과 후금(청) 정권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 흑룡강 각 민족이 만족의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활발하게 만족사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장제(張杰)의 『만족요론(滿族要論)』(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7)은 만족의 원류와 건주삼위(建州三衛) 홍기의 상징적 인물인 이만주(李滿住), 1644년 만족 입관과 승리의 원인, 만몽 혼인정책이 만족 홍기와 청조의 통일다민족국가 발전에 끼친 영향, ‘신만주(新滿洲)’의 형성과정, 과거(科擧)가 만족의 한화에 끼친 영향, ‘국어기사(國語騎射)’가 만족공동체 형성과 팔기 무력의 흥쇠에 끼친 영향, 동북 만족 문화의 발전과 청대 동북 문화의 만족화 추세, 그리고 만족의 풍속과 문화 등 여러 방면에 걸친 연구를 수록하고 있다. 그도 특히 새로운 만족의 형성, 즉, ‘만족공동체’의 형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맺음말

이상에서 현재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사공정’의 입관전사 서술과 관련하여 중국 학계의 ‘청조홍기사’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입관 전 청조의 역사에 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고, 또한 이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도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본고에서 ‘청조홍기사’의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작업은 선행의 연구사 검토를 활용하였고, ‘청사공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청사편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 ‘중화문사망’에 올라 있는 연구를 중심으로 ‘청사’의 ‘청조홍기사’ 부분의 서술방향을 가늠해 보았다.

역시 예상한 바와 같이, ‘중화문사망’에 전재되어 있는 연구들은 기존 연구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연구를 망라하는 형태는 아니었다. 오히려 학계의 오랜 논쟁의 초점이었던 만주의 명칭 문제, 만주족 사회의 성격 문제, 명청전쟁의 성격 문제 등을 다룬 논문은 거의 없었고, 청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시기구분의 문제도 관심 밖에 놓여 있었다. ‘청사공정’의 ‘청조흥기사’ 서술과 관련하여 관심을 끌고 있는 부분은 역시 민족 문제였다. ‘중화문사망’ ‘전청사연구’ 항목에 전재 혹은 게재된 논문의 대부분은 입관 전의 역사를 새로운 ‘만주공동체’의 형성과정이자 한화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연구였다. 이것은 중국 학계의 일반적인 연구성과 중 한 분야에 지나지 않는다. 본 연구의 II·III장에서 장황하게 청사의 시기구분 문제와 선행연구의 논쟁점을 서술한 것은 ‘청사공정’이 추구하는 서술방향이 중국 학계의 연구성과를 망라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일부의 한정된 논리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청사’는 중국 전통의 ‘정사’의 형식으로 편찬되는 것이므로 학계의 연구성과를 망라하거나 혹은 학계의 새로운 관점을 반영하는 작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보면 ‘청사’ 서술은 아마도 사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는 형태의 역사편찬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중국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청사’를 ‘정사’의 형태로 편찬한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이 사업을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사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역사 사실을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중국 정부가 지향하는 중국의 미래상이 담겨 있을 것이다. ‘중화문사망’에 전재되어 있는 ‘청조흥기사’ 관련 연구는 다른 무엇보다도 새로운 민족공동체로서 ‘만주공동체’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민족 개념은 현재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중화민족’의 창출과 매우 유사한 개념이다. 이로써 중국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청사’를 편찬하려는 의도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중국의 ‘강건성세’ 열풍과 청사연구

차혜원 | 연세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 I. 머리말
- II. ‘강건성세’ 인식의 전통과 현재
- III. 청사공정 주도층의 역사인식과 활동
- IV. ‘성세’공세에 대한 비판적 움직임
- V. 맺음말

I. 머리말

‘강건성세(康乾盛世)’란 말은 청사공정 기획이 태동하던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핵심어가 되어 왔다. ‘강건성세’의 역사적 의미를 역설하는 정치권과 학계 관련자들의 언설이 책과 잡지·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대규모 청사 재편수 작업의 착수를 발표했다. 청사공정을 주도하는 인민대학 청사연구소는 이 흐름의 가장 중심에 있었다. 청사공정 부주임인 청사연구소 출신 귀칭강(郭成康) 교수가 “강건성세는 청사의 대문을 여는 열쇠이며 중국의 오늘과 내일을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단적으로 표현한 바와 같이 강건성세 역사상에 대한 관심은 청사공정 출범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¹

강건성세란 중국의 마지막 왕조인 청조의 강희(康熙)·옹정(雍正)·건륭(乾隆) 황제 통치기를 가리키며 17세기 말에서 18세기에 걸친 130여 년간에 해당된다. 사실 중국 전통시대의 긴 역사에는 후대 사람들이 ‘성세’라고 부르는 몇 개의 특정 시기들이 있다. 역사상 가장 이른 것으로 한대(漢代)의 문제(文帝)와 경제(京帝) 통치시기를 일컫는 ‘문경지치(文景之治, 기원전 180~기원 후 141)’가 손꼽힌다. 이 시기는 한나라 건국 초기의 피폐한 민생을 회복시킨 평화와 안정의 성세로 평가된다. 뒤이은 당나라 태종(太宗) 치세의 ‘정관지치(貞觀之治, 626~649)’와 현종(玄宗)연간의 ‘개원지치(開元之治, 713~734)’는 중국이 세계제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획기적인 문화 발전과 번성을 이룬 시대라는 명성을 얻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전성기를 구사하던 부강하고 안정된 ‘태평성세’의 기억은

1 郭成康等(2002), 『康乾盛世歷史報告』, 中國言實出版社.

좋았던 옛날에 대한 향수와 함께 적당한 윤색을 거치면서 민중의 관심을 모아 왔다. 그러나 이런 성세의 기억이 현재 강건성세 인식과 같이 현실에서도 여전히 유용한 거울로 사회적 주목을 받은 일은 없었다. 강건성세 열풍은 청사공정과 함께 두드러지기 시작했고 결국 중국 정부의 정치적 목적의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지금까지 누차 지적된 바와 같이 청사공정은 전 왕조의 역사를 정통성을 지닌 후대 정권이 찬수한다는 ‘역대수사(易代修史)’의 전통을 잇는다는 목표와 아울러 성세의 시기에 역사를 편찬한다는 ‘성세수사(盛世修史)’를 통해 현재 중국의 번영상을 내외에 공표하려는 목적의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² 그리고 여기에는 개혁·개방화 정책 이후 부유하고 강력한 대국 건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를 확대·지속시키려는 정계와 일부 학계의 노력이 두드러졌다. “청사찬수공정은 현재 중국이 청대 강희·옹정·건륭제의 치세와 비견할 수 있는 성세를 창조해 가고 있다는 성세의식과 대국화에 대한 자신감이 결합됨으로써 가능했다”는 해석은 정곡을 찌르는 지적이라고 본다.³

이 글에서는 먼저 청사공정의 출범을 전후하여 중국의 정계와 학계에서

-
- 2 김형중·유장근·정혜중 공저(2008), 『중국의 청사공정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이보다 앞서 『역사비평』 82호(2008년 봄)에서는 「역사工程」을 통해 본 중국의 21세기 기획이라는 제명하에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전인갑, 「현대 중국의 지식 구조 변동과 ‘역사工程」; 박양진, 「중국 역사工程의 비판적 검토-하상주단대工程과 중화문명탐원工程을 중심으로」; 허혜윤, 「清史工程의 배경과 현황-국가清史편찬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다」. 한편 중국에서의 청사공정 출범과 정과 주요 편찬진들의 입장은 다음에서 잘 드러난다. 周溯源·李孝純(2003), 「盛世修史 傳承文明-訪『清史』編纂委員會主任, 歷史學家戴逸教授」, 『求是』第11期; 戴逸(2003), 「編纂清史的緣起與編纂初想」, 『社會科學戰線』第2期.

- 3 전인갑(2008), 앞의 글.

강건성세와 관련된 역사인식 문제가 왜,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확산되었는지, 과정과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또한 최근 중국에서 출간된 강건성세 관련 논고들을 조사·분석함으로써 향후 청사공정에서 완성될 결과물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역사학계를 넘어 중국 지식인 사회와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폭넓게 번진 강건성세 역사인식과 관련된 사회적 동향을 폭넓게 검토한다. 이를 통해 청사공정의 출발점인 성세의식이 역사적 실체로서의 ‘성세’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중국의 자국사 이해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검토할 범위는 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중화문사망’에 실린 성세 관련 학술논문을 비롯해서 일반 학술지와 텔레비전·잡지 등의 대중매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현재 성세 관련 논고들은 역사학뿐만 아니라 문학·사회과학 등 여러 장르에서 발표되고 있지만 ‘중화문사망’에는 이런 움직임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청사연구소 측은 청사공정이 태동하기 훨씬 이전부터 강건성세를 주요 연구주제로 착안, 지금까지 활발한 연구활동을 벌여 왔다. 이것은 청사연구소 자체가 바로 청사편수를 위한 국가 창설기관으로 출범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런 전통과 현재 사회 전체에 확산된 관심의 정도와 비교할 때, 중화문사망에 실린 성세 관련 논고의 숫자나 비중은 미미한 편이다. 이것은 강건성세 역사인식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사정과 비교해서 기묘한 대조를 이룬다. 여기 관련하여 역사학계를 넘어 각계각층에서 제기되는 강건성세를 보는 시각들이 좀 더 폭넓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성세연구가 학계를 넘어 저널리즘과 대중사회 전역에서 민감한 현실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점도 주목하고자 한다.

II. ‘강건성세’ 인식의 전통과 현재

1. 학계의 동향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강희제에서 건륭제의 통치에 이르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에 걸친 130여 년의 시기를 놓고 옹정연간(1723~1735)을 생략하고 ‘강건성세(康乾盛世)’라는 명칭으로 불러 왔다. 사자성어의 어감을 살리기 위한 편의적인 호칭이기도 하지만 화려한 무공과 유교적인 군주상을 내외에 부각시킨 강희·건륭 두 황제에 비해 중간에 끼인 옹정제는 성세의 군주로서의 이미지는 대단히 열었다. 최근까지도 음모로 가득 찬 왕위계승전의 승자라는 어두운 이미지가 지배적이어서 옹정제의 재위연간(1723~1735)을 화려하고 번성한 성세에서 제외하고 싶어하는 입장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⁴

최근 청사공정 책임자인 역사학자 다이이[戴逸]가 옹정제의 업적을 부각시키고 성세의 연속성을 강조하면서 ‘강옹건(康雍乾)성세’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했고,⁵ 그 후 중국 연구들에서 ‘강옹건시기, 혹은 강옹건성세’라는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다.⁶ 그러나 역사적으로 형성된 강건성세라는 용어가 이미

4 周思源(2002), 「質疑康乾“盛世”說評論推薦」, 『中國文化研究』 第4期. 뒤에 서술하듯이 저우쓰위안은 청사공정 주도 학자들의 강건성세 역사인식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세 황제의 치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옹정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5 戴逸(2002), 「論康雍乾盛世」, 『醫院領導參考』 第7期. 이 글은 다이이가 國務院의 위탁을 받고 당간부들을 위한 역사문화강좌에서 전국에서 모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한 원고이다.

6 옹정제의 치적을 강조하기 위한 논고들과 함께 의식적으로 ‘강옹건성세’를 사용한

중국 학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 고착되어 다이이의 의도만큼 강옹건성세 개념이 전면적으로 부각될 것 같지는 않다. 사실 청조 체제의 발달과정에서 옹정제의 역할을 중시하는 입장은 엄밀히 말해 중국 본토 역사학계의 문제의식에서 탄생한 산물은 아니었다. 옹정제가 청대의 재정구조, 관료제도, 행정 등 다양한 국면에서 대대적 개혁을 시행함으로써 성세의 구현에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외국 역사학계에서 주목, 개발해 낸 역사 사실들이었다.

일본 역사학자 미야자키 이치사다(宮崎市定)가 옹정제와 지방관료들 사이에서 오고간 주첩(奏摺)문서를 모은 『옹정주비유지(雍正硃批諭旨)』라는 사료에 주목, 이를 근거로 옹정시대의 독자적 의의를 평가하는 연구를 발표한 이래 일본 역사학계에서는 이 시기의 특수한 역사상을 전문적으로 다룬 작업들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청조 특유의 경제·정치·사회적 토대 위에 옹정제가 시행한 개혁정책의 의의를 세밀히 검토하여 이 시기를 중심으로 세계사상 유례없는 치밀하고 완성도가 높은 군주독재체제가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⁷⁾

주로 음모에 가득 찬 궁중비사 차원에서 논의되던 궁정사를 벗어나 주첩과 군기처 정치, 양렴은과 관료제 개혁 등 청조 체제 고유의 특질을 밝혀 낸 이런 일련의 작업들과 함께 옹정제의 개혁정치는 일약 최후의 전통왕조의 골격을 규명하는 핵심 주제로 떠올랐다.

글들도 나타나고 있다. 魯良(2006), 「雍正與“康乾盛世”」, 『源流』第12期; 李一蠡(2005), 「世界座標上的“康乾盛世”」, 『炎黃春秋』第3期.

7) 宮崎市定(1950), 『雍正帝』, 東京: 岩波文庫; 宮崎市定, 차혜원 역(2001), 『옹정제』, 이산;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1986), 『雍正時代の研究』, 京都: 同朋社.

그 이후 대만 고궁박물관에 소장된 방대한 주점을 분류·정리하여 주점 제도 연구를 확대시킨 양치차오[楊啓樵]와 사료 원문의 디지털화 검색방법을 동원해 주점제 연구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한 장지파[莊吉發]의 작업 등을 통해 옹정연간 연구는 그 심도가 더해졌다.⁸ 이런 성과가 중국 대륙으로 역수입되면서 비로소 애매한 위치에 있던 옹정연간이 재발견, 재주목받기 시작했다.

대륙의 역사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옹정시대가 주목을 받은 것은 펑얼강[馮爾康]의 『옹정제전기』가 단행본으로 출간된 1985년경부터였다.⁹ 그 뒤 1988년 지홍취[計紅緒]와 왕윈가오[王雲高]가 쓴 장회(章回) 소설 『옹정황제』가 출판되어 사회적으로도 인지도가 높아졌고, 최근에는 당안을 이용한 본격적인 이 시기 관료제 연구가 출간되는 등 연구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¹⁰

한편 대륙과 대만의 청사 학계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민족 왕조인 청조에 대한 한족 사회 특유의 폄하나 질시에도 불구하고 강희·옹정·건륭제 통치하에 있던 청대 전반기의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안정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8 楊啓樵(1981), 『雍正帝及其密摺制度研究』, 三聯書店. 莊吉發 작업에 대한 소개와 평가는 葉高樹(2008), 「最近十年(1998-2008)臺灣清史研究的動向」,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본 清史연구-清史工程을 중심으로』, 국제학술대회 이화사학연구소 제 33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참조.

9 馮爾康(1985), 『雍正傳』, 人民出版社. 다음 해인 1986년 21편의 연구논문을 수록한 左步青(1986), 『康雍乾 三帝評傳』, 紫禁城出版社가 출간되었다.

10 王志明(2007), 『雍正朝官僚制度研究』, 上海古籍出版社. 이 연구서는 일차 자료인 『清代官員履歷檔案』을 이용하여 引見制度和 文武官의 題補, 保舉, 捐納制度和 官僚 개개인의 학력, 연령, 가족관계, 출신지 등을 검증해냈다.

높은 평가를 내려 왔다. 특히 환관의 폐해를 줄이고 주점제도, 군기처 설치 등으로 행정효율성을 올린 데 대해서는 청대의 성과를 칭찬하고 명대를 폄하하는 ‘포칭평명(褒淸貶明)’의 경향도 현저하다. 소수민족 경영에 성공, 강역을 안정시키고 다민족국가의 기초를 이룬 점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0세기 초, 기본적으로 동시대 연구로 시작된 청대사 연구는 사실 한족(漢族) 민족주의에 따른 민족적 편견이나 증오심의 영향을 받기 쉬운 영역이었다. 19세기 후반, 청조의 내외적 위기에서 만주족 왕조의 무능과 부패상에 대한 환멸과 비판은 혁명의 도화선으로 커다란 역할을 했다. 이런 맥락에서 청조가 건국과정에서 한인들을 잔인하게 살상·탄압했고 변발을 강요하는 등 중화의 빛나는 유산을 침탈했을 뿐만 아니라 건륭연간에는 대규모 문자옥을 벌여 사상과 지식을 억누르는 야만성을 발휘했다는 역사인식이 확산되어갔다. 청조 관료들의 부정부패상을 고발한 건책(譴責)소설과 함께 음모와 타락, 잔인성으로 가득 찬 청조 궁중비사 등이 대중들의 반만감정을 더욱 부채질했다.

학술연구 면에서 이런 감정적 대응이나 반만주적 경향을 불식하고 객관적 청대사 연구의 전통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명썬(孟森)과 정톈팅(鄭天挺), 샤오이산(蕭一山)의 공적이 컸다. 사료에 입각한 객관적·실증적 연구를 수행한 이들의 업적은 반만적 청사 인식을 사실상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 되었다.¹¹ 샤오이산이 활약한 대만 학계에서는 이후 푸러청(傅樂成) 등의 저작들이 비슷한 동향을 보이고 있다.¹² 특히 대만 정부에서 지원한 『신청사(新淸

11 유장근(2008), 「중화인민공화국 시대의 청사 연구동향과 만주족의 지배 문제」, 『중국의 청사공정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12 蕭一山(1986), 『淸代通史』, 中華書局. 근대 역사학의 방법론과 전통적인 사서편찬

史』 편찬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금까지 청사학계를 주도하는 장지화 역시 만주족이 유교문화와 전통 정치제도를 성공적으로 수입하고 변형을 증원 정치로 수렴, 소수민족과 각 부족 간의 융화가 이루어져 다민족국가의 기초를 이룬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¹³ 중국 본토 역사학계 역시 세 황제 통치시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다. 1950년대부터 판원란[範文瀾], 바이서우이[白壽彝]의 개설서와 다이이가 1980년에 발표한 『간명청사(簡明清史)』에서도 역시 유사한 평가가 내려졌다. 만주족은 우수한 점이 많은 민족으로 청조 지배는 몽골 지배와 본질적 차이가 있으며 통일다민족국가의 기초를 이룬 점 등에서 성세의 의의는 인정되었다.¹⁴

청대 전반기를 다룬 이런 연구 전통에서 특기할 점은 현재 청사공정을 주도하는 인민대학 청사연구소에서 199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성세기의 황제, 특히 건륭제의 치적에 관한 연구를 주도해 온 사실이다. 청사공정 책임자를 맡은 다이이 주임의 건륭시대 관련 단행본을 필두로¹⁵ 청사연구소 교수인 귀청강, 청충더[成崇德] 역시 방대한 분량의 건륭제 전집을 펴냈다.¹⁶

의 맥락을 융합시킨 이 저술은 청대사에 대한 최초·최고의 기념비적인 저서로 꼽힌다. 민국 50년(1961) 대만에서 처음으로 간행되었고 중화서국에서 1986년에 전 5책으로 다시 영인했다. 傅樂成(1997), 『中國通史』, 大中國圖書公司 참조.

13 莊吉發(1982), 『清高宗十全武功研究』, 故宮叢刊.

14 중국에서는 초기의 範文瀾 主編(1953), 『中國通史簡編』, 人民出版社 이래 白壽彝 主編(1980), 『中國通史綱要』, 上海人民出版社; 戴逸(1980), 『簡明清史』, 人民出版社 등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평가가 내려졌다.

15 郭成康·成崇德 主編(1994), 『乾隆皇帝全傳』, 學苑出版社.

16 戴逸(1992), 「乾隆帝及其時代」, 中國人民大學出版社, 389~390쪽; 朱誠如(2002), 「乾隆建儲與訓政述評」, 『管窺集·明清史散論』, 故宮博物院學術文庫, 紫禁城出版社. 부책임자인 주청루[朱誠如]의 건륭제 연구를 들 수 있으며 여기서는 건륭 시기

강건성세의 성격에 대해서도 청사연구소의 가오상[高翔]은 1993년, “강건성세 130년은 유가사상을 치국의 기본으로, 전제황권을 관료정치체제의 핵심으로, 그리고 다민족국가의 통일을 지표로 삼아 건설한 사회적 기초를 쌓은 시기”로 높게 평가한 바 있다.¹⁷ 이러한 역사인식하에서 1990년대 초반에는 특히 건륭제의 사상과 치적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 것이 뚜렷한 특징이다. 인민대학당안학원 교수인 웨이칭위안[韋慶遠]의 건륭제 평가¹⁸와 차오즈중[喬治忠]의 사고전서 편찬사업에 대한 높은 평가 역시 같은 범주로 넣을 수 있다.¹⁹

한편 현재 ‘중화문사망’ 편집인인 리상잉[李尙英] 역시 1990년대부터 강건성세의 역사적 의의를 부각시키는 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성세의 과정을 출범, 발전, 정점, 쇠퇴기 등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징과 변화, 원인 등을 제시했다.²⁰ 그는 여기서 성세의 시작을 삼번의 난과 대만 정벌이 완료된

의 황위계승과 訓政을 둘러싼 내부 권력투쟁상을 그렸다.

17 高翔(1993), 「康乾盛世淺議」, 『清史研究』 第1期; 高翔(1996), 『康雍乾三帝統治思想研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8 韋慶遠(1991), 「論雍乾交替與治道同異」, 『史學集刊』 第1期. 이 논문은 건륭제가 젊은 나이에 재위를 이었지만 많은 방면에서 선제 세종의 정치를 이어갔고 태자밀건법(太子密建法)의 중지, 군기처와 내각의 상호 보완, 인재등용책 등에서는 상당한 개혁과 변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19 喬治忠(1992), 「論清高宗的史學思想」, 『中國史研究』 第1期. 이 중국의 전통문화 유산을 정리·총합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고, 이것이 관료 주도 역사학의 발전과 번영을 이루었다고 보았다.

20 李尙英(1999), 「關於“康乾盛世”的歷史分期問題」, 『中國社會研究生院學報』 第4期. 이 논문에서는 성세를 다음 네 단계로 구분했다. 첫 단계는 성세의 시작으로 청조가 건국 초의 혼란에서 치세로 접어드는 시기로, 강희 23년(1684)에서 강희 47년(1708)의 기간을 설정했다. 2단계는 성세가 정체에서 발전을 지향한 시기로 강희

1684년(강희 23)으로, 종말을 1813년(가경 18)으로 설정했다. 이 문제에 대해 청사공정이 시작된 2002년의 연구에서 귀칭강은 성세의 종말을 건륭제가 아들 가경제에게 양위한 뒤 친수를 다한 가경 4년(1799)으로 앞당겨 설정했다.²¹

여기서 리상잉이 경제력과 군사력 면에서 최정점에 달했던 성세가 쇠퇴한 원인을 다음 세 가지 내부 요인으로 집중시킨 점은 주목된다. 첫째, 세계 정세가 급격히 변화하는 와중에 청 정부가 여전히 폐쇄정책을 고수했던 점, 둘째, 경제 발전의 과실을 독점한 통치집단과 지주계급이 사치와 안일에 빠져 탐욕을 일삼은 점, 셋째, 건륭제 자신이 치세 중기 이후 사회의 주요 모순을 도의시하고 안락과 사치에 빠져 대규모 순행과 조경·원림 등의 도락으로 재정을 낭비한 점 등이다. 정치의 최고담당자에게 ‘성세’ 파탄의 일부 책임을 돌리는 이런 관점은 뒤의 탐오안(貪汚案) 연구에서 살펴보듯이 청사공정 추진 주체들의 연구에서 보이는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청사연구소 출신 학자들의 성세 연구에서 길림사회과학원 교수 리즈팅 [李治亭]을 빼놓을 수 없다. 1990년대 연구에서 그는 주로 강건성세와 서구 문명 간의 비교를 시도한 바 있다.²² 유럽에서 자본주의 혁명이 도래할 무렵 부패한 명조를 대신한 청조는 자산계급의 대표라기보다 또 다른 신흥 봉건

47년(1708)~건륭 16년(1751)을 잡았다. 3단계는 성세가 최정점에 도달한 시기로 건륭 16년(1751)~건륭 60년(1795)의 기간이며 마지막 단계로 건륭제의 퇴위를 기점으로 삼아 건륭 60년(1795)~가경 18년(1813)을 성세가 쇠퇴에 접어든 시기로 설정했다.

- 21 郭成康(2002), 「康乾盛世的成就與隱患」, 『康乾盛世歷史報告』, 中國言實出版社.
- 22 李治亭(1994), 「康乾盛世與西方文明」, 『社會科學輯刊』 1; 李治亭(1996), 「略說康乾盛世」, 『百科知識』 1.

왕조였고 강건성세는 자본주의화의 과정이 아니라 중국 봉건사회의 집대성을 의미한다. 특히 이 시기 지도자들이 서구문명 수입을 거부함으로써 중국을 세계조류와 격리시켜 중국과 서구세계의 격차를 생기게 했다고 비판적인 시선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청사공정 출범을 즈음하여 리즈팅의 성세관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하여 강건성세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평가했고, 성세의 경험이 현재 중국의 당면문제를 해결하는 데 거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지를 전개했다.²³ 2005년에 펴낸 『청강건성세(淸康乾盛世)』라는 단행본에서는 청사공정이 그야말로 ‘100년 만의 거사’이며 중화민족의 앞길을 밝히는 대업으로 규정했다.²⁴

이처럼 청사연구소 구성원들이 강건성세의 역사상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킨 학술활동은 청사공정의 출범에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했음에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 역사상의 인물이나 사건을 현실에 투영하여 보는 영사(影射)사학은 특히 마오쩌둥(毛澤東) 정권 말기에 성행하면서 중국 사회에 어두운 영향을 미친 바 있다. 개혁과 개방화를 기치로 내건 현 정권은 정치적 권위의 확보를 위해 과거의 역사전통을 강조하는 문화적 보수주의로 회귀하려는 점에서 사회주의 혁명사관을 강조한 전 시대와 일정한 획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건성세의 역사상을 현재를 비추는 거울로 보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현 중국 학계의 방향타는 정치와 학문의 일체화를 피했던 과거의 유산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3 李治亭(2000), 「輝煌的日落-17, 18世紀全球變局中的“康乾盛世”」, 『領導科學』 9 ; 李治亭(2001), 「再論康乾盛世」, 『人民論壇』 11 ; 李治亭(2005), 『淸康乾盛世』 淸史別叢, 江蘇教育出版社.

24 李治亭(2005), 위의 책.

사실 20세기 사회주의 혁명 과정과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중국의 역사, 특히 부패와 억압의 온상인 구청조 정권은 새로운 중국을 낳기 위해 극복되고 폐기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청사공정은 적극적으로 청대 역사를 긍정하고 특히 청조의 성세로부터 교훈과 비전, 동질성을 확보하지는 점에서 20세기 전반의 지적·정치적 사조와의 결별을 선언한 것이었다.

2. 성세열풍과 역사 대중화

중국공산당이 청사연구를 당면한 현실과제로 중시하며 강력한 국가적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목적으로 한 것일까? 그 단서는 먼저 2001년도에 학습시보(學習時報) 편집부 이름으로 출간된 『석양의 광채-17, 18세기 세계변화 속의 ‘강건성세’』에서 발견할 수 있다.²⁵ 『학습시보』는 중국 공산당에서 주관하는 최고 교육기관인 중공중앙당교(中共中央黨校)의 기관지로 당의 방침과 정책을 홍보하는 주요 선전수단이기도 하다.

무기명으로 된 이 책의 주 저자는 당간부 출신으로 현재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평청핑(馮成平)(일명 평청뤄[馮成略])으로 밝혀졌는데, 스스로 ‘문화상인’을 자처하는 독특한 인물로 역사학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 책은 『인민일보(人民日報)』, 『광명일보(光明日報)』, 『신화문적(新華文摘)』 등에서 적극적으로 소개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여기에 대한 당지도부의 입장은 당시 총서기 장쩌민(江澤民)이 전국 당교(黨校) 회의에서 발표한 공식논

25 學習時報編輯部(2001), 『落日的輝煌-17, 18世紀全球變局中的“康乾盛世”』, 中共中央黨校出版社. 이 책은 청사공정 주도 학자들의 성세인식 및 접근방법과 대단히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된 점이 주목된다.

평 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조는 1644년에서 1911년까지 268년간 지속되었다. 이 중 1661년에서 1796년까지의 기간이 역사에서 일컫는 강건성세이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의 경제수준은 세계의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다. 건륭 말년 중국 경제 총생산량은 세계 1위였고 인구는 세계 3분의 1을 점했다. 대외무역은 장기간 흑자 상태였다. 바로 이 시기, 서방에는 공업혁명이 발생하여 과학 기술과 생산력이 급격히 발전했다. 그럼에도 당시 청조 통치자들은 세계의 대변화를 보지 못한 채 무지와 교만으로 폐쇄정책을 펴서 선진 과학 기술의 학습을 거부했다. 불과 100여 년 내에 서방국가에 비해 크게 낙후되고 말았으니 이 역사의 교훈을 뱉속 깊이 명심해야 한다.²⁶

장쩌민의 청조에 대한 관심은 방대한 영토와 인구를 자랑하는 대국이라는 현재 중국의 자기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18세기 말 번영의 정점에 있던 청조가 왜 서구에 뒤지고 침략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 극적인 운명의 반전에 주목했다. 이 때문에 강건성세의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각골명심’해야 할 거울로서 인식되었다.

장쩌민은 책의 출간 이후 정치국 위원들에게 이 책을 반드시 읽으라고 지시했으며 여러 차례 책 내용을 인용하며 당시의 역사경험을 적극적으로 되살리도록 요구했다.

뒤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2002년 8월에 출간된 청사연구소 측의 저서 서문에서 장쩌민의 이 발언이 그대로 서두를 장식하고 있다. 여기서 정치국상무위원인 리란칭[李嵐清]은, “청사편찬을 통해 중화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

26 『人民日報』, 2000年 7月 17日 第一版. 책이 출간되기 1년여 전에 밝힌 장쩌민의 이런 입장이 책에 그대로 반영되었음은 분명하다.

란한 문화를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받아들여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건설하고 민족의 응집력을 높이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²⁷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청사공정은 주로 이전에 청사 편찬작업에 참여했던 다이이와 청사연구소의 적극적인 요청에 정치권이 호응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었다고 간주되었다. 그러나 2000년의 『학습시보』는 이미 중국 정부에서 이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정계 그리고 학계를 대표하는 청사연구소 측은 상호의 관심과 목적을 혼연일체로 만들면서 청사공정을 출범시켰던 것이다.

정계와 학계의 이런 공동 움직임과 함께 대중매체를 통해서 강건성세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산되고 있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이 경제성장을 거듭하던 1990년대를 전후하여 대중소설 등의 전통적 인쇄매체와 함께 텔레비전·영화 등 영상매체가 활성화되면서 중국 역사 관련 주제들이 주요 문화 콘텐츠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청대 최성기의 황제들을 다룬 대중소설과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강건성세는 서서히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먼저 1997년도에 44부작 텔레비전 연속극 「옹정왕조」가 방영되어 중국 국내뿐 아니라 한국·일본 등지로 수출되었다. 여기 힘입어 2001년에는 50부작 「강희왕조」, 2002년에는 「건륭왕조」, 「강희제의 미복 외출[康熙微服私訪]」이 제작되었고, 대만에서도 「재미있는 건륭제 이야기[戲說乾隆]」가 선을 보였다.

청대 전반기를 다룬 대하 역사드라마의 출현은 현재 하남성 작가연맹 부주석인 대중작가 얼웨허(二月河, 본명 링세팡[凌解放])가 쓴 『제왕삼부곡(帝王

27 郭成康等(2002), 앞의 책, 自序, 1~2쪽.

三部曲』으로 불리는 40여 권의 대하소설이 그 바탕이 되었다. 일워히는 자신의 소설 시리즈가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인기 역사극의 원작으로 활용되면서 명성을 얻은 뒤, 강건성세의 역사상을 대중화시킨 가장 뚜렷한 주역으로 부상했다. 또한 최근까지도 ‘성세’와 관련된 활발한 정치 강연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그 행보가 주목된다. 2007년 3월 10일, 중국현대문학관에서 열린 북경시 정협문사위원회(政協文史委員會) 주최 강연회에 초청되었고, 강연 원고 역시 공개 지면에 실렸다.²⁸ 여기서 그는 과거 승덕(承德)시 총서기가 “현재의 문명사회에서 일체의 봉건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면서 강희제 소조상을 무너뜨린 사실을 개탄했다. 그는 강희제가 남긴 공헌은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며 과거 군주들의 업적은 민족단결과 국가통일, 생산력 발전, 그리고 인민생활에 대한 공헌도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5월 10일, 하남성 정부 주최로 열린 공산당 지도 간부 대상 강연회에서 “역사를 거울로 삼아 정기를 기르고 새로운 기풍을 수립하자”라는 제목으로 연설했고 강연 원고 역시 신문 지상을 장식했다.²⁹ “세 황제는 중국의 낙후성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강연 제목이 말해 주듯이 이들이 성세에 안주하여 일보 전진을 이루지 못한 채 현상유지에만 머물러 동방문명이 서구문명에 패배한 데 대해 책임이 있다고 역설한 내용이었다. 곧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발전단계에 있으면서도 세계정세나 개방에 대한 안목을 갖지 못한 것이 이들 ‘현군’들의 과오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중국에 기여한 바를 말살해서는 안 되며 공적과 과오 양쪽 모두를 귀감

28 二月河(2007. 4. 11), 「從歷史眞實到藝術眞實-康雍乾三帝的形象塑造」, 『北京青年報』.

29 二月河(2007. 5. 11), 「三帝要爲中國落後負責」, 『河南商報』.

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웨허의 이런 활동에는 현재 중국 정치지도부의 입장을 대변하려는 정치적 색채가 뚜렷이 드러난다. 그는 현재의 중국이야말로 바로 성세의 개화기이며 더욱이 강건성세에 채 이루지 못했던 개방, 민족대단결, 국가통일, 생산력 발전, 인민 생활수준 개선, 과학기술 진보 등의 과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역설한다. 여기서 국가 경쟁력은 국민총생산(GDP)뿐만이 아니라 역사에 근거한 정신문명의 건설에 있기 때문에 범국민적인 계몽운동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가 2001년 당 중앙에서 발표한 「공민도덕 확립 실시요강[公民道德建設實施綱要]」에서 제시된 ‘애국과 준법[愛國守法], 예절과 성실·신의[明禮誠信], 단결과 우애[團結友愛], 근검자강[勤儉自強], 헌신봉사[敬業奉獻]’ 등의 도덕규범을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 이 중 특히 ‘예절과 성실·신의’ 항목을 놓고 사회질서 안정을 위해 상부의 명령을 준수하라는 덕목으로 해석한 것이 주목된다.

그리고 바로 이런 맥락에서 2006년 후진타오 총서기가 제창한 ‘여덟 가지 영예와 여덟 가지 수치[팔영팔치(八榮八恥)]’라는 표어를 내건 사회주의 도덕 채무장 운동에 대해 적극지지를 보냈다.³⁰ ‘팔영팔치’는 경제성장 이후 불

30 후진타오[胡錦濤]는 2006년 4일 정치자문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 대표단 회의에서 사회주의 榮辱觀 수립에 관해 연설하면서 ‘八榮八恥’를 중국 사회의 화두로 제시했다. 이 선언 직후 북경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천여 명은 지역별로 모여 ‘八榮八恥 선봉대’ 발대식을 가졌다. 이 구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以熱愛祖國爲榮, 以危害祖國爲恥(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은 영예이고, 조국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치이다), 2. 以服務人民爲榮, 以背離人民爲恥(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영예이고, 인민을 배신하는 것은 수치이다), 3. 以崇尚科學爲榮, 以愚昧無知爲恥(과학을 숭상하는 것은 영예이고, 우매하고 무지한 것은 수치이다), 4. 以辛勤勞動

거진 양극화 문제와 개인주의의 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국민들이 지켜야 할 규범과 단절시켜야 할 폐단을 규정하여 애국심과 단결을 강조한 관계 캠페인이었다. 여기서 ‘팔영’이란 충(忠), 효(孝), 인(仁), 애(愛), 신(信), 의(義), 화(和), 평(平)이라는 여덟 가지 전통적 덕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전통에서부터 권위를 획득하려는 현 정부의 문화 보수주의적 경향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일궈려는 역사가 곧 국민 정신교육의 일환을 담당하는 선전도구라고 강조하면서 성세인식을 전도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현재 중국 정치 지도부의 성세와 청사공정에 대한 입장을 대변해 준다.

청사공정 출범 초기와 마찬가지로 최근에도 학계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한 역사 콘텐츠 확산을 돕고 지지하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2004년, 중앙방송에서는 「청대 십이황제 미스터리(清十二帝疑案)」라는 드라마가 시리즈로 제작되었다. 뒤이어 저명한 청사학자인 옌충넨(閻崇年)은 청조 12인 황제의 생애에 대해 민간에 떠도는 전설과 시대극에서 범하기 쉬운 역사 고증의 오류를 최신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풀이한 해설서를 출간했다. 이 책을 필두로 이 드라마를 재구성, 해설한 책들이 연이어 출간되었다.³¹ 이처럼 학계와 대

爲榮，以好逸惡勞爲恥(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영예이고, 편한 것만 찾고 일하기 싫어하는 것은 수치이다), 5. 以團結互助爲榮，以損人利己爲恥(단결해 서로 돕는 것은 영예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며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것은 수치이다), 6. 以誠實守信爲榮，以見利忘義爲恥(성실하게 신의를 지키는 것은 영예이고, 이익을 좇아 의를 저버리는 것은 수치이다), 7. 以遵紀守法爲榮，以違法亂紀爲恥(법과 규율을 지키는 것은 영예이고, 법을 어기고 규율을 혼란하게 하는 것은 수치이다), 8. 以艱苦奮鬥爲榮，以驕奢淫逸爲恥(어려움을 참으며 분발하는 것은 영예이고, 교만하고 사치하며 방탕한 것은 수치이다), 新華網河北頻道(2006. 4. 10).

31 閻崇年(2005), 『正說清朝十二帝』, 中華書局; 王天有 審訂, 許文繼·陳時龍(2005), 『正說明朝十六帝』, 中華書局; 余沐(2005), 『正說清朝十二臣』, 中華書局.

중매체가 상호 협조하는 가운데 청대의 역사는 역사 대중화 현상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III. 청사공정 주도층의 역사인식과 활동

1. 청사연구소의 동향

청사공정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다이이[戴逸]를 필두로 한 중국 인민대학 청사연구소 출신 학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청사연구소는 1972년 인민대학에서 조직된 ‘청사연구소조(小組)’를 모태로 1978년 정식으로 출범하여 올해로 31주년을 맞았다. 초기 청사연구소조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 1965년 중국 정부에서 추진했던 청사 편수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총리인 저우언라이[周恩來]의 지시로 결성된 청사편찬위원회는 인민대학 당서기 겸 부교장인 귀잉추[郭影秋]의 주재하에 다이이, 중국사회과학원의 류다넨[劉大年]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때 청사편찬을 위한 실무기구로 인민대학 내에 연구소 설립을 기획했다. 이후 문화대혁명의 발발과 함께 편수계획은 무산되었지만 귀잉추 등의 꾸준한 노력으로 1978년에 인민대학이 복구하면서 청사연구소조는 청사연구소로 발돋움하여 편재되었다.³²

이때 다시 부교장으로 복귀한 귀잉추는 청사 편수작업을 재개하려는 목적으로 대규모의 조직적 청사 연구작업을 떠나갔다. 그 자신이 명청사 연구자이기도 했던 귀잉추는 연구주체의 확립과 연구인원의 선별과 교육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다이이 주편의 『간명청사(簡明清史)』와 편년체로 청

32 戴逸(1999), 「我的學術生涯」, 『當代學者自選文庫 戴逸卷』,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사의 주요 사적을 수록한 방대한 자료집 『청사편년(淸史編年)』 등은 그의 지시로 간행되었다.³³ 이후 청사연구소는 정부기관의 과학연구 과제를 129건 담당했으며 426종의 출판 저작물과 발표논문 2,474편, 박사·석사·진수생(進修生) 등 청사 전문 연구인력 약 400명, 외국 유학생 120여 명을 배출했다.³⁴

연구소의 출간물 중 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역작으로 앞의 『간명청사』와 『청사편년』 외에도 『청통감(淸通鑑)』, 『청대인물전고(淸代人物專稿)』 등을 들 수 있으며 청사 관련 전문학술지인 『청사연구(淸史研究)』도 간행 중이다. 또한 연구소를 통해 중국 최초의 외국인 문과 박사과 여성 박사, 소수민족인 장족(藏族) 박사를 배출한 것을 자랑으로 꼽는다. 이런 일련의 성과들을 통해 “세계적 청사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이처럼 창립 후 20여 년간 끊임없이 성장 일변도를 달린 과정에서 보듯이 연구소는 태생적으로 중국공산당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꾸준히 정부 지원을 받으며 국내 최대규모의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문화혁명으로 무산된 청사 편수작업은 연구소 탄생의 기원이자 최대의 숙원이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청사연구소가 청사공정이라는 국책사업의 주체로 부상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청사연구소는 공정 출범에 앞서 강건성세(康乾盛世)의 발달상과 번영을 부각시키는 학술활동을 펴는 한편, 당 간부와 대중을 상대로 한 계몽적인 성격을 띤 활발한 교육과 선전작업도 펴나갔다. 2001년에 다이이는 청조 멸망 100주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제는 가능한 한 빨리 청사편찬이 재개되어야 하며 청사연구소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다는 입

33 王俊義(2003), 「我所認識和了解的郭陽秋」, 『縱橫』 第6期, 中華文史網整理.

34 人大新聞(2008. 9. 23), 「中國人民大學淸史研究所成立三十周年慶祝大會隆重舉行」.

장을 표명했다.³⁵ 성세연구의 중요성과 청사공정을 연결하는 계몽활동은 정부가 청사편찬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2002년에 정점에 달했다. 이 해 1월에서 3월까지 동 연구소의 귀청강, 청충더, 천화[陳樺], 황싱타오[黃興燾] 등 4명의 학자들이 국무원 장차관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성세의 전반적 성격과 경제적 측면, 영토와 소수민족, 문화정책 등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³⁶ 이 강연 원고는 대외무역 부분을 보완하여 앞에 소개한 『강건성세역사보고』라는 성세연구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³⁷

이 책은 지금까지 진행된 청사연구소 구성원들의 연구작업의 결실이며 동시에 향후 편찬될 청사의 지향점을 가늠하게 해 준다. 서문에 따르면 청사공정은 “더 많은 당 지도간부와 각계 독자들에게 강건성세의 성취와 결실을 알리고 역사경험의 교훈을 분석, 역사를 거울로 삼아 기회를 포착하고 미래를 열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공헌할 목적”하에서 기획·진행되었다고 한다. 곧 과거 역사를 현재의 거울로 삼겠다는 의지와 함께 강한 민족주의적 역사인식이 공정의 기초를 이루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청사연구소 측

35 戴逸(2001), 「纂修清史, 此其時也」, 『瞭望』 第8期.

36 郭成康(2002), 「康乾盛世的成就與隱患」; 成崇德(2002), 「清代財政與社會經濟發展」; 陳樺(2002), 「康乾盛世的疆域與邊疆民族」; 黃興燾(2002), 「清代前期的文化發展與文化政策之得失」.

37 강연 원고에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소속 吳建雍의 「康乾盛世時期的中西貿易」을 첨가하여 清史편찬위원회 典志組 組長인 귀청강의 주도로 『康乾盛世歷史報告』(中國言實出版社, 2002)가 출간되었다. 책의 본문 5장은 각각 강연 원고가 바탕이 되었는데, 5편의 부록에서 관료의 품계와 복식, 봉록, 황제 연표 등 정치사 관련에 주로 역점을 둔 점이 특징이다. 附錄一: 清代主要文武官員品級簡表, 附錄二: 清代文武官員冠服表, 附錄三: 清代文官歲俸表, 附錄四: 清代地方官員養廉銀簡表, 附錄五: 清代皇帝簡表.

은 저술 등의 학술활동은 물론, 당간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목적의 간담회나 강의, 대중 강연 등을 통해 공정의 의의를 알리는 활발한 선전과 홍보작업을 펴나갔다.

이 과정에서 주임인 다이이는 특히 가장 활발하게 성세의 전도사 역할을 담당했다. 2002년 초, 다이이는 국가도서관에서 100여 명의 당간부를 대상으로 「강용건성세를 논한다[論康雍乾盛世]」라는 강좌를 개최했다. 그 내용은 성세의 빛나는 성취와 ‘쇠퇴’의 원인, 그리고 성세의 경험이 금일 중국에 주는 교훈 등으로 구성되었다.³⁸ 당시 국무원 부총리 리란칭[李嵐清]의 요청으로 중남해[中南海]에서 국무원 지도부와 관련 부문 인사들을 대상으로 강건성세를 중심으로 한 청대사에 관한 강좌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는 그 뒤 전국 각지를 돌며 당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를 열고, “이 시기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의 중국을 이해하고 중국 장래의 발전의 앞날을 예견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역설하며 대중 대상의 계몽활동도 전개했다. 2002년 8월 최종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청사편찬 지원이 결정되기까지 청사연구소는 수십 년에 걸친 적극적인 활약을 펼쳤던 것이다. 이런 강연활동과 저술 등에서 나타난 청사공정 주역들의 성세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³⁹

먼저 성세의 가장 큰 정치적 성과는 중국 통일을 강고화하고 56개 소수 민족의 ‘다민족 대가정’을 이룬 점을 꼽는다. 이 시기 오늘날 중국 판도의 기초가 이때 형성되었고 만약 이 시기의 통일과정이었다면 19세기 말에 시

38 대담기사, 洪波(2002. 3. 20), 「盛世的沉淪-戴逸談康雍乾歷史」, 『中華讀書報』; 戴逸(2002. 7. 17), 「怎樣認識康雍乾盛世-答周思源先生」, 『中華讀書報』.

39 이 내용은 戴逸(2002), 「論康雍乾盛世」 등의 강연, 저술원고와 郭成康(2002), 앞의 글을 기초로 정리한 것이다.

작된 제국주의의 침공 앞에서 전국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강옹건 시기에 변강 영토를 개척하면서 중국의 강역이 확대되어 한대와 당대는 물론 원대조차 넘어서게 되었다. 또한 성세에 이루어진 통일로 인해 소수민족 융합이 이루어져 ‘중화민족’의 응집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다음 인구규모로 볼 때, 강건성세는 한대와 당대를 훨씬 능가하는 역사상 최고의 정점에 달했다는 점을 든다. 한나라와 당나라 때 6,000만에서 8,000만 명을 넘지 못하던 중국 인구가 18세기 중엽에 약 3억 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 건륭시기에는 당시 세계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인구를 부양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영국과 같은 ‘중소국가’는 인구 약 2,800만 명으로 중국의 20분의 1에 불과했다. 이것은 18세기 말의 중국 농업과 경제가 3억 명의 인구를 부양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음을 말해 준다. 18세기 중국의 농업은 경지면적의 확장과 품종의 다양화, 농업기술의 발달로 경작 면적당 최고수준의 생산량을 자랑했고 수공업 역시 제사, 비단 직조기술이 전 시대보다 획기적인 생산량 증가를 보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공장과 고용규모 등의 지표도 크게 증가했다. 또한 17세기 중반, 전 세계에 50만 인구가 넘는 10대 대도시 가운데 중국에는 북경(北京), 양주(楊州), 소주(蘇州), 남경(南京), 항주(杭州), 광주(廣州) 등 6개 도시가 있었다. 이처럼 경제 면에서도 농업생산력과 상품경제, 상공업에서 세계 봉건경제의 최고수준에 도달했다. 한편 성세의 문화 역시 커다란 발전을 보였다. 문학과 예술, 역사학, 철학, 수학, 천문학, 의학 등 각 영역에서 다양한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세계사상 미증유의 대규모 국가주도 편찬물인 사고전서의 출간은 바로 성세 문화의 힘과 권위를 단적으로 상징해 주는 표상이었다. 고증학은 전통문화 발달과정에 한 획을 긋는 건가학파(乾嘉學派)의 탄생을 낳았고 시가문학 역시 역사상 최고봉

에 달했다고 한다.

이러한 성세가 가능했던 원인으로 여러 요인들이 제시되었다. 먼저 장기적으로 정치적·사회적 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청조의 전제주의적 중앙집권체제의 통치가 고도로 효율적이었다는 점을 든다. 세 황제 개개인의 정치적 역량의 탁월함과 성실성 등이 강조되며 동시에 군기처, 주집정치, 황태자 밀건제 등의 제도운영 등도 높이 평가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유럽세계의 대중국 무역수요로 인해 대량의 은이 유입되고 동남해안을 중심으로 무역경제가 활성화된 점, 또한 무역경로를 따라 감자·옥수수·고구마 등의 신대륙 작물이 유입되어 구황작물로 활용된 점, 아울러 수리시설의 정비 등 내부적 안정을 이룬 점이 지적되었다. 여기에 청 정부의 중농정책이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곧 성세의 청조는 면세·감세 등으로 광범위한 재생산 보장조치를 시행했고, 무엇보다 지정은(地丁銀)제도를 통한 세역제도의 합리화와 세수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했다고 한다. 특히 옹정연간에 재정 흑자가 축적되면서 건륭연간의 대규모 군사활동과 세금 감면 등의 대민 시혜책이 실시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여기에 소수민족에 대한 정벌과 내지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약탈경제적 성격을 띠며 중국에 큰 부담을 주던 유목 건조지역과의 평화로운 공존과 교역이 이루어진 점도 제시되었다. 새로 청조 영토에 포함된 변경지역은 유목경제에서 반농반목 형태로 경제구조상의 변화가 일어나서 근대 이후 중국 통일과정의 기반을 닦을 수 있었다. 만주족은 같은 소수민족들의 지위, 심리, 소망을 숙지하고 있었던 까닭에 이들을 단결시키는 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소수민족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종래의 만리장성은 더 이상 필요성과 기능을 상실했고 성세를 거치면서 진정한 민족융합이 가속화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는 중국 역사상의 ‘한

당성세’ 등과 종적으로 비교할 때나 동시대 구미지역과 횡적으로 비교하더라도 우위를 점하며, ‘정치적 통일과 경제적 번영의 성취’라는 두 가지 결정적인 유산을 남긴 것으로 평가했다.⁴⁰

2. 최근의 성세연구

앞서 소개한 청사공정 편찬자들이 내건 “강건성세는 청사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중국의 오늘과 내일을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표어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듯이 공정 주도세력이 강화시킨 성세인식은 공정의 이념적 지지대 역할을 담당했다. 청사공정이 출범한 2002년경에 집중적으로 공표된 이런 기본방향은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강건성세 연구는 여전히 성황을 이루고 있다. 최근 청사연구소에서 펴낸 성세관련 연구총서는 청사 편찬진들의 입장과 현재 연구의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표상이다.⁴¹ 이 총서는 청사연구소에서 배출한 30대 젊은 학자들의 연구로 구성되었다. 서문에서는 성세연구가 이미 내외적으로 궤도에 올라 하나의 학술영역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기계화 시대의 각종 요소들이 배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건성세는 역사상의 성세들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현재와의 관련성 면에서 전문적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고 발간 의의를 밝혔다.⁴²

40 이 결론 부분은 다이이의 주장을 채택했다. 洪波(2002. 3. 20), 앞의 글.

41 尹樹國等(2008), 『康乾盛世研究叢書』, 黃山書社.

42 이 총서의 서문은 출판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들이 오늘날 강건성세를 연구하는 것은 단지 그 진행상태를 설명하거나 혹은 과장하여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세라고 부를 만한 각종 표상들을 통해 중국 봉건사회의 발전법칙과 청대

지금까지 발간된 총서는 정치행정, 문화와 사회, 금융, 인구, 시장을 통해 성세를 조명한 다섯 권으로 구성되었다.⁴³ 이 중 청대 행정을 다룬 인슈귀[尹樹國]는 국가행정의 각도에서 성세의 정치체제와 그 작용을 검토, 이 시기를 중국 역사상 가장 행정효율이 높았던 시대로 규정했다. 또한 행정효율을 구성하는 자체요소와 외부영향 등의 변화상을 추적, 오늘날 중국 행정을 위한 사례연구로 제시했다. 한편 천화[陳華]가 편집한 책에서는 성세의 사회상에 중점을 두어 사회발전과 변천, 정치, 군사, 문화, 경제, 기층사회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 성세상을 다루었다. 리창[李強]은 동전의 유통과 공급 및 관리 상황의 분석을 통해 강옹건시대의 화폐의 지위와 작용을 분석, 이 시기 화폐경제의 발달상을 조명했다. 경제사를 전공한 뉴관제[牛貫杰]는 청대 시장을 둘러싼 국내의 연구를 분석하고 기층·지방·구역으로 나누어 시장의 연결망, 구조, 특징을 정리했다. 여기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청조의 식량무역 문제로 유통량과 유통망의 급격한 변화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장옌[張研]은 정책, 자연환경, 사회환경 면에서 성세 인구의 분포와 확대 현상을 분석했다. 이 총서는 2002년 이들을 배출한 청사연구소 교수 귀청강

강옹건 사회의 기본특징과 풍부한 역사내용을 깊게 탐구하여 성세를 낳은 역사 원인과 후세 사회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강건성세’ 연구는 사회와 세계학계의 광범위한 관심을 받고 있어 그 학술 축적이 깊으며 연구영역이 넓고, 업적이 쌓여 성과가 찬연하다. 이런 점에서 이미 독자적인 특성을 지닌 학술영역을 이루고 있다.”

- 43** 다섯 편의 연구는 모두 2008년 3월에 黃山書社에서 간행되었다. 尹樹國, 『盛衰之界-康雍乾時期國家行政效率研究』; 李強, 『金融視角下的“康乾盛世”-以制錢體系為核心』; 陳華 主編, 『多元視野下的清代社會』; 牛貫杰, 『17-19世紀中國的市場與經濟發展』; 張研, 『17-19世紀中國的人口與生存環境』.

등이 강건성세 연구에서 제시했던 다섯 편의 주제를 각각 한 권의 단행본으로 심화·확대시킨 저작물이다. 이 책들이 가리키는 방향 역시 귀칭강이 도론에서 제기했던 성세의 성취와 내재된 위험의 분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한편 청사연구소 관련자 이외에도 강건성세의 존재와 의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먼저 사상과 문화 면에서 종래 문자옥과 사상탄압이 두드러졌던 청조 문화사에 대한 재평가가 시도되었다. 량권옌[梁俊艷]은 논문에서 강건성세 시기에 학술문화 역시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고 특히 방지학(方志學)에서 큰 진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성세가 풍부한 물질적 기초와 연구풍토를 제공한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한다. 성세를 대표하는 저명한 학자 장쉐칭(章學誠)은 바로 이런 기반에서 업적을 축적, 중국 방지 찬수사업의 이론적 기초를 쌓고 독특한 방지이론을 구축했다고 보았다.⁴⁴ 그리고 펑즈[馮智]는 청조가 서장(西藏) 정책에서 여러 단계의 조정, 변화, 발전과정을 거쳐 성공을 이룬 과정을 조명하며 성공적인 소수민족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⁴⁵ 이 밖에도 민족연합체로서의 성세의 의의를 재확인하거나,⁴⁶ 성세의 경제와 사회발전상을 강조하는 논문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지만 주로 기존의 연구성과에 의존하고 있을 뿐, 새로운 사료나 관점을 발견하기는 어렵다.⁴⁷

44 梁俊艷(2005), 「清代章學誠方志思想淺析—兼評“康乾盛世”」, 『新疆地方志』第1期; 梁俊艷(2006), 「全球視野下康乾盛世研究學術史回顧」, 『北京聯合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第2期.

45 馮智(2004), 「清“康乾盛世”冊封達賴與治藏的階段性特点評述」, 『西藏研究』第4期.

46 周武(2001), 「論康乾盛世」, 『社會科學』10.

47 李振伏(2002), 「從康乾盛世看與時俱進」, 『領導工作研究』9; 劉煥性(2003), 「“康乾

이상과 같이 청사공정 주도층이 청대 중반 100여 년을 ‘성세’로 규정한 위에 유사한 입장을 지닌 일군의 연구자들이 증거가 될 수 있는 지표들을 찾아 내용을 강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찬란하게 빛나던 성세가 왜 그 정점에서 갑자기 쇠퇴를 맞이하게 되었을까? 청사공정 주도학자들은 성세로부터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아 청조가 왜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라는 문제점을 역사에서 끌어내어 현실의 거울로 삼고자 했다. 정점에 달한 성세에서 곧바로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한 19세기 말의 몰락으로의 반전은 현재 중국이 처한 상황과 연결, 일반 학계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고 여러 가지 관점이 제시된 바 있다.⁴⁸ 그러나 성세가 급격히 쇠퇴한 원인에 대해서 청사공정 주도팀 내부에서도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성세의 지표 그 자체가 곧바로 쇠퇴 원인으로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귀청강은 인구팽창에 따른 조절작용, 정책은 비효율성, 통화팽창과 물가 등귀현상, 황권의 과도한 팽창과 전제정치 등을 가장 중요한 세 요소로 제시했다.⁴⁹ 인구성장이라는 요소는 뒤이은 쇠퇴기를 설명하기 위해 인구과잉으로 인해 1인당 경지면적이 축소되고 농촌의 빈곤현상을 낳게 되었다는 해설로 전환되었다. 또한 농민층의 구매력 저하로 상공업의 발전도 저하되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발전의 불균형도 발생했다고 한다. 그 결과 아편전쟁기에 접어들면 유럽의 생산량이 중국의 10배를 초과하는 극적인 반전을

盛世”之說的由來, 『清史研究』 1號.

48 許毅·王國華(1995), 「康乾盛世到嘉道中落的歷史教訓」, 『真理的追求』 第8期. 이 글은 성세 쇠퇴의 원인을 통치계급이 스스로의 공로에 오만해져서 안일과 사치에 빠진 데서 찾았다. 사치와 부패풍조가 만연하여 팔기와 녹영의 군사력이 현저히 약해졌고 결국 국운을 망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49 郭成康(2002), 앞의 글, 41~78쪽.

보였다는 것이다.⁵⁰

한편 이런 위기국면에서 앞서 성세의 구성요인으로 찬사를 받았던 청조 전제황권이 비판대상으로 부각되었다. 곧 청조가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여 유연한 대처를 하지 못한 데에는 지나치게 비대·강화된 황제권력의 잘못된 현실인식과 경직성 등에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건륭연간에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상했던 관료집단의 부정부패 사건들, 곧 ‘탐오안(貪汚案)’이 정치체제의 난맥을 보여주는 예로 주목되었다.⁵¹ 그 밖에도 매킨타니 사절단의 내방에서 본격화된 유럽세력의 통상 요구와 세계 정세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책임도 황제체제의 경직성에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간주되었다.

한편 소수민족 문제와 관련된 전제황권의 강화와 관련해서도 부정적 요소들이 제시되었다. 곧 각 민족 문화전통과 지배체제 간의 마찰이 나타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권력이 요구된다. 중앙권력이 미약하면 다민족 간의 불화의 골이 깊어지며 지방의 혼란이 가중되므로 중앙권력은 계속 강화되는 추세였다. 이로 인해 성세기에는 고도의 집권정치가 나타났지만 이것은 대중 참여정치와 역행하는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여기서 대중의 참여가 없으면 근대사회의 수요에 적응하기 어렵고 ‘근대화’ 추진

50 다이이는 1890년대 중국 공업생산량은 전 세계 6.2%인 반면 유럽은 62%로 완전히 역전을 보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51 이 문제에 대해서는 郭成康의 연구가 선구를 이룬다. 郭成康·鄭寶鳳(1997), 「乾隆年間侵貪問題研究」, 『清史研究集』 8; 郭成康(1995), 「18世紀後期中國貪污問題研究」, 『清史研究』 第1期; 陳捷先(1997), 「乾隆肅貪研究」, 『清史論集』; 曹松林(2001), 「乾隆朝的貪污腐敗」, 『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 30-1 외 약 10여 편이 더 발표되었다.

이 곤란해진다는 점에서 중국의 낙후 원인이 제시되었다. 근대화를 제약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농업을 중시하고 상공업을 경시한 점을 들었다. 농업 생산력은 높으나 상공업 생산력이 낮아서 봉건적 폐쇄성이 심각해졌고, 이로 인해 외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대외관계에서 개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점, 타인을 멸시하는 자존자대의 태도로 세계를 볼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 등이 근대화의 실패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세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쇠국정책을 펴고 개혁을 거부하며 개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근대화 과정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청대 경제의 추이에 대해서도 2008년 청사공정 집담회의 기조강연에서 다이이는 청대 경제가 ‘낙타봉우리형’, 곧 전기와 말기는 부진하지만 중간부분이 높아지는 추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⁵² 곧 청조 건국 초기인 17세기 후반까지는 명말의 동란에서 경제가 점차 회복되는 시기였고 생산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성세기를 거치면서 최고의 발전 정점에 이르렀지만 결국 소농경제 위주의 경제구조로 인해 생산의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발달한 청대 경제는 점점 양적으로만 팽창되면서 질적으로는 정체된 상태로 빠져들었다는 것이다.

청사공정 주도학자들은 아편전쟁 등의 외부적 계기나 사건이 아니라 성세의 정점에 달한 청조 사회 내부에서 쇠퇴 원인을 찾고자 했다. 그러나 과연 성세를 분기점으로 청대 경제가 극적으로 쇠퇴했는지에 대해 최근 연구

52 “清代經濟宏觀趨勢的總體評價學術研討會”에는 주임인 戴逸을 필두로 副主任 馬大正, 朱誠如, 成崇德와 經濟史家인 吳承明, 方行, 魏金玉과 淸史·典志 經濟類 항목 담당자 등이 참여했다. 이 회의는 강건성세의 핵심을 이루는 경제변영과 그 변화를 점검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집필방향을 가늠할 단서를 제공한다.

들은 부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성세’의 강조는 오히려 청대 사회의 역동성과 전후 시대와의 유기적 관련성을 부정하게 될 우려를 낳는다.

IV. ‘성세’공세에 대한 비판적 움직임

다이이 등 청사공정 주도학자들의 계몽적 성격의 강건성세 선진이 표면화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현재 중국 정부의 정치적 목표와 요구를 직접 반영한 청사공정의 정치성에 대한 비판과 맥락을 함께한다. 특히 현재의 중국과 강건성세의 상황을 동일시하는 성세인식의 문제가 주된 공격목표가 되고 있다. 먼저 인접한 대만 학계의 동향과 미국계 원로 중국 학자 위잉스[余英時]의 강건성세와 청사공정 비판을 소개한다. 대만 국민당 정부는 1949년 이래 국가 주도하에 세 차례에 걸쳐 청사 개정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1961년 국방연구원 주재하에 기존의 『청사고(淸史稿)』를 손질하여 『청사(淸史)』가 편찬되었고 1978~1991년에 ‘원본으로 원본을 교정하고 권(卷)으로 권(卷)을 교정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청사고교주(淸史稿校註)』가 완성되었다.

이후에도 국사관(國史館)은 『청사고교주』를 바탕으로 당안사료들을 대거 보완하여 『신청사(新淸史)』 편찬을 추진하여 본기(本紀)와 지(志) 일부를 편찬했지만 아직 미완의 상태이다. 이 과정에 참여했던 청사 학자들은 이미 『청사고』라는 원고본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관찬 사서 편찬의 고충을 충분히 경험한 바 있다.⁵³ 새로운 청사의 체제, 편찬방법, 기존 『청사고』와의 관계를 놓고 오랜 시간 진통을 겪었던 대만 청사학계는 대륙에서 다시 시작

53 葉高樹(2008), 앞의 글.

되는 관찬 청사공정 작업에 대해 직접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다만 청사편찬에 부분적으로 참여한 일부 학자들이 체제·배열 등에서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우려의 시선을 보였다. 자신이 청사편찬 경험에서 얻은 유의사항 등을 전달했던 대만을 대표하는 청사 학자 왕지파는 최근 공정 작업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⁵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위잉스는 청사공정 전반, 특히 성세의식과 연결된 찬수 목적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⁵⁵ 그는 인민폐 6억 원이라는 방대한 자금과 10년이란 시간을 투여해서 3,000만 자의 관찬 역사를 지금 다시 편찬할 필요성이 있는지 반문했다. 먼저 청사공정의 출발점에서 표방한 ‘역대수사와 성세수사’라는 관념이 모두 왕조 교체 후 신정권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여하려는 전통사상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청사공정에 참여한 학자들이 전통에 근거한 청사편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일부 저술에서는 ‘봉건 제왕의 사상을 타파하자’는 입장을 견지하는 모순점을 꼬집기도 했다. 위잉스는 앞서 추진된 ‘삼대(三代)공정’과 마찬가지로 청사공정 역시 인민의 대표인 자신들의 정체성을 왕조의 계승자로 바꿔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고 이런 관념 자체가 오류일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와도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건성세 역사인식에서 드러난 영사사관의 영향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위잉스는 일찍이 마오쩌둥 정권의 영사사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⁵⁶ 그는 강건성세를 현실과 직결시킨 인식이 곧 현재의 중국 정부가 최근의 경제발전을 들어 스스로 성세에 진

54 葉高樹(2008), 앞의 글.

55 余英時, 「重修清史沒必要且荒謬」, 自由亞洲電臺 (<http://www.dajiyuan.com>).

56 余英時(2004), 『十字路口的中國史學』, 上海古籍出版社.

입했다고 자부한 데서 비롯되었으나, 과연 현재를 성세로 볼 수 있는지 반문했다. 나아가 청사공정 담당 학자들의 역사관과 수준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청사공정 책임자인 다이이는 일찍이, “이전 청사고는 청조 유로들이 찬수했기 때문에 반동, 봉건, 낙후한 관점을 갖고 있어 진실을 표현할 수 없다.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등 세 가지 이론을 따르는 가운데 다시 청사를 중수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이미 파산해 버린 역사관에 의거하여 청사를 찬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되물었다. 또 현재 중국 역사학계가 현대적 역사학 훈련이 결여되어 청사를 찬수할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입찰 방식으로 원고를 쓰는 현재 방식으로는 저술의 질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사공정의 출범 초기부터 나타난 이런 비판론들이 과연 청사 편찬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수용될지는 향후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성세수사’ 의식을 바탕으로 한 청사편찬은 중국 내에서도 만만찮은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국가 후원을 통한 관찬 청사편찬,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성세인식을 둘러싸고 초기부터 지식인층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성세를 둘러싼 역사인식의 차이는 현재 중국 사회에 대한 평가·인식과 직결되는 점에서 청사공정에 대한 찬반 양편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런 대립이 청사공정의 향방과 나아가 중국의 지식사회의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건성세를 강조하는 분위기에 반기를 든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중문학자 저우스위안(周思源)으로 그는 2002년 청사공정이 출범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일련의 저작과 강연활동을 통해 비판적 논의를 폈다.⁵⁷ 2002년 6월 19

⁵⁷ 北京語言大學 교수를 역임했고, 「홍루몽」 연구가로 유명하다.

일, 「강건지세를 정확히 보아야 한다-다이이 선생과의 토론[正確看待康乾之世-與戴逸先生商榷]」을 발표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저우스위안은 이 시기 역사를 성세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강건지세’라는 표현을 사용했다.⁵⁸ 이 글은 앞서 3월 20일, 같은 지면에 발표된 다이이의 강옹건시대 역사인식에 대한 소개 글인 「성세의 타락-다이이가 강옹건시대 역사에 대해 논하다[盛世的沉淪-戴逸談康雍乾歷史]」를 비판하기 위해 발표되었다. 그 뒤 7월, 다이이는 여기에 답하는 형식으로 다시 같은 지면에 반박문을 기고해서 적극적인 반론을 폈다.⁵⁹ 저우스위안 역시 두 달 뒤 중국현대문화관에서 「강옹건 치세를 정확히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如何正確看待康雍乾三世]」라는 공개강연에서 재반론을 폈다.⁶⁰

그의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전개되었다. 첫째, 성세의 기준이 되는 생산력과 경제발전 면에서 강건성세에 세계적으로 최고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데 반대했다. 특히 인구나 생산량 같은 정량적 경제지표로 역사상의 ‘성세’들을 단순 비교하는 것을 비판했는데, 이것은 시대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강옹건시기의 경제발전은 명말의 전란 이후 경제회복에 지나지 않으며 새로운 생산방식이나 과학기술로 인해 유발된 생산력의 발달기로 볼 수 없다. 더욱이 ‘한당성세’ 때 보인 문화·정치 등 다양한 세계적 선진성은 청대에 오히려 축소되었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 성세의 판별 기준으로 경제력만이 아니라 표방하는 가치와 문

58 周思源(2002. 6. 19), 「正確看待康乾之世-與戴逸先生商榷」, 『中華讀書報』.

59 앞의 주 38 참조.

60 9월 15일의 강연 원고인 ‘如何正確看待康雍乾三世’는 「質疑康乾‘盛世’說」이라는 제목으로 『中國文化研究』 2002年 第4期에 실렸다.

화, 정신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사상과 정치환경 및 이단적 주장에 대한 관용과 자유 여부 등 정신적 요소와 사회기풍 등이 성세를 판정하는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청조의 세 황제 시기는 성세가 아니라 전제주의를 가장 장기적으로 철저하게 진행시킨 민족정신의 말살시기에 속한다고 보았다. 또한 현실 중국 사회를 성세에 투영시키려는 경향을 경계하며 현 정부를 비판한 점은 앞의 위잉스의 견해와 유사하다. 저우스위안은 성세에 대한 과도한 열기가 현재의 사회 병리현상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우민주의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보였다.

저우스위안의 비평활동은 이후 강옹건시대의 역사적 과오를 지적하는 방향으로 한층 강화되었다.⁶¹ 이 시기 위정자들은 일단 민족정신을 철저히 말살한 점에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청조 건국 초기의 중국은 이미 명대 이래 엄격한 중앙집권제와 낙후된 경제방식으로 세계사적 조류에 뒤지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세 황제의 통치기간에 ‘문자옥’으로 대표되는 극단적 전제주의가 중국인의 사상에서 생명력을 말살시켰고, 장기간에 걸친 철저하고 잔인한 지식인 탄압으로 인격과 정신을 상실하게 했다. 지식인 관료층은 노예화되어 외세에 대한 만주족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저지할 힘을 잃었고, 통치층의 무능력이 위기를 심화시켜 중국 내부의 활력이 고갈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의 회생은 20세기 중국 현대사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도약, 곧 20세기 초반의 신해혁명, 5·4운동과 1990년대 덩샤오핑이 주도한 개방화

61 汪晟(2007. 4. 24), 「周思源教授應邀在中科院做講座談“康乾盛世”」. 앞서 12日, 周思源 教授는 中科院研究生院에서 “如何正確看待康乾盛世”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그 뒤 다시 “康乾盛世”의 謊言: 三朝失誤使中國喪失了一百多年을 발표했다.

를 통해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신해혁명기에 시작된 사상해방 과정이 없었다면 사회생산성의 발전도 없었다는 것이다. 곧 이 시기에 중국 민중들 사이에서 독립된 인격의 자각 및 비판과 회의 정신을 고무하고 적극적인 민족정신을 끌어내는 제1차 사상의 도약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제2차 도약은 덩샤오핑이 실용주의 노선을 천명, 진취적인 개방의 물결을 사회 전면에 이끌어낸 데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저우스위안의 주장에서는 과거 중국 사회에서 발생했던 상이한 역사적 쟁점과 주장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사실 청조 역사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하고 현재를 200여 년간 가장 번영·부유하고 강성한 성세로 간주한 현실관은 20세기 중국공산당이 주도한 혁명과정의 정당성을 평가 절하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저우는 바로 이 점을 지적, 강건성세 열풍이 개방화 물결과 맞물려 중국혁명의 근본을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주장에서는 20세기 초반, 중국 사회를 풍미했던 한족 우월주의적인 입장을 읽을 수 있다. 한인 지식인의 문화창조, 전수능력과 창의성이 말살된 것은 만주족 지배층들이 스스로의 정통성에 약점을 가진 데서 비롯되었다는 역사인식은 아직까지도 중국 사회 일각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다민족이 융합된 국민국가를 창출해야 하는 현재의 중국 정부로서는 한족 민족주의의 이러한 과상공격은 사회분열의 단서가 될지 모르는 대단히 위험한 조류이다. 성세를 둘러싼 이러한 공방은 현재 지식인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갈등과 연결되어 앞으로도 상당한 파문을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사회 각층에서 성세인식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표출되고 있다. 역사학계에서는 첸화리[簡華麗]가 저명한 명청 사학자 고성(顧誠)의 연구를 인용하여 성세인식을 재고할 것을 주장했다.⁶² 고성은 일찍이 『남명사(南明史)』의 서론에서 “청조체제의 확립은 전국 생산력의 대규모 파괴를 대가로

얻어졌다. 강건성세라고 칭하지만 바로 이 기간 동안 서구사회의 발전수준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첸화리는 이에 적극 동의하며 강옹건시기에 이미 많은 사회문제가 배태되었고 정치·경제·과학 기술 문화는 물론 인간성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국과 서구세계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장후이민(張惠民) 역시 봉건사회의 말기에 속하는 강건성세는 멸망을 앞에 둔 회광반조에 불과하며, 세계 역사의 조류와 연결시켜 보면 성세는 결국 중국의 낙후성을 야기시켰다는 유사한 주장을 폈다.⁶³ 18세기 말 영국에서 파견한 매카트니 사절단이 당시의 ‘성세’를 어떻게 보았는지 타인의 시선을 통해 성세를 재구성한 논고도 주목된다.⁶⁴ 여기서도 역시 정치체도의 진보성, 법률의 공정성, 국민정신의 억압정도, 정신과 물질생활 등의 기준에서 당시 청조를 성세로 보는 시각이 보편타당한 것일까 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나아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세열풍에 대한 좀 더 신랄한 비평들이 분출되고 있어 주목된다. 전국 정협위원으로 저명한 극작가인 웨이밍룬(魏明倫)은 강건성세란 당대의 어용문인들의 아침에 불과하며 결국은 자화자찬에 그친다는 쓴소리를 던졌다. 곧 현재 성세의 경제나 영토개척 등의 업적 역시 객관적으로 볼 때 과대평가되었다는 것이다.⁶⁵ 나아가 성세를 거짓말로 단정하는 과격한 언사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이들 논고에서는 청조

62 簡華麗(2004), 「關於“康乾盛世”的再思考」, 『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2期.

63 張惠民(2006), 「不要過分頌揚“康乾盛世”」, 『歷史學習』 第2期.

64 寧一·龐永三(2004), 「馬戛爾尼眼中的“康乾盛世”」, 『歷史教學』 2.

65 魏明倫(2003), 「“康乾”不應稱“盛世”」, 『中州統戰』 第8期; 魏明倫(2006), 「“康乾”不應稱“盛世”」, 『政工學刊』 第1期.

를 그린 드라마가 난무하고 ‘대청’의 역사가 강단을 점거하며 사람마다 강건 성세를 칭송하는 현재의 분위기를 비판하며 만약 성세가 150여 년 지속되었다면 이후의 굴욕의 역사는 왜 발생했는지 묻고 있다.⁶⁶ 청말의 곤란상이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은 여타 논고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⁶⁷ 또한 강건성세의 신격화와 연구 열풍이 자기최면과 자기애에서 기인하여 결국 대중들을 상대로 애국주의의 계몽운동을 편 데 불과하다는 비판적 성찰도 제기되었다.⁶⁸ 이런 논고들은 원사료를 이용한 본격적인 학술연구가 아니라 단편적인 사실을 강조한 논설들로 상당부분 감정적인 흑백논리에 치우쳐 있다. 그러나 현재 청사공정 주도층의 강건성세 인식 역시 대규모 청사편수 작업의 출범을 위한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출발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성세의 존재를 고정화시킨 위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역사 사실들을 중층적으로 쌓아올리는 식의 성세 연구 방법으로는 똑같은 방법으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반대입장과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청사공정의 출범을 놓고 학계와 정치계의 협동작업이 ‘강건성세(康乾盛世)’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형성되고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66 胡長青(2008), 「“康乾盛世”的謊言」, 『民間故事選刊·秘聞』第10期.

67 俞雷(2006), 「從“康乾盛世”的衰落看創新」, 『浙商』第4期.

68 王貴成(2007), 「“康乾盛世”何足道」, 『法制博覽』第11期.

청조의 ‘강건성세’는 현재 중국의 자기인식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성세의식은 청제국이 경제·정치·문화적 번영을 누리던 세계적 강자였음을 강조하면서 대국 중국의 자긍심을 회복하려는 의도와 함께 더욱 고양되었다. 즉 청조가 남긴 영토, 인구, 민족 융합 등의 유산이 바로 현재의 중국으로 이어진다는 데서 ‘대국’의 정체성과 당위성을 역사로부터 확인받고자 했다. 또 한 가지, 청사공정 주도 학자들은 강건성세로부터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아 서구 열강 앞에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어야 했던 역사적 교훈을 도출해내어 이를 바로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연결시켜 단결의 명분으로 삼고자 했다.

이런 배경하에서 성세의식은 역사학계와 정치권의 공통된 관심사로 떠올랐고 청사공정이라는 공동작업을 이끌어낸 강력한 힘으로 작용했다. 성세를 둘러싼 중국 사회의 대중적 열기는 20세기 중국 혁명과정에서 폐기처분했던 역사들을 꺼내어 민족 자긍심으로 세탁시키는 과정이기도 했다. 강건성세가 주요 주제로 부상한 것은 만주족 청조의 타락과 봉건지배세력의 부패상이 중국혁명기에 극복해야 할 주요 모순으로 꼽혔던 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또한 문화혁명기를 거치면서 중국공산당이 전통 중국 사회 지배문화의 봉건성을 전면적으로 극복하려고 했던 움직임에서 볼 때, 강건성세는 현 정권이 스스로의 이념적 기반을 문화보수주의로 전환하는 상징으로도 읽혀진다.

성세의식에 근거한 청사공정 편찬의 위험성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사회 안팎에서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것은 성세열풍이 역사학자들의 현실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의 반영이라는 수준을 넘어 당 중앙의 정치적 요구와 지나치게 밀착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정치와 제도, 문화적 성장과 변용이라는 측면에서 18세기 중국은 근세 세계를 이해하

는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해 준다. 다만 이 문제가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 강조되기 시작한다면, 더욱이 부유하고 강력한 중국에 대한 공감대의 확산이라는 아전인수격의 해석으로 확대된다면 모처럼의 학문적 연구성과조차도 오히려 손상될 위해성이 크다. 성세는 청사공정 출범단계에서 정치적 목적의식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주제였다.

사실 강건성세라는 전통적 관념을 굳이 차용하지 않더라도 세계 학계는 18세기 중국의 번영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출간된 개설서는 ‘성세’라는 용어로 이 시기의 사회상을 서술하기도 했다.⁶⁹ 전 세계 자본주의 발전과정을 시야에 두고 중국 경제의 위상을 논한 최근의 경제사적 접근을 통해 18세기 중국의 물질적 기초가 결코 허약하지 않았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이 문제를 제기한 대표적인 학자인 빈왕(Bin Wong)과 포머런츠(K. Pomeranz) 등은 16세기 이후 유럽과 중국의 사회발전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는 과제에 도전했다.⁷⁰ 이들은 19세기까지 중국 양자강 하류지역, 일본과 인도의 선진지역을 영국과 비교해 보면 인구, 임금, 기술, 법적 제도, 신용 등 모든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곧 19세기 유럽의 약진을 결정적으로 만든 ‘거대한 분기점(great divergence)’은 중국 경제의 쇠퇴 때문이 아니라 유럽 경제성장의 가속화 때문이고 그것은 특히 영국에서 철과 석탄 자원을 결합하고 아메리카의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

69 上田信(2005), 「シリーズ中國の歴史」, 『海と帝國-明清時代』, 講談社. 이 책에서는 18세기 중국의 성세를 인구증가와 경제규모 등의 지표로 설명하고 있다.

70 Kenneth Pomeranz(2000), *The Great Divergence, China, Europe,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Economy*,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리오리엔트』를 쓴 프랭크(A. G. Frank) 등도 이 계통에 포함된다.

것은 전적으로 우연의 결과라는 것이다. 19세기에 와서 유럽이 산업화를 통해 큰 차이를 만들어 냈지만 그것은 똑같이 생태학적 위기에 직면한 유럽이 석탄 같은 새로운 에너지를 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착취를 통해 아메리카 등 해외의 막대한 자원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본다.

이러한 세계 연구의 동향은 청사공정 주도층의 성세론에서도 성세를 뒷받침해 주는 명백한 증거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역사의 특정 국면을 규정하는 ‘강건성세’ 인식은 성세와 성세의 굴절이라는 이분법으로 인해 오히려 성숙한 역사인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현재 중국 학계의 강건성세론은 중국이 100여 년 동안 유럽에 비해 정체·낙후되었다는 전제를 깔고 산업화의 기회를 놓친 요인을 찾으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 경우 정치체제와 문화, 사회의 유기적 결합을 바탕으로 한 중국 고유의 역사 전통이 구조의 장기지속에 미친 영향력이 경시되거나 과소평가될 위험성 역시 크다. 현재 중국 사회의 ‘강건성세론’ 찬반논쟁은 발전과 정체의 근대화론적 이분법이 아니라 역사 변화의 인과관계와 유형을 좀 더 유기적으로 파악하려는 접근방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최근 중국에서의 청대사

연구동향의 분석

- 특히 조청관계사와 국경문제 연구를 중심으로

김형종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최근의 조청관계사와 국경문제 관련 자료의 출판 현황
- III. 최근의 조청관계사와 국경문제에 대한 연구동향
- IV. 맺음말 - 전망과 모색

I. 머리말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중국에서 이루어진 청대사(清代史) 연구의 동향, 특히 한국·중국 관계사(이하 체제상의 통일을 위해 朝淸關係史로 약칭하겠다)와 조선·청(朝淸) 사이의 국경문제에 관련된 연구동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른바 ‘동북공정’뿐만 아니라 2002년 말부터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청사편찬공정(國家淸史編纂工程)’은 청대사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조선(朝鮮)과의 관계사나¹ 조청 국경문제²에 대한 우리의 관

-
- 1 한국에서 清代 韓中關係史(朝淸關係史)에 대한 기존의 연구상황을 정리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을 주로 참고할 수 있다. 奎海宗(2000), 「동북(만주)사에 대한 중국에서의 연구(1949~1988)」, 『동아시아사의 비교와 교류』, 지식산업사; 金基勳(1996), 「近代 中國東北(滿洲)史 研究의 動向」, 『白山學報』 47[白山學會編(2005), 『韓中領土의 관한 研究』, 백산자료원]; 崔韶子(2003), 「明清時代 對外關係史의 성과와 과제」, 『明清史研究』 第19輯; 金衡鍾(2004), 「1990年以來의 韓國における 清代政治史研究의 動向」, 『中國史學』 14; 노기식(2004), 「중국의 청 전기 만주(東北) 및 조선 관계 연구 동향」, 『중국의 東北邊疆 연구 동향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김춘선(2005), 「조선 후기 한인의 만주로의 ‘犯越’과 정착과정」, 白山學會編, 『韓中領土의 관한 研究』, 백산자료원; 김기훈(2006), 「韓人の 만주이민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백산학보』 76; 권혁수(2007), 「중국 학계의 근대 중한관계사 연구현황에 대하여」, 『근대한중관계사의 재조명』, 혜안 등. 한편 이 분야에 관련된 문헌목록으로는 최근 김시준·서경호 공편(2001), 『韓國中國學研究論著目録(1945~1999) 역사·철학·어문』, 솔출판사; 김위현(2002), 『韓中關係論著目録(1900~1999)』, 예문춘추관; 고구려연구재단 편(2004), 『한중관계사 연구논저 목록(중세)』, 고구려연구재단; 고구려연구재단 편(2005), 『한중관계사 연구논저 목록(근현대)』, 고구려연구재단 등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 편(2008), 『한·중역사관련 연구관련집 2007년판 상·하』, 동북아역사재단이 출판되어 연구와 검색에 큰 도움이

심과 새로운 분발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왕의 청대사 연구동향을 정리하면서 아울러 조청관계사 연구나 국경문제 연구 방면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작업은 충분히 현실적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한국에서의 기존 연구에 대해서는 이미 최근까지 상당한 정리가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 위에서 중복을 피하면서 특히 최근 중국에서의 연구동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비되는 우리의 연구동향이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아울러 살펴봄으로써 당장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가를 검토·확인해 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³

되고 있다.

- 2 이 문제에 좁혀서 연구동향을 다룬 것으로는 김춘선(2002), 「鴨綠·豆滿江 국경문제에 관한 한·중 양국의 연구동향」, 『韓國史學報』 12; 김춘선(2003), 「朝鮮人の東北移住와 中·朝(韓) 國境問題 研究動向-중국학계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韓中關係史 研究의 成果와 課題』,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학회; 고성훈(2003), 「조선 후기 조·청 국경문제에 대한 연구사 검토-백두산정계비를 중심으로」, 『한중관계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국사편찬위원회; 배성준(2004), 「중국의 조·청 국경문제 연구 동향」, 『중국의 東北邊疆 연구 동향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배성준(2007), 「한·중의 간도문제 인식과 갈등구조」, 『동아시아 삼국의 역사인식과 영토문제』(2007년 10월 25일,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회의) 등을 들 수 있다.
- 3 최근 中國(과 臺灣)에서의 淸史 및 그와 관련된 여러 연구의 동향에 대해서는 王家儉(1988), 「淸史研究的回顧」, 『六十年來的中國近代史研究』 上,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張存武(1989), 「近代中韓關係史的研究」, 『六十年來的中國近代史研究』 下,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趙中孚(1989), 「近代東北移民開發史研究的回顧」, 同前書; 陳生璽·杜家驥 編(1991), 『淸史研究概況』, 天津教育出版社;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明清史研究室(2001), 『淸史論叢』 1999年號, 河北教育

이 공동연구의 과제 분담으로 필자는 특히 정리의 초점을 최근 중국에서 이루어진 조청관계사나 국경문제에 관련된 연구에만 한정하여, 거기에 중점을 두고 정리하는 방향을 맡게 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최근 20여 년 정도로 한정하여 중국 대륙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대사 연구와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면서 특히 조청관계사나 국경문제에 관한 자료·당안의 정리·출판이나 조청관계사 관련 연구서의 출판과 거기서 나타나는 일반적 동향을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논문으로 발표된 기존 연구성과도 적지 않지만, 이미 어느 정도 정리와 소개가 이루어져 있는 만큼 가능한 한 중복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고, 새로운 방향이나 과제의 모색을 위한 효율적인 정리

出版社; 鈔曉鴻·鄭振滿(2003), 「二十世紀的清史研究」, 『歷史研究』第3期; 龔書鐸·李文海 主編, 王東平 著(2004), 『中華文明起源和民族問題的論辯』, 百花洲文藝出版社; 傅德華(2006), 『臺灣袁世凱研究概述』, 蘇智良 等編, 『袁世凱與北洋軍閥』, 上海人民出版社 所收 등을 참조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清史 또는 清代史 연구에서 韓中關係史나 國境史 분야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작은 부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 이를테면 바로 앞서 든 鈔曉鴻·鄭振滿의 20세기 청사 연구 회고가 35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20세기 전체의 청대사 연구 거의 모든 분야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조청관계사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아도 그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앞의 논문 가운데 張存武나 趙中孚의 논문이 그래도 專論이라고 할 수 있는데, 張存武의 논문은 10쪽에 지나지 않으며, 趙中孚의 논문도 24쪽인데, 여기서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최근이 되어야 厲聲 等編(2002), 『中國邊疆史地研究綜述(1989~1998)』, 黑龍江教育出版社; 馬大正 지음, 이영옥 옮김(2004), 『중국의 동북 변강 연구』, 고구려연구재단; 馬大正 지음, 조세현 옮김(2004), 『중국의 국경·영토의식-20세기 중국의 변강사 연구』, 고구려연구재단[馬大正 等(1998), 『二十世紀的中國邊疆研究——門發展中的邊疆學科的演進歷程』, 黑龍江教育出版社 8]; 고구려연구재단 편(2004), 『중국의 東北邊疆研究 동향분석』, 고구려연구재단 등을 통해서 邊疆研究의 동향의 일

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파악보다는 전반적인 연구의 흐름이나 동향을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최근 중국에서는 본 주제와 관련된 자료나 당안의 출판이 우리의 상황과 비교하면 훨씬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의 촉발을 기대하는 의도도 물론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동향의 정리와 새로운 방향의 모색을 통해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청사편찬공정’의 기본적인 바탕을 이루는 연구동향이나 방향을 이해하고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우리 학계에서 계속 주목해야 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⁴ 최근의 조청관계사나

환으로서의 東北 研究의 동향을 엿볼 수 있게 되는 정도이다. 臺灣에서의 연구를 제외한다면, 중국 대륙에서의 조청관계사 연구는 아주 최근에 와서야 조금씩 관심을 모으게 되는 정도인 것이다. 한편 朴鍵一 主編(2006), 『中國對朝鮮半島的研究』(民族出版社)는 중국에서의 ‘조선’ 전반에 대한 연구동향을 각 지역별로 나누어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으므로 앞서 소개한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편람집과 더불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공동연구의 중간보고가 이루어진 후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학연구소와 사학과 주체로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본 청사연구-清史工程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대회(이화사학연구소 제33회 정기학술대회, 2008. 11. 14)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 陳尙勝(山東大), 「近十五年中國學術界關於清朝與朝鮮關係史研究述評」과 葉高樹(國立臺灣師範大學), 「最近十年(1998~2008)臺灣清史研究的動向」이란 제목의 두 논문이 발표되었다. 특히 前者의 논문은 이 글과도 겹치는 바가 많았고, 필자가 미처 파악하거나 확보하지 못한 자료도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밝혀 둔다.

- 4 이에 대해서는 정혜중·김형중·유장근(2007), 『중국의 청사공정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Zhao Ma(2008), “Research Trends in Asia: ‘Writing History during prosperous Age : the New Qing History Project’,” *Late Imperial China*, Vol.

국경문제 연구와 관련된 중국 학계의 동향을 정리하는 것이 이러한 과제의 수행에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될 수 있다면, 이 보고는 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 최근의 조청관계사와 국경문제 관련 자료의 출판 현황

우선 조청관계사와 국경문제에 관련된 자료의 출판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이 분야에 관한 중국에서의 자료출판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다. 중화민국 시기에 이미 출판된 왕량[王亮] 편, 『청계외교사료(淸季外交史料)』(天津: 學苑出版社, 1999影印 등 여러 판본이 있다)나 고궁박물관(故宮博物院), 『청광서조중일교섭사료(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1932, 文海出版社의 1963년 影印版)·『만청입관전과 고려교섭 사료[滿清入關前與高麗交涉史料]』(國學文庫第六編, 北京, 1933),⁵ 진위푸[金毓黻] 편, 『요해총서(遼海叢書)』 정집(正集)(審陽, 1933~1936, 遼沈書社, 1984 10集 5冊 影印出版)은 사실상 청대 전기나 후기의 양국 관계를 이해하는 데 여전히 가장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1970년대 대만[臺灣]에서 출간된 중앙연구원근대사연구소(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편, 『청계중일한관계사료(淸季中日韓關係史料)』(전11책,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72, 국내 影印版도 있음)나⁶ 리위주[李毓澍], 『청계중일한관계자료 30종 종합분류

29, No. 1을 참조.

5 최근 출판된 張存武 等編(2000), 『淸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1619~1643)』, 臺北: 三民書局은 이와 비슷하지만 좀 더 보완된 성격의 자료집이다.

6 여기에는 청대 總理各國事務衙門의 ‘朝鮮檔’을 중심으로 同治 3년(1864)부터 宣統 3년(1911)까지 모두 5,048건의 원시자료가 수록되어 있어, 현재까지 청대 후기 조청관계사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료집으로 자리잡고 있다.

목록(淸季中日韓關係資料三十種綜合分類目錄』(2책. 中文研究資料中心, 977)과 자오중푸[趙中孚] 등편, 『근대중한관계사자료회편(近代中韓關係史資料彙編, 1860~1945)』(12책. 國史館, 1988)⁷ 등은 청대나 근대 양국관계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자료나 목록으로서 가장 완비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1970년대까지는 대만에서 집중적으로 관련 자료가 편찬·출간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관련 분야 연구나 자료 출판은 상당히 저조하였던 것임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조청관계사나 국경문제 연구가 1980년대 이전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어 중국에서는 사실상 연구의 ‘금구(禁區)’나 마찬가지로였기 때문이다.⁸ 이 점은 최근에 와서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중국에서의 연구수준의 향상이나 한국과 중국 학계 사이의 시각 차이를 좁히는 데에는 상당한 장애가 있다는 우려를 피할 수 없다.⁹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이러한 상황은 상당히

7 清末부터 民國시대에 걸쳐 각종 新聞·雜誌나公私의 문헌에서 수집된 상관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8 앞서 든 厲聲이나 馬大正의 연구동향에 대한 서술을 참조.

9 이를테면 최근에선 CNKI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1994년 이후 중국에서 출간된 대부분의 연구논문이나 석박사 논문을 다운로드하여 인쇄해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기에서 다루는 조청관계사나 국경문제 연구와 같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연구는 접근이 상당히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물론 CNKI를 통해 모든 논문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孫春日·朴興鎭(2000), 「清代越界朝鮮人編入華籍之爭與中國籍法的制定」,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第2期와 같은 논문은 간단한 적요만 제공될 뿐 본문은 공개되지 않으며, 姜維公·李鳳蓮(2003), 「關於處理歷史時期中朝邊界問題的幾點建議」, 『長春師範學院學報』 第1期の 논문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라고 해서 연구성과의 공개를 제한하는 결과 때문이 아니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개선되었으며, 그에 따라 중국에서 해당 관련 자료의 출판은 이전에 비해 아주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한국과의 활발한 교류 이후 재정적인 후원을 얻어서 출판되는 경우도 늘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면서 적지 않게 공을 들여서 이루어진 작업이 적지 않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 여기에는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후원이 크게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우선 다양한 관련 사료에 대한 소개는 피하고 이 주제에 집중적으로 관련되는 자료만을 본다면, 가장 먼저 왕종한(王種翰), 『조선이조실록 중의 여진사료선편[朝鮮李朝實錄中的女眞史料選編]』(遼寧大學歷史系, 1979)이나 우한[吳翰], 『조선이조실록 중의 중국사료[朝鮮李朝實錄中的中國史料]』 1-12(中華書局, 1980)를 들 수 있다. 특히 후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영인·보급되어 있을 정도이고, 한글로도 이미 번역되어 있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이용한 자료인 만큼 우리 학계의 이 방면에 대한 무관심에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고 할 것이다. 이 책은 이를테면 중국과의 관계나 국경문제에 대한 부분을 쪽 훑어 내려가면서 파악해 나갈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므로 사실상 연구자에게는 상당한 이점을 제공해 준다. 또한 리주텐[李澍田] 주편(主編), 『청실록동북사료전집(淸實錄東北史料全集)』 1-4(吉林文史出版社, 1988)이나 왕충스[王崇實] 등 선편(選編), 『조선문헌 중의 중국동북사료[朝鮮文獻中的中國東北史料]』(吉林文史出版社, 1991)도 비슷한 성격의 자료이지만, 왕치궈[王其鉅] 편, 『청실록인국조선편(淸實錄鄰國朝鮮篇)』(中國社會科學院邊疆史地中心, 1987. 內部發行)이나 리주텐, 『청실록조선사료적편(淸實錄朝鮮史料摘編)』(吉林文史出版社, 1991)은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아주 큰 의미를 지니는 자료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980년대 중국에서도 영인·출판되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지만, 방대한 분량의 『대청역조실록(大清歷朝實錄)』을 통독해 가면

서 관련된 해당 자료를 찾아야만 하는 연구자의 수고를 덜어줄 뿐만 아니라, 이 자료를 통해서 특정한 시기나 주제 또는 청대 전반의 조청관계사나 ‘조선’에 대한 이해의 폭을 크게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유사한 자료의 편찬이 없는 한국 학계에는 큰 도움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조청관계사 연구자에게는 당연히 필독서가 될 것이다.

또한 이와 비슷한 성격의 것으로는 길림사범대학교적연구소(吉林師範大學古籍研究所) 편, 『26사중조관계사료선편(二十六史中朝關係史料選編)』(吉林文史出版社, 1995)이나 류즈민(劉子敏) 주편, 『중국정사 중의 조선사료[中國正史中的朝鮮史料]』 1·2(延邊大學出版社, 1996)가 있다. 이 자료들은 정사(正史)를 중심으로 중국사 전체에 걸친 조청관계사 자료를 망라하는 것을 목표로 편집되었다. 최근에는 이 자료들을 가장 완벽하게 집대성한 성격을 지닌 피아오싱진(朴興鎭) 등, 『동아삼국관계사료전집-중국26사금명청실록(東亞三國關係史料全輯-中國廿六史及明清實錄)』 전 5책(延邊大學, 2007)이라는 방대한 자료집이 출간되었다. 총 1,651쪽, 580만 자에 이르는 이 자료는 26사와 『명실록(明實錄)』·『청실록(淸實錄)』 외에도 선진문헌(先秦文獻)과 금석문헌(金石文獻)까지 포함한 방대한 분량으로 50여 명 이상의 관련 학자가 6년 여에 걸쳐 정리작업에 편찬하였으며, 한국 기업의 후원을 통해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장기적인 작업을 통해 완성·출간되었다. 당분간 조청관계사 전반에 대해서는 아마 가장 기본자료로 이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¹⁰

10 이에 대해서는 王臻(2008), 『『中國廿六史及明清實錄東亞關係史料全輯』의編纂綜述及史料價置』, 『東疆學刊』 25-1을 참조. 한편 청대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劉金質等編(2000), 『中朝中韓關係文件資料匯編(1919~1949)』, 中國社會科學出版社; 劉金質等編(1994), 『中朝中韓關係文件資料匯編(1949~1990) 1-5책』, 中國社會科學出版社; 劉金質等編(2006), 『中國與朝鮮半島國家關係文件資料彙編(1991~

그리고 너무 방대한 분량이라 여기서 일일이 소개하기 어렵지만, 대표적인 연구자 가운데 한 사람인 리주텐이 주편이 되어 1994년부터 펴내기 시작한 『장백총서(長白叢書)』(吉林文史出版社)의 존재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록 1에는 이 『장백총서』에 수록된 자료의 목록이 실려 있는데, 동북지역(東三省)에 관한 다양한 역사자료나 당안, 연구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편찬한 『동문회고(同文彙考)(1)-(4)』까지 들어 있다. 조선왕조가 편찬한 것으로 청대 한중관계사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 자료가 표점이 찍혀서 정리된 형태(橫書)로 출판된 것은 이 방면에 관한 관심과 노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 자료는 최근에야 국내에서 표점과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에 출간된 정이[鄭毅] 주편, 『동북농업경제사료집성(東北農業經濟史料集成)』 1-4권(吉林文史出版社, 2005)은 조청관계사나 국경에 관련된 집중적인 자료를 싣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청역조실록』이나 『동화록(東華錄)』과 같은 기본사료 외에도 『청조속문헌통고(清朝續文獻通考)』나 『대청회전사례(大清會典事例)』, 『만문노당(滿文老檔)』, 『청경세문편(淸經世文編)』, 『동삼성정략(東三省政略)』, 그리고 기존에 중국과 대만에서 출간된 다양한 종류의 청대 당안(檔案) [『궁중당건륭조주첩(宮中檔乾隆朝奏摺)』, 『광서조주비주첩(光緒朝

2006)』, 世界知識出版社; 楊軍·王秋彬(2006), 『中國與朝選半島關係史論』, 社會科學文獻出版社 등 근현대에 해당되는 韓中關係史 자료의 정리와 연구서의 출간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楊軍·王秋彬의 연구는 이러한 조청관계사 전반을 통시대적으로 이론화하고자 하는 시도이지만, 근현대 분야에서도 자료와 연구 면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중국 측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방면의 작업이 부족한 우리 측의 분발과 노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硃批奏摺』, 『강희조만문주비주접전역(康熙朝滿文硃批奏摺全譯)』, 『옹정조한문주비주접회편(雍正朝漢文硃批奏摺匯編)』 등을 조사하여 관련된 사료를 골라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청대 동북사(東北史) 연구자에게는 상당히 이용이 편리한 자료집이 될 것이다. 또한 아울러 조청관계사나 만주(동북) 관련 당안의 출간도 최근에는 활발해지고 있어 이 방면에 대한 우리 학계의 주의와 이용이 절실해진 시점이 되었다.

이를테면 중국제일역사당안관(中國第一歷史檔案館) 편, 『청대중조관계당안자료회편(清代中朝關係檔案史料匯編)』(國際文化出版公司, 1996 및 續編, 1998)이나 길림성당안관(吉林省檔案館), 『청대중조관계사료선집(清代中朝關係史料選輯)』(吉林人民出版社, 2000)은 기존에 그다지 공개되지 않았던 당안을 원건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점이 약간 아쉽지만(영인상태 등 때문에 육안으로 원문을 확인하면서 해독하는 작업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이미 최초로 이루어진 이 방면 당안자료의 출간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이 점은 관련 연구가 비로소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분기점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전자는 광서(光緒)연간(1875~1908)의 군기처(軍機處) 녹부주접(錄副奏摺) 417건(正編)과 건륭(乾隆)·동치(同治)연간(1736~1874) 및 선통(宣統)연간(1909~1911)의 군기처 녹부주접 396건(續編)을 공개하고 있다.¹¹ 또한 후자는 동치 11~선통 3년(1871~1911)의 조청관계 당안 149건을 공개하고 있다.

11 김용구(2008), 「조선·이질문명권의 충돌(1866~1871)과 열강의 외교문서: 중국, 일본, 미국, 영국, 러시아」, 근대한국외교문서편찬위원회 주관·동북아역사재단 후원, 『近代韓國外交文書』편찬사업학술발표회 발표논문', 9쪽에서는 이미 발표된 문서 외에는 새로운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있어 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제일역사당안관(第一歷史檔案館) 등편, 『혼춘부도통아문당(琿春副都統衙門檔)』(238책.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6)이나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요령성당안관(遼寧省檔案館) 합편(合編), 『동북변강당안선집: 청대·민국(東北邊疆檔案選輯: 清代·民國)』(151책.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7) 등이 출간된 것은 기왕에는 전혀 참고할 수 없었던 새로운 대형 자료집의 공개이므로 앞으로 이를 이용한 자료의 이용이나 연구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전자는 길림성 동부에 위치하여 러시아·조선과 접경하고 있는 혼춘(琿春)지역의 협령(協領)·부도통(副都統) 아문에서 만들어진 당안(光緒 26년, 즉 1901년 이전의 것은 의화단사건 때 러시아에 약탈당하였다가 20세기 후반에 반환을 받아 북경의 중국제일력사당안관에 보관되었던 것이고, 그 이후의 것은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구의 당안관에 소장되어 있었다)을 편찬한 것으로 건륭 2년에서 선통 원년까지의 시기에 걸쳐 만문(滿文)과 한문으로 쓰인 원건사료를 영인한 것인데, 그 방대한 내용은 앞으로 이 변경지역의 역사나 한중관계·교류사를 연구할 때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것이다.¹²

후자의 경우 바로 저 유명한 ‘동북공정’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마련된 당안사료이다. 이 당안사료는 각기 요령성당안관·길림성당안관·흑룡강성당안관에서 편집을 맡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00만여 권의 역사당안을 보유한 요령성당안관에서 편찬한 제1~84권의 분량은 특히 청대와 민국

12 琿春副都統衙門 檔案에 대해서는 또한 郭春芳(2004), 「清代琿春副都統衙門及其檔案」, 『歷史檔案』 3에도 상세한 소개가 있다. 이에 따르면 원건의 경우는 光緒연간 이전의 경우(광서 7년 副都統衙門으로 승격되기 이전)에는 滿文의 비중이 훨씬 높으며, 光緒연간에 들어선 다음에야 漢文당안의 비중이 滿文을 능가한다.

시대의 당안 가운데에서 「기인생계(旗人生計)」(15책. 1784~1924년 사이의 관련 당안), 「외교(外交)」(30책. 1899~1931의 당안으로 1~19책은 중일관계, 20~25책은 중·러관계, 26~29책은 朝·淸관계 漢文檔案, 30책은 日文資料이다), 「안동관무역(安東關貿易)」(11책으로 주로 중국·조선의 安東貿易에 대한 원시자료이다), 「변무(邊務)」(9책으로 1901~1931년의 동북의 군사문제 관련 당안), 「조선이민(朝鮮移民)」(19책으로 1~10책은 漢文檔案, 11~19책은 日文資料인데, 1911~1934년 시기에 관련된 것이다)이란 다섯 주제를 둘러싼 당안만을 선별한 것이다. 그리고 길림성당안관에서 편집을 맡은 부분은 제85~121권 부분은 「변무」(18책. 즉 85~102책으로 청조정부와 吉林將軍衙門의 군사 관련 당안), 「외교」(15책. 즉 103~117책으로 청말과 민국시기 러시아·일본·조선 관련 군사·무역·형사사건 등 다양한 당안을 시대별로 배열한 것), 「개발(開發)」(4책. 118~121책으로 청말 吉林省의 토지개발과 屯墾 등 주로 경제문제에 관련된 당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흑룡강성당안관에서 편집을 맡은 『흑룡강권(黑龍江卷)』 부분은 이 당안관에 소장된 것 가운데 농업개발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골라서 모은 것으로 함풍 원년에서 1932년 사이에 걸친 자료를 편년체 방식을 채택하여 시간 순으로 배열하고 있으며, 약 500쪽을 한 책으로 하여 모두 30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앞서의 당안과 같은 주제별 분류가 없어 이 점은 이용하는 데 좀 불편함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도서관분관(國家圖書館分館) 편, 『청대변강사료초고본회편(清代邊疆史料抄稿本彙編)』 50책(線裝書局, 2003) 또한 우리의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의 출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목록은 부록 2에 수록되어 있지만, ‘변강사료’ 가운데 조·청관계에만 주목한다면, 제1 책에 수록된 「동삼성지리도록(東三省地理圖說錄)」, 「동삼성해방차기(東三省海防劄記)」, 「동북변방집요(東北邊防輯要)」 등이나 제8책에 수록된 「길림협피구당(吉林夾皮溝檔)」, 「복감

도문계지담록공문절략(覆勘圖們界址談錄公文節略) 등의 자료가 눈에 띈다.¹³ 특히 「복감도문계지담록공문절략」과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도서관에도 원본이 보존되어 있지만, 중국 측에서 정리한 판본으로는 처음 공개되는 자료로 보이기 때문에 19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양국 간의 국경회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도서관 편, 『성경장군주접당(盛京將軍奏摺檔)』 2책(國家圖書館藏歷史檔案文獻叢刊, 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 2004)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도광(道光) 26~27년(1846~1847)의 주접 84건(滿文은 20건) 가운데 「도광 27년조선자문(道光二十七年朝鮮咨文)」 1권과 「도광26년사관동변조선자문병척위원찰류(道光二十六年查辦東邊朝鮮咨文並飭委員札諭)」 1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경장군, 지방관원과 신사 등이 변강의 방무(防務)에 대해 주고받은信函(信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공동연구가 진행되는 도중 최근 출간된 것을 알고 구독한 관련 자료로서 조청관계사나 국경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새로운 자료집은 부록 3과 4에 간단한 목록을 소개해 놓은 복지서원출판유한공사(蠡池書院出版有限公司) 편, 『근현대중국변강계무자료(近現代中國邊疆界務資料)』(香港: 蠡池書院出版有限公司, 2007. 5)와 『근현대중국변강계무자료 속편(續編)』(香港: 蠡池書院出版有限公司, 2007. 8)이다. 기존의 권위 있는 연구소나 당

13 다만 이 자료에는 기왕에 편찬된 관련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어 희귀성이 떨어지거나 그 내용이 「邊疆史料」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도 포함되어 있어 자료의 취사선택에 신중함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제50책의 「海運續案」과 같은 자료는 대운하를 통한 漕運에 문제가 생겨 19세기 후반 海路를 통한 漕運이 시행되는 경과를 정리한 자료집이므로 청대 漕運史 연구에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邊疆史料」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안관, 또는 연구자가 편집에 간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자료집은 일단 중국의 각 방향 변경별 국경 관련 자료를 모두 망라한 것으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한중 관련 자료로는 제8책의 「혼춘쇄기(琿琿瑣記)」, 「동수도리형세(東陲道里形勢)」, 「동북변방론(東北邊防論)」, 「주변의(籌邊議)」, 「동삼성변방의(東三省邊防議)」, 「중국강역연혁략(中國疆域沿革略)」, 「길림감계기(吉林勘界記)」, 「봉천변무집요(奉天邊務輯要)」, 「조아교계고(朝俄交界考)」, 「길림방무(吉林防務)」, 「대장유초학사문동수도리형세(對張幼樵學士問東陲道里形勢)」, 「중수영고탑아성기(重修寧古塔牙城記)」, 「상오청경수(上吳淸卿帥)」, 「중아교계기(中俄交界記)」, 「아라사강계비기(俄羅斯疆界碑記)」나 제12책의 「증조선인이병휘귀국서(贈朝鮮人李秉輝歸國序)」, 「보호조선의(保護朝鮮議)」 등이 눈에 띈다(정편). 그리고 속편에서는 제7책의 「중국국치지리(中國國地地理)」, 「근대중국변강재할사(近代中國邊疆宰割史)」, 「동삼성여지도설(東三省輿地圖說)」, 제8책의 「주변추언(籌邊芻言)」, 제9책의 「동삼성한민문제(東三省韓民問題)」, 「동수추의(東陲芻議)」 그리고 제9~10책의 「연길변무보고(延吉邊務報告)」 등이 눈에 띈다. 유감스러운 것은 기존에 쉽게 구해 볼 수 없었던 자료들이 상당히 섞여 있기는 하지만, 기존자료의 중복 출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그러한 분량은 전체적인 비중에서 본다면 오히려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분량은 차지하는 것은 제9~10책의 「연길변무보고」이지만, 이 자료는 이미 여러 형태로 영인·출간되어 있어 쓸데없는 중복이라는 느낌을 피하기 어렵다.¹⁴ 더구나 자료의 내용도 새로 편집해서 조판한 것이 아니고 인쇄상태

14 『延吉邊務報告』는 吳祿貞·周維楨의 編纂으로 淸 光緒 34년(1908) 吉林官書刷印局에서 鉛印本으로 처음 출간되었다. 이어 奉天學務公所 印刷處에서 나온 改訂版 鉛印本은 4권 8장이었다. 이 책은 3권(또는 4권)으로 원래의 제목은 ‘調查延吉邊

가 별로 좋지 않은 과거의 판본을 그대로 가져다가 영인한 것이어서 지면 낭비와 열독의 불편이라는 단점을 피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보인다.¹⁵

한편 최근 ‘국가청사편찬공정’의 일환으로 청대사 관련 자료나 문집의 출간이나 해외연구서의 번역 등이 다시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¹⁶ 특히 그 가운데 국가청사편찬위원회 편, 『이홍장전집(李鴻章全集)』 39책(中華書局, 2007)의 출간은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홍장(李鴻章)이 19세 후반 중국의 외교, 특히 조선과 관련된 외교사무를 주지하였던 인물이었음은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왕에도 그의 문집(文集)은 조·청관계사, 특히 근대외교사 연구에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였는데, 새로 편찬된 이 자료집은 기왕에 나와 있던 이홍장의 전집류(全集類)와 비교하면 거의 50%를 훨씬 넘는 자료의 증보가 있었다고 한다. 기왕에 알려진 가장 완비된 이홍장의 문집은 그 막료(幕僚)이기도 하였던 우루룬(吳汝綸)이 편찬한 『이문

務報告書’였는데 再版을 낼 때 ‘延吉邊務報告’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이 내용은 뒤이어 당시 東三省總督 徐世昌의 이름으로 간행된 『東三省政略』 宣統 3년(1911) 鉛印本, 平裝, 12권의 「延吉篇」에 수록되기도 하였다. 또 이러한 판본 외에도 여러 가지로 판본이 전해지고 있다. 이를테면 1961년 吉林省 도서관에서 복제한 騰寫本, 1969년 臺北 文海出版社의 『近代中國史料叢刊』(正編 317)에 포함되어 출간된 판본(原版影印本)도 있다. 또한 吉林師範大學古典研究所 李樹田 主編으로 吳祿貞 等撰, 朴慶輝 等 標注, 『延吉邊務報告, 延吉廳領土問題之解決』(長白叢書 初集. 吉林文史出版社, 1986)이라는 판본도 출간되었고, 이후 출간된 吳祿貞의 文集인 皮明休 等編, 『吳祿貞集』(華中師範大學出版社, 1989)에도 수록되어 있다. 臺灣에서 출간된 羅家倫 主編, 『革命文獻』 제31집(中央文物供應社, 1978)에도 수록되어 있다.

15 이를테면 「延吉邊務報告」는 이미 『吳祿貞集』에 훨씬 보기 좋게 표점과 조판이 이루어진 판본이 수록되어 있다.

16 이와 관련된 상세한 소식은 <http://www.qinghistory.cn/>을 참조.

충공전서(李文忠公全書)』 165권(1905. 약 600여만 자)이었는데,¹⁷ 청일전쟁 이후 실추된 이홍장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편집이 이루어졌지만 우루룬 사후 그의 조카사위가 우루룬의 명의로 출판을 하는 과정에서 경비부족 때문에 이 전서에선 당시 수집된 자료[底稿] 약 1,700~1,800만 자 가운데 1,000만 자 분량은 삭제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1992년부터 약 14년간에 걸쳐 30여 명 이상의 학자가 동원되어 새로 편찬된 『이홍장전집』은 모두 2,600만 자의 분량이라고 하므로, 예전에 공개되었던 자료에 비하면 아주 엄청난 분량의 자료 증가(全書에 비하면 2,100만 자의 증가)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전서가 편찬될 당시 공개될 수 없었던 군국대계(軍國大計)에 관련된 중요 문서, 그리고 당시 궁정에 남겨져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밀첩(密摺)과 상유(上諭), 대량의 전보(電報, 1만 4,000건의 전보 가운데 8,000건이 미공개된 것이라고 한다)와 신탁(信函, 약 9,000건 650만 자 정도로 전집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외에도 직예총독(直隸總督)을 맡았을 당시 이홍장이 남긴 대량의 제본(題本) 등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종래 공개된 적이 없는 자료가 3분의 2 가량 되므로 『이홍장전집』의 새로운 출간은 중국 근대사나 조청관계사 연구에 상당히 큰 자극이 될 것이다.¹⁸ 하지만 한 가지 유감스러운

17 이 책은 여러 차례 영인본이 나왔다. 1997년에는 海南出版社에서 표집이 이루어진 활자본 『李鴻章全集』 9책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연구자에게는 아주 이용이 편리한 판본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무엇을 근거로 편집하였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결점이 있었다. 또한 顧正龍 主編, 『李鴻章全集 電稿』 1-3권이 상해인민출판사에서 1985년 이후 출판된 적도 있었지만 이후 중단되었는데, 같은 편자가 이 새로운 전집으로 편찬한 만큼 이 새 전집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18 이에 대해서는 戴逸(2008), 「『李鴻章全集』序言」, 『清史研究』 第1期; 童本道(2008), 「『李鴻章全集』의史料價值」, 『社會科學戰線』 第3期; 王汝豐(2008), 「新編

것은 새로 공개되거나 증보된 자료의 대부분이 사실상 청일전쟁 이후의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조청관계사의 방면에서는 그만큼 큰 발견이나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실례로 이홍장이 조선에 관련된 외교사무를 주지하였던 시기의 한 해(1885)를 잡아서 신편 『이홍장전집』의 한 권을 검토해 보았지만, 예상외로 새로운 자료의 증보나 발견은 거의 기대할 수 없었다. 조선과 관련된 사료 자체가 아주 짧은 분량이거나 극소수의 것만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 점은 물론 전문 연구자가 좀 더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만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¹⁹

그런데 조·청 국경문제에 눈을 돌려 보면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양자 오취안(楊昭全)·쑤위메이(孫玉梅) 편, 『중조변계연혁과 계무교섭사료회편(中朝邊界沿革及界務交涉史料彙編)』(上·下. 吉林文史出版社, 1994)의 출간이다. ‘국가사회과학기금항목(國家社會科學基金項目)’의 하나로 출간된 이 자료는 후술할 『중조변계사(中朝邊界史)』의 자매편으로 ‘중조’관계의 연혁, 압록강과 두만강 및 백두산, 청대 중조·중일 ‘계무(界務)’교섭에 관한 역사문헌과 당안을 총망라하여 적록(摘錄)한 것이다. 따라서 선진문헌(先秦文獻)과 24사 및 청대·근대의 지방지와 성지(省志), 국경관계 중국 측 자료로서는 가장 대표

『李鴻章全集』評價, 『社會科學戰線』第3期の 소개를 참조하였다.

19 李鴻章 못지않게 近代 朝清關係史에서 핵심적인 인물을 차지하는 袁世凱의 全集이 출간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駱寶善·劉路生(2006), 『『袁世凱全集』介紹, 蘇智良 等編, 『袁世凱與北洋軍閥』, 上海人民出版社를 참조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에 있었을 당시 袁世凱의 글, 奏摺 등은 대체로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하는데, 書信이나 民初時期의 자료에는 빈 부분이 아직 많다고 한다. 사실 이 전집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준비 중이었으므로, 조속한 완성과 출판이 몹시 기대된다고 하겠다.

적인 우뢰진[吳祿貞]의 『연길변무보고』와 송자오린[宋教仁]의 『간도문제(間島問題)』에서부터 이홍장·총리아문(總理衙門)·동삼성총독(東三省總督)의 주점에 외교문서, 국경조사(勘界) 관련 지방관료의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이 주제에 관한 한 지금까지 나온 가장 포괄적인 자료집인 것이다. 이 자료집의 출간을 통해 중국 측에서는 조·청 국경문제에 관한 한 기초사료를 총망라하여 자신들의 입장과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적 근거와 학문적 뒷받침을 내세울 수 있는 준비를 이미 충분히 해 놓은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조선 측에서 작성된 자료가 상대적으로 빈약하게 수록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이 점은 양자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아야만 하는 논쟁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더욱 아쉽다), 앞서 소개한 자료집의 존재는 그것을 충분히 보완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자료는 편집과정에서 누락이나 착오가 적지 않아 그대로 이용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료를 읽다 보면 앞에서 인용한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글자가 쓰인 것이 자주 눈에 띄고, 그러한 것은 모두 오류와 불필요한 중복과 관련된 것이므로 신중한 취급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좀 더 주의 깊은 편집이었다면 이러한 오류나 많은 분량의 중복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가능하다면 원건 사료의 대조가 이루어져야만 확실한 논거로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 자료집에서 망라하는 자료는 적어도 그러한 결점을 충분히 뒤덮을 만한 범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자가 아직 구득해 보지는 못하였지만 권혁수(權赫秀) 편, 『근대중한관계사료선편(近代中韓關係史料選編)』(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8)은 근대 한중관계에 관련된 약장(約章) 17건과 문서 140건을 정리해서 수록하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이 분야에 뛰어난 연구업적을 과시하고 있는 학자이므로(후술) 역시 상당히 잘 만들어진 사료집일 것으로 기대된다.²⁰

반면 이와 관련된 우리 측 자료정리나 출간상황을 보면 같은 국경문제를 다루는 것인데도 너무나도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朝鮮時代나 당시 출간된 官文書를 제외한다면) 양태진, 『근세북방국경 관련사료초집록(近世北方國境關聯史料抄錄輯)』(法經出版社, 1992)이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데, 이 자료집은 『조선왕조실록』이나 『동문회고』²¹에서 적록하거나 영인한 부분을 모아 놓은 것으로 활자화와 표점 처리조차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전문 연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독자가 이용하기에도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다. 물론 1998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중세사강독 모임에서 번역·출판한 『조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 답사기』나 최근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계속 펴내고 있는 『조선시대 북방사 자료집(朝鮮時代北方史料輯)』(2004), 『조·청 국경회담 자료집(朝·淸國境會談資料輯)』(2005), 『백두산 정계비 자료집(白頭山定界碑資料輯)』(2006)이나 『국역 《동문회고》 강계 사료(國譯《同文彙考》疆界史料)』 1·2(2007, 2008) 등이 이를 보완하고 있어 상황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자료의 수집이나 번역·표점·해설 그리고 일반 독자의 접근이란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이 점은 앞서 중국에서의 상황을 상기해 보면 너무나 분명하다. 기왕의 모든 사료에서 관련된 자료를 고르고 편집하여 주제별로 정리한 자료집이 그야말로 널려 있다고 할 정도인 중국의 상황에 비교하면, 우리 측의 대응은 이제 겨우 막 출발점을 나

20 이 밖에도 우리나라에 번역·소개된 孫科志·徐榮靑 편저(2008), 『근대중국의 한국관련 간행물』(도서출판 신서원)은 중국 학자들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자료수집과 출간의 노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21 이 자료 역시 중국 측에서 다시 표점하여 정리한 판본이 출간되고 있다.

선 형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문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독자나 연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집이 아니라면 역사적 사실의 정확한 해석이나 전달에 장애가 있기 마련이고, 그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이해에 기초한 문제의식과 주장·연구로 연결되면서 특히 민감한 양국관계나 국경문제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 접근과 객관적인 이해를 오히려 크게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III. 최근의 조청관계사와 국경문제에 대한 연구동향

그러면 이제 조청관계사와 국경문제에 대한 최근 중국의 연구상황으로 눈을 돌려 보도록 하자. 이에 대해서는 앞서 든 기존의 연구동향을 정리한 글을 참고할 수 있을 터이므로 여기서 다시 상세하게 되풀이하지는 않겠다. 다만 최근의 출판상황을 보면 1990년대 이후 청대나 근대 한중관계사 관련 서적의 출간이 부쩍 늘어났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그 이전의 연구동향을 정리한 글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그것들은 대부분 두 세 쪽의 간단한 연구사 정리로 끝나고 있으며, 제대로 된 학문적 수준에 선 양국관계사의 서술은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20세기 중반에 존재하는 연구의 저조기(低調期)에 해당되기 때문일 것이고, 또한 학문적 연구의 금구(禁區)로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²² 때문에 범위를 좁혀 동북사나 민족사·변강사나 조선족사를 제외한다면,²³ 이 주제에 관한 연구서로는 1980년대의 경우 중국

22 勵聲·李國強 主編(2002), 『中國邊疆史地研究綜述(1989~1998)』, 黑龍江教育出版社, 85쪽.

23 이를테면 張博泉 等(1981), 『東北歷代疆域史』, 吉林人民出版社나; 王魁喜(1984),

에서는 피아오전시(朴眞奭), 『중조경제문화교류사연구(中朝經濟文化交流史研究)』(遼寧人民出版社, 1984) 정도가 눈에 띈 뿐이다. 오히려 이때까지는 자료의 출간에서도 마찬가지로였지만 린밍더(林明德), 『원세개와 조선(袁世凱與朝鮮)』(中央研究院近代研究所, 1970·1984); 자오중푸, 『청계중아동삼성계무교섭(淸季中俄東三省界務交涉)』(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70); 류자취(劉家駒), 『청대초기의 중한관계(淸代初期的中韓關係)』(臺北: 文史哲出版社, 1986)나 장춘우(張存武), 『1637~1894년의 청한중번무역(淸韓宗藩貿易1637~1894)』(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83; 김택중 등역, 『근대한중무역사』, 교문사, 2001); 장춘우, 『청대중한관계논문집(淸代中韓關係論文集)』(臺北: 商務印書館, 1987); 린즈허우(林子侯), 『갑오전쟁전의 중일한관계(甲午戰爭前之中日韓關係)』(玉山書局, 1990); 장서우전(張守眞), 『1905~1911년 청계동삼성의 철로개방정책(淸季東三省的鐵路開放政策1905~1911)』(復文圖書出版社, 1995) 등을 펴낸 대만 학계의 연구성과가 훨씬 두드러진 편이었다.²⁴

『近代東北史』, 黑龍江人民出版社; 佟冬 主編(1987), 『中國東北史』, 吉林文史出版社; 陳本善 主編(1989), 『日本侵略中國東北史』, 吉林大學出版社; 烏廷玉 等(1990), 『東北土地關係史研究』, 吉林文史出版社; 孔經緯 主編(1990), 『淸代東北地區經濟史』, 黑龍江人民出版社; 韓俊光 編(1988), 『朝鮮族遷入史資料匯集』, 延邊歷史研究所; 高永一(1989~1993), 『中國朝鮮族歷史研究參考資料編 第1·2輯』, 延邊大學出版社; 楊余練 等(1991), 『淸代東北史』, 遼寧教育出版社; 蔣秀松·朱在憲(1993), 『東北民族史綱』, 遼寧教育出版社 등 여러 연구서나 자료가 있다. 또한 譚其驤 主編(1988), 『中國歷史地圖集 釋文彙編 東北卷』, 中央民族學院出版社와 같은 경우도 『中國歷史地圖集 東北地區 資料彙編』, 中央民族學院出版社, 1979와 더불어 출간된 중요한 자료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4 이 점에 대해서는 연구동향을 정리한 앞서 든 여러 연구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張存武(1989), 「近代中韓關係史的研究」, 『六十年來的中國近代史研究』 下, 臺北: 中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중국 학계에서는 조청관계사 방면에 상당히 많은 연구성과를 배출하기 시작하였다. 개혁·개방의 진전 이후 활성화된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1992년에 이루어진 양국 간의 수교(修交)가 아마 그 계기로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⁵ 이를테면 이후 조청관계사나 국경문제에 관한 한 대표적인 연구자로 알려지게 된 양자오취안(楊昭全)과 쑤위메이(孫玉梅)의 공저인 『조선화교사(朝鮮華僑史)』(中國華僑出版公司, 1991), 양자오취안·한권광(韓俊光)의 『중조관계간사(中朝關係簡史)』(遼寧民族出版社, 1992)나 양자오취안, 『중조관계사논문집(中朝關係史論文集)』(遼寧民族出版社, 1992), 양자오취안·쑤위메이, 『중조변계사(中朝邊界史)』(吉林文史出版社, 1993)는 바로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에는 추이피[崔丕], 『근대동북아국제관계사연구(近代東北亞國際關係史研究)』(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92); 류용즈[劉永智], 『동북아연구-중조관계사연구(東北亞研究-中朝關係史研究)』(中州古籍出版社, 1994); 황즈런[黃枝連], 『천조예치체계연구(天朝禮治體系研究)』(上·中·下.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4·1995); 디아오수런[刁書仁] 편, 『중조관계사연구논문집(中朝關係史研究論文集)』(吉林文史出版社, 1995); 진구이춘[金龜春] 주편, 『중조한일관계사연구논총(中朝韓日關係史研究論叢) 1』(延邊大學出版社, 1995); 친웨이팡[陳偉芳] 지음(권혁수 역), 『청일갑오

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趙中學(1989), 「近代東北移民開發史研究的回顧」, 同前書; 傅德華(2006), 「臺灣袁世凱研究概述」, 蘇智良 等編, 『袁世凱與北洋軍閥』, 上海人民出版社; 陳尙勝(2008), 「近十五年中國學術界關於清朝與朝鮮關係史研究述評」; 葉高樹(2008), 「最近十年(1998~2008)臺灣清史研究的動向」 등.

25 이를테면 陳尙勝(2008), 앞의 글은 1993~2008년 사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거나 출간된 論著의 상황으로 보건대 이 시기의 논저는 1950~1992년까지 43년간 이루어진 수량을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75쪽).

전쟁과 조선』(백산자료원, 1996); 쉬완민[徐萬民], 『중한관계사(中韓關係史) 고대권(古代卷)』(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6)과 『중한관계사(中韓關係史) 근대권(近代卷)』(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6 → 진홍석 등 옮김, 『중한관계사 근대편』 일조각, 2009),²⁶ 천상성[陳尙勝], 『중한관계사론(中韓關係史論)』(齊魯書社, 1997)과 『중한교류삼천년(中韓交流三千年)』(中華書局, 1997); 장페이페이[蔣非非] 등, 『중한관계사 고대권(中韓關係史 古代卷)』(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8 → 김승일 역, 『중한관계사』, 범우, 2005); 왕밍싱[王明星], 『한국근대의교와 중국(韓國近代外交與中國)(1860~1910)』(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8); 왕루후이[王如繪], 『근대중일관계와 조선문제(近代中日關係與朝鮮問題)』(人民出版社, 1999) 등이 출간되고 있어 조청관계사 연구가 이제 개설서나 논문집을 출판하는 수준에서 점차 좀 더 주제나 범위를 좁힌 본격적인 학술적 연구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²⁷

이 점은 같은 시기에 조청관계사 또는 한중관계사 1세대의 연구가 대체로 마무리단계에 들어서지만, 후속 세대의 연구자가 그다지 배출되지 않고 있던 한국 동양사학계의 상황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한국 동양사학계에서의 이 방면에 대한 연구는 최근 그 흐름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동북공정’

26 같은 시리즈로 宋成有 等(1997), 『中韓關係史 現代卷』(社會科學文獻出版社)도 출간되었다.

27 논문집으로는 楊昭全(1998), 『中朝關係史論文集』, 世界知識出版社 외에도 刁書仁 等編(1995), 『中朝關係史研究論文集』, 吉林文史出版社; 吉林省社會科學院(1998), 『中朝邊界研究論集』, 吉林省社會科學院 등이 출간되었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참조하지 못하였다. 또한 王明星(1998), 『韓國近代外交與中國(1860~1910)』에서 다루는 내용은 종래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던 청일전쟁 이후의 시기가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의 연구에 기초가 될 수 있는 간략한 개설을 제공하고 있다.

에 따른 충격과가 본격적으로 다가온 21세기에 와서야 다시 활성화의 분위기를 획득할 수 있었다.

여하튼 21세기로 들어와서도 중국에서의 관련 방면의 연구는 상당히 활발한 모습을 보인다. 리즈팅[李治亭] 주편, 『동북통사(東北通史)』(中州古籍出版社, 2003)와 같은 통사 외에도 장룽관[姜龍範], 『근대중조일삼국대간도조선인적정책연구(近代中朝日三國對間島朝鮮人的政策研究)』(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2000); 디아오수런, 『명청중조일관계사연구(明清中朝日關係史研究)』(吉林文史出版社, 2001); 양자오취안·허통메이[何彤梅], 『중국-조선·한국관계사(中國-朝鮮·韓國關係史)』(天津人民出版社, 2001); 바이신량[白新良] 주편, 『중조관계사-명청시기(中朝關係史-明清時期)』(世界知識出版社, 2002); 류웨이[劉爲], 『청대중조사자왕래연구(清代中朝使者往來研究)』(黑龍江教育出版社, 2002); 웨이즈장[魏志江], 『중한관계사연구(中韓關係史研究)』(中山大學出版社, 2006); 양권[楊軍] 등, 『중국과 조선반도관계사론(中國與朝鮮半島關係史論)』(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장비보[張碧波], 『중국동북강역연구(中國東北疆域研究)』(黑龍江人民出版社, 2006); 장룽관, 『청대중조일관계사(清代中朝日關係史)』(吉林文史出版社, 2006. 筆者未見); 쉰쑹신[廉松心], 『십팔세기중조문화교류사연구(十八世紀中朝文化交流史研究)』(吉林文史出版社, 2006. 筆者未見); 자오싱위안[趙興元], 『청대중조관계사연구(清代中朝關係史研究)』(吉林文史出版社, 2006. 筆者未見); 피아오젠이[朴鍵一] 주편, 『중국대조선반도적연구(中國對朝鮮半島的研究)』(民族出版社, 2006); 송후이위안[宋慧娟], 『청대중조종번관계선변연구(清代中朝宗藩關係嬗變研究)』(吉林大學出版社, 2007. 筆者未見); 쑤웨이귀[孫衛國], 『대명기호여소중화의식-조선존주사명문제연구(大明旗號與小中華意識-朝鮮尊周思明問題研究)(1637~1800)』(商務印書館, 2007); 양자오취안, 『중국조선·한국문화교류사(中國朝鮮·韓國文化交流史)』 11-14(昆侖出版社, 2007); 뤼이란[呂一燃] 주편, 『중

국근대변계사(中國近代邊界史)』(上下, 四川人民出版社, 2007); 천상성[陳尙勝] 주 편, 『산동반도와 중한교류[山東半島與中韓交流]』(香港出版社, 2007. 筆者未見); 리화쯔[李花子], 『청조와 조선관계사연구-이월경교섭위중심[清朝與朝鮮關係史研究-以越境交涉爲中心]』(延邊大學出版社, 2006 → 『朝清國境問題研究』, 集文堂, 2008) 등 다수의 관련 서적이 출판되는 점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²⁸

여기서는 특히 조청관계사에 대한 통사적 개설서들이 여럿 출판되고 있다는 점과 그러한 개설을 뛰어넘어 문화사나 교류사에 관하여 보다 전문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연구서들이 잇따라 출간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난다. 필자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미처 구득해 보지 못한 최근의 연구서가 꽤 될 정도로 많은 성과가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목만 보아도 기왕의 연구와는 전혀 다른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은 이상의 목록만 보아도 의심할 나위가 없는 것 같다. 물론 개설서류나 통시대적 논문집을 제외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온 주제에 대해서만 한정한다면 특히 전문적인 연구서는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므로, 이 가운데 몇 가지는 중국 학계의 이 방면에 관한 연구동향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아 간단한 소개가 필요할 것이다.²⁹

²⁸ 이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은 적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상당히 시사성이 풍부할 것으로 보이는 연구서에는 成崇德 主編, 『清代疆域形成研究』의 일환으로 출간된 孫哲(2003), 『康雍乾時期輿圖繪制與疆域形成研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劉文鵬(2004), 『清代驛傳及其與疆域形成關係之研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寶音朝克圖(2005), 『清代北部邊疆卡倫研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와 같은 저서가 있다. 아직 출간이 확인되지 않은 張世明, 『國家的法律空間: 清代疆域形成國際法研究』와 成崇德, 『清代疆域形成與行政建構』도 같은 공동연구의 일환이다.

²⁹ 앞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여기서는 연구서의 경우만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우선 가장 먼저 들어야 할 것은 양자오취안[楊昭全]·쑤위메이[孫玉梅], 『중조변계사』(吉林文史出版社, 1993)이다. 632쪽의 이 거저는 상고(上古)시대부터 20세기 초까지 한중 간의 변계문제를 총정리한 것이지만, 사실은 500쪽에 가까운 분량이 청대(清代)의 국경분쟁과 두 차례에 걸친 ‘국경조사[勘界]’와 ‘간도문제(間島問題)’에 할애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양국에서 가장 상세하고 방대한 내용을 갖춘 연구서인 동시에, 중국 학계나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도 서술하였지만, 이 책의 집필과 더불어 정리·편집된 자료집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것이다.³⁰

하지만 방대하고도 상세한 서술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서는 상당히 많은 약점을 안고 있다. 일단 논리전개에서 학술적 논증에 따른 객관적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애국주의적’ 또는 ‘영토주의적’ 관점이 너무 앞서 그러한 과정을 생략하는 단순한 논리전개가 지나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백두산 정계비’에 관련된 당사자로, 상당한 분량의 영토를 조선 측에 넘겨주어 상실케 한 ‘원흉’으로서 강희제(康熙帝)나 목극등(穆克登)은 극단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현재 백두산의 천지 중간을 나누어 국경선을 설정했다고 하는 중국공산당의 지도부(毛澤東과 周恩來)도 마찬가지로 영토를 남의 나라에 넘겨버린 매국노로 비난받을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한국에서는 목극

로 개별 논문에 대한 소개는 할애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陳尙勝(2008)의 연구가 충분한 소개를 해 주고 있다는 점을 알려둔다.

30 따라서 이 책은 가능하다면 번역해서 한국의 학계나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 ‘검증’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등이 ‘정계비’를 세워 백두산 영토를 침탈하려는 악랄한 중국 측 사신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 책에서의 논리전개는 실제 앞서 나온 우뢰진(吳祿貞)의 수준을 결코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여전히 한국 측의 실록이나 기타 다양한 관련 자료를 참조하지도 않은 채 이미 100년 전인 1908년 출판된 우뢰진의 『연길 변무보고』에서 제시된 논리를 그냥 답습하는 데 그치고 있다. 당시로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조선·청 국경문제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료인 『조선왕조실록』이나 ‘정계비’ 수립 당시 통역으로 활동하였던 김지남(金指南)의 상세한 일기인 『북정록(北征錄)』, 김지남의 아들인 김경문이 홍세태(洪世泰)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술한 여행기인 『백두산기(白頭山記)』,³¹ 그리고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이 직접 쓴 『북정일기(北征日記)』³² 등을 참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³³ 따라서 대부분 자료의 정밀

31 김지남 부자의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김양수 편(2008), 『조선후기 외교의 주인공들』, 백산자료원을 참고할 수 있다.

32 김지남 외 지음, 이상태 외 옮김(1998), 『조선 시대 선비들의 백두산 답사기』, 해안 참조.

33 이를테면 『朝鮮王朝實錄』 숙종 38년조의 백두산 관계 기록만 들여다보아도 중국 측에서는 조선 측이 자신들이 지정한 것과는 다르게 石堆·土堆·木柵을 세웠다는 약점을 찾아낼 수 있다. 『朝鮮王朝實錄』 자체가 공개되지 않았던 吳祿貞의 시절보다는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훨씬 늘어난 것이다. 더구나 ‘정계비’는 백두산 천지 남쪽 5km 지점쯤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조선이나 한국 측의 고집이 통해서) 국경선을 정하더라도 天池는 모두 중국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정계비’ 문제는 한국 측에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중국과 한국 양측의 자료를 꼼꼼히 들여다본 중국 측의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미 정해진 결론을 되풀이하면 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정치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학문적 분석이 불필요한지도 모른다. 또한 많은 연구가 보여

한 분석에 기초한 학문적 연구라기보다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결론을 내세우기 위해 편의적으로 자료를 늘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중국 측에 불리한 해석은 무조건 배척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오로지 조선 측이 ‘기만’과 ‘억지’를 일삼고 있다거나, ‘정계비’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옮겨서 문제가 생겼다는 논리로 일관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중국과 한국 측의 관련된 자료를 모두 꼼꼼히 들여다 본 다음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도[이를테면 정계비 설립과정의 착오나 ‘사변(查邊)’ 의미의 인정] 조선 측의 ‘영토 확장욕’이나 목극등의 ‘대단히 용맹스럽지만 무식했던 점(孔

주듯이 조선과 청조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논리와 연결되는 ‘간도 문제’로 이것이 비화됨으로써 이에 관한 연구는 좀 더 복잡해진 내용을 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지만, 白頭山碑의 ‘定界’ 성격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조선 측에서 移動했다는 설을 주장하는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康熙帝가 穆克登을 파견할 때 이미 압록강과 두만강의 남북을 청조와 조선의 경계로 인정하였지만 여전히 불분명한 백두산 부근 상류지역에 대한 분명한 조사를 지시하였다는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외면하는 억지논리이거나, 억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테면 『大清歷朝實錄(康熙實錄)』 권 246, 9a-10b의 강희 50년 5월 초5일의 기록에서 강희제는 다음과 같이 지시하고 있다. “압록강의 서북은 중국 지방이고, 강의 동남은 조선 지방으로 강을 경계로 삼고 있다. …… 토문강(즉 두만강-인용자)의 서남은 조선 지방이고, 강의 동북은 중국 지방으로 역시 강을 경계로 삼고 있다. 이곳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다. 다만 압록강과 두만강 사이에 있는 지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 너희들은 모두 조선의 해당 지방에 가게 되는데, 이때를 틈타 갈 때까지 가서 자세하게 살펴본 다음 힘써 변계를 조사하여 확인한 다음 돌아와서 상주하도록 하라(鴨綠江之西北, 系中國地方, 江之東南, 系朝鮮地方, 以江爲界 …… 土門江西南, 系朝鮮地方, 江之東北, 系中國地方, 亦以江爲界. 此如具已明白, 但鴨綠江·土門江二江之間地方, 知之不明 …… 爾等具在朝鮮所屬地方行, 乘此便至極盡處, 詳加覘視, 務將邊界查明來奏).” 이 점을 보면 압록강과 두만강이 양국의 국경임은 분명하고, 다만 중간부분이 애매하여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하라고

武無文’을 지적하는 장춘우(張存武)의 냉정한 태도와 크게 대조가 된다.³⁴

때문에 최근 발표된 천후이(陳慧)의 『청대중조도문강경계연구-목극등 비문을 중심으로(清代中朝圖們江境界研究-穆克登 碑文을 중심으로)』³⁵도 여전히 이러한 오류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목극등의 비문 설립에서 1880년대 두 차례의 국경회담까지 지금까지의 연구 가운데 가장 상세하게 그 내용과 경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오직 엄숙하고 진실된 태도로 역사를 대하므로, 과학의 신중한 정신으로 역사 사실에 대해 논술해야만, 비로소 또한 역사의 본래 면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중·일의 다양한 참고문헌이 목록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조선 측 자료나 한국의 최신 연구를 충분히 소화하고 이해한 다음 논문을 작성하지 못했기 때문에(대표적으로는 앞서 든 통역관의 일기자료 등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목극등이 비석을 세운 다음 두만강의 상류지역 답사를 하면서

시킨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康熙帝나 穆克登이 무지하여 대량의 영토를 조선에 넘겨주었다는 식의 논리는 그야말로 비상식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정계비’가 조선에 유리하도록 이동되었다는 주장은 최근에도 呂一燃 主編(2007), 『中國近代邊界史 上下』(四川人民出版社) 같은 전문적인 연구서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고집하고 있으나 그 碑가 세워진 다음 오랫동안 형성된 조선 측의 여러 기록이나 견문록을 보아도 근거 없는 주장임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중국 연구자들은 무조건 조선 측에 유리한 위치라는 이유만으로 이동설만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면 穆克登이 土門江, 즉 松花江 상류의 지류를 중국과 조선 사이의 국경으로 인정한 셈이 되므로 송화강 남쪽 지역을 조선으로 인정해야 하는 불리한 입장에 빠지는 것을 우려해서이겠지만, 穆克登의 두만강 상류 比定과 碑의 설립 자체가 착각 내지는 오류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점(앞서 지적하였듯이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

34 張存武(1987), 『清代中韓關係論文集』, 臺北: 商務印書館.

35 2007년도에 延邊大學 博士學位論文으로 제출되었다.

그 분류의 발원점이라고 생각하여 지적한 곳(그것도 조선 측에 인심을 쓰면서 정해 주었다)이 사실은 엉뚱한 곳(즉 두만강이 아닌 송화강의 상류)이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조선 측의 허위나 부정·기만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아래로부터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두만강의 본류(本流)·정원(正源)을 찾을 수 있었는데, 목극등이 거꾸로 백두산 천지에서 내려오면서 그냥 눈에 띄는 물줄기를 대강 확인해 본 다음 두만강의 본류·정원이라고 생각하여 잘못 지정하였던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장춘우의 연구는 이미 오래전인 30년 전에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학문성과의 공유가 일반화된 오늘날의 시점에서조차 여전히 과거의 틀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 민감한 국경문제를 다룬다는 정치적 위험성도 여기에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디아오수런(刁書仁), 『명청중조일관계사연구』(吉林文史出版社, 2001) 역시 목극등의 답사나 변계연혁을 다룬 논문을 읽고 있으나 새로운 내용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최근 나온 근대 중국의 국경문제를 총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위이란 주편, 『중국근대변계사 상하』(四川人民出版社, 2007)도 한중 국경문제에 대한 분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종래의 연구와 같은 특성과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앞서 인용한 강희제의 ‘사변(查邊)’ 지시를 본문에서 모두 인용하고 있기는 하나 기존 중국 측 연구의 논리적 근거가 되고 있는 우뤄전이나 쑹자오런의 저서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이 두 사람의 저서는 당시 청조의 주장을 내세워 정리한 연구서이지 1차 사료가 아님에도 마치 신빙성 있는 사료처럼 인용하고 있다. 앞서 든 것처럼 『조선왕조실록』이나 백두산 답사기 등을 참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백두산비’를 1882~1885년 사이 조선인이 이동했다는 것을 열심히 고증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앞서도 지적

하였지만, 근거 없는 일방적인 추측에만 의존하지 않고 조선 측의 자료도 아울러 참조해서 분석한다면 이 논리는 결코 성립하기 어렵다. 그리고 나아가 1889년에 청조가 “화하금탕고 하산대려장(華夏金湯固 河山帶礪長)”이란 십자계비(十字界碑)를 세웠지만 조선인이 훼손해 버렸다는 것을 오로지 전문(傳聞)에만 의존하여 강변하고 있는 점도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³⁶ 이런 점들을 보면 기존 연구의 단순한 반복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최근에 출간된 대표적인 전문연구서인데도 여전히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돌파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특히 원서의 7~30쪽의 서술을 참조)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³⁷ 그리고 류웨이, 『청대중조사자왕래연구』(黑龍江教育出版社, 2002)는

36 이 점은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중국 측 당사자들이 상부에 비석을 세웠다고 보고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시 비석을 새길 돌을 모아 놓기만 했을 뿐 비석을 새기거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세운 것은 아닌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양국 간의 國境 談判은 실제 어떤 합의도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37 저서가 아닌 논문으로 쓰인 관련 연구를 보아도 이 점은 거의 마찬가지이다. 韓中宗藩關係의 변화나 조선측 이민사를 다룬 경우가 아니라면 국경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吳祿貞과 宋教仁과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지적하면서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를테면 高永一(1981), 「“間島問題”의始末」, 『延邊大學學報 社會科學版』 3; 吳忠亞(1984), 「吳祿貞與所謂“間島”問題」, 『社會科學戰線』 3; 樊建瑩(1991), 「吳祿貞與“間島”交涉」, 『許昌師專學報 哲學社會科學版』 4; 朴慶輝(1993), 「吳祿貞與光緒丁未延吉邊務報告」, 『東疆學刊 哲學社會科學版』 1; 關俊鵬(1993), 「略論“間島問題”」, 『遼寧師範大學學報 社會科學版』 3; 孫健(1994), 「宋教仁與“間島問題”」, 『鎮江師專學報 社會科學版』 3; 遲雲飛(1996), 「宋教仁與“間島問題”新証」, 『近代史研究』 1; 梁小進(1996), 「宋教仁“間島問題”略論」, 『常德師範學院學報(社科版)』 2; 姜中秋(1996), 「從間島問題看宋教仁的愛國主義思想」, 『北京檔案史料』 4; 嚴志梁(1997), 「關於“間島”問題」, 『歷史教學』 5; 姜龍範

청대 중국과 조선의 조공(朝貢)관계를 전문적으로 파고든 최근의 연구성과로, 이 분야에 관한 새로운 접근방법과 집약적인 자료수집의 성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³⁸

그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연구는 한국에도 유학을 한 경험이 있는 장릉판의 『근대중조일삼국대간도조선인적정책연구』(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2000)이다. 한·중·일의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검토한 이 연구는 국경문제보다는 ‘간도(間島)’를 둘러싼 한중일의 관계를 중심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경문제에 관한 논리는 앞의 연구와 마찬가지로여서 논리적 엄정성 면에서는 약간 부족함이 느껴지지만, 중국 측에서 출간된 ‘간도’ 연구서로서는 가장 잘 정리된 입장과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목해

(1998), 「關於清季中朝邊務交涉的研究」, 『延邊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1; 嚴亞明(1999), 「清末中日‘間島’交涉述論」, 『綏化師專學報』 2; 龔麗琴(1999), 「從延吉籌邊看吳祿貞的外交思想」, 『長沙大學學報』 9; 嚴亞明(2000), 「清末中日‘間島’交涉述論」, 『大慶高等專科學校學報』 1; 姜龍範(2000), 「吳祿貞與東疆主權」, 『東疆學刊』 4; 嚴亞明(2000), 「‘間島’交涉與清政府外交形象的轉變」, 『社會科學』 8; 刁書仁(2000), 「中朝邊界沿革史研究」, 『中國邊疆史地研究』 4; 孫春日(2002), 「清末中朝日‘間島問題’交涉之原委」, 『中國邊疆史地研究』 4; 刁書仁(2003), 「康熙年間穆克登查邊定界考辨」, 『中國邊疆史研究』 9; 嚴亞明(2004), 「“間島”交涉與清末日本對華擴張」, 『忻州師範學院學報』 3; 張偉(2005), 「吳祿貞與中日“間島”交涉」, 『遼寧大學學報(哲社版)』 2; 衣保中(2005), 「“間島問題”的歷史真相及中日交涉的歷史經驗」, 『史學月刊』 7 등 많은 연구가 있지만, 단순한 기존 주장의 되풀이일 뿐 관련사료를 제대로 섭렵한 위에서의 객관적이고 세련된 논리전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38 이에 대해서는 權赫秀(2005), 「清代中朝關係史研究的一部用心之作—評劉爲著《清代中朝使者往來研究》」, 『史學集刊』 4에서 상세하게 그 의의에 대해서, 그리고 결론 부분이 없는 형식적인 문제나 빈번하게 노출되는 작은 오류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있다.

야 할 것으로는 양자오취안, 『중국조선·한국문화교류사 1-4』(昆侖出版社, 2007)는 1,700쪽이 넘는 거저이다. 네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 45편의 논문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 책은 전근대사의 경우 다양한 문화사 방면의 교류를 개괄하고 있어 양국 간의 교류를 이해할 때는 상당히 쓸 만한 참고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대의 경우에는 황준헌(黃俊憲), 마건충(馬建忠), 장지엔(張錫), 쑤원(孫文) 등과 한국 측 유명인사의 인간관계가 다루어지면서 인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편 웨이즈장(魏志江), 『중한관계사연구』(中山大學出版社, 2006)는 요(遼)·금(金)시대와 청대 한중관계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그 변화상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것인 데 반해, 리화쯔, 『청조여조선관계사연구-이월경교섭위중심』(延邊大學出版社, 2006)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의 박사학위논문을 정리한 것인데, 이 책은 『조청국경문제연구』(集文堂, 2008)로 (한글)증보판이 나왔다. 이 책은 ‘민감한’ 국경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한·중·일의 관련 자료와 지도를 충실하게 이용하면서 정확한 역사적 사실 이해를 추구하고 있다. 다만 조선인의 ‘월경(越境)문제’와 그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초점을 둔 연구라서 국경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비중이 두어져 있지 않지만, 부록에 실린 조선의 대청(對淸) 위기의식이나 백두산 인식, 공험진에 대한 역사적 기억 등의 문제에 대해 주목할 만한 지적을 내놓고 있다.³⁹ 권혁수, 『19세기말 한중관계사 연구-이홍장의 조선인식과 정책을 중

39 이 연구는 강석화(2000),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경세원)이나 송기호(2007), 『동아시아의 역사분쟁』(술)에서 국경문제에 관한 가장 정확한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의 조청관계사 연구서로는 최근 李陽子(2002), 『朝鮮에서의 袁世凱』, 新知書院; 白山學會 編(2005), 『韓中領土의 관한 研究』, 백산자료원; 崔韶子(2005), 『淸과 朝鮮: 근세 동아시아의 상호인식』, 혜안; 김기혁(2007), 『근대한·중·일관계사』, 연세대학교출판사; 하정식(2008), 『태평천국과

심으로』(백산자료원, 2000) 역시 한국에 유학한 조선족 학자로서 새로운 자료의 소개를 포함하여 근대 조청관계사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도 나왔지만 중국 학계에서의 조청관계사 연구의 현황(1996년까지의)도 소개하고 있어 이 논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은 이것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양국 학계에서 근대 중한관계사의 기본내용, 즉 그 연구대상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거의 전무했다는 지적은 경청할 만한 것이라고 하겠다.

IV. 맺음말-전망과 모색

이상으로 간략하게 중국에서의 조청관계사와 국경문제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중국에서의 조청관계사 연구나 국경문제 연구는 1990년 이후 점차 활성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연구수준이나 관점은 개괄적인 정리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차원으로의 연구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상 이 점은 한국에서의 연구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청관계사 연구의 제2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관련 자료의 정리나 출간 면에서 중국은 지금도 여전히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1990년대에 기본적인 정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우리의 상황과는 크게 대표적이다. 앞서 소개한 방대한 양의 자료는 중국 측에서는 이미 그 방면에 대해서는 탄탄한 기초를 닦아 놓았음을 분명하게 확인

조선왕조』, 지식산업사 등 여러 연구서가 출간되었다.

시켜 준다. 그러나 ‘동북공정’의 충격이 없었다면, 한국에서의 관련 사료의 정리나 연구는 여전히 1980년대 이전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임을 감안할 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자료의 정리나 출판, 번역에 과감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러한 작업에는 중국사 연구자나 한국사 연구자의 협력을 통한 학제적 접근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인식도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근시안적 시각이나 기만에 매달려 성과를 내려고 하면 실제로 필수적인 기초자료의 정리나 번역은 소홀히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 측이 국경문제에 관한 한 가장 기본적인 참고자료로 삼고 있는 우위전(吳祿貞)의 『연길변무보고』와 같은 자료는 이미 국내에 번역이 나와 있지만, 실제 실무자가 국경교섭에 나설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차라리 원문으로 보는 것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역자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았으며, 한글 문장의 수준이나 앞뒤 내용 사이의 연결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또 하나 한중관계나 국경문제가 실제적으로 다른 역사학의 주제나 분야에 비해 상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종래 그에 대한 양국 학계의 진지한 대화가 부족했다는 지적은 앞으로의 전망을 시도할 경우 반드시 참고해야 할 것이다. 정확한 역사적 사실의 이해에 기초한 진지하고도 이성적인 이해, 그리고 객관적인 자세와 냉정한 문제인식에 바탕을 둔 학술적인 차원의 진지한 대화와 논의는 이 방면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넘어야만 하는 장애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의 사례로 김병렬 역사이야기, 『백두산 정계비의 비

밀』(사계절, 2003)⁴⁰을 예로 들어 보자. 이 책은 강희제의 명령으로 파견되어 이른바 ‘정계비’를 세우는 데 간여한 청국 사신 목극등과 그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큰 문제인 것은 이 책의 내용 대부분이 상당한 오해에 바탕을 두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소개한 우리 말로 번역된 『조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 답사기』나, 아니면 이미 한글로 읽을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의 관련 부분(특히 肅宗 38년의 이와 관련된 기록)을 읽어 본다면 이 책에서 묘사되는 목극등에 관련된 서술은 완전한 오해에 기초하고 있음이 너무도 분명하다. 이른바 ‘정계비’로 시작되는 양국 간의 국경문제는 이렇게 시작부터 오해로 얽히어 있고, 그러한 것이 애국심이라는 명분 아래 대중용 보급서로 만들어져 배포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중학교에서 쓰이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국정도서편찬위원회가 쓰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편찬한 『중학교 국사』(2002년 초판발행, 2009년 8쇄) 교과서에서의 기술이다. 이 책의 239쪽에서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간도 문제) 간도는 고구려와 그 뒤를 이은 발해의 땅으로서,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활동 무대였다. 그러나 발해가 망한 뒤에는 말갈족이 거주하였으며, 여진족이 청을 건국한 뒤에는 이 지역을 그들 조상의 발상지라고 하여 다른 민족의 이주를 금지하였지만, 조선인들이 곳곳에 살고 있었다.

조선 숙종 때 조선과 청은 국경선을 정하면서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고 간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였다. 그 후 많은 조선 사람들이 간도로 이주하여 정착하였다. 이에 청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철수를 강요하며 간도가 청의 영토라고 주장하였으나, 조선에서는 간도 관리를 파견하여 조

40 이 책은 사계절아동문고 시리즈의 47로 출간되었다.

전에서 건너간 사람들을 보호하여 다스렸다.⁴¹

여기서 다른 부분의 서술은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결정적인 오류는 “간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였다”는 구절이다. 간도라는 용어 자체가 빨라야 19세기 말에 처음 나온다는 점은 제쳐두고라도, 이곳을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였다는 표현은 이 부분을 기술한 필자가 정계비의 설립을 둘러싼 조·청 간의 교섭이나 관련된 세부사항을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관련 사료나 학계에서 통상 인정하는 범위를 아주 넘어선 극히 일방적인 정치적인 주장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간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아도 숙종 때 간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고등학교 『역사부도』에 ‘정계비’와 백두산 천지(天池) 부근의 지도가 실려 있는데, 백두산 좌우를 달리는 국경선이 정상 부근에서는 천지를 감돌면서 동그랗게 돌아 있어 천지가 완전하게 우리 땅에 속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⁴²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천지가 구획된 적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앞서도 지적하였지만, 이를테면 ‘정계비’를 중국 측에서 강희제 때 국경선을 획정한 증거로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와 비문의 내용에 따라 국경선을 획정할 경우 천지는 완전히 중국 측의 영역으로 넘어가 사실 우리로서는 백두산 자체를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41 국사편찬위원회·국정도서편찬위원회(2009), 『중학교 국사』(2002년 초판발행, 2009년 8쇄), 교육과학기술부, 239쪽.

42 이를테면 이현희 등(2002), 『고등학교 역사부도』(2002년 초판발행), 삼화출판사, 17쪽의 「간도와 백두산 정계비」 도표를 참조. 이 점은 다른 출판사의 역사부도 역시 모두 마찬가지이다.

또한 중국 황제의 명령을 받은 청국의 사신이 이른바 ‘속방(屬邦)’에 국경선(또는 邊界나 邊境)을 조사하러 와서 대규모의 영토(그것도 淸國의 성스러운 發祥地)를 넘겨주고 간다는 것은(이를테면 『중조변계사』의 주장처럼) 사실 강희제나 그의 사신 목극등을 아예 바보로 설정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주장이다. 이 점은 사실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유추가 가능하다. 명대 여진족(女眞族)의 분포도나 청대 초기 관련 지도만을 보아도 이 부분은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국(上國)’의 사신으로서 목극등이 두만강의 원류라고 생각되는 곳을 비정할 때 사실 상당한 ‘양보’의 자세를 보여 주기도 하였다는 점은 『조선왕조실록』이나 앞서 든 『백두산답사기』에 잘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지도를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간도’ 부분이 우리 땅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조선 후기에 그러한 생각이나 주장을 내세우거나 상정하는 지도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 경우에도 대부분 백두산 천지 아래에서 발원하는 토문강(土門江) 줄기를 하나 동쪽(동북쪽)으로 그려내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⁴³ 최근 국내 일부에서 토문강(즉 송화강) 남쪽의 땅, 따라서 연해주 지역까지도 우리 땅이었다고 내세우는 주장은 기록이나 지도로 입증되는 역사적 사실이기보다는 ‘원망(願望)’에 가까운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토문강이 지나는 의미에 대한 지나친 확대해석인 것이다.

그리고 강희제에 의해 ‘정계비’가 세워진 무렵에 그려진 『황여전람도(皇

43 이와 관련된 문제는 이를테면 배우성(1998), 『조선 후기 국토관과 천하관의 변화』, 일지사; 姜錫和(2000), 『朝鮮後期 咸鏡道와 北方領土意識』, 경세원; 李和子(2008), 『朝淸國境問題研究』, 集文堂 등을 참조.

興全覽圖』에 수록된 『조선도(朝鮮圖)』의 경우는 당시 중국 측의 국경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묘사도 하나의 분명한 증거로 이용될 수 있다. 전통시대 중국에서 제작한 가장 정확한 조선지도이고 압록강과 두만강의 수계에 대해 가장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지도는 두만강을 분명히 ‘토문강’으로 기록하고 있다. 1712년 ‘정계비’가 세워질 무렵 조선과 중국 양측이 모두 두만강과 토문강을 동일시하고 있었음을(19세기 후반에 조선 측이 각기 두 강이 다른 강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과는 달리) 여기서 재차 확인할 수 있다.⁴⁴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기술이나 묘사가 교과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국경문제를 둘러싼 한국에서의 연구상황이나 인식수준과 그 문제점을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표시해 주는 것이다. 일단 기초적인 사실에 대한 정확한 역사지식의 축적조차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결국 부정확한 이해와 오해가 거듭되면서 문제의 진상은 더욱 흐려지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이를테면 국내에서 간도(間島)문제와 국경분쟁에 관련하여 출판된 최근의 서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국간도학회, 『간도학보(間島學報)』(간도학회, 2004); 시노다 지사쿠(신영길 역), 『간도는 조선땅이다-백두산정계비와 국경』(지선당, 2005); 노계현(盧啓鉉), 『간도 영유권 분쟁사(間島 領有權 紛爭史)』(한국연구원, 2006) 등인데, 이러한 책에서도 번역이나 지엽적인 오류가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논리의 전개도 학문적 연구에 따라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간도는 우리 땅이라는 이미 내려진 결론을 입증하

44 蔣尙勳(2008), 「清代『皇興全覽圖』 수록『朝鮮圖』 연구」, 『한중관계 2000년-동행과 공유의 역사』, 소나무, 462~463쪽. 또한 453쪽의 <도판 3>을 참조.

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어서, 이를테면 중국 학자들도 읽고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책들은 그래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서나 참고서적 가운데 가장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관련 서적들의 경우 편집체제 면에서도 1960년대나 1970년대의 체제나 그때 인쇄된 기왕의 연구논문을 여전히 그대로 옮겨와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간도나 국경 문제에 관련된 국내의 연구나 주장 가운데 상당수는 정확한 사실이나 연구성과에 바탕을 두고 있기보다는 터무니없는 오해나 무지와 억지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임채정 등, 『한중 러일 영토문제 현장: 간도에서 대마도까지』(동아일보사, 2005)처럼 언론사에서 취재하여 출판한 서적도 정확한 사실과 부정확한 사실이 뒤섞여 적지 않은 혼란을 낳는다. 단기간의 취재로 시사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언론사에서 출간한 책인 만큼 차분한 학문적인 접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확한 사실로 일관되어 있다면 그 오류는 쉽게 바로잡을 수 있으나, 정확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이 섞여 있으면서 잘못된 오해를 낳는 일이 계속된다면, 그러한 오해의 수정이란 정말 곤란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그것이 미묘한 민족주의적 감정이 얽혀 있는 국경문제라고 한다면, 사실 냉정한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이해나 평가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⁴⁵ 특히 ‘간도’문제에 대한 국내 인식의 경우 1950년대 이래의 낡

45 사실 이러한 국경이나 영토문제에 관한 역사서술은 이미 중국의 古文獻에서부터 분명하게 ‘중국’ 측에 유리한 사실에 대한 해석과 기술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동북공정’은 21세기에 나타났지만, 그러한 관념의 단초는 이미 오래 전부터(사실상 역사서술의 초기 단계부터) 배태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李成珪(2004), 「中國 古文獻에 나타난 東北觀」, 『동북아시아

은 냉전시대적 인식에 그대로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그보다 앞서 ‘간도’를 노렸던 러일전쟁 이후 시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논리에 그대로 공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상대편인 중국에서의 대응논리 역시 마찬가지로 ‘폭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⁴⁶ 이러한 상황 때문에 중국에서의 관련 분야 서술도 사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드러낸다는 점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최근 청대사(清代史) 방면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학술잡지에 실린 중국의 한 연구논문은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청조 전기에 동북 변강지구에서는 여러 차례 조선 변경주민의 월경 사건이 일어났으며, 1711~1713년 목극등이 두 차례 상유를 받들어 변경 조사에 나서고 아울러 長白山 정상에 비석을 세워 경계를 밝혔다. 이후 조선 방면에서는 일방적으로 標와 柵을 세웠으며, 청조 정부는 이에 대해 “도리어 참여하거나 묻지도 않았다.” 어떤 연구자는 이에 대해 지적하기를 목극등은 변경 조사 과정에서 “조선 관원이 장백산 정상의 천지 이남은 조선 영토라고 거짓말한 것을 그대로 믿어”, 중국이 적지 않은 영토를 잃게 하였으며, 원래 중국에 속하던 압록강과 도문강 사이의 접경지역, 즉 장백산 이남의 지구를 조선에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중국에 속하던 장백산의 절반 역시 조선의 영토로 넘겨주었다. 이 변경 조사 이후 조선은 처음에는 아주 만족하여 중국에 사자를 파견하여 ‘謝恩’하였다. 조선은 역사적으로 北拓 정책을 견지하여 변경조사로 영

선사 및 고대사연구의 방향』(학연문화사)을 참조할 수 있다. 문제에 대한 성급한 감정적·정치적 대응보다는 차분한 학문적 연구·접근이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 논문은 잘 시사해 주고 있다.

- 46** 이 점에 대해서는 배성준(2007), 앞의 글을 참조. 이러한 역사분쟁에 대한 국내의 연구 가운데 참고할 만한 가치가 높은 연구서 가운데 하나로 송기호(2007), 앞의 책을 들 수 있다. 민감한 분쟁문제에 대한 차분한 학술적 접근과 해석·설명이 돋보이기 때문이다.

토를 잃을 것을 염려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조각의 영토를 얻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 국내에서는 나중에 “도문강과 두만강이 다른 강이라는 영터리 주장”이 출현하여……이번 변경조사로 큰 조각의 영토를 잃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여러 차례 일방적으로 청조에게 압록강과 두만강 중조 변경지대의 중국 측 지역에 거주하던 개척민들을 쫓아내거나 체포하도록 요구하여 중국의 변경지대를 無人地域으로 만들고 청 조정은 모두 조선의 요구에 굴종하였다.……이 일은 중국 영토 내의 일이라 조선과 무관하지만, 조선이 북경에 사자를 파견하여 咨文을 올림으로써 저지하였기에 청조는 항상 ‘撫藩字小’의 원칙에 따라 정지명령을 내렸다.⁴⁷

이러한 기술이 여러 가지 오류를 포함하고 있음은 너무 분명하다. 이를 떼면 조선 측이 목극등의 동의 아래 표책을 세운 것은 『조선왕조실록』이나 『동문회고』 등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기초적인 사실인데도 멋대로 왜곡하고 있다. 또한 목극등이 조선 관원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기술도 사실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 강희제의 지시를 받고 온 목극등이 통역[조선 관원]의 한마디 거짓말에 넘어가 영토를 넘겨주었다는 논리대로라면, 그 영토는 사실 중국의(또는 淸朝나 滿洲의) 영토가 아니었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백두산을 만주족의 성지로 모시던 강희제나 그 지역 지방관인 목극등도 그곳이 자국의 영토임을 몰랐다는 말인데, 왜 이 연구자는 관련 방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고 각주에 명기하고 있으면서도 ‘원래 중국에 속하던 압록강과 도문강 접경지역’이나 ‘백두산 정상 이남의 영토’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문장의 앞뒤 서술 자체가 너무 적나라한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47 張宏年(2006), 「清代藩屬觀念的變化與中國疆土的變遷」, 『淸史研究』 4, 19쪽.

그리고 청조 조정이 조선의 요구에 굴종하여 변경지대를 무인지역으로 만들었다는 식의 서술도 마찬가지이다. 청조가 봉금(封禁)지역으로 설정한 무인지역에 불법적인 개척민이 들어온 것을 조선에서 지적하여 청조 측으로 하여금 그들을 내쫓도록 한 사실을 가지고 조선이 중국을 굴복시켜 변경지대를 무인지역으로 만들었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왜곡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조가 조선의 속국이 아닌 이상 조선 측의 요구가 중국 영토 내의 문제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었다면 결코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설명이 될까? 상대방의 주장을 ‘거짓말’이나 ‘엉터리 주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학술적인 논문에서는 삼가야 할 표현이라는 지적은 차치하더라도, 조금만 논리전개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도 금방 파탄이 나는 논리가 이렇게 짧은 기술 속에서도 여러 차례 되풀이 되는 것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아주 두드러진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것이 최근 중국 학계(清代史)의 전문연구자가 서술한 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문제에 대한 기왕의 서술이나 이해는 사실 우리의 경우와 비슷하게 정확성이나 객관성 면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위에서 든 두 나라의 사례에서 바로 드러나지만, 일단 기초부터 다시 확인하면서 다져가는 연구와 대화, 교류가 시급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학술적인 입장에서의 객관적인 연구를 지향하기보다 정치적인 또는 민족주의적 감정을 앞세워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논지를 전개하다 보면 연구자 상호간의 대화는 그만큼 진전된 성과를 얻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대방(여기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포함된다)과의 수많은 접촉과 교류를 통해 기초적인 사실 확인과 시각의 조정, 공통적인 인식의 확충을 거치면서 상호이해의 폭을 점차 넓혀가는 방안이 실천되기를 기대해야만 할 것이다.

부록 1 『長白叢書』 목록(李澍田 等 主編, 吉林文史出版社, 1994. 1~)

1. 『吉林外紀 吉林志略』. 2. 『吉林地志 鷄林日聞錄 吉林鄉土志』.
3. 『松漠紀聞 扈從東巡日錄 啓東錄 皇華紀程 邊疆叛迹』. 4. 『韓邊外記』.
5. 『海西女真史料』. 6. 『吉林志書 吉林分巡道送迭會典館清冊』.
7. 『打牲烏拉志典全書 打牲烏拉地方鄉土志』. 8. 『永志縣志』. 9. 『宋小濂集』.
10. 『徐鼎霖集』. 11. 『香余詩鈔 吉林紀事詩』. 12. 『金碑匯釋』. 13. 『東三省政略』.
- 14-17. 『清實錄東北史料全輯 (1)-(4)』. 18. 『金史輯佚』. 19. 『先清史料』.
20. 『東夏史料』. 21. 『琿春史志』. 22. 『蒙荒案卷』. 23. 『白山詩詞』.
24. 『琿春副都統衙門檔案選編(上中下)』. 25. 『清代東北參務 清代吉林鹽政』.
26. 『雷溪草堂集 松江休園集 戊吾客吉林詩 吉林雜咏 鷄塞集』.
27. 『東北民俗資料薈萃』. 28. 『劉大同集』. 29. 『奉使遼金行程錄』.
30. 『中國東北通史』. 31. 『東北土地關係史研究』. 32. 『東北農業近代化研究』.
33. 『烏拉史略』. 34. 『長白山區開發史稿』. 35. 『滿族薩滿跳神研究』.
36. 『清代宮廷薩滿祭祀研究』. 37. 『滿語文教程』. 38. 『吉林滿俗研究』.
39. 『清代滿洲土地制度研究』. 40. 『東疆研究論集』. 41. 『東北亞經濟圈研究譯叢』.
42. 『美國與中國東北』. 43. 『西團山文化研究』. 44. 『東北旗地研究』.
45. 『舊滿洲檔研究』. 46. 『東北鼓吹樂研究』. 47. 『朝鮮三一運動史稿』.
48. 『霍爾瓦特與中東鐵路』. 49. 『箕子與朝鮮論集』. 50. 『長白山文化論說』.
51. 『吉林近代史稿』. 52. 『明清東北史研究論集』.
53. 『廿六史中朝關係史料選編』. 54. 『中朝相鄰地區朝鮮地理志資料選編』.
55. 『清代民國吉林檔案史料選編(上下)』.
56. 『東北地區燕秦漢長城和郡縣城的調查研究』. 57. 『西伯利亞民族學文集』.
58. 『東北亞絲綢之路歷史綱要』. 59. 『吉林三賢集』. 60. 『中國東北文獻辭典』.
61. 『吉林詩詞集粹』. 62. 『明史論集』. 63. 『吉林省歷史』. 64. 『同文彙考(1)-(4)』.

부록 2_國家圖書館分館 編, 『清代邊疆史料抄稿本彙編』(北京:線裝書局, 2003)

- 제1 책. 「東三省地理圖說錄」/「東三省海防劄記」/「東北邊防輯要」.
- 제2 책. 「調查委員歐本麟赴吉江兩省調查鹽務利弊」/「黑龍江全省四至地圖全集」/「黑龍江礦檔」/「黑龍江漠河籌辦礦務章程」.
- 제3-5 책. 「黑龍江省實業檔案」.
- 제6 책. 「調查松花江上流森林報告」/「黑龍江省各屬城鄉禮俗一覽表」/「中俄交界釋地」.
- 제7 책. 「中俄交界地名表」.
- 제8 책. 「每年出派各處卡倫名目及各項差使手摺」/「吉林各城每年應進貢鮮數目手摺」/「吉林夾皮溝檔」/「覆勘圖們界址談錄公文節略」/「奉天礦檔」/「奉天通懷礦檔」/「撫順煤礦案」/「金旅陷后毅軍用兵記」.
- 제9 책. 「西北三宗落地通釋」.
- 제10 책. 「藩疆覽要」/「西域補志」/「實邊條議」/「呼倫貝爾志書稿」.
- 제11-12 책. 「欽定石峰堡紀略」.
- 제13 책. 「歸綏識略」.
- 제14 책. 「支那地志摘譯: 蒙古之部」.
- 제15 책. 「異域輿情便覽」/「蒙古逸史」/「調查蒙古邊務意見」/「庫恰間軍事報告」/「蒙古礦檔」.
- 제16 책. 「甘肅現任文職大小官簡明履歷便覽」/「甘肅鞏昌府安定縣保甲團練章程」/「甘肅鞏秦階道所屬鞏昌府屬各州縣宣統二年秋季分入款出款報告彙冊」/「靖遠縣驛站例馬銀兩交代清冊」/「化平廳草簿」/「東樂草稿簿」/「毛目分縣稿簿」.
- 제17 책. 「狄道草稿簿」.
- 제18 책. 「丹噶爾分府稟稿簿」/「甘肅土族番部志」/「武威縣民情風俗」/「甘肅河州招回難民花名清冊」/「鞏昌府洮州撫番廳安置軍流人犯案清冊」.
- 제19 책. 「陝西省候補大小各官簡明履歷冊」/「陝西一提伍鎮官兵馬匹程途里數冊」.
- 제20 책. 「新疆省輿地圖說」/「珠華亭新疆紀略」.
- 제21 책. 「新疆志」/「新疆政見」/「訊鮮錄」.
- 제22 책. 「西陲事略」/「新疆省購辦軍械案」/「新疆巡警章程摺稿」/「新疆地理植物考」/「新疆俄人販運牲茶案」/「南疆勘界日記」/「新疆稅務局總辦會議皮毛公司改爲官行

- 詳] / 「新疆征收俄牧民放牲畜草場稅案」 / 「烏提屬各營武職便覽」.
- 제23 책. 「伊犁文檔匯抄」 / 「伊犁考」 / 「粗擬伊犁辦法」 / 「于闐縣志」.
- 제24 책. 「喀什噶爾略節事宜」 / 「喀什噶爾事宜」.
- 제25 책. 「西藏全圖附說」 / 「西藏志考」 / 「衛藏攬要」 / 「藏印邊務支發薪餉等銀兩清冊」.
- 제26 책. 「使藏紀事」.
- 제27-29 책. 「欽定巴勒布紀略」.
- 제29 책. 「西藏雜俎」.
- 제30 책. 「安南竝南掌礦說」 / 「四川布政錄」 / 「四川綏定府太平縣城鎮鄉地方自治區域表」 / 「雲南同官履歷冊」.
- 제31-32 책. 「游蜀疏稿」.
- 제33 책. 「報滇省光緒三十四年分考核各廳州縣事實表冊」.
- 제34 책. 「滇省府廳州縣宣統三年二月份糧價統計表」 / 「雲南府猺獠峒蠻考」 / 「雲南府風俗考」 / 「滇語備忘錄」 / 「夷人圖說」 / 「滇南抄錄」 / 「開南隨筆」.
- 제35 책. 「粵滇紀略」 / 「滇寇紀略」.
- 제36 책. 「滇緬界案錄要」 / 「滇事述聞」 / 「緬緬紀事」 / 「大理府建置沿革考」 / 「雲南永順鎮營制總冊」.
- 제37 책. 「雲南昭通鎮營制總冊」 / 「片馬緊要記」 / 「石阡物產記」.
- 제38-39 책. 「曹中丞撫黔奏稿」.
- 제40 책. 「綏猺軍需條款」 / 「粵省賑捐清單」 / 「廣東錢局銀錢兩廠章程」.
- 제41 책. 「廣州駐防事宜」 / 「廉欽礦檔」.
- 제42 책. 「福省政事錄」.
- 제43 책. 「閩省現任文職大小各官簡明履歷清摺」 / 「閩海雜記」 / 「七閩考」.
- 제44 책. 「福建督糧道造報光緒間鑄錢收存動用銅鉛錫四柱清冊」.
- 제45 책. 「福建省全屬地丁平余規費數目表」 / 「福建省全屬糧米平余規費數目表」 / 「福建汀邵礦檔」 / 「閩巖情形彙記」 / 「閩海紀略」 / 「福建通商總局造送同治九年福厦臺灣各口與洋人交涉案清冊」.
- 제46-48 책. 「平定臺灣紀略」.
- 제49-50 책. 「鳴質卿記臺灣戰事」 / 「清將臺灣議款宣示奏稿」 / 「順治鎮江防禦海寇記」 / 「海運續案」.

부록 3_蠓池書院出版有限公司, 『近現代中國邊疆界務資料』(香港:蠓池書院出版有限公司, 2007. 5)

제1 책. 「滇緬分界疏略」/ 「滇緬劃界圖說」/ 「雲南北界勘察記」/ 「滇緬邊界紀略」/ 「猛烏烏得記」.

제2-3 책. 「雲南邊地問題研究」.

제3 책. 「雲南初勘緬界記」.

제4 책. 「雲南勘界籌邊記」/ 「迤西移改協營添設汛兵疏」/ 「西域形勝」/ 「騰越邊徼」/ 「恭報撤師日期立調到劉軍安置越民情形疏」/ 「英緬兵爭現擬籌布邊防疏」/ 「籌議廣西邊防請移駐提督添設鎮道各緣由疏」/ 「會奏移設裁改邊要各缺疏」/ 「澳門租界改歸葡國永遠居住立約尚宜妥議緩定疏」/ 「廣西善後芻議」/ 「東南海防考」/ 「遵旨籌議臺灣改設行省事宜疏」/ 「請改大鵬營制疏」/ 「尖沙嘴官涌添建礮臺疏」/ 「覆奏查察虎門排練礮臺疏」/ 「剿辦潮粵越廳邊外野夷情形疏」/ 「稟會同驅諸夷船稟」/ 「徵夷船進口硝磺稅銀議」/ 「籌海篇」.

제5-7 책. 「光緒朝中法交涉史料」.

제8 책. 「洋務十七固圍」/ 「西藏建行省議」/ 「西藏置行省論」/ 「西藏改省會議」/ 「邊藏芻言」/ 「壬子邊事管見」/ 「瑛瑛瑣記」/ 「庫頁附近諸島考」/ 「東垂道里形勢」/ 「東北邊防論」/ 「籌邊議」/ 「東三省邊防議」/ 「中國疆域沿革略」/ 「吉林勘界記」/ 「奉天邊務輯要」/ 「朝俄交界考」/ 「蒙古邊防議」/ 「答沈韻松大使」/ 「上鳴清卿星使書」/ 「吉林防務」/ 「對張幼樵學士問東垂道里形勢」/ 「重修寧古塔牙城記」/ 「上鳴清卿師」/ 「中俄交界記」/ 「俄羅斯疆界碑記」/ 「帕米爾分界私議」.

제9 책. 「皇華紀程」/ 「西北邊界圖地名譯漢考證」/ 「中俄邊境之新關係」.

제10 책. 「中俄界記」/ 「西陲述略」/ 「論伊犁」/ 「論邊防」/ 「論新疆改省」/ 「善後方略」/ 「外蒙古近世史」.

제11-12 책. 「松花江下流的赫哲族」.

제12 책. 「贈朝鮮人李秉輝歸國序」/ 「保護朝鮮議」/ 「恭報會同俄員鑑戒立牌繪圖補記遵旨畫押各日期疏」.

부록 4_蠅池書院出版有限公司, 『近現代中國邊疆界務資料 續編』(香港: 蠅池書院出版有限公司, 2007. 8).

제1 책, 「中緬界務問題」/「雲南外交問題」.

제2 책, 「滇緬南段未定界調查報告書」/「中英滇緬疆界問題」.

제3 책, 「中越勘界往來電稿」/「廣西邊事旁記」/「東西南沙群島資料目錄」.

제4 책, 「瓊崖」/「瓊崖誌略」/「籌藏芻言」/「中國土地喪失史」.

제5 책, 「中國邊疆」/「中國邊疆問題十講」.

제6 책, 「外族侵略中國史」/「中國今日之邊疆問題」/「中國疆域拓展史」.

제7 책, 「中國國恥地理」/「近代中國邊疆宰割史」/「東三省輿地圖說」.

제8 책, 「東三省蒙務公牘彙編」/「籌邊芻言」.

제9 책, 「東三省韓民問題」/「東陲芻議」.

제9-10 책, 「延吉邊務報告」.

제10 책, 「庫頁島志略」.

최근 중국의 청대 대외관계사 연구동향

– 조청관계사 연구를 중심으로

정혜중 |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 I. 머리말
- II. 대외관계사 연구에서 ‘조선’의 위상
- III. 중국의 조청관계사 연구시각
- IV. 중국의 예치시스템론의 분석
-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대외관계사는 정치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진행되는 역사학의 한 분야이다. 중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에는 청말, 즉 근대시기의 대외관계사 연구의 대상으로 제국주의 중국 침략사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핵심 내용이었다.¹ 따라서 각국 제국주의 활동 가운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후 최고 적대적 국가였던 미국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과 중국에 대한 침탈활동을 분석²하는 한편, 1950년대 중소관계의 우호를 선전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 중소관계가 급변하면서 러시아의 중국 침략을 강화하는 연구³로 바뀌었다. 공산주의 중국 건설과 외교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영국과 일본 등을 중심으로 아편전쟁과 청일전쟁을 중심으로 한 외국 각국과의 관계를 논하는 연구⁴는 중국의 초기 대

1 胡繩(1952)의 『帝國主義與中國政治』(北京:人民出版社), 丁名楠·余繩武等(1958), 『帝國主義侵華史』(北京:科學出版社) 등에서는 1840~1895년까지 제국 열강의 침입이 중국의 반식민지·반봉건 사회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이다.

2 劉大年(1955), 『美國侵華史』, 北京:人民出版社; 卿汝揖(1956), 『美國侵華史』 2卷, 北京:三聯書店; 欽本立(1976), 『美國經濟侵華史』, 世界知識出版社.

3 曹錫玲(1951), 『中蘇外交史』, 上海:世界知識出版社; 彭明(1955), 『中蘇友誼簡史』, 北京:中國青年出版社;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集體撰(1976~1978), 『沙俄侵華史』 4卷, 北京:人民大學出版社; 復旦大學歷史系編(1975), 『沙俄侵華史』, 上海:上海人民出版社; 吉林師範大學歷史系(1976), 『沙俄侵華史簡編』, 吉林:人民出版社.

4 鮑正鵠(1954), 『阿片戰爭』, 上海:新知識出版社; 魏建猷(1955), 『第二次阿片戰爭』, 上海:人民出版社; 陳聯芳(1959), 『朝鮮問題與甲午戰爭』, 北京:三聯書店;

외관계사 연구의 주요 흐름이었다.

이러한 대외관계사의 흐름은 1976년 개혁·개방을 기점으로 한 차례 전환을 맞이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외부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더불어 확대되는 대외교류로 야기된 서구사회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한 연구과제였다. 이에 앞 시기 제국주의 침략의 관점에서 비롯된 연구와 더불어 중외관계사(中外關係史) 혹은 외교사(外交史)라는 제목의 통사류를 출판하는 등의 활발한 작업이 시작되었다.⁵ 또한 불평등조약 관계의 형성과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의 중국 침략의 기원과 과정, 문호개방정책, 반기독교 투쟁과 의화단 등 주로 근대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⁶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교류사의 연구영역도 전반적으로 이전시기보다 취급 대상이 광범위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활발해졌다. 또한 2000년에 들어서면 중국에서 진행되는 각종 역사공정(歷史工程)과 맥을 함께하면서 대외관계사 연구의 범위와 주제가 다양해졌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최근 중국의 대외교류사 연구경향을 살펴보면서 특히 청대 조선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경향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청대 대외관계의 연구시각’을 고찰하기 위하여 중화문 사망 홈페이지의 항목 중 ‘중외관계(中外關係)’ 부분을 참고로 논문의 흐름을 분석하면서 조선의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중국이 각종 역사연구를 위해 구축한 중화문사망 ‘중외관계(이하 대외관계)’ 항목에는 약 350여 편의

戚其章(1962), 『中日甲午威海海戰』, 濟南: 山東人民出版社.

5 劉培華(1986), 『近代中外關係史』,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楊公素(1991), 『滿清明白外交史』,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沈予等(1991), 『日本侵華七十年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등.

6 王建朗·鄺永慶(1999), 「50年來的近代中外關係史研究」, 『近代史研究』第5期.

논문이 소개되어 있다.⁷ 이 중 2000년 전후에 발표되고 최근 정리된 중국 대외관계 연구 논문들과 동향을 분석하면 최근 10여 년간의 중국 대외관계 연구경향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중국에서 최근 발표된 논문 중에서 조선과의 관계에 대해 어떤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논문을 통해 조선관계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이 종래의 연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조청관계사 연구경향의 특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최근 중국에서는 조공제도에 대한 연구가 한창인데, 연구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이론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다만, 본 공동연구의 세부항목의 연구와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청조 흥기에 대한 연구동향과 국경문제에 대한 연구동향을 제외하고, 1644~1911년까지의 조청관계사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연구서와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2002년부터 청사공정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에서 한중관계사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어떠한 역할 분담이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 발표되고 있는 논문의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최근 중국의 한중관계의 연구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청사공정에서 서술되는 한중관계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7 홈페이지에 게재된 논문은 최근에 발표된 연구논문인 경우도 있고, 2000년 이전 발표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이 수정하여 편집된 논문을 실는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후자와 같은 논고의 경우는 청사공정 작업을 위해 직접 쓰여진 원고 일부로 볼 수 있기에 청사공정의 의도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II. 대외관계사 연구에서 ‘조선’의 위상

중국에서는 청사공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대를 대상으로 주제별 연구 분야에서 다양한 시도가 계획·진행되고 있다. 새롭게 진행된 연구들은 중화문사망 국가청사편수위원회 홈페이지⁸에 일부가 소개되어 있다. 강역과 구역(邊疆與區域), 해외청사연구(海外淸史研究), 근대화(近代化), 비밀결사[秘密社會], 전청사(前淸史), 청말신정(淸末新政), 정치사(政治史), 인물연구(人物研究), 수리와 재해[水利農害], 사상문화(思想文化), 대외관계(中外關係), 홍콩·마카오·대만문제[港澳臺專題], 청사연구총술(淸史研究綜述), 사회사(社會史), 경제사(經濟史), 사학이론과 사학사[史學理論與史學史], 태평천국(太平天國), 무술변법(戊戌變法), 신해혁명(辛亥革命), 양무운동(洋務運動), 의화단(義和團) 등 21개 분야에 대한 최근의 연구논문과 청사공정과 관련된 집필진의 최근 논문들을 정리하고 있다. 각 분야에는 적게는 30여 편, 많은 경우는 400여 편의 논문의 전문(全文)을 PDF 파일로 접할 수 있어 중국에서의 청사동향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다.⁹ 중화문사망 ‘중외관계’의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첫째, 대외관계의 기본이념에 관한 부분으로, 아편전쟁 이후 각국과의 불평등조약체제 전개와 그 속에서의 대외관계를 논하는 논문이 가장 많은 범주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최근 10여 년 동안의 새로운 경향은 아니라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리위민[李育民]의 「근대중국의 조약제도 약술[近代中國的“條約制度”論略]」(『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

8 <http://www.historychina.net/>

9 <http://www.historychina.net/cns/QSYJ/ZTYJ/index.html>

報』1992-6)과 「영국과 근대중국의 불평등조약[英國與近代中國的不平等條約]」(『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1997-2)에는 이미 1990년대에 영국과 맺은 근대적 조약체제 가운데 중국이 어떠한 불평등조약체제에 놓이고 있는지가 분석되어 있는데, 그러한 연구동향의 연장이 근대 대외관계의 주된 경향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¹⁰

최근의 이러한 조약체제 분석에 대한 논문으로는 쉘루이한[薛瑞漢]의 「중러 현안 대강협정의 체결에서 본 소련의 초기 대중국정책[從“中俄解決懸案大綱協定”的簽訂看蘇俄早期對華政策]」(『歷史教學』2003-2)과 천쌍옌[陳雙燕]의 「경제시용과 중국 근대외교관념의 탄생[經世致用與中國近代外交觀念的產生]」(『學術月刊』2000-1), 페이치[費馳]·류샤오둥[劉曉東]의 「1868~1869년의 중국과 영국 조약개정에 대한 비판적 논술[1868~1869年“中英新修條約”談判評述]」(『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2001-2)과 허우쥙권[侯中軍]의 「불평등개념과 근대중국의 불평등조약[不平等概念與近代中國的不平等條約]」(『中國社科院研究生院學報』2006-2)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¹¹ 주로 서구 열강과 맺은 조약에 관한 이러한 연구들은 일본·러시아·프랑스·미국 등 각국이 중국과 맺은 근대시기의 조약을 분석하면서, 불평등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근대 대외관계를 조약체제라는 틀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근대를 조약체제로 설명함으로써 전근대시기의 조공체제와 대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청대 이후 근대에 걸친 시기의 국경문제에 관한 연구가 두드러지

10 20세기 50년간 중국의 대외관계 연구는 王建朗·鄺永慶(1999), 앞의 글.

11 李尚英, 「“中俄密約”的簽訂」(논자 제공, 중화문사망 정리); 陳開科(2005), 「1850年以前俄國東正教駐北京布道團的內部整頓及其經濟情報收集情況」,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青年學術論壇』.

게 늘어났다. 특히 조선과의 국경문제로 인한 분쟁에 대한 중국 측의 연구 또한 최근 많은 논고가 주목되고,¹² 그 외의 주변 국가들과의 국경분쟁 문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대표적으로는 가오중화[高中華]의 「숙순과 중러변계교섭[蕭順和中俄邊界交涉]」(『中國邊疆史地研究』 2003-2)과 방젠창[房建昌]의 「근대중국과 인도의 서쪽 변계사략[近代中印西段邊界史略]」(『歷史研究』 1997-5) 등이 그것이다.¹³ 개혁·개방 전후 혹은 1980년대까지 중국 대외관계의 시각에는 서구 열강에 대한 이해와 시각이 한정되었다고 한다면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아시아 각국과의 수교가 계속되면서 주변 국가에 대한 연구가 한창이다. 조선의 경우는 수적인 면에서 가장 많은 연구논문이 실려있다.

셋째, 청대시기의 각국과의 대외무역 관련 논문도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저우승[周熊]의 「로버트 하트와 중국해관관계 신탐[赫德與中國海關關係新探]」(『中國社會經濟史研究』 2005-3), 추이즈하이[崔志海]의 「1903년 중미통행선에 관한 조약 개정에 대한 시론[試論1903年‘中美通商行船續訂條約’]」(『近代史研究』 2001-5), 리진밍[李金明]의 「청초의 중일 나가사키무역[清初中日長崎貿易]」(『中國社會經濟史研究』 2005-3), 펑쥘저[馮佐哲]의 「자푸항과 청대중일무역과 문화교류[乍浦港與清代中日貿易, 文化交流]」(중화문사망편집부 정리) 등이 그것이다.

넷째, 청초 이후 근대까지의 중국과 각국의 문화교류에 대한 연구는 이전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장궈용[張雪永]의 「19세기말 중국과 프랑스 문화관계논술(1860~1900)[19世紀末的中法文化關係述論(1860~

12 이에 대해서는 세부연구 “중국의 한중관계사와 국경 문제에 관련된 최근의 연구동향”에 자세하게 소개될 것이므로 이 부분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다.

13 陸水林(2004), 「乾隆時期巴爾蒂斯坦(小西藏)與清朝關係初探」, 『中國藏學』 第1期; 何瑜·張波, 「清代中緬宗藩關係述論」(중화문사망편집부).

1900)](『西南民族學院學報：哲社版』2003-1), 쑤저[孫喆]·왕장[王江]의 「1689~1727년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관계 고찰[1689~1727年中俄外交關係的考察]」(『邊疆史地研究』2006-1), 류샤오멍[劉小萌]의 「청대북경의 러시아인[關於清代北京的俄羅斯人-八旗滿洲俄羅斯佐領歷史尋踪]」(『清史論叢』2007), 장카이위안[章開沅]의 「장쥬옌과 중한문화교류[張謇與中韓文化交流]」(『華中師範大學學報：人文社科版』2000-6), 왕정야오[王政堯]의 「18세기 조선의 ‘이용후생’학설과 청대중국 ‘열하일기’연구(1)[18世紀朝鮮“利用厚生”學說與清代中國“熱河日記”研究之一]」(중화문사망편집부) 등이 그것이다. 1990년대까지의 연구가 서학의 중국 수용 등 서학을 중심으로 한 문화 수용이 강조되었다면, 2000년대 이후 세계 역사학계의 문화사 강조 경향과 더불어 글로벌 히스토리의 연구 붐의 영향이 각국 관계사 연구에도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선과의 관계 연구는¹⁴ 국경문제와 더불어 최근 한국에서도 많은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새로운 연구영역으로 등장한 연행록 그리고 전통적으로 연구가 많았던 이홍장·원세개 등의 청말 조선 관련 인물사 등의 연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대외관계상의 흐름과 비교하면 ‘대외관

14 楊海英(2007), 「朝鮮士大夫의 “季文蘭情結”和清初被擄婦女的命運」, 『清史論叢』; 劉爲, 「試論攝政王多爾袞의朝鮮政策」(중화문사망편집부); 劉爲, 「宗藩關係下的貢賜與貿易：清代中朝朝貢貿易研究之一」(중화문사망편집부); 劉爲(2001), 「朝鮮赴清朝使團의文化交流活動」, 『中國邊疆史地研究』第3期; 權赫秀(2003), 「馬相伯在朝鮮의顧問活動初探(1882. 11~1884. 4)」, 『近代史研究』第3期; 馬大正(2000), 「近代東北亞國際關係史研究的新進展；讀姜龍範著“近代中朝日三國對間島朝鮮人政策研究”」, 『中國邊疆史地研究』第4期; 章開沅(2000), 「張謇與中韓文化交流」, 『華中師範大學學報：人文社科版』第6期; 王政堯, 「18世紀朝鮮“利用厚生”學說與清代中國“熱河日記”研究之一」(중화문사망편집부) 등이 그것이다.

계' 속의 조선 관련 논문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약 8% 정도를 차지하는 조선 관련 연구의 경향을 전체 한중관계사의 연구시각을 통해 분석해보자.

중화문사망의 논문이 청사공정을 의식한 청사연구 정리의 한 측면을 반영하였다고 한다면, 최근 중국에서 발표되는 논문은 조청관계사(朝淸關係史) 연구의 흐름에 반영된 조선의 위상과 연구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중국의 한중관계 연구자인 천상성(陳尙勝)의 지적처럼 1992년 중국과 한국이 수교를 맺고 이후 양국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중국 학계에서도 한중관계사 연구가 특히 중시되었다. 1990년대까지 한중관계사 연구는 중국보다는 대만 학자들의 자료정리와 연구를 통해 주도되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중국과의 수교와 동시에 1990년대 이후 발표된 논문은 수교 이전 약 50여 년 동안의 성과를 훨씬 뛰어넘는 수적 성장을 보였다고 한다.¹⁵ 특히 조선과 청조 관계는 전통에서 근대를 향하는 중요 단계이며 관련된 연구자료가 풍부한 상황 등의 요인으로 역사학에서 중요한 학문 분야가 되었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이전과 구별되는 한중관계사 연구의 흐름에서의 가장 큰 변화이다.

주지하듯이 1992년 중국과 수교하기 이전 한중관계사 연구는 대만의 연구자들이 주도하였다. 한국 학계에도 널리 소개되어 있는 장춘우(張存武)의

15 陳尙勝(2008), 「최근 15년간 중국학계의 청조와 조선관계사에 대한 연구논평」, 『동아시아 관점에서 본 청사연구-청사공정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소 제33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이 글은 『이화사학연구』 제37집(2008)에 재수록되었다]. 陳尙勝의 한중관계사 연구의 목록은 黃寬重 編(2000), 『中韓關係中文論著目錄』(臺北: 中央研究院東北亞區域研究)과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에서 편찬한 『各段歷史研究論著“索引”』 참조.

『청한중번무역 1637~1894(淸韓宗藩貿易 1637~1894)』¹⁶와 『청대중한관계는 문집(清代中韓關係論文集)』¹⁷ 그리고 린밍더[林明德]의 『원세개와 조선[袁世凱與朝鮮]』¹⁸ 등의 전문연구는 대표적 업적이다. 한편, 사료의 정리도 1970~1980년대 대만의 학자들이 정리한, 또 근대 동아시아 각국 관계사 연구에 널리 활용되는 『청계중일한관계사료(淸季中日韓關係史料)』¹⁹와 『근대중한관계사료회편 1860~1945(近代中韓關係史料匯編 1860~1945)』²⁰ 등도 이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국교가 단절된 1990년대 중후반 이후는 본격적으로 한중관계사를 연구하는 학자도 나오지 않게 되어 최근의 연구성고는 소략한 편이었다. 다만, 한중관계사 연구와 자료 정리에 큰 노력을 기울여온 중앙연구원(中央研究院) 근대사연구소(近代史研究所) 외교당(外交檔)에서 최근 「청계주한사관당안(淸季駐韓使館檔案)」²¹ 등을 공개하고 있어 근대 한중관계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6 張存武(1985), 『淸韓宗藩貿易 1637~1894』,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7 張存武(1987), 『清代中韓關係論文集』, 臺北: 商務印書館.

18 林明德(1970), 『袁世凱與朝鮮』,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專刊.

19 郭廷以·李毓澍(1972), 『淸季中日韓關係史料』,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20 趙中孚·張存武·胡春惠(1987), 『近代中韓關係史料匯編(1860~1945)』, 臺北: 國史館.

21 陳樹棠이 總辦朝鮮商務委員으로 부임한 1882~1943년까지 주한 중국 외교사절과 관련된 이 자료에는 訴訟, 人事, 商務, 任內往來, 中韓交涉, 修建工程, 護照·執照, 僑務, 禁令, 各國交涉, 稅務, 輪船招商, 煙賭, 條約, 學務, 軍事, 鑛務, 租界, 開埠, 邊界, 漁業, 기타 등 모두 28개 항목, 총 1,792冊의 안전을 포함하고 있다. 각 冊은 5쪽에서 100여 쪽이 넘는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분량은 9만 3,239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용 가능한 자료 공개에도 불구하고 ‘수교’와 ‘단교’라는 역사의 교차 속에 한중관계사의 연구 주도권은 중국 대륙 쪽으로 중심이 옮겨진 것은 틀림없다. 최근 중국에서는 대외관계사 연구의 붐에 힘입어 한중관계 특히 조청관계사에 유례없이 많은 연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1992년 한중수교(韓中修交)가 시작된 이래 증가된 교류를 원인(遠因)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인(近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1990년대 후반 이후 중국에서는 역사성을 긍정하고 재창조하려는 문명사적 전환을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이른바 문화 보수주의가 주류 담론으로 등장한 상황²²이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역사 연구 방법론에서도 타자 인식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연행록’이라는 방대한 여행기록²³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연행록 자료들은 양국관계 혹은 한중 사회의 상호인식의 제고할 수 있는 중요 사료로 이해되고 양국 관계사 연구 발전에 한 몫을 하였다는 점이다.

22 전인갑(2008), 「현대 중국의 지식구조의 변동과 ‘역사공정」, 『역사비평』 82호, 238쪽 참조. 특히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中華에 대한 자신감 회복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는 역사성의 긍정, 그리고 그 현상 형태의 하나로 새롭게 시도되는 각종 역사공정과 그와 연관된 연구가 단순히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의 차원을 넘어, 회복하고 있는 ‘중화’에 걸맞는 역사의 재구성 추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 관련 프로젝트의 규모나 중국에서 생각하는 역사 평가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國家清史纂修工程은 東北工程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때문에 한국의 중국사학계에서는 한국 언론이나 그간의 연구에서 東北工程만이 초미의 관심으로 주목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나 중국의 각종 공정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는 것이다.

23 林基中 編(2001), 『燕行錄全集 1-100』,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그 외 연행록 관련 논문은 한중 양국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중화문사망의 논문 외에 최근 발간된 저서를 중심으로 대외관계사 속에 나타나는 조선에 대한 연구내용을 살펴보자. 머리말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수교 후 많은 한중관계 연구서들이 나왔다.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연구는 4절에서 다룰 ‘예치시스템론’과 관련 있는 황즈롄(黃枝連)의 연구,²⁴ 디아오수런(刁書仁)의 『명청시기 중국과 조선·일본관계사 연구[明清中朝日關係史研究]』,²⁵ 류웨이(劉爲)의 『청대 중국과 조선의 사신왕래연구[清代中朝使者往來研究]』,²⁶ 바이신량(白新良)의 『중조관계사(中朝關係史)』,²⁷ 그 외에 서울대학교의 박사학위 논문을 기초로 출판한 리화쯔(李花子)의 『청조와 조선관계사 연구-변경교섭을 중심으로[清朝與朝鮮關係史研究-以越境交涉爲中心]』²⁸와 렌쑹신(廉松心)의 『18세기 중국과 조선의 문화교류사 연구[十八世紀中朝文化交流史研究]』,²⁹ 웨이즈장(魏志江)의 『중한관계사 연구(中韓關係史研究)』,³⁰ 자오싱위안(趙興元)의 『청대 중국과 조선관계사 연구[清代中朝關係研究]』³¹가 대표적이다. 청과 조선 연구에서의 주요 관심주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³²

24 黃枝連(1995), 『朝鮮的儒化情境構造：朝鮮王朝與滿清王朝的關係形態論』, 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

25 刁書仁(2001), 『明清中朝日關係史研究』, 長春：吉林文史出版社.

26 劉爲(2002), 『清代中朝使者往來研究』, 哈爾濱：黑龍江教育出版社.

27 白新良(2002), 『中朝關係史：明清時期』, 北京：世界知識出版社.

28 李花子(2006), 『清朝與朝鮮關係史研究-以越境交涉爲中心』, 香港：香港亞洲出版社.

29 廉松心(2006), 『十八世紀中朝文化交流史研究』, 長春：吉林文史出版社.

30 魏志江(2006), 『中韓關係史研究』, 廣州：中山大學出版社.

31 趙興元(2006), 『清代中朝關係史研究』, 長春：吉林文史出版社.

32 위에 언급한 陳尙勝의 논문에는 1992년 이후 발표된 논저와 논문 총 150여 편이

첫째, 입관(入關) 전 청(淸)의 조선과의 관계 연구에 관심이 증가하였다.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청과 조선의 양측 실록에 의거하여 전쟁과 맹약(盟約)의 과정을 사실적으로 고증한 연구, 조선 측의 문헌사료를 세밀하게 다루면서 홍타이지(皇太極)가 조선 정복전쟁 후 조선 왕자를 인질로 삼은 문제의 고찰³³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홍타이지의 제2차 조선 정복전쟁이 조선 부녀를 포로로 잡아 약탈하기 위한 것³⁴이었다는 연구에서는 전쟁 후의 속환교섭과 납치당한 조선 부녀들이 조선 사회에 돌아온 후에 겪는 어려움 등이 고찰되고 있다. 북경대학의 쉬카이[徐凱]는 「만주팔기 중의 고려사대부 가족[滿洲八旗中高麗士大夫家族]³⁵에서 만문노당(滿文老檔) 등의 자료를 근거로 누르하치[努爾哈赤]와 홍타이지 시기에 적지 않은 조선의 명망 있는 가문들이 망명한 상황과 이들이 점차 만주팔기(滿洲八旗)에 융합되고 있는 모습을 고찰하고 있다. 황즈렌[黃枝連]은 『조선의 유교화 상황과 그 구조[朝鮮的儒化情境構造: 朝鮮王朝與滿清王朝的關係形態論]³⁶에서 일찍이 광해군(光海君)의 ‘탈명친로(脫明親虜)’(후금) 정책을 다루고 있다.

둘째, 청조의 조선 정책에 관한 연구가 많아졌다. 우선 청조(淸朝)는 입관

소개되었다. 그는 1993~2008년까지 15년간에 나온 논문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은 그의 연구성과를 기초로 정리하였다.

- 33 葉泉宏(1993), 「沈館幽囚記」, 『韓國學報』第6期, 臺北.
- 34 金信子(2004), 「“丙子胡乱”與朝鮮“還鄉女”」, 北京大學韓國學研究中心, 『韓國學論文集』第12輯, 北京.
- 35 陳尙勝 主編(1999), 『第三屆韓國傳統文化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 36 黃枝連(1995), 『朝鮮的儒化情境構造: 朝鮮王朝與滿清王朝的關係形態論』,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후 조선에 대해 ‘자소이인(字小以仁)’ 정책을 취했다고 보는 황즈롄³⁷의 연구, 흥타이지 사후 조선에 대해 취해진 왕자 인질 송환, 죄신(罪臣) 석방, 세공(歲功) 감면, 여진족의 쇠환(刷還) 정지 등 도르곤[多爾袞]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 고찰하는 류웨이[劉爲]의 연구³⁸ 등 조선 정책에 대한 연구가 많이 출간되었다. 좀 더 구체적인 정책으로 강희(康熙)연간에 시행된 사신 왕래의 횡수 감면, 공물 면제, 죄책판면(罪責寬免), 진재(賑災)와 구제(救濟), 무인지대 설정 등의 시행을 통해, 일정 정도 대조선 정책에 대한 분석을 왕연리[王艷莉]가 시도한 바도 있다.³⁹ 청과 조선의 관계 가운데 세폐 문제에 대한 고찰도 주목되는데, 류쉐[劉雪]는 입관 후 계속해서 삭감된 세폐가 조선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다.⁴⁰

셋째, 청말의 조선과의 관계에 대한 전문서적의 출판도 주목된다. 쉬완민[徐萬民]의 『중한관계사[中韓關係史(近代卷)]』,⁴¹ 왕밍싱(王明星)의 『한국근대외교와 중국 1861~1910[韓國近代外交與中國 1861~1910]』,⁴² 왕루후이[王如繪]의 『근대중일관계와 조선문제[近代中日關係與朝鮮問題]』,⁴³ 양자오취안[楊昭全]·쑤위메이[孫玉梅]의 『조선화교사[朝鮮華僑史]』⁴⁴와 『중조변계사[中朝邊界史]』⁴⁵ 등이 그것이다. 자료 출판도 활발하였다. 중국제일역사당안관

37 黃枝連(1995), 위의 책.

38 劉爲(2005), 『中國邊疆史地研究』第3期.

39 王艷莉(2007), 山東大學 碩士學位論文.

40 劉雪(2007), 『山東半島與中韓交流』, 香港出版社.

41 徐萬民(1996), 『中韓關係史(近代卷)』,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42 王明星(1998), 『韓國近代外交與中國(1861~1910)』,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43 王如繪(1999), 『近代中日關係與朝鮮問題』, 北京: 人民出版社.

44 楊昭全·孫玉梅(1991), 『朝鮮華僑史』, 北京: 中國華僑出版公司.

(中國第一歷史檔案館)에서 편찬한 『청대 중조관계 당안사료 회편[清代中朝關係檔案史料匯編]⁴⁶』에는 광서연간(1875~1908) 군기처(軍機處)의 녹부주첩(錄副奏摺) 417건이 수록되어 있고, 『청대 중조관계 당안사료 속편[清代中朝關係檔案史料續編]⁴⁷』에는 건륭원년부터 동치(1736~1874) 및 선통시기(1909~1911)까지의 군기처의 녹부주첩 396건이 수록되어 있다. 류웨이[劉爲]·웨이셴저우[魏顯州] 등이 정리한 『길림성당안관소장 청대 중국과 조선관계사료 선편[吉林省檔案館藏清代中朝關係史料選編]⁴⁸』에는 동치(同治) 10년(1871)부터 선통(宣統) 3년(1911)까지의 청과 조선관계에 관련된 당안 149건이 수록되어 있다. 양자오취안·쑤위메이[孫玉梅] 주편의 『중국과 조선 변계연혁 및 변무교섭사료 회편[中朝邊界沿革及界務交涉史料匯編]』은 역사문헌과 역사당안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의 사료는 모두 청대 사료, 특히 청말의 사료이다. 그리고 이 기간에 발표된 수많은 논문을 보면, 연구자들이 청말과 조선의 관계사 연구에 대한 관심이 주로 근대 중국과 조선의 정치관계 변화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논문의 내용을 살펴보자. 왕밍싱[王明星]의 『한국근대외교와 중국 1861~1910[韓國近代外交與中國 1861~1910]』에서는 1874년을 청조가 조선 정책을 전환한 기점으로 보고 있다.⁴⁹ 송후이위안[宋慧娟]의 『청대 중국과

45 楊昭全·孫玉梅(1993), 『中朝邊界史』,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46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1996), 『清代中朝關係檔案史料匯編』, 北京: 國際文化關係出版社公司.

47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1998), 『清代中朝關係檔案史料續編』, 北京: 中國檔案出版社.

48 劉爲·魏顯州 主編(2000), 『吉林省檔案館藏清代中朝關係史料選編』,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49 王明星(1998), 앞의 책.

조선의 중번관계 연원과 변화 연구[清代中朝宗藩關係嬗變研究]』는 1870년대를 중국과 조선의 중번관계의 ‘변통(變通)’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데⁵⁰ 장리형(張禮恒)의 「청일전쟁이전 청조의 대조선정책에 대한 논평[評甲午戰爭前清政府的對朝政策]」⁵¹에서는 변화의 기점을 1880년대에 시작된 것으로 보며, 1644~1882년까지 청조의 조선 정책은 바로 조공체제의 전통을 고수한 것이었고,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간섭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런데 1882~1894년 사이에는 서구 열강과 일본의 강력한 공세하에서 청조는 변강의 안정과 상국(上國)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대해서 간섭하는 정책을 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양국관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인물사의 연구도 주목된다. 청조의 외교를 이끌었던 이홍장(李鴻章)이 바로 핵심적인 인물이다. 이홍장과 조선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보면, 관웨이(關威)의 「갑신정변과 이홍장과 이토의 대조선 교섭[甲申事變與李鴻章, 伊藤關於朝鮮的交涉]」⁵²은 조선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이홍장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교섭을 통해 조선으로 인한 양국의 분쟁의 실마리를 결국 ‘중일천진조약(中日天津條約)’으로 해결한 것에 대해 고찰하였고, 쟈성(建勝)의 「청일전쟁 이전 중국의 대조선정책[甲午前中國的對朝政策-兼論李鴻章與“以夷制夷”政策]」,⁵³ 인샤오홍(尹小紅)의 「이홍장과 조선문제[李鴻章與朝鮮問題]」,⁵⁴ 장권과(張君法)·리젠(李健)의 「이홍장

50 宋慧娟(2007), 「中朝宗藩關係的“變通”」, 『清代中朝宗藩關係嬗變研究』, 長春: 吉林大學出版社.

51 張禮恒(1993), 「評甲午戰爭前清政府的對朝政策」, 『安徽史學』第2期.

52 關威(2001), 「甲申事變與李鴻章, 伊藤關於朝鮮的交涉」, 『韓山師範學院學報』第1期.

53 建勝(2000), 「甲午前中國的對朝政策-兼論李鴻章與“以夷制夷”政策」, 『青島大學師範學院學報』第4期.

의 조선에 대한 국제균형정책(1879~1882)[李鴻章對朝鮮的國衡均衡政策(1879~1882)],⁵⁵ 세스칭[謝世誠]의 「이홍장과 조선[李鴻章與朝鮮]」⁵⁶ 등이 있다. 장권파와 리젠은 이홍장이 일본과 서양 국가의 결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나라들에 대한 조선의 정책을 주도했다고 하면서 이때 이홍장은 중국의 전통적인 ‘이이제이(以夷制夷)’ 사상에 근거해서 서양 국가와 일본이 조선에서 세력 균형을 이루도록 정책을 제정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청 조정의 조선에 대한 정책이 변하는 과정에서 황준헌(黃遵憲)이 쓴 『조선책략(朝鮮策略)』이 청 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와 관련된 논문은 모두 기본적으로 허위장(何如璋)이 청 정부가 새로운 조선 정책을 형성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조선책략』이 만들어진 후, 일본으로 갔던 수신사(修信使) 김홍집(金弘集)이 조선으로 가지고 돌아와서 조선 군신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 『조선책략』의 기본적인 주장과 원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청조와 조선의 정치관계의 변화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원세개(袁世凱)이다. 리징권(李勁軍)은 「원세개와 중국과 조선 교섭[袁世凱與中朝交涉]」⁵⁷에서 청과 조선의 정치관계에서 원세개가 한 역할을 연구하여, 그의 조선에서의 활동을 제1단계(1882. 8~1885. 1)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 정책에 간섭함에 처음으로 재능과 능력을 발휘, 제2단계(1885. 10~1889년 초) 청조

54 尹小紅(2001), 「李鴻章與朝鮮問題」, 『宿州師專學報』 第4期.

55 張君法·李健(2006), 「李鴻章對朝鮮的國衡均衡政策(1879~1882)」, 『延安大學學報』 第1期.

56 謝世誠(2006), 「李鴻章與朝鮮」, 『江蘇社會科學』 第6期.

57 陳尙勝 主編(2007a), 『山東半島與中韓交流』, 香港: 香港出版社.

의 주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대신(駐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大臣)이 되어 청조의 조선에 대한 중주권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기 시작, 제3단계(1890년 초~1894. 7. 19) 조선에서 전력을 다해 일본을 저지했으나 결국 좌절하는 내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선웨이빈[沈渭濱]의 「조선의 임오군란과 중한관계논술[朝鮮“壬午兵變”與中韓關係述論]」에서는 원세개가 조선에 들어온 전후로 청과 조선의 정치관계의 배경이 어떠했는지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임오군란 시의 청조의 군사적 개입이 청과 조선의 정치관계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일전쟁 전후 시기의 원세개를 다루고 있는 가오창[高強]의 연구에서는 「청일전쟁 전야 원세개의 행동과 이후 결과 분석[袁世凱甲午戰爭前夕行爲及其后結果探析]」에서 청 정부가 주조선총리교섭통상사의대신인 원세개에게 조선으로 출병하라고 종용했을 때, 그는 여력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하면서 행동했는데, 이것이 일본에게 조선과 중국을 침략할 매우 좋은 구실이 되었다고 원세개의 행적을 분석하고 있다. 원세개는 위급한 시기에 귀국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았는데, 그의 과장된 행동은 중국의 주조선공직(駐朝鮮公職)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조선의 화교(華僑)와 화상(華商)을 어려움에 처하도록 한 점도 지적되었다.⁵⁸ 한편 양타오[楊濤]는 원세개가 조선에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차례로 평정함으로써 영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의 조선 침략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면서 이것 또한 원세개의 공명에 대한 욕망을 급격하게 팽창시켰으며, 외교활동에서 자신감과 교만함을 가지게 했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원세개는 중만관계를 강력하게 유지시키고, 더 나아가 조선 내부에서 일어난 전면적인 개혁에 대한 지지

58 高強(2003), 「袁世凱甲午戰爭前夕行爲及其后結果探析」, 『商丘師範學院學報』第4期.

를 무시했으며, 국제정세의 전면적인 변화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마침내 조선에서의 외교활동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⁵⁹

III. 중국의 조청관계사 연구시각

그러면 최근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은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 경향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해 보자.

첫째, 조공과 관련한 본격적인 연구가 눈에 띄게 현저해졌다.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규정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조공제도의 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 세계에서 중국이 차지한 압도적인 비중과 국력을 생각하면 주변국의 군주는 조공을 통해 중국 황제의 책봉을 받음으로써 국내적 권위를 높일 수 있었고, 다른 나라와의 항쟁에서도 유리한 작용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조공제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며, 이를 보완 혹은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⁶⁰

그러나 우리는 중국왕조를 중심에 놓은 국제질서의 전개과정을 통해 6~8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추이를 고찰한 니시지마 사다오[西島定生]의 견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중국 황제가 주변국의 군주에게 작위나 관호를 주어 책봉하고 군신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국내의 예적 질서가 국외로 확대되어 책봉체제라는 국제질서가 성립하였다”고 보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한자·유교·울령제·대승불교를 받아들인 한국·일본·베트남은 책봉체제라는 국제정치적 구조를 통해 문화를 확산시켜 갈 수 있었다는 그의 주

59 楊壽(2007), 「袁世凱在朝鮮的外交活動述評」, 『新鄉高等師範學校學報』 第4期.

60 박원호(2007), 「근대 이전 한중관계사에 대한 시각과 논점」, 『한국사 시민강좌』 40.

장의 틀이 아직도 유효한 이론으로 소개되고 있다. 최근 일본과 한국에서는 그의 논의가 새롭게 출간되는 것도⁶¹ 바로 이러한 조공제도가 동아시아 관계사에서 갖는 의미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2004년 역사연구 전문기관으로 고구려연구재단이 출범하고 이후 전근대의 동북아관계사나 근대 민족문제에 이르기까지 북방사 연구 범주가 설립되면서 고구려사 연구와 더불어 한중관계사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시작되었다.⁶² 당시 한국에서도 동북공정에 대응하고자 시도하는 한중관계사 공동연구에서 몇 가지 중요한 연구과제가 설정되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조공제도에 대한 연구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학계에서도 각 시대별로 조공체제에 대한 연구가 ‘공동연구’의 형태로 시작되었다.⁶³

이러한 한국의 연구동향과 비슷한 시점에 중국에서도 조공제도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리윈취안(李雲泉)의 『조공제도사론(朝貢制度史論-中國古代對外關係體制研究)』(北京: 新華出版社, 2004)인데, 2003년 기남대학(暨南大學)의 박사학위 논문인 『명청조공제도연구(明清朝貢

61 西島定生 著, 李成市 編(2000), 『古代東アジアと日本』, 東京: 岩波書店; 송완범 (2008), 『일본의 고대사인식-동아시아세계론과 일본』(서울: 역사비평사)으로 번역.

62 이로 인한 연구성과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조공·책봉관계와 관련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신채식 편(2005), 『한중외교관계와 조공책봉』,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총서 8.

63 당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조공체제에 대한 공동연구자들은 조공책봉관계가 비단 고구려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근대 전 시기를 통한 한국과 중국의 외교시스템이었던 만큼 이를 정확히 분석·검토하여 그 실질적 정체성을 부각시킬 필요성에서 제기된 연구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여호규 편(2006), 『한국고대국가와 중국왕조의 조공·책봉체제』,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총서 15와 신채식 편(2005), 『한중외교관계와 조공책봉』,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총서 8.

制度研究』를 보충한 것이다. 리원취안과 더불어 천상성의 일련의 연구도 조공제도와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이다.⁶⁴

한중관계사에 대한 위와 같은 중국의 조공제도 연구는 조공을 대상으로 형식과 내용 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형식이 외교문서로 대표되는 조공문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면, 내용은 조공제도가 기능하게 되는 이념, 즉 유교문명과 그 근간에 대한 연구, 혹은 예치시스템으로 설명되는 연구이다. 황즈런의 연구 등에서 영향을 받은, 조공제도 연구의 선두자인 두 연구자들의 연구내용은 절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조공제도의 형식, 즉 조공문서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자.

흔히 조공의 기원에 대해 설명할 때, “주나라의 종법적 봉건제도하에서 제후가 정기적으로 천자에게 조근(朝覲)하고 공물을 바침으로써 군신 간의 의리를 밝히는 천자와 제후국 사이의 결속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고안된 정치 의례”라고 정리한다. 그러나 주왕실 붕괴 후 혼란기를 거쳐 강력한 통일 왕조인 진(秦)·한(漢)이 등장하자 종래 국내에서 행해지던 조공의례는 중국과 주변 국가들 사이의 국제질서로 그 외연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이념적인 조공관계의 특징과 형식에 대해 최근 중국의 연구에서는 전형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조선과 명칭의 관계, 특히 조선에서 명나라에 파견한 사절과, 사절이 가져오는 외교문서의 종류와 형식, 문서 전송체제 등에 매우 잘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한다.⁶⁵

64 陳尙勝 主編(2007a), 앞의 책; 陳尙勝 主編(2008a), 『儒家的文明與中韓傳統關係』, 齊南: 山東大學出版社; 陳尙勝 主編(2008b), 『儒家的文明與中國傳統對外關係』, 齊南: 山東大學出版社; 陳尙勝 主編(2007b), 『中國傳統對外關係的思想, 制度與政策』, 齊南: 山東大學出版社.

65 李善洪(2008), 「明清時期朝鮮對華外交使節初探」, 『歷史檔案』第2期.

조선과 명청 간의 외교사무 처리는 각자 사신의 왕래를 통해 완성되었지만 사실상으로는 중국 사신이건 조선 사신이건 외교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권한이 없었고, 외교교섭의 주체세력도 아니었다. 이들 외교사절 출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사대문서라 불리는 외교문서의 전송(傳送)이었다. 따라서 조선과 명청의 외교사무에서 왕래 사신의 문서 전달은 외교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외교문서에 대한 연구가 조공체제 내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또 선자이취안(沈載權)의 「조선과 명청 공문 비교연구[朝鮮與明清公文比較研究]」(南京師範大學 박사학위 논문, 2007)에서처럼, 한중 교류가 가장 활발한 명청시기를 대상으로 양국의 왕명공문, 관부에서 국왕에게 올리는 공문, 관부 사이에 오고간 공문을 형식과 명칭 및 종류, 역할과 작용, 행문관계 등에서 중국과 조선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둘째, 조선과 중국의 경제관계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춘우의 『청한중변무역 1637~1894(淸韓宗藩貿易 1637~1894)』 이래 조선과 청의 경제교역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이후 한국과 중국에서의 중요한 연구영역이었다. 최근에도 경제교역에 대한 연구가 청대 초·중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고 있다. 진위에(金悅)의 「성경장군 관할하의 청과 조선의 사행무역[淸朝與朝鮮在盛京將軍轄區的使行貿易]」(『遼寧經濟』 2008-8)에 보이는 것처럼 여진과 조선의 관계를 다루면서 조선과의 무역을 통해 성장·발전해 가는 모습을 규명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본 공동연구 중에서 청조 흥기 부분, 특히 만주족에 대한 평가와도 관련되지만, 이들의 경제적 역할 또한 새롭게 연구·평가되는 것은 그것을 조선과의 관계, 즉 국제적 관계에서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생각된다. 장제(張杰)의 경우, 청조 중기는 양국의 무역이 가장 활발하였던 시기였음에도 사료적인 제약으로 연구가 적었

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근대시기의 경제관계에 대한 논문으로는, 먼저 청일전쟁 이전의 대외무역의 새로운 경향으로 일본과의 해상무역이 육상의 변경무역과 중국 무역을 대신해서 대외무역에서 주류를 형성하여 간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마오리쿤[毛立坤]·장진핑[張金萍]의 「청일전쟁직전 조선의 해상대외무역 초탐[甲午前夕朝鮮海上對外貿易初探(1884~1893)]」(『安徽史學』 2008-4)이 있다. 논문에서는 인천·원산·부산 등 세 항구에서 양국 상인의 구체적인 무역액과 움직임에 차이가 있었고, 이미 조선에서 무역을 하는 중일 상인의 지위 또한 차이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마오리쿤·장진핑은 양국의 무역 확대는 조선인에게 불리한 요소도 있었지만 조선의 경제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한 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분석은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연구경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런데 근대시기의 경제관계에 대한 연구는 청초 혹은 중기와 비교하면 소략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1995년 차오리창[曹力強]이 「청 정부의 조선해관 통제[淸政府對朝鮮海關的控制]」(『東北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5-2)에서 근대 한중관계에서 청 정부가 조선 정부에 대한 중주권을 정치·외교적인 수단을 이용해 어떻게 강화시켜 가는가에 대한 점을 해관을 통해 분석하였다. 차오리창은 여기서 청 정부는 열강이 조선에 대한 침략의도를 강화시켜 가는 근대시기 조선 해관의 양원(洋員)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해관을 관리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경제권을 강화시켜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근대 경제관계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분야가 당시의 변경에서의 이주문제이다.⁶⁶

⁶⁶ 이 글에서는 이주와 관련한 연구동향을 따로 정리하지 않겠다. 다만 姜龍範

청대의 동아시아는, 니시지마 사다오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유대로 형성된, 종속관계에 기초한 조공책봉체제 통치관계라기보다는, 경제적 유대로 통합된 세계로 보고 본래 교역관계를 통해 지탱된 것이라고 주장한 하마시타 다케시[濱下武志]의 논리가 최근 중국에서 새롭게 소개 되고 있다.⁶⁷ 조공을 기반으로 한 경제교역과 그 주관기구에 대한 연구성과가 많아지는 중국의 경향을 고려해 볼 때, 하마시타의 조공무역론에 근거한 경제교류의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가 또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음을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청말로 넘어오면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속에서의 중조관계를 연구한 논문도 다수 발표되었다.

1872년(同治 11) 일본 외무경이 북경에 와서 조약문제를 논의할 때에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局事務衙門)에 “조선은 중국의 속국(屬國)이므로 중국이 일을 대신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자 “조선은 비록 번속(藩屬)이기는 하지

(2003), 「清政府對朝鮮移民的政策—以不柔與同化政策爲中心」,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2 등을 참고해 볼 만하다. 그는 중국 역대 왕조에서 ‘恩威兼施’를 통치의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는데, 특히 소수민족지구에는 이러한 방침과 더불어 ‘因俗而治’를 함께 통치의 기본내용으로 한 朝鮮移民을 분석하고 있다. 宋佳(2008), 『鴨綠江北岸朝鮮移民社會研究(1860~1910)』(廣西師範大學 석사학위 논문)에서는 19세기 중기 이후 확대되어 가는 조선 이민사회의 분석도 나왔고, 또 조선 이민이 동북에 미친 영향도 고찰되었다.

67 章益國(2008), 「亞洲空間感的方法論意義—濱下武志近代經濟史研究的啓示」, 『上海財經大學學報』 第1期; 翟意安(2005), 「濱下武志的朝貢貿易體系理論述評」, 『江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3期; 孟凡東(2005), 「亞洲區域模式論—濱下武志教授的“亞洲史重構”研究」, 『歷史教學問題』 第5期; 朱蔭貴(1999), 「朝貢貿易體系與亞洲經濟圈—評濱下武志教授的“近代中國的國際契機”」, 『歷史研究』 第2期.

만 내정과 외교는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두고 중국에서 간여하였던 일이 없다”라는 기사를 근대 한중관계사 및 조선과 청의 관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한국의 연구자들이 많이 인용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조선과 청의 관계를 보는 시각은 중국의 번속으로 내정과 외교는 스스로 하도록 내버려두고 간여하였던 일이 없었다는 점에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조는 근대 이후에는 적극적인 속국화(屬國化)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결국은 19세기 격동의 국제질서 속에 조공국의 상실로 이어지면서 속국화는 실패로 끝났지만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속국화의 개념 자체가 『청사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러한 과거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청산되지 않은 채, 중국에서는 근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속에서의 조선과 청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아편전쟁 후 동북아 전략 요충의 한반도에 열강의 세력 확장의 초점이 놓이게 되는 상황 속에서 조선의 통제권 쟁탈을 위해 신흥의 일본, 미국과 러시아 등이 종주국인 청과의 사이에 격렬한 각축을 벌이었다. 이른바 ‘조선 문제’라고 불리는 이 시기의 국제문제가 실은 강국이 약국을 압박하고 강국들 간의 세력쟁탈이었다. 이러한 세력쟁탈은 19세기 후반 이후 동북아 국제관계의 발전과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로 조선 문제는 종결을 맞이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연구되던 종래의 경향⁶⁸에서 벗어나, 러시아의 중국 진출과 동방진출을 자본주의 발전의 한 단계로 파악하고자 한 연구도 시도되었다.⁶⁹

68 蔡永鉉(1993), 「“朝鮮問題”與19世紀后期東亞國際關係」,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第4期.

69 南慧英(2008), 「19世紀末20世紀初俄國東方戰略中的朝鮮」, 『邊疆經濟與文化』第

1887년 조선 정부가 서양 각국에 사절 파견을 결정하며 국제사회에서 ‘자주(自主)’를 선언하자 청 정부는 박정양의 태도가 오만불손하다 하여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조선 정부는 질질 끌고 시행하지는 않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청 정부가 허약해져 강경한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보여준다고 지적하면서 청 정부의 외교정책을 조선과 관련하여 연구한 성과,⁷⁰ 또 국제법의 관점에서 청 정부와 조선의 관계를 살피고자 한 차오윈(曹雯)의 연구⁷¹도 주목된다. 차오윈은 서양은 무력을 배경으로 중국에 들어온 이후 중국의 전통적 대외체제인 중화세계관을 제압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그 결과는 청조의 직접영지와 속방의 주권을 침식하는 여러 조약의 체결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청 정부는 전통관계와 서방의 국제법에 의거하여 그들의 영토와 속방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전통적인 배경하에 진행된 청말 외교는 중국 전통의 대외체제의 요소를 포함하면서 근대 국제법 체제를 포괄하는 것이었고, 새로운 외교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1880년대의 청과 조선의 관계는 종래 한·중 양국에서 끊임없이 계속된 연구대상이었다. 한국에서는 중국이 청대 초중기와는 달리 중주권을 강화해 나가려는 입장이 그들의 약화된 지위를 마지막 조공국인 조선을 지킴으로써 실현시키고자 한 것이었다고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이었다. 중국에서는 중조

2期에서는 1861년 러시아가 農奴制 개혁 후 자본주의 단계에 들어서면서 19세기 후반 러시아는 서방에서의 확장이 좌절되자 그 발전방향을 동아시아로 돌리게 되는데, 이때 러시아의 원동은 조선반도에 모아지게 되었다.

70 陳紅民(2008), 「晚清外交的另一種困境：以1887年朝鮮遣使事件爲中心的硏究」, 『歷史硏究』第2期.

71 曹雯(2008), 「晚清政府對外政策的調整與朝鮮」, 『清史硏究』第2期.

중번(中朝宗藩)관계가 국제적으로 합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선과 서방국가의 외교관계 수립을 이끌면서, 중번관계가 조약체제로 포함되기를 기대하였지만 조선의 자주적인 반발과 제국의 군사적 행동의 야기로 중국과 각국의 중번관계를 완전히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청말의 각국과의 관계 연구에서 개개인물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더불어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근대의 국제법의 틀 안에서 중번관계를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넷째, 문화사 연구가 급증하였다. 1990년대 이래로 양국의 문화교류에 대한 연구⁷²가 꾸준히 증가하였다. 청대 전반에 걸친 문화교류의 내용은 2000년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져 양위레이[楊雨蕾]의 『16~18세기 초 중한문화교류사연구[十六至十九世紀初中韓文化交流研究]』(復旦大學 역사지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5)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젊은 연구자들의 연구도 나왔다. 명칭 시기 조천록과 연행록을 기본자료로 당시 중국에 들어온 각 사신단의 명칭, 구성, 임무, 사행기간, 노정 등을 서술하였다. 또한 이들의 문화교류를 기본 내용으로 하면서 그 과정에서 갖는 한중 문인들의 교류에서 한자는 중국의 전통 정치·문화를 조선에 전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교류의 세세한 내용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명의 사신과 조선 관료의 시문 교류뿐만 아니라,⁷³ 청대의 문인 교류의 내용은 1990년대 이래 여전히 한중관계사의 주요 내용이다.⁷⁴ 특히 최근에는 연행록을 자료로 이용하

72 李華年·蔡汝鼎(1993), 「清光緒八年平定朝鮮李昱應之亂與黎庶昌的文化外交」, 『貴州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2期.

73 杜慧月(2008), 「張宇出使朝鮮與『庚辰皇華集』考述」, 『遼寧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1期.

74 王政堯(1999), 「18世紀朝鮮“利用厚生”學說與清代中國-『熱河日記』研究之一」,

여 조선인 사행의 눈에 비친 중국의 다양한 모습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다. 쉬둥르(徐東日)의 「조선 연행사절의 눈에 보인 관우의 형상[朝鮮朝燕行使者眼中的關羽形象]」(『東疆學刊』 2008-2)을 비롯하여, 왕진중(王振忠)의 「조선 유득공이 본 청대 건륭·가경대의 중국[朝鮮柳得恭筆下清乾嘉時代的中國社會—以哈佛燕京圖書館所藏抄本《冷齋詩集》爲中心]」(『中華文史論叢』 2008-2) 등에 보이는 것처럼 외국 소장본의 문집과 판본을 비교·분석하는 연구도 시도되었다.

연행사절의 교류 또한 중요한 연구 테마이다. 원자오하이(溫兆海)의 「조선시인 이상적과 만청학인 유희해[朝鮮詩人李尙迪與晚淸學人劉喜海]」(『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8-1)에서는 조선의 시인이었던 이상적(李尙迪)과 청말의 학자 유희해(劉喜海)의 20여 년간의 상호 왕래를 통해 두터운 우의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이상적은 유희해의 중요한 금석학 저작인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을 위해 서시(序詩)를 썼고, 『황청경해(皇淸經解)』를 조선에 가지고 오기도 하는 등 양국 문화교류를 촉진한 바 크다. 관련 해외연구자의 글도 소개하고 있다. 후마 스스무(夫馬進)·차이량(蔡亮)은 「1765년 홍대용의 중국사행과 1764년 조선통신사[1765年洪大容的中國京師行與1764年朝鮮通信使]」(『復旦學報 社會科學版』 2008-4)에서 1765년 중국을 방문한 홍대용은 조선 지식인들에게 교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학술문화적인 발달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후 중국 사대부와의 교류를 통해 두터운 우의로 발전시킨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다. 비슷한 무렵인 1764년 조선의 원중거(元重舉) 또한 일본에서 통신사로 주요 인물로 평가되는데, 이들은 조선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정(情)을 구현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일본의 고학과 중국의 고증학에서는 모두 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의미를 부여하였는데, 주자학의

『清史研究』 第3期.

조선의 정신세계와는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양위레이는 학위 논문 가운데 조선의 연행사단(燕行使團)의 구성과 임무, 조선 사신과 중국 사신의 필담 교류, 청조에서의 조선 사신의 서사(書肆)·방서(訪書)·서적 구입 상황, 조선 사신이 북경에서 접하고 주로 입수한 서학 서적과 지식, 조선의 청조에 대한 관념의 변화와 북학파의 흥기 등에 관한 문제를 하나씩 깊이 다루고 있는데, 이로써 중국 학계의 연행록 연구가 더욱 심도 있게 행해지게 되었다. 궈장[左江]의 『연행록전집』고정(『燕行錄全集』考訂)⁷⁵은 연행록의 작자, 작자의 생몰연도, 사행시기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고찰하여 오류를 바로잡고 보완한 논문이다. 이 밖에 연행록을 연구한 논저로는 황스젠[黃時鑒]의 「기윤과 조선학인[紀昀與朝鮮學人]」,⁷⁶ 치칭푸[祁慶富]와 취안춘지[權純姬]의 「『일하제금합집』개설(『日下題襟合集』概說)」,⁷⁷ 치칭푸의 「중한문화교류의 역사견증[中韓文化交流的歷史見証-關於新發現的「鐵橋全集」]」,⁷⁸ 세정광[謝正光]의 「건륭말년의 학풍과 조선정부[乾隆末年學風與朝政: 讀徐浩修「燕行記」]」,⁷⁹ 스샤오옌[施曉燕]의 「열하일기에 나타난 조선사대부의 왕래 사상 현황[從「熱河日記」管窺中朝士大夫交往中的思想狀況]」,⁸⁰ 진방민[金柄珉]의 「조선 시인 박제가와 청대문단[朝鮮詩人朴齊家與清代文壇]」,⁸¹ 천둥후이[陳東輝]의

75 張伯偉 編(2008), 『域外漢籍研究集刊』 제4집, 北京: 中華書局.

76 浙江大學(2000), 『韓國傳統·歷史卷』, 北京: 學苑出版社.

77 陳尙勝 主編(1999), 『第三屆韓國傳統文化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濟南: 山東大學出版社.

78 『浙江大學學報』 2001年 第1期.

79 『九州學林』 創刊號(2003), 香港.

80 復旦大學韓國研究中心(2006), 『韓國研究論叢』 제12집.

81 金柄珉 主編(2004), 『朝鮮-韓國的歷史傳統與人文精神』, 延邊大學出版社.

「완원과 조선 학자 왕래고찰[阮元與朝鮮學人交往考略]」⁸² 등이 있다.

한국 학자로는 박지원의 다양한 면모를 분석하려는 연구가 1990년대 이래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자오싱위안[趙興元]의 「18세기 조선학자 박지원의 사람됨과 자연관[18世紀朝鮮學者朴趾源的人與自然觀]」(『古代文明』 2007-3)과 왕송타오[王松濤]의 「조선학자 박지원의 승덕 유람이야기[朝鮮學者朴趾源觀承游記談]」(『社會科學論壇(學術研究卷)』 2007-7) 등에 보이는 것처럼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사 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접근도 주목된다.

그 외 이러한 교류 속에 17~18세기 중국 회화서의 유통이 조선의 회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가오리롄지[高連嫻]의 연구(「17~18세기 중국판화서적 유통이 조선회화에 미친 영향[17~18世紀中國版畫書籍流通對朝鮮繪畫的影響]」, 『國畫家』 2008-2), 그리고 한중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번무(辨誣) 문제를 다룬 쑤위궈[孫衛國]의 연구(「청의 『명사』개수와 조선의 반응[淸修『明史』與朝鮮之反映]」, 『文史知識』 2008-6) 등도 최근에 나온 성과들이다.

IV. 중국의 예치시스템론의 분석

이상의 논문들 외에 대외관계 자료집뿐만 아니라, 단행본 연구서의 출판이 최근 2~3년 동안 꾸준히 계속되었다.⁸³ 청대의 한중관계가 종래 쉰량즈[徐亮之], 『조중관계사화(韓中關係史話)』(香港: 自由出版社, 1952), 양자오취안[楊昭全]·한권광[韓俊光], 『중조관계간사(中朝關係簡史)』(瀋陽: 遼寧民族出版社, 1992), 진구이춘[金龜春], 『중국·조선·일본 관계사(中朝日關係史)』(延吉: 延邊

82 金健人 主編(2005), 『中國江南與韓國文化交流』, 北京: 學苑出版社.

大學出版社, 1994) 등에서 다루어졌지만 최초의 한중관계사 개설서인 쉬량즈의 내용이 소략하고 그 외의 저서들도 외국의 연구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중관계 부분이 지나치게 소략한 점 등이 지적되기도 하였다.⁸⁴ 1990년대 이후 한중수교와 더불어 한중관계 연구는 더욱 활기를 띠며 황즈렌[黃枝連]의 일련의 연구들이 출간되었다.⁸⁵

후마 스스무[夫馬進]가 이미 지적⁸⁶하고 있듯이, 황즈렌이 페어뱅크의 영향을 받고 중국과 동아시아 제 국가의 관계를 ‘천조예치체제(天朝禮治體制)’라고 명명하고 있다. 예치(禮治)란 예치시스템을 말한다. 그는 주로 명청시대 중국과 조선의 국제관계에서 ‘예(禮)의 언설(言說)’이 양국 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맥 속에서 취급되고 있는가를 소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맥락에서 리윈취안[李雲泉]도 『조공제도사론(朝貢制度史論)』에서 조공제도

83 胡秋原(2004), 『近百年來中外關係』, 海峽學術出版社; 李育民(2006), 『近代中外關係與政治』, 北京: 中華書局; 楊光斌(2007), 『中國國內政治經濟與對外關係』,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相藍欣(2007), 『傳統與對外關係; 兼評中美關係的意識形態背景』, 北京: 三聯書店; 劉文俊(2007), 『近代中國西南地區的經濟開發與對外關係』, 桂林: 廣西師大; 胡玉海(2007), 『近代東北鐵路與對外關係』, 遼寧大學.

84 김한규(1999), 『한중관계사』, 서울: 아르케.

85 黃枝連(1992), 『東亞的華夏秩序-中國與亞洲國家關係形態論』, 『天朝禮治體系研究』上卷, 北京: 人民大學出版社 및 『東亞的禮義世界-中國封建王朝與朝鮮半島關係形態論』(1994) 그리고 『朝鮮的儒化情境構造-朝鮮王朝與景滿清王朝的東關係形態論』(1995), 『天朝禮治體系研究』下卷, 北京: 人民大學出版社가 있다.

86 夫馬進 編(2007), 『中國東アジア外交交流の研究』,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황즈렌이 중국이 관계하는 동아시아 제국과의 국제질서를 논하면서 예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지만, 그의 연구가 예를 보급하고 수행하는 측면뿐이고, 예가 실행되지 않는 측면, 즉 중국이 정한 예를 주변 국가가 실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로 한중관계를 고대부터 파악하고 있다. 리원취안은 조공제도의 기원을 하대로 거슬러 올라가 설명하고자 하며, 명대와 청대의 조공제도, 그리고 조공제도의 틀 안에서 파악되는 16~18세기의 서양관계 등을 설명하고 있다.

명대와 청대로 나누어 조공의 기간, 루트, 주관부서, 문서, 이념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는 리원취안의 연구시각은 현재 중국의 조공제도 연구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조공체제를 본질적 조공체제와 예의성(禮儀性) 조공체제, 일반성 조공체제 등으로 구분하며, 지리적으로 고립된 중국의 문명이 타 문명 간의 대등교류가 적어 상대적으로 폐쇄되고 우월감을 증대해 가면서 화하(華夏) 중심의식으로 성장하였고, 화이를 구분함으로써 문화의 중심의식이 강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또 전형적·본질적 조공체제란 칭신(稱臣)하며 정기적으로 조공사절을 파견하면서 연호(年號)와 연력(年歷) 등을 받으며, 책봉과 조공물에 대한 회사(回賜)를 진행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포함된 체제라고 설명한다. 결국 이러한 관계는 명청대의 조선과 류큐[琉球], 안남(安南)으로 대표되는 것으로 중국 중심주의, 중국의 문화적 우월을 인정한 주변 민족들이 중국 문화에 동화하기 위해 불평등한 관계를 수용하면서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쳤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공제도는 중국 스스로 천하의 중심으로 자부하고 주변 민족을 이적시하는 중화사상과 주변의 조공국들이 중국에 대해 가졌던 사대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유교이념에서 비롯된 중국 중심적 문화론을 국제관계로 확장한 것으로, 예를 기저로 한 상하불평등의 국제질서를 전제로 하므로 문화 이념적 개념인 중화와 정치적·군사적 산물인 사대, 그리고 때로는 경제적 필요의 산물인 조공을 구분하지 않고 일원적으로 파악하고 있어 역사 형성에서 다양성을 간과한 논의라고 비판할 수 있다.⁸⁷

이렇게 조공제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것은 ‘청사공정’과 관련하여 한중

관계사에 중요한 연구항목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청사고(淸史稿)』의 외국 관련 서술 부분은 열전(列傳) 중의 속국전(屬國傳)과 지(志) 중의 방교지(邦交志)이다. 속국전에는 조선·월남·류큐·미안마 등이 포함되고 방교지에는 일본을 비롯하여 서양 각국과의 관계를 서술하였다. 그런데 새로 편찬되는 청사에서는 속국전의 국가들을 모두 방교지에 포함시키면서 방교지를 상하로 나누어 상권에는 청사고 속국전에 포함되었던 조선·류큐·월남 등을, 하권에는 청사고 방교지에 포함되었던 일본과 구미 각국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방교지 상권 앞부분에 조공체제편을 삽입하여 상권의 국가들이 조공체제 내에 속했던 국가들의 상정을 기획 중이라고 한다.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조공체제’편

제1장 조공제도의 흥쇠

- 1) 입관 전, 2) 아편전쟁 이전, 3) 아편전쟁 이후

제2장 외국조공조건

- 1) 조공통로, 2) 조공기한, 3) 조공규모, 4) 조공물품, 5) 조공表文

제3장 주관기구

- 1) 예부, 2) 會同四譯館, 3) 이번원, 4) 기타 중앙기구, 5) 지방기구

제4장 조공예의

- 1) 외국사절의 조공예의, 2) 파견사절의 책봉예의

제5장 조공대우

- 1) 賞賜, 2) 會同館무역, 3) 국경무역

따라서 중국은 조공관계의 틀에서 한중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면서 문서 형식의 규정, 예에 의한 통제라는 조공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가고 있

87 정용화(2006), 「조선의 조공체제 인식과 활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7집 2호.

다고 보인다. 조공체제와 방교지 상권의 집필은 천상성과 리원취안이 담당하고 있다. 총 35만 자로 구성되는 방교지 상권에 조선이 10만 자, 류큐가 8만 자, 베트남[越南] 7만 자 그 외 10만 자로 구성되어 2010년 8월 심사 초고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출판은 2012년으로 계획되었지만 지금의 상태로는 더 이후로 연장될 것이라고 한다.

중국에서는 지금까지의 조공관계의 틀에서 한중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면서 조공 관련 문서형식의 규정, 예에 의한 통제라는 조공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인다. 이렇게 형태를 달리하지만 여전히 명청대의 조공개념 속에 세계와 동아시아를 파악하고 있는 기본시각을 읽을 수 있다. 때문에 청사고에서의 조선과의 관계와 나아가 한중관계사, 중국의 대외관계(혹은 국제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공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청사공정과 관련하여 청대 조공제도의 기본개념을 살펴 보기 위해서 이전시기와 비교하여 청대 조공관계의 기본틀은 무엇이고, 그 전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한국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이론화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느낀다.

V. 맺음말

중국에서는 최근 한국의 한중관계사 연구와 관련된 사료정리를 바탕으로 한중관계사의 연구성과가 크게 반영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연행록선집』, 『동문회고』 등을 다양하게 이용한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연구성과를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류웨이[劉爲]의 『청대 중국과 조선사절왕래연구[清代中朝使者往來研究]』(黑龍江教育出版社, 2002), 양자오취안[楊昭全]·허통메이[何彤梅]의 『중국-조선, 한국관계사(中國-

朝鮮·韓國關係史』(天津人民出版社)와 『중국-조선, 한국문화교류사(中國-朝鮮·韓國文化交流史)』(昆倫出版社, 2004) 등 최근 한중관계사 관련 저작들은 연행록을 근거로 한 문화교류와 사행의 왕래에 치중하면서 실제적으로 한국의 연구 성과를 도외시키고 있다. 원인이야 어찌되었건 일본의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조공관계 등의 연구가 진행되는 최근 중국의 연구를 생각해 볼 때, 한중관계사 연구자들의 공동연구를 통한 노력이 절실하다. 이처럼 중국에서의 조청관계사의 연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특히 2008년 이후 상당히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는 청사공정에서 한중관계사 부분이 이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역사학계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청대 한중관계사에 대한 이론적인 틀을 만들어 가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

‘만청 식민주의’를 둘러싼 중·외 학계의 논의

유장근 | 경남대학교 인문학과 교수

- I. 문제의 제기-비교사와 패러다임의 변화
- II. 만주어 자료와 만주 군주의 성격
- III. 18세기의 팽창과 식민지형 관리체계
- IV. 한족의 변강 이주와 식민지적 성격
- V. 맺음말을 대신하여-알타이 문화권과 한국 역사의 위상

I. 문제의 제기-비교사와 패러다임의 변화

최근 20여 년 사이에 중국 내외에서는 청대사 연구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진행되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주제들에 대한 변화라기보다는 청대사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이었다. 하나는 청왕조의 역사를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었고, 이와 연관된 또 다른 하나는 유럽과의 비교를 통해 제기된 것이었다.

그간 청대사를 연구하는 기본시각은 중국사의 긴 흐름 속에서 이 왕조를 위치시키고 그 의미를 따지는 데 두어졌다. 이에 따라 이민족의 중국 지배, 유례없는 번영과 갑작스런 쇠퇴, 아편전쟁의 패배와 ‘근대’의 시작, 내외 위기와 이를 극복하려는 개혁과 혁명이라는 큰 줄기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개혁·개방과 더불어 현대 중국의 역사적 조건과 의미가 변하였고, 글로벌한 세계의 형성 이후, 세계의 역사를 보는 시각 역시 변화하였다. 특히 중국사 연구에서 나타난 이론상의 걸림과 탈근대(postmodernism) 사조도 역사학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¹ 이러한 역사적 조건의 변화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청대사 연구자들로 하여금 과거에 설정하였던 청대사 연구 패러다임에 도전하도록 부추겼다. 그중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요소는 청왕조를 ‘세계사’의 일부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민족의 울타리 속에 갇혀 있던 청왕조를 유라시아 세계 속으로

※ 이 글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의 구범진 교수가 자료 제공과 유익한 논평으로 도움을 주었다. 이에 감사한다.

1 歐立德(마크 엘리엇)(2006), 「滿文檔案與新清史」, 『故宮學術季刊』 24-2, 8~9쪽.

이동시켜 탐구해 보지는 것이다. 이는 중국학의 효용성이 가지는 한계에서 유래한 것으로 지난 30여 년 동안 청대사는 민족주의 레토릭 속에서 검토한 소수 엘리트들의 정치운동의 결과였다고 비판한다.² 이와는 좀 더 다르게 서로 다른 지역 사이의 커넥션을 가져오게 한 초문명적·교차문화적 개념을 기준으로 각 지역에 고립적으로 존재하였던 역사를 체계적인 관계로 묶어 주려는 시도 속에서 청대사를 보려고 하였다. 그것은 새로이 등장한 세계사라는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³ 예컨대 청대사를 세계사 속에서 보려는 학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윌리엄 맥닐(W. McNeil)과 존 맥닐(J. McNeil) 부자의 세계사 개념은 종래의 국가사를 모아 놓은 형식으로 보아 왔던 그것과는 달랐다. 그들은 『휴먼 웹: 세계화의 세계사』에서 인류에서 상호작용의 웹(web)이라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연결장치가 세계사 성립의 주요 개념임을 상기시켰다. 인간 사회란 결국 이웃뿐만 아니라 적대감이나 전쟁조차 그 연결장치이며, 이는 수많은 문물과 정보, 유익하고 해로운 것들이 웹을 통해 교환하면서 존재하는 것으로, 당연히 역사 초기에 여기저기에 산재하던 웹이 점차 세계화되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묘사하였다.⁴

그들은 명대의 전성기인 16세기 중엽부터 건륭 말기인 18세기 말까지 동쪽으로는 한국과 일본, 서쪽은 영국과 이베리아반도 및 북부 아프리카 서부 지역까지, 남부는 아프리카 동남부연안과 동남아시아, 북쪽으로는 스텝 초

2 Pamela Kyle Crossley(1990), "Thinking about Ethnicity in Early Modern China," *Late Imperial China*, 11, pp. 1~35.

3 Nicola Di Cosmo(1995), "Rethinking Tribute : Concept and Practice," *Paper Presented at the Association of Asian Studies Annual Meeting*, Boston, pp. 9~13.

4 존 맥닐·윌리엄 맥닐 지음, 유정희·김우영 옮김(2007), 『휴먼 웹: 세계화의 세계사』, 이산출판사, 14~20쪽.

원지대에 걸쳐 형성된 ‘올드 월드 웹(old world web)’을 돌파한 새로운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옛 웹과 새 웹의 본질적 차이는 중남미 일부 지역에 한정된 아메리카 웹과 피지(Fiji) 일대의 퍼시픽 웹(pacific web)이 독자적이며 고립적으로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청조는 건륭제 시대에 이르러 세계화의 주요 지표였던 군사혁명, 종교의 팽창, 과학혁명, 무역혁명, 생태계의 변화와 생물교환, 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에서 이미 대국의 조건을 갖추었을 정도로 새로운 웹을 형성한 주역이었으나, 연로한 건륭제는 1793년까지 전 세계를 단일 웹으로 묶은 것이 바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⁵

이러한 역사학의 발전에 힘입어 일명 ‘알타이학과(Altaic School)’로 불리는 역사가들은 동쪽으로는 만주지역에서 중국 서부와 히말라야, 이란 북부, 그리고 흑해의 동북부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내륙아시아에 주목하면서 이 지역이 안고 있는 언어, 지리적 유사성을 통해 세계사의 새로운 양상을 구성해 보고자 하였다.⁶

종래 이곳은 주로 전쟁과 재앙 등 부정의 지리적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띠고 있었다. 이곳이 페스트와 같은 전염병의 통로 구실을 했다는 보고도 있다. 윌리엄 맥닐에 따르면, 적어도 중세 유럽의 페스트는 14세기 전반기에 운남성과 버마 등지에서 중국으로, 이곳에서 다시 아시아 대륙의 대상 교역로를 거쳐 크림반도와 유럽 내륙으로 전파되어 유럽과 중동으로 확산되었을

5 존 맥닐·윌리엄 맥닐 지음, 이정희·김우영 옮김(2007), 앞의 책, 217~298쪽.

6 이 용어는 바로 내륙아시아의 중심부에 존재하는 알타이 지역과 그것을 매개로 하여 지속하였던 알타이 문화의 특성 때문에 붙여졌다. 이에 대해서는 Peter Perdue(2005), *China Marches West: the Qing Conquest of Central Eurasia*, Harvard University Press, pp. 542~546 참조.

것이라고 판단하였다.⁷

반면 세계화나 러시아의 동방진출 등과 관련하여 내륙아시아 세계에 주목한 이들은 그곳을 광범위하게 통치했던 청왕조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내륙아시아 연구의 선구자이면서 알타이 지역을 중심에 놓고 청대 역사를 연구한 데이비드 파르쿠하르(David Farquhar)나 조셉 플레처(J. Fletcher)라든가, 일본의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와다 세이[和田清], 우라 켄이치[浦廉一], 이마니시 슌쥬[今西春秋], 미타무라 다이스케[三田村泰助], 미야자키 이치사다[宮崎市定] 등이 최근 들어 다시 각광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⁸ 다른 한편 중국의 개혁개방과 더불어 1960년대에 있었던 중국과 소련의 갈등이 해소되면서 갈등의 주요 요소였던 중소 접경지, 곧 중앙아시아 일대를 비이데올로기적이면서 통일적으로 조망할 필요성도 점증하였다.⁹ 실제로 이 지역은 중국과 소련에 분리되어 지배되기 이전에 자연환경, 역사적 조건, 민족 등 여러 부분에서 동질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일부 경제사가들은 무역을 통해 세계사상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에 따라 청왕조 혹은 명청왕조가 세계 경제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검토하였다. 웡(R. Bin Wong), 안드레 프랑크(Andre G. Frank), 케네스 포머란츠(K. Pomeranz) 등이 그들로서, 이들에 따르면 적어도 18세기까지 중국은 세계무역의 주역이었으며, 그 이후 잠시 주춤거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중 웡은 시장경제의 발전이나 농업의 상업화, 프로토 공업화의 수준에서 유럽과 중

7 윌리엄 맥닐 지음, 허정 옮김(1992),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 한울, 185~186쪽.

8 Mark Elliot(2001), *The Manchu Way: The Eight Banners and Ethnic Ident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University Press, p. 31.

9 Peter Perdue(2005), pp. 513~514.

국은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한다. 안드레 프랑크는 오히려 “유럽이 세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세계가 유럽을 만들었다. 16~18세기까지 세계경제의 중심은 중국이었다”라는 명제를 내걸었다.¹⁰ 청대의 경제발전은 세계경제의 일부였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프랑크의 책 제목 『리오리엔트: 아시아 시대의 세계경제(ReOrient: Global Economy in the Asian Ages)』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세계경제의 중심지가 전통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유럽이나 아메리카를 앞섰던 동양, 특히 중국과 인도 쪽으로 다시 이동하고 있다는 오늘날의 현실세계를 주목한 데서 나온 주장이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근대 역사학 혹은 근대 역사를 주도해 왔다고 믿었던 유럽 중심관에 대한 도전이 있다. 특히 경제사가들은 전통적인 중국 경제가 유럽과 비슷한 양상으로 발전하였다고 본다. 이를 ‘구아상사발전론(歐亞相似發展論)’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¹¹ 이들에 따르면 선진 유럽과 낙후된 중국이라는 패러다임은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중국의 경제가 당대의 유럽보다 더 발전된 단계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알타이학과는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기왕의 근대사상(近代史象) 대신, 중국 근대의 기준을 ‘근대영토의 확정’과 ‘다민족국가’의 형성에서 모색한다. 그것은 바로 청대에 완성된 것이며, 1912년에 청왕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중국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중국의 기원은 청대에 있다고 본다.¹² 명청시대의 유사성보다 청·현대의 유사성이 훨씬 더 크

10 강진아(2005), 「16~19세기 중국 경제와 세계체제」, 『이화사학연구』 31, 16~30쪽; 안드레 군더 프랑크 지음, 이희재 옮김(2003), 『리오리엔트』, 이산출판사, 227~231쪽 참조.

11 Peter Perdue(2005), p. 664.

12 Susan Naquin and E. S. Rawski(1987), *Chinese Society in the Eighteenth*

다는 것이다. 요컨대 지나친 민족주의에 의거한 중국 역사 연구의 틀을 비판하는 일 못지않게 세계사라는 넓은 공간과 긴 흐름 속에서 청대사를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인 셈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롭게 청대사를 해석하려는 연구자들은 그동안 중국 역사를 옥죄었던 유럽 중심사관, 중국 학계의 중화민족사관, 페어뱅크의 도전과 응전 이론, 그리고 코헨의 중국 중심사관 등을 뛰어넘으려고 한다.¹³

이 글에서 검토하려고 하는 ‘만청 식민주의(Manchu Colonialism)’론은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등장한 새로운 담론이다.¹⁴ 청제국의 고유한 특성은 서구 제국주의의 희생물이었다거나 장기간 지속된 관료제나 문화적 전통이 아니라 오히려 몽골·신강·티베트에 대한 청 지배의 특수성에 있으며, 이는 청과 오스만·러시아·무굴 제국 등 여타의 식민제국과 비교함으로써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도 그들처럼 통치, 팽창, 정통성, 징세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¹⁵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족성(ethnicity)과 문화변용, 정치와 언어, 황제권력과 제도개혁, 종교, 미술, 이데올로기, 군사문화와 국가형성과정, 젠더 관계, 경제와 식민지 획득을 위한 영토 확대, 근대로의 이행 등 복잡다기한 문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Century, Yale : Yale University Press, pp. 217~236.

13 Joanna W. Cohen(2004), “The New Qing History,” *Radical History Review*, 88, pp. 193~206. 이 서평에 포함된 저술은 파멜라 크로슬리, 마크 엘리엇, 필립 포렛, 조나선 헤이, 로라 호스테틀러, 수잔 만, 제임스 밀워드, 이블린 로스키, 안젤라 지토 등의 것이다. 대부분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출간된 책이다.

14 Peter Perdue(1998), “Comparing Empires : Manchu Colonialism,”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20-2, pp. 255~262.

15 Peter Perdue(2005), pp. 542~543.

있다는 것이다.¹⁶

이 연구는 바로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시도된 것으로, 주된 대상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미국 측 연구자들의 성과와 그에 대응하는 중국 학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 연구자들의 성과물이다. 아울러 청대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한국의 역사와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론 삼아 몇 가지 시도해 보았다.

II. 만주어 자료와 만주 군주의 성격

한국의 중국사 관련 학계에서도 그랬지만, 그간 청대사 연구의 기본자료는 공간 혹은 미공간의 한문 사료들이었다. 한문 자료 이외에 만주어 자료뿐만 아니라 몽골어, 티베트어, 심지어 위구르어로 만들어진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하는 작업은 극소수 연구자들을 제외하고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자료 이용상의 한계는 실제로 중국의 역사학계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였으며, 최근에 이르러서야 다시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¹⁷

알타이학파들이 보기에 만주어 자료는 성격상 한문 자료와 달랐다. 청대의 궁정에서 생산한 만주어 자료는 단순히 한문 자료의 복사판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마크 엘리엇(Mark Elliot)에 따르면,¹⁸ 만주어 자료의 중요성은 먼

¹⁶ 마크 엘리엇(2008), 「ヨーロッパ, 米國における滿洲學: 過去, 現在, 未來」, 『東洋文化研究』(學習院大學) 10호, 321쪽.

¹⁷ 王鍾翰(2006), 『清史滿族史講義稿』, 鷺江出版社, 2~11쪽.

¹⁸ Mark Elliot(June 2001), “The Manchu-Language Archives of the Qing Dynasty and the Origins of the Palace Memorial System,” *Late Imperial China*, 22-21, pp. 1~70.

저 1970년대에 행해진 제1역사당안관의 개관과 일반인의 이용에서 시작되었고, 두 번째로는 20세기 말의 지적 상황변화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곧 그 간의 역사 담론에 대한 도전과 관점의 변화, 곧 소수자, 여성, 소외자, 에스니시티(ethnicity), 그리고 정치사회적 변화가 만주족의 제국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실상, 청제국이 붕괴된 이후 중국 연구에서 만주어는 거의 불필요한 것이었다. 특히 20세기 전반기에 이러한 풍조는 매우 심해서, 대부분의 중국인 연구자들에게는 고전 한문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였다.

반면 유럽과 미국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구의 중국사가들은 달랐다. 이들은 적어도 한족 중심주의에 기울어질 필요도 별로 없었으며, 더구나 유럽의 ‘만주학’ 전통에 따르면 오히려 중국인들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만주족의 중국 지배를 연구할 수 있었다. 유럽에서 파견된 선교사들이 수백 년 동안 왕조를 관찰해 온 자료와 평가가 더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던 것이다.

선교사들의 본격적인 중국 관찰은 명말에 활동한 예수회 선교사 니콜라스 트리코(Nicholas Trigault, 1577~1628)와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마테오 리치는 명왕조의 마지막 단계를 현장에서 지켜본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정보는 유용한 것이었다. 리치의 보고서는 다소 과장이 있기는 하였지만, 중국에 대해 무척 호의적이었다. 공자는 뛰어난 철학자였고, 황제는 머나먼 궁중에서 지배하고 있지만 행정은 실력 있는 관료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노동계층은 분수를 알고, 술 마시는 법도가 엄격한 사회라고 유럽에 전하였다.¹⁹

19 조너선 스펜스 지음, 김석희 옮김(2000), 『칸의 제국』, 이산, 58~61쪽.

그러나 유럽에 청조를 소개한 좀 더 중요한 저작은 1654년에 출간된 예수회 선교사 마르티노 마르티니(Martino Martini, 1614~1661)의 『타르타르 戰記』(De Bello Tartarico historia)와 1670년에 출간된 후앙 데 팔라fox 이 멘도사(Juan de Palafox y Mendoza, 1600~1659)의 『타르타르의 중국 정복사』(Historia de la Conquista de la China por el Tartaro)였다. 이들 저작은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만주족의 중국 정복과 그 의미를 비교적 공정하게 기술하여 유럽인들 사이에 ‘만주’의 실체를 소개하는 데 성공하였다. 17세기 후반 기부터 본격화된 예수회 선교사들의 만주에 관한 기술, 곧 만주어, 만주 역사, 만주족 황제 등은 매우 생생한 사료가 되었으며, 특히 황제들을 ‘성자성(聖者性)’과 ‘박애심’이 많은 인물로 묘사하였다. 곧 유럽인들은 그간 한족 중심으로 묘사하여 왔던 ‘문명과 야만’이라는 기왕의 구도보다는, 선교사들이 보내는 새롭고도 생생한 정보에 더 흥미를 가졌던 것이다. 이러한 정보들이 유럽에서 이른바 ‘만주학’의 중요한 전통을 만들었으며, 이 전통은 19세기에 러시아 연구자들의 문헌학, 서지학, 언어분석 등에 공헌하였고, 독일의 에리히 하우어(Erich Hauer), 발터 폭스(Walter Fuchs) 등에 의해 심화되면서 만주학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²⁰

긴 맥락에서 보면 오늘날 구미의 청대사 연구도 프랑스·러시아·독일 등에서 오랫동안 발전시킨 만주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초·중기의 선교사들은 만주인은 중국인이 아니며, 청대의 정치와 사회는 종족성(ethnicity)에서 복잡하다는 사실을 이미 청 건국 직후부터 알고 있었던 바와 같이, 오늘날의 구미학계의 청대사 연구도 굳이 한족 중심의 청대사 패러다임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다.

20 마크 에리엇(2008), 앞의 글, 309~325쪽.

러시아의 만주학 전통을 이어받은 마크 엘리엇은²¹ 중국과 대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만주어 자료들을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출간물과 미출간물, 한문 번역물과 미번역물을 검토한 결과 그는 만주어 자료의 양이 방대하다는 사실, 그리고 한문 번역에서 분명치 않은 문장의 해석에 난점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번역된 궁중당안의 불완전성 등을 지적하였다. 예컨대 강희조 주집(奏摺)은 모두 5,789건인데, 이 중 1996년에 번역된 것은 총 4,297건이며, 옹정조 주집 역시 6,811건 중 5,434건만 한문으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변경, 군사, 19세기 이전의 대외기구, 만주사, 팔기, 황실 등의 연구에 만주어 자료는 필수불가결하다고 결론지었다.

만주어 자료의 특징은 한문 자료에서 은폐되어 있는 사실관계를 매우 분명하게 드러내어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해 준다는 부분에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만주어 자료를 보게 되면 청조와 1,000여 년 동안 강대했던 내륙아시아 제국과의 계보(몽골과 위구르 포함)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게 된다. 그들이 사용한 어휘는 한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들의 독특한 경험과 감성이 들어 있으며, 이 때문에 어떤 이들은 가치중립적 언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만주어 자료는 출판하면서 감추어진 부분, 예를 들면 국가와 대립적인 입장에 있거나 국가체제 밖에서 행동하였던 사람들의 목소리, 혹은 국가와의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곧 정부 측의 기술에서 은폐되거나 꾸미지 않은 원시자료의 성격을 보여준다는 부분에서 한문 자료와 구분된다.²²

21 마크 엘리엇은 스스로 페테르부르크 계통과 파리 계통을 이어받은 미국의 만주학 중에서도 이블린 로스키와 함께 전자에 속하며, 피터 퍼듀, 파멜라 크로스리, 니콜라 코스모 등은 후자에 속한다고 한다. 마크 엘리엇(2008), 앞의 글, 318~319쪽.

만주어는 청조 내부에서만 통용된 언어가 아니었다. 강희제 때(1689) 러시아와 맺었던 네르친스크조약에서도 만주문(滿洲文)이 제1언어로 사용되었다. 강희연간에서 건륭연간에 걸쳐 양국 사이에 오고간 각서는 청조에서는 한어·만주어 원문과는 별도로 몽골어와 라틴어, 혹은 몽골어와 러시아어, 혹은 러시아어와 라틴어로 번역한 등본 등 네 가지 언어로 작성되었으며,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어와 라틴어를 사용하였다. 그중 네르친스크조약문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된 것은 만주어, 라틴어, 러시아어였다. 약 25종의 한어문(漢語文) 이본(異本) 사이에는 다소의 차이가 존재하며, 연대가 이른 것일수록 그 내용이 원문에 충실하다.²³ 곧 이 조약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제1언어가 만주어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이 만주어의 한글 번역문을 보면, 조약체결의 기본동기는 네르친스크 일대에서 사냥하며 살아가는 (양국의) 소인들이 사냥을 위해 사사로이 국경을 넘나들며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데 있었음을 보여준다.²⁴ 그럴 경우 역사학자들이 정리한 이 조약의 주요 내용, 곧 ① 외흥안령 이남의 흑룡강에서 케베치 하(河) 입구를 거쳐 흥안산(興安山)에 이르는 선을 국경선으로 한다, ② 알바진 요새는 파괴한다, ③ 양국의 백성은 여권을 가지고 자유로이 무역을 할 수 있다, ④ 도망자는 국사범으로 간주하여 추방한다, ⑤ 양국의 국민은 상대방 국가에 거주할 수 있다, ⑥ 과거의 일은 모두 불문에 부친다²⁵는 핵심부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22 歐立德(2006), 앞의 글, 10~11쪽.

23 최형원(2002), 「네르친스크條約의 滿洲文 考察」, 『알타이학보』 12, 81~82쪽.

24 최형원(2002), 위의 글, 83~88쪽.

25 임계순(2000), 『淸史: 만주족이 통치한 중국』, 신서원, 262쪽.

만주어 자료의 중요성은 중국 학계도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대만의 창지파(莊吉發)는 대만 고궁박물원에 소장된 만주어 당안들을 정리하여 이를 공간하여 왔다. 중국의 제1역사당안관에서도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여 번역과 더불어 출간 작업을 진행하였다. 문제는 직접 만주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들이 드물다는 사실에 있다. 만주어 자료를 활용하여 청사연구에 진력해 온 왕종한(王種漢) 교수도 청대사 연구에서 만주어 자료가 갖는 중요성 때문에 청대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만주어 학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연구경향에 힘입어 만주어로 쓰여진 『구만주당(舊滿洲檔)』과 『만문노당(滿文老檔)』과 같은 기본자료를 대조하면서 『구만주당』이 높은 사료적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기를 원하는 연구자도 출현하고 있다.²⁶

다른 한편, 중국의 연구자들은 지난 1세기 동안에 청왕조의 황제들을 정통 중국 문화의 담지자로 설명하여 왔다. 더구나 황제들이 얼마나 한문화에 정통하였는가에 대해 강희제나 건륭제를 예로 들곤 하였다. 건륭제에 대해서는 “중화 민족의 전통문화가 건륭의 신상에 집중적으로 체현되었다. 건륭제는 중국 황제 문화의 표본이며, 흥미진진한 한 그루의 문화수(文化樹)이다”라고까지 높게 평가하였다.²⁷ 물론 대중을 상대로 한 출판물에서 언급한 수

26 김두현(2002), 『『滿文老檔』과 『舊滿洲檔』對照表-太祖朝(1)』, 『울산대학교 인문논총』 21; 김두현(2003), 『『滿文老檔』과 『舊滿洲檔』對照表-太祖朝(2)』, 『中國史研究』 25; 김두현(2004), 『『滿文老檔』과 『舊滿洲檔』對照表-太祖朝(3-1)』, 『울산사학』 11; 김두현(2005, 2008), 『『滿洲老檔』과 『舊滿洲檔』對照表-太祖朝(3)』; 『『舊滿洲檔』과 『滿文老檔』對照表Ⅱ-太祖朝(1)』, 『中國史研究』 38, 55.

27 郭成康·成崇德·趙雲田·劉鳳雲·李景屏·黃愛平(1994), 『乾隆皇帝全傳』, 學苑出版社, 「前言」, 1쪽.

사범이기 때문에 조금 과장된 표현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중국의 청대사자들이 건륭제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반면 알타이학파에서는 만주족 출신 황제를 다중적 의미를 가진 지배자로 파악한다. 청의 황제들은 적어도 입관 이전부터 만주족뿐만 아니라 몽골칸의 정통후계자로 자처하였다. 역대 중국의 한족 출신 황제들과는 전혀 달리, 몽골족을 동맹자로 인식하면서 그들의 후계자였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었다. 알타이학파의 주요 멤버인 피터 퍼듀(Peter Perdue)가 청의 통치자들이 동물이나 자연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몽골족을 대우하였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²⁸ 한족의 이민족에 대한 윤리관과 만주족의 그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이들 학파는 청의 군주들이 티베트 불교를 활용하여 달라이 라마와도 매우 독특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실상 종교와 세속권을 중심으로 청의 황제가 달라이 라마와 동맹관계를 형성한 사실은 중국 역사에서는 새로운 양상이었지만, 유목 왕조의 역사에서는 이미 쿠빌라이 칸 시대 때 확립된 것이었다.

불교도로서 이름난 몽골의 역사가 사강 세첸(Saghang Sechen)²⁹ 쿠빌라이에게 전륜성왕이란 뜻의 ‘쿠틉투(qutughtu)’라는 칭호를 부여하였다. 쿠빌라이는 몽골 시절단을 실론으로 파견하여 그 유명한 부처의 치아를 비롯

28 Peter Perdue(2005), p. 543.

29 그는 1602년 몽골 남부에서 태어나 청조 치하에 있던 1662년에 연대기인 *Erdeni-yin Tobchi*를 썼다. 자세한 그의 일대기는 Hidehiro Okada(2005), “Saghang Erke Sechen Khong Tayiji and his *Erdeni-yin Tobchi* in the Light of Their Relations with the Ching Supremacy,” 『알타이학보』 15, 129~140쪽 참조.

한 사리를 가져오도록 할 정도로³⁰ 그의 불교 후원은 잘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티베트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의 한 후손이자 쿠빌라이의 조력자였던 파파 라마는 쿠빌라이를 보편적 부처의 지배자, 곧 문수의 화신으로 인식하였다.³¹

특별히 칭조는 티베트 불교 종파 중 홍파(紅派)나 본파(Bon파)가 아니라 황모파를, 서북지역의 회교 중에서는 신파를 ‘사(邪)’로, 구파를 ‘정(正)’으로 인식하여 이들을 지원하면서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였다.³² 기왕의 정통 불교와 도교 외에 다시 두 종류의 종교가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점은 중국의 종교사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청의 황제는 사실상 보살이기도 하였다.³³ 건륭제의 무덤 내부에 각종 불교 경전이나 불상을 조영한 것도 단순한 형식만은 아니었다. 옹화궁(雍和宮)을 라마 불교의 사원으로 개조한 건륭제의 의도는 황모파를 지원하면서 티베트와 몽골 지역의 통치를 확고히 하려는 데에 두어졌다. 열하에 이궁을 조영한 일 역시 몽골족만을 회유하려고 하는 데 있지는 않았다. 그곳은 만주, 몽골, 한족이 교차하는 곳이었고, 이 때문에 전통적 궁정과 티베트 사원의

30 르네 그루쎄 지음, 김호동·유원수·정재훈 옮김(1998),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사계절, 429~432쪽.

31 Joanna W. Cohen(June 1998), “Religion, War and Empire in Eighteenth-Century China,”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20-3, pp. 336~352.

32 葉高樹(2008), 「최근 십년(1998~2008) 대만 清史研究의 동향」,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본 청사연구-청사공정을 중심으로』(이화사학연구소 제33회 정기학술회의 논문집, 2008.11.14), 210~211쪽.

33 David M. Farquhar(1978), “Emperor as Bodhistava in the Governance of the Ch’ing Empire,”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38, pp. 5~34.

건축양식을 모방한 이 궁전은 만·몽·한 지역을 제국의 통치질서 속에서 제대로 유지하고 종교적 경외감으로 가득 차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건축물이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열하의 피서산장은 번부의 맹주로서 군림한 대한(大汗)의 정부소였다.³⁴ 이후 북경의 옹화궁을 티베트 불교 사원으로 개축하여 거액의 경비를 지원하였던바, 이곳은 이후 북경 지역 티베트 불교의 신앙 중심지가 되었다. 결국 건륭제는 티베트 불교 중 황모파를 매개로 하여 몽골과 티베트 정교합일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티베트 불교가 몽골과 티베트를 결합시켜 청제국을 위협할 수 있도록 방임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양자의 결탁을 가로막아 격리시킬 뿐만 아니라 사원들을 개별적으로 황제권에 귀부하도록 종용하였으며, 그 결과 몽골의 힘까지도 약화시킬 수 있었다.³⁵

최근 김성수의 티베트사 연구성과에 따르면, 순치제가 통치하고 있던 청대 초기에 청조, 몽골, 티베트는 모두 티베트 불교 신자로서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었고, ‘불법(佛法)의 상사(上師)로서, 또 불법의 보호자’로서 정형화된 ‘승려와 세속 군주’의 관계가 상당히 밀착되어 있었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청조를 둘러싸고 있는 대륙 아시아는 티베트 불교를 중심으로 청조가 이를 통합하고 있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순치제는 1652년부터 시작하여 1653년에 마무리된 달라이 라마 5세의 북경 여행 때, 황제로서는 예외적일 만큼 예의를 다해 그를 대우하였으며, 나아가 그가 중심이 된 교권 질서를 인정하고 후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양측의 역학관계는 판첸 라

34 이시바시 다카오 지음, 홍성구 옮김, 『대청제국: 1616~1799』, 휴머니스트, 64~70쪽.

35 葉高樹(2008), 앞의 글, 211쪽.

마 6세의 북경과 승덕(承德) 방문 때인 1780년 무렵에 건륭 황제 측이 방문 일정, 방문지, 의례 등을 주도하는 쪽으로 바뀌어 갔다. 곧 건륭제가 티베트 불교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³⁶

사실 청의 황실 내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비한족적 종교에 대한 관심과 친연성에서 더 나아가, 만주족 고유의 샤머니즘까지 궁정 내에 끌어들여 종교 의례로 규범화하였다. 당자(堂子) 제사가 그것으로서 이는 자금성 내의 곤녕궁(坤寧宮)에서 지낸 청대 황실의 종교 의례였다.³⁷ 당자란 여진 사회에서 각 씨족의 족장이 신앙생활의 필요상 보존하고 있던 신책(神冊), 신기(神器)와 조상신의 보첩을 넣어두고 이곳에 제사를 지내는 종교행위였다. 이 제사는 본래 여진족의 수렵 전통에서 유래한 것으로, 누르하치의 조상들이 목책으로 둘러 쌓인 곳에 거주하고부터 그곳의 동남쪽에 신전형의 당사(堂舍)를 세워 무당이 팔방과 구천에서 신령들이 올 수 있도록 한 데서 비롯되었다. 누르하치는 부족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배한 부족의 당사를 허물어버렸던바, 요컨대 그것은 자기 부족의 보호신이었던 셈이다. 태종대에 이르러 평민이나 신하들은 의례상의 목적으로 이 당사를 세우는 것이 금지되었고 이후 당사는 점차 통치자가 독점하는 건물로 바뀌어 갔다.³⁸ 만주족의 입관 이후 이 의례는 한족, 몽골족 등의 종교와 접촉하면서 이신(異神)들을 수용하여 이전보다 체계화된 황실 의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³⁹

³⁶ 김성수(2009. 2. 5), 「청대 불교 세계의 여행」, 제28회 동양사학회 동계학술토론회, 『동아시아 역사에서 여행과 타자인식』, 충남 온양, 33~58쪽.

³⁷ Mark Elliot(2001), pp. 237~238.

³⁸ Evelyn S. Rawski(1998), *The Last Emperors: A Social History of Qing Imperial Institution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 236.

³⁹ 유지원(2005), 「청대 황실 제사의 종교적 성격」, 『명청사연구』 23, 285~308쪽.

만주족의 본거지로 알려진 백두산 일대에서도 샤머니즘은 누르하치의 탄생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 곧 세 명의 선녀가 목욕을 하기 위해 천지(天池)에 하강하였으나, 이 중 한 선녀가 붉은 과일을 먹은 뒤 잉태하여 청 태조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바로 백두산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졌다.⁴⁰ 요컨대 만주족 사이에서 샤머니즘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만주족과 한족 사이의 경계선을 구분할 수 있는 제2의 방식이기도 하였다.⁴¹

물론 이에 대해 중국의 역사가들은 청대의 종교 정책을 통한 제국의 통치에 대해 동의하기도 하며, 이것이 만주 황제의 독특한 성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만주 황제를 정통 중국 황제의 성격에서 벗어난 존재로 보기보다는 그 정통을 이어받아 천하국가를 건설한 쪽에 더 비중을 둔다. 예를 들어, 강희제는 홍타이지 이래 외쳐온 ‘만한일체, 중외일시, 천하일가’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만한을 갈라놓은 유목민족의 장성을 폐지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중국 역사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화이의 구분, ‘내중국 외이적’의 전통적 민족관념을 포기하고 유가의 대일통(大一統) 이념을 실현한 것이라고 말한다.⁴²

보살의 화신 혹은 성스런 제사장과 같은 청의 황제들은 아이로니컬하게도 역대 중국 황제와는 달리 탁월하면서도 냉혹한 군사적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태조인 누르하치 이후의 전통이었던바, 뒤이은 태종 홍타이지, 강희, 옹정, 건륭제 때까지 공개적이고 실질적으로 계승되었다. 태조와 태종

40 서대석(1992), 「한국 신화와 만주족 신화의 비교 연구」, 『고전문학연구』 7호, 5~50쪽.

41 Mark Elliot(2001), pp. 240~241.

42 李治亭(2005), 「給清史以準確的歷史定位」, 『河南師範大學學報』 第6期, 10쪽.

은 전쟁을 통해 잔뼈가 굵은 데다 전형적인 무장이었으며, 강희제는 이에서 더 나아가 갈단과의 전투에 직접 나서면서 총사령관의 역할까지 수행하였다. 그는 1696년의 첫 번째 원정에서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나 말을 타고 주위를 둘러본 다음 막사에서 누구보다 먼저 밥을 먹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목민의 천막에서 그들의 평상식을 함께 먹기도 하였다. 그는 전쟁 중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자신의 군대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지 훤히 꿰뚫고 있었고, 이는 이미 목란위장(木蘭圍場)에서 실시된 사냥 훈련 중에 터득한 것이었다.⁴³ 그는 물론 지식이 권력이라는 한족 문화의 특성도 알고 있었으나,⁴⁴ 천자로서의 성격이라는 기준에서 보았을 때, 도덕적 ‘천(天)’을 중시하는 한족 황제라기보다는, 무력과 힘을 중시하는 유목적 ‘천’ 숭배가 몸에 배인 대칸에 더 가까웠다.⁴⁵

III. 18세기의 팽창과 식민지형 관리체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 중국의 영토는 청대에 거의 ‘완성’되었다. 외몽골과 연해주 일대, 그리고 이리 지방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하였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건국 시기에 진행된 정복의 결과물을 대부분 물려받은 셈이었다. 새로운 정복의 결과 이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새롭게 고안되었으며, 통치정책 역시 과거와 달랐다. 실질적인 자국의 영토가

⁴³ 조나선 스펜스 지음, 이준갑 옮김(2001), 『강희제』, 이산출판사, 51~74쪽.

⁴⁴ Ho Ping-Ti(1998), “In Defence of Sinicization : A Rebuttal of Evelyn Rawski’s Reenvisioning the Qing,”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7-1, pp. 143~145.

⁴⁵ 安部健夫(1971), 『清代史の研究』, 創文社, 33~57쪽.

되었기 때문에 지리 지식이나 민족지 등에서 통치에 참고가 될 만한 조사작업까지 세밀하게 진행하였다.

청의 정복전쟁은 일반적으로 입관 이후에 진행된 서역과 티베트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만주족의 군사화와 이에 따른 정복전쟁이 입관 이전부터 끊임없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젊은 누르하치는 1583년에 혼하 상류이자 길림의 중심부에 있는 허투알라[赫圖阿拉]를 거점으로 삼아 요동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하였고, 1610년에는 닝구타이[寧古塔]를, 1619년에는 마침내 사르후 전투에서 명군을 격파하여 요동에 대한 통치권을 장악하였다. 이 정복전쟁은 『만주실록』에 따르면, “죽은 자가 산야에 가득 널리고 피가 흘러 도랑을 이루었으며 무기와 시신이 혼하에서 떠도는 것이 마치 얼음이 녹아 흘러내리는 것과 같았다”고 할 정도로 참혹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세계사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은 역사적 전쟁이기도 하였다.⁴⁶ 이에 따라 정치적 중심지도 허투알라에서 요양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1625년에는 심양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것이 누르하치가 사망하던 1626년까지의 정복과정이다.⁴⁷ 오늘날 길림과 요동을 포함하는 광대한 영역을 군사정복을 통해 확보하였던 것이다.

누르하치의 뒤를 이은 홍타이지는 대륙 정복의 프로그램에 따라 먼저 두 차례의 전쟁을 통해 조선을 완벽하게 제압한 다음, 북쪽으로는 길림 북부의 흑룡강 지역으로 정복지를 확대해 나갔으며, 입관 직전에 이르러 흑룡강 유역과 우수리강 일대, 그리고 서부로는 흥안령산맥을 넘어 몽골 동남부 지역

46 김한규(2005), 『천하국가』, 소나무, 294쪽.

47 유지원(2007), 「청대 동북정책의 변화에 따른 만주 도시 성격의 변화」, 유지원 등, 『근대 만주 도시 역사지리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2~32쪽.

까지 손에 넣어 동북아시아에서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이 정복지 중 흑룡강 지역에 대한 정복사업은 새로이 이곳으로 진출한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볼 때, 군사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역상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신화상으로 청조의 고지(故地)인 곳을 선점한 셈이었다.⁴⁸

강희제 시기부터 다시 정복전쟁에 들어간 청은 반청운동을 진압하면서 역외의 땅이었던 대만을 영토화하는 망외의 소득을 거두었고, 운남과 귀주 지방을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북쪽의 네르친스크에서는 러시아와 분명한 국경선을 그을 수 있었다. 건륭제 시기에 이르러 정복전쟁은 눈부신 것이었던바, 특히 한족 왕조의 오랜 숙원이던 준가르제국을 붕괴시켰고, 티베트에 대한 군사적 승리를 거두었으며, 대소금천(大·小金川)과 구르카뿐만 아니라 심지어 월남과도 사투를 벌였다. 만청 식민주의론을 더욱 체계화시킨 피터 퍼듀는 청의 군대도 많은 희생을 치렀고,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도 재앙이었던 이들 전쟁의 결과 청조는 강대한 영역을 지배하면서 ‘만청 식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간주한다.⁴⁹ 이것은 무역이나 회담을 통한 것이 아닌, 명백하게 군사적이고 잔혹한 방법을 통해 성취한 것이었기 때문에⁵⁰ 이후의 지배 역시 주로 군사력에 의존하게 되었다.⁵¹ 아울러 퍼듀는 대준가르전 승리는 유라시아 지역을 놓고 패권을

⁴⁸ Pamela Kyle Crossley(1999), *A Translucent Mirror: History and Identity in Qing Imperial Ide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30~134·296.

⁴⁹ Peter Perdue(2005), pp. 506~507·513~517.

⁵⁰ 중국의 청대사가인 청충더[成崇德]조차 대준가르 전쟁이 매우 잔혹하였으며, 일반적인 전쟁의 범위를 넘어섰고, 이로 인해 준가르부가 기본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말한다. 成崇德(1998), 「清朝邊疆統一論」, 『清史研究』 제2호, 6~15쪽.

⁵¹ 이 전통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신강생산건설병단으로 부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투던 러시아에 대한 승리를 확정짓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야말로 세계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왜 만청왕조는 서역과 티베트 지방에 대해 끊임없는 정복전쟁을 벌였을까. 코스모(Di Cosmo)는 만청왕조의 내륙아시아 정복과 지배의 역사적 요인을 만주 사회에 오랫동안 내재하고 있던 유목적 전통과 그곳으로의 회귀라는 곳에서 찾고 있다. 그는 유목지역에 나타난 국가 형성의 패턴을 자연적 진화나 농업사회에 대한 대응보다는 위기상태에 대한 사회적 대응(social response to a state of crisis)으로 전제한 다음, 구체적으로 ① 정치·경제·사회 조건의 악화 속에 초래되는 위기, ② 위기의 핵심은 유목사회 내부의 군사화이며, ③ 사회경제적 위기상황 속에서 군사귀족은 사회적 관련성이나 정치권력을 증가시키고, 카리스마적 지도력과 성스런 권력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으며, ④ 칸에 임명된 이후 집권화된 정부조직을 갖추고, ⑤ 과세와 영역 팽창, 그리고 외부의 조공을 받는바, 이 중 가장 믿을 수 있는 재원은 정주민의 징세와 무역에 있다고 본다.⁵²

이에 근거하여 그는 유목제국의 시대구분을 ① 조공제국(Tribute Empires, 기원전 209~기원후 551)으로, 흉노는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 ‘국가’의 한 모델이었으며, 이에는 오환·강·선비·루란 등이 포함된다. ② 무역조공제국(Trade-tribute Empires, 551~907)에는 투르크 제국과 거란·티베트·위구르 등이 있다. ③ 이중행정제국(Dual-administration Empires, 907~1259)은 정주

이강원(2003), 「롭노르 논쟁과 신장 생산건설병단」, 『대한지리학회지』 38(5), 701~724쪽 참조.

52 Nicola Di Cosmo(1999), “State Formation and Periodization in inner Asian History,” *Journal of World History*, 10-1, pp. 14~26.

지역형 정부를 경영하기 위해 지식과 행정기술을 습득한 요·금 그리고 몽골제국 초기의 이중행정체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④ 직접과세제국(Direct-taxation Empires, 1260~1796)은 지배 대상이 인구나 토지 등 다양하고, 쿠빌라이의 중국 정복 이후 본격화되며, 이 시대에서 중요한 점은 만주족의 초기 청제국이 포함된다는 사실이다.⁵³ 그의 분석의 강점은 바로 유목제국의 성장과 발전을 정치, 경제, 군사, 대외관계 등 중요한 여러 요소를 기준삼아 장기적 전망 속에서 파악한 데 있다. 곧 청은 유목제국의 전통을 물려받은 고도의 군사제국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코스모 역시 서북부에 대한 청조의 지배방식을 현저한 식민화 과정의 중요한 사례로 지적한다. 첫 번째는 강력한 중앙정부의 지배 아래 들어간 뒤, 이 지역을 한족 이주민에게 개방하였으며, 토지와 광물자원의 착취가 수반되었다. 비록 청조의 내지와 다른 지배체계를 채용하였지만, 그것은 식민지 행정에서 흔히 보듯이 현지 지배자들에게 권력을 위임하면서 그들의 협조를 구하는 방식이었다. 초기의 이번원(理藩院)은 몽골을 관할하는 아문에 불과하였지만, 서역에 대한 군사정복 이후 중앙정부에서 이 지역을 통치하는 식민행정기관으로 변모하였다. 물론 티베트에는 기인 출신의 주장판사대신(駐藏辦事大臣)을 두는 것으로 그쳤지만, 이 역시 이번원의 감독 아래 있었다.⁵⁴

신장, 티베트, 몽골에 대한 청의 지배는 유럽의 해외 식민지 지배방식과 원칙상 다르지 않았다. 현지 엘리트에 의존하고 수도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군대 및 이주자와 현지 엘리트의 접촉은 최소화하고 종교와 현지 관습

⁵³ Nicola Di Cosmo(1999), pp. 26~37.

⁵⁴ Nicola Di Cosmo(1998), “Qing Colonial Administration in the inner Asian Dependencies,”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20-2, pp. 287~309.

에 복종하도록 권유하는 것이었다. 이런 주장을 한 코스모는 중국 민족주의 역사가들의 두 가지 반격을 예상하였는데, 하나는 이곳이 중원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근대 유럽의 해외 식민지와 근본적으로 다르며, 다른 하나는 이들 지역은 오랫동안 한족 왕조가 지배하고 있던 곳이라는 전통적 인식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코스모는 식민지의 정의와 분류에서 해외 식민지란 식민지의 필요조건이 아니라 경험법칙일 뿐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그는 이번원이라는 한자식 표기는 이 기구의 만주어인 ‘tulergi golo’를 정확하게 번역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그 단어의 핵심은 ‘외로(外路)를 다스리는 부(部)’ 곧 변외의 성으로, 티베트나 중앙아시아는 중국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관료와 군대 뿐만 아니라 상인들조차 그곳으로 가는 일이 용이하지 않을 정도였다.⁵⁵ 중국식의 이번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은 중국의 직접적인 간섭 없이 독자적인 행정과 법체계를 유지한 속국과 중국과의 중간에 위치하는 개념으로, 청조의 통치권이 직·간접으로 행사될 수 있는 지역인 셈이었다.⁵⁶ 또한 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복과 지배는 미국의 서부정복과 식민화보다 선행된 것이었는데, 이 점에서 청조의 내륙아시아 정복은 유럽의 해외 식민지 획득과 닮은 꼴이었다.

또 서역에 대한 중국 역대 왕조의 지배는 간헐적이었고 불안정한 것이었던 반면, 청 정부의 정복과 지배는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내륙아시아 지역을 중앙정부의 지배 아래 영속적인 상태로 두게 되었다는 것이다.⁵⁷ 청의 중앙

⁵⁵ Nicola Di Cosmo(1998), pp. 306~307.

⁵⁶ 최정연(1982), 「理藩院考(上)」, 『東亞文化』 20, 136쪽.

⁵⁷ Nicola Di Cosmo(1998), pp. 306~309.

정부가 이 지역을 통치하는 데 보여준 견제와 분리, 민족격리 등은 전형적인 식민지배 방식을 닮았다는 데서 주목할 만하다. 몽골에 대해 청 정부는 다원적이고 여러 단계에 걸친 봉급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예컨대 몽골 팔기 사이에 월경하여 몰래 왕래하는 것을 엄금하고, 각 부족 사이의 교류를 금지하였으며, 특히 몽골족, 한족, 티베트족 사이의 교류를 허락하지 않았다.⁵⁸ 마찬가지로 신강 지방에 대해서도 천산 남북로에 위치한 회부와 준가르부를 그들의 전통적인 지배방식인 벡이나 자사크 제도뿐만 아니라 주현(州縣) 방식을 동원하여 견제와 분화, 민족격리 등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더욱 용이하게 이 지역을 통치할 수 있었다.

티베트 동부의 대·소 금천(大小金川) 지역에 대한 정복은 명백하게 현지 권력체계를 청 황실의 의도에 맞게 개편한 대표적인 사례에 속할 것이다.⁵⁹ 금천 일대는 대부분 자치적인 소수 종족들이 세습적 수장의 통치 아래 거주하던 곳으로, 청은 제국의 판도 내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들어 그곳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였지만, 사실상 거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한 지역이었다. 청 정부는 이곳의 통치자들이 권력을 증대시키지 않는 한 방관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관행을 어긴 사건이 1740년대에 이곳에서 벌어졌다. 샤루어번(Shaluoben, 莎羅奔, ?~1760)으로 알려진 수장의 조카와 대·소 금천의 일부 수장들이 연맹하여 영역을 확장할 목적으로 인근 지역을 공격하였고, 이는 청의 지배권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전쟁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외국형 무기까지 동원한 청군이 승리한 결과 이 지역을 복경

58 王種翰(1999), 「清代民族宗教政策」, 『王種翰學術論著自選集』,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30~231쪽; 葉高樹(2008), 앞의 글, 217쪽에서 인용.

59 Joanna W. Cohen(June 1998), pp. 336~352.

에서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단순히 지역의 통제권 문제라기보다 사실상 청조의 종교정책과 연관되어 있었다. 이 지역은 본래 티베트 불교의 일파인 본(Bon)교의 중심지였던바, 이곳을 공격했던 주된 이유는 본교 대신 황모파의 라마승들이 이곳을 지배하도록 권력을 재배치하는 데 있었다. 건륭제는 이곳에 본교보다 황교의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정을 단행하였으며, 그 결과 달라이 라마와 황교의 환심을 사고, 몽골의 어떠한 도전에도 맞설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본교는 주술을 특색으로 하는 종교였기 때문에, 세상사를 정(正)과 사(邪)로 범주화한 청조의 통치원리에서 볼 때 이는 사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정복 이후 청 정부는 본교의 사원들을 황모파의 사원으로 전환하면서 현지 권력을 재배치하였다.⁶⁰ 정복에 따른 권력의 재배치는 식민지배의 중요한 사업이었다. 더구나 본교는 사교집단으로 규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군사행동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

청제국의 식민지 정책은 지도 만들기와 민족지 조사에서도 유럽의 그것을 닮아 있었다. 최근의 지도연구는 지도의 정확성이나 비율보다 제작자의 공간이해, 정치권력, 환경과 인간의 관계 등 문화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라는 데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이 점에서 근대 유럽의 지도제작은 제국과 국가의 유용성을 상징하였다.⁶¹

서역을 정복하고 난 직후, 만주인이자 여행가의 한 사람인 칠십일

⁶⁰ Joanna W. Cohen(June 1998), pp. 343~349.

⁶¹ Laura Hostetler(2001), *Qing Colonial Enterprise: Ethnography and Cartography in Early Modern China*, The University of Chicago and London, pp. 1~32.

(七十一)⁶²이 남긴 『서역문견록(西域聞見錄)』에서 우리는 ‘입판도(入版圖)’라는 말을 보게 된다. 그의 말은 곧 남부의 알티샤르와 북부의 준가리아 분지로 구성된 서역 전 지역이 비로소 중국 영토로 확정되었다는 고백이었다.

그렇다면 판도에 들어오기 전과 그 이후 이 지역은 청의 지도에서 어떻게 표기되었을까. 명말과 청초의 지도에는 감숙과 서부지역이 지도에 실리지 않았다. 그러나 강희 황제의 명에 따라 프랑스 선교사인 조아생 부베(Joachim Bouvet, 1656~1730)가 총편찬을 맡아 제작한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에 몽골과 신강 지역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현지조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된 것이었다.

이 전통을 계승한 건륭제는 1769년에 예수회 선교사에게 지도 제작을 명하였는데, 그 결과 서역에 대한 현지조사와 강희 시대의 지도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도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1770년에 두 개의 목판과 1775년에 동판으로 간행된 이들 지도는 『건륭내부여도(乾隆內府輿圖)』, 『대청일통지도(大清一統地圖)』, 『건륭십삼배도(乾隆十三排圖)』, 『황여방격전도(皇輿方格全圖)』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 사실상 인도,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러시아 등 유라시아에 대한 유럽인의 지리 정보를 활용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유럽 지도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건륭제는 다시 이곳의 지지를 편찬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그 결과 『황여서역도지(皇輿西域圖志)』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이러한 건문록과 지도, 지지라는 세 가지 작업의 결과, 청은 준가르와 알티샤르에 대해 더욱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새로운

62 七十一은 姓이 尼瑪查로서 滿洲正藍旗人 출신이다. 건륭연간에 서역의 쿠차에 재직하면서 『西域聞見錄』을 저술하였다. 李亞茹(2008), 「清人七十一與『西域聞見錄』」, 『新疆大學學報(哲學人文社會科學版)』, 第5期 참조.

정복지는 명백하게 청의 땅으로 변해 갔다. 신강 지리의 발전은 이후 경세가나 애국자들에게 크게 기여하였고, ‘중국’을 구성한 개념도 재정립되었다.⁶³

서남부의 변경에 위치한 귀주 지방에 대해서도 18세기 중엽까지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민족지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는 제국의 팽창과 민족지 기록의 발전이 결합한 결과로서 청의 행정체계가 확대되고 더 멀리 미칠수록 민족지 조사도 이를 반영하여 지방지에 등재되었다. 또 묘족에 대한 범주화와 명칭을 부여하는 작업도 중요하였는데, 그것은 1608년에 13개, 1673년에 30개, 1741년에 41개, 1834년에 82개로 증가한 데서 알 수 있다. 또한 강희 시대의 지방지에는 한화의 정도까지 언급하고 있었으며, 목판으로 제작된 앨범형식의 기록물까지 출간되어 관료들의 행정자료로 활용되었다. 개토귀류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 바탕을 두고 추진된 정책이었다. 이 앨범은 그 정확성과 세밀함 덕택에 인민공화국 시대의 민족 분류에도 쓰일 수 있었다. 귀주에서의 민족지 조사작업은 말할 것도 없이 같은 시기에 유럽에서 진행된 민족지적 탐색과 상당히 유사한 것이었다.⁶⁴

IV. 한족의 변강 이주와 식민지적 성격

중국의 역사가들이 중시하는 바와 같이 역대에 끊임없이 진행된 인구증가와

⁶³ James Millward(1999), “Coming onto the Map’: ‘Western Regions’ Geography and Cartographic Nomenclature in the Making of Chinese Empire in Xinjiang,” *Late Imperial China*, 20-2, pp. 62~78.

⁶⁴ Laura Hostetler(2000), “Qing Connections to the Early Modern World: Ethnography and Cartography in Eighteenth-Century China,” *Modern Asian Studies*, 34-3, pp. 632~649.

그에 따른 이동은 중요한 현상이었다. 정복에 뒤이은 강제이주, 토착세력의 억지를 위한 이주, 생계를 위한 자발적 이주, 유목민의 내지 이주, 화북인의 화중 이주 등 여러 형태로 진행되었다.

특히 청대에 현저하였던 비한족 지역으로의 한족 이주는 사실상 식민지적 성격을 띠고 진행되었다. 식민지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이 살고 소유해 온 땅을 이주해 온 사람이 대신 차지하는 일이다. 그것은 본국의 군사력과 행정체계를 통해 뒷받침되었고, 이주민들은 이를 기반 삼아 인종적 차별과 문화적 우월감으로 무장한 채, 식민주의의 특징적 영역들을 현지인에게 내면화시켜 나아가게 된다.⁶⁵

한족의 변강 이주와 식민지적 성격이 일찍부터 드러나게 된 곳은 운남과 귀주 등 원·명대에 걸쳐 통치를 받은 서남부 지역에서였다. 서남부 변강지역은 원왕조의 지배하에 들기 전인 13세기 초만 해도 문화와 정체(政體) 면에서 독자적이던 수많은 왕국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왕국은 청대의 전성기인 18세기에 이르자 거의 완벽할 정도로 소멸되었다. 곧 군사,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제도들이 이 지역을 완전하게 지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의해 이식되었으며, 그것은 특히 명대와 청 중기에 걸쳐 장기간에 진행된 결과였다.⁶⁶ 예컨대 홍무제 때 한족의 운남 이주는 호광의 상덕(常德), 진주(辰州) 2부에 거주하는 한족 출신 중에서 민(民) 3정(丁) 이상의 경우 1정을 선발하여 운남으로 보내 주둔케 하였으며, 그 결과 운남 서부지역에는 약 2만 7,600여 명의 둔전병이 위소(衛所) 체제 아래 이곳에서 둔전하였

65 박지향(2000), 『제국주의』, 서울대학교출판부, 13~14쪽.

66 John Herman(2007), *Amid the Clouds and Mist: China's Colonization of Guizhou, 1200~1700*, Harvard University Press, pp. 1~17.

다.⁶⁷ 정복에 뒤이은 군사통치의 한 형태를 운남 지역에서 보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요족, 로로족, 라후족, 바이족, 나시족, 이족, 회족 등 오늘날 운남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종족이 명대와 청초에 걸쳐 운남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운남의 주요 특성인 다민족적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⁶⁸

이러한 방식의 이주는 군사정복 이후에 진행된 신강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건륭제는 서역의 정복 직후 이곳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것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힘없고 가난한 민중은 본적지에서 생계가 곤란할 지경인바, 서역을 평정한 뒤 영토가 넓어져 곳곳에서 둔전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객민이 그곳에서 무역에 힘쓰면서 지리(地利)가 날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⁶⁹ 현지인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내지의 한인과 정부에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된 이주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신강의 식민화에 공헌한 중요한 요소는 유형제도였다. 1758년부터 형사 처벌의 방식으로 시작된 신강으로의 유형제도가 목표했던 것은 내지의 인구 압을 줄이면서 형집행을 통해 범죄자들에게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역을 통해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 일반 유형범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거의 돌아오지 못하였다. 주어진 기한을 채워야 했을 뿐만 아니라 할당된 연간 농업생산 목표를 채운다고 하더라도, 지방관들이 갖가지 이유를 들어 회적허기증을 내주지 않았으며, 이것이 없이는 본적지에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1783년 이리 지방에는 정부 통계상 약 3,000명

67 蒼銘(2004), 『雲南邊地移民史』, 民族出版社, 25~33쪽.

68 蒼銘(2004), 위의 책, 33~52쪽.

69 『大清高宗實錄』卷 604, 乾隆 25年 5月 庚申條.

의 유형자가 있었으며, 5년 뒤의 보고에는 6,000명을 초과하고 있었다.⁷⁰

뒷날 임칙서가 이곳에 유배 올 때에도 유형범들은 계속 이곳으로 들어왔다. 그는 1842년 10월에 탑서하(塔西河)를 지날 때, 복건의 장주 천주 출신 유배인 수백 가가 농사짓는 풍경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 탑서하는 우루무치 서쪽에 있는 도시 마나스 부근의 작은 읍으로, 마나스에 대해서는 “토지가 비옥하여 쌀을 생산하여 각지에 팔고, 인물이 많아 난주(蘭州)에 뒤지지 않는다”고 썼다. 또한 “최근 복건과 광둥에서 온 유배인들도 역시 이곳에 많이 배치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그곳의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난 뒤 길을 떠났다”는 사정도 밝히고 있다.⁷¹

또한 이곳으로의 이주를 주장한 공자진(龔自珍)은 이주 대상으로 제국의 중심지인 북경이나 인근 지역의 유민들을 지정하였는데, 이는 ‘지리적으로 도덕적인 수도와 쓸모없는 인간들을 받아들여야 할 서역’이란 의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지리적 위계성(geographic hierarchy)은 실상 근대 유럽의 해외식민지나 일본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것이었다.⁷²

또 다른 유형자들은 총독, 순무, 지현과 같은 청조의 관료들이었다. 이들은 사실 노역을 통해 갱신이 완료되면 다시 내지로 돌아와 관직으로 회귀할 수 있었다. 기운(紀昀), 홍량길(洪亮吉), 기운사(祁韻士), 서송(徐松) 등 유배관료들이 현지의 산천, 물산, 호구뿐만 아니라 통치실태와 국방문제 등 통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내지에 돌아와 이른바 ‘식민

70 유장근(2004), 「청말개혁가의 식민주의」, 『근대 중국의 지역사회와 국가권력』, 신서원, 432~434쪽.

71 林則徐(1984), 『林則徐集：日記』, 중화서국, 433쪽.

72 강상중(1997),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81~109쪽.

지정책학'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현지의 식민화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이다.⁷³ 여기에는 후일 개혁가로 평가받는 임칙서나 위원, 공자진도 포함된다.⁷⁴

운남, 귀주, 사천 등 서남지역으로의 이주에 눈을 돌려보면 서북과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곳은 이미 강희 시대부터 청 정부의 권유에 따라 또 자발적으로 한인들의 이주가 시작되었다.⁷⁵ 그러나 본격적으로 이주의 물결이 이 지역에 밀려든 것은 옹정 시기의 개토귀류 이후였다. 예를 들면 1743~1748년 사이에 호남인이 주체가 되어 귀주를 거쳐 사천으로 들어간 자가 무려 24만여 명에 이르렀다. 이런 까닭에 사천의 황지가 급격하게 개간되었고, 그 여파는 사천의 이곳저곳에 산재해 있는 비한족 계통의 여러 종족 지역에도 미쳤다.

청초에 인구가 많지 않았던 운남이나 귀주는 한족의 이주로 인해 좀 더 복잡한 사회구조와 환경변화가 초래된 곳이기도 하다. 운남 북부에 있는 영북청(永北廳)을 예로 들면, 이들 지역의 인구는 1770년대 이후에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다. 1775년에는 3만 6,669호였으나 1820년에는 8만 3,590호에 도달하여, 반세기가 안 되는 기간 동안 두 배가 넘는 인구가 증가하였던 것이다.⁷⁶ 운남 남부의 개화부, 광남부, 보이부의 사정도 북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곳의 처녀림은 호남, 호북, 사천, 귀주 등지에서 온 이주자들이 산지를 개간하여 옥수수 등을 많이 재배하였고, 그 결과 상당량의 산

⁷³ Joanna W. Cohen(1991), *Exile in Mid-Qing China: Banishment to Xinjiang, 1758~1829*, Yale University Press, pp. 92~94.

⁷⁴ 유장근(2004), 앞의 글, 434~452쪽.

⁷⁵ John E. Herman(2007), pp. 189~221 참조.

⁷⁶ 武内房司(1992), 「清代雲南燒畑民の反亂-1820年永北リヌ族蜂起を中心に」, 『响沫集』 7, 276~287쪽.

지들이 침식되었다.⁷⁷

개토커류 이후 많은 이주민이 흘러들어 산지를 개간하고 나아가 토착민과의 분쟁으로까지 치달았던 현상은 귀주 지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1836년에 발간된 귀주부 『송도청지(松桃廳志)』에는 “백년 전에는 미개간지가 많았으며, 잡목도 무성하고 관목림이나 초지도 넓었다. 그런데 현재는 산 정상에서 물가에 이르기까지 거의 공지가 없을 정도로 모두 개발되었으며, 근년에는 옥수수를 산허리의 사면에 심고, 조금 평평한 곳에는 고구마를 심었으며, 이것이 빈민들의 주식이 되고 있다.”⁷⁸

중요한 문제는 이 이주민들이 대부분 한인이었던데다, 그 수효가 늘어나면서 토착 원주민의 토지를 사들여 소유관계가 바뀌기 시작하였다는 데 있다. 예를 들면 도광연간에 발간된 운남 북부의 한 지방지에는 “오늘날 토착인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바, 원과 명 때에 (문전병인) 한족들은 10분의 3 정도였고, 현지의 토착인이 10분의 6 정도였으며, 객민들이 나머지 10분의 1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사이에 객민들은 귀주, 호남, 사천 서부 부근에서 이곳 경내로 흘러들어와 무성할 정도로 많아졌으며, 반면 토착인은 점차 조락하고 있다. 이들은 처음에는 토착이인(土着夷人)의 토지에서 일하거나 토지를 빌려 경작하다가 10여 년 정도 지나면 돈을 모아 토지를 사들이면서 거꾸로 이를 토착인에게 빌려 주었고, 마침내 그들을 노비로 삼기에 이르게” 되는 사실을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다.⁷⁹

77 허핑티 저, 정철용 역(1994), 『중국의 인구』, 책세상, 181~182쪽.

78 蕭瑄 等(1836), 『貴州省松桃廳志』; 千葉德爾(1977), 『地域と民俗文化』, 東京: 大明堂, 172쪽에서 인용.

79 武内房司(1992), 앞의 글, 282~283쪽.

사실상 한인들의 식민에 따라 적어도 세 가지 문제가 나타났다. 첫째는 토지의 소유권이 비교적 ‘쉽게’ 한족에게 넘어갔으며, 그에 따라 토착의 비한족과 신입의 한족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반정부 폭동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둘째로, 지나친 개간에 따라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생태환경이 변형되었고, 이는 환경재해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셋째로, 이곳에서 재배된 작물은 대부분 옥수수 같은 한지 작물이었으며, 이는 앨프레드 크로스비(Alfred Crosby)가 말하는 바처럼 ‘생태 제국주의’의 특성을 띠게 되었다는 사실이다.⁸⁰ 이는 임척서가 신강 지역으로 유배된 뒤, 이리 지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농업전문가였던 그는 이곳을 목축지대에서 농업지대로 전환하는 작업에 매달렸던 것이다.

사실 변강의 정복과 그에 따른 한족의 이주는 ‘한화(漢化)’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였다. 우리에게 고전적인 한화론자로 인식되고 있는 역사가는 미국과 중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허핑티(何柄棣)였다. 지금부터 42년 전에 그는 “The Significance of Ch’ing Period in Chinese History”에서⁸¹ ① 청제국은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하였으며, 광대한 영토는 실제였으며 통치력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또한 내지의 호남북, 운남, 귀주, 사천을 완전히 한화(Sinicization)시켰으며, 근대 중국의 영토를 창조한 시대이다, ② 많은 인구를 물려주었다, ③ 정복왕조로서 가장 성공적이었다, ④ 전통과 근대라는 두 시대를 공유하였으며, 전통시대를 완성하였다, ⑤ 그리

⁸⁰ 앨프레드 크로스비 저, 정범진 역(2000), 『생태제국주의』, 지식의 풍경.

⁸¹ Ho Ping-ti(1967), “The Significance of Ch’ing Period in Chinese History,” *Journal of Asian Studies*, 26-2, pp. 189~195.

고 이러한 성공은 지배자들의 체계적인 한화 덕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청조는 역사상 전통적인 중국의 제도가 가장 성숙하고 발전하였던 시기라고 규정하였다.

허핑티의 ‘청대사 테제’가 발표된 지 30여 년 뒤에야 알타이학과의 일원인 파멜라 크로스리(Pamela K. Crossley)는 허핑티의 테제를 비판할 목적으로 한화를 다음과 같이 재정의하였다. 곧 “중국 문화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생활관습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도 개조하는 작업이다. 그것은 군사정복의 역사를 정당화시켜 주는 도그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 대신 역사학자들은 헤게모니와 에스니시티라는 단어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⁸²

나아가 이블린 로스키(Evelyn S. Rawski)는 미국 아시아학회(Association of Asian Studies) 회장 연설문에서 허핑티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적이고 전면적으로 비판하였다. 비판의 주요 기준점은 ① 그간 청대를 연구하는 데 사용되어 왔던 자료의 문제, ② 명청 왕조의 유사점과 차이점, ③ 청왕조 지배층의 한화 문제, ④ 청왕조의 성공 비결, ⑤ 청왕조와 현대 중국과의 연계성 문제 등이었다.⁸³ 그리고 로스키는 허핑티가 정의한 청대사의 역사적 의미 속에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중국에 불어닥친 민족주의 산물이 내재되어 있다고 비판하였다. 실제로 만주어 자료를 검토해 보면, 청말까지 만주족은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만주족의 청왕조가 한족 왕조

82 Pamela Kyle Crossley(1990), “Thinking about Ethnicity in Early Modern China,” *Late Imperial China*, 11, pp. 1~5.

83 Evelyn Rawski(1996), “Presidential Address : Reenvisioning the Qing : The Significance of the Qing Period in Chinese History,” *Journal of Asian Studies*, 55-4, pp. 829~850.

의 지배체제를 채택하였다고 해서 한화가 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허핑티는 다시 반론을 제기하면서 자신도 이미 청제국의 다민족성에 주목하였지만, 반면 만주어 자료의 제한성과 한문 자료의 중요성, 한화에 대한 불철저성이 로스키 비판의 약점이라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한화 문제는 특히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하며, 독일의 헤르베르트 프랑케(Herbert Franke)나 프랑스의 자크 제르네(Jacques Gernet)처럼 서구 학자들 중에서도 청대의 한화를 긍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반박하였다.⁸⁴

대부분의 중국 학자들은 사실 허핑티보다 훨씬 더 중화주의적이고 정태적인 방식으로 한화 문제에 접근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청대사 연구의 노대가인 다이이(戴逸)는 “만족(滿族)은 우리의 통일다민족국가 내에서 발전하였던바, 곧 조국민족대가정의 일원으로서 이 지역은 고대부터 중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발해는 만족의 조상이 세운 최초의 지방정권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⁸⁵

청대사에서 제기되는 한화 혹은 동화 문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겠는데, 하나는 이미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한족의 변방이주에 따라 현지의 토착민인 비한족들이 한족화되었는가와 지배자인 만주족의 정체성이 청말까지 유지되었는가 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당연히 이 개념의 배후에는 중화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재구성된 단선론적이며 목적론적이고 진보주의적인 근대 중국의 역사가 뿌리를 틀고 있다.⁸⁶

84 Ping-Ti Ho(1998), pp. 125~149.

85 戴逸(1980), 『簡明清史』(상), 北京: 人民出版社, 14~15쪽.

86 프라젠지트 두아라 지음, 문명기·손승희 옮김(2004),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기』, 삼인, 43~87쪽.

다이어의 한화관도 20세기 이후에 발전한 정통 중화주의자로서의 역사관을 전형적으로 드러낸다.

1990년대의 중국 학자들은 좀 더 탄력적이고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해명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우리웨이[吳莉葦]는 중국의 전통사유 중에는 식민 혹은 식민지 개념은 보이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그 용어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서북과 동북, 그리고 서남부 지역의 역사적 조건이 달랐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령 서북과 동북의 변강에 대해서 중국인들은 ‘중국과 외국’이라는 관계에 속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항상 긴장관계를 고려하였던 반면, 서남의 변강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들어 있는 ‘행정’의 문제였으므로 서구의 ‘식민’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오늘날 구미의 역사가들이 계승한 식민 개념은 바로 18세기의 유럽인들, 특히 선교사가 서남부의 소수민족을 ‘사실상 청조의 식민지’로 파악한 데서 연유하는 것으로 당시 한인들은 이들 소수민족을 경멸하였고, 중앙정부와도 긴장관계에 놓여 있었으며, 이것이 당대에 제작된 지도에도 반영되었다고 보았다. 이 점에서 중국 학자들도 반성하면서 중국의 국가 형성사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⁸⁷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더 중시하면, 한화의 문제나 이민족의 중앙정부로의 귀속 문제를 전통적인 주장처럼 오래전부터 정태적으로 존재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 자체도 역사적인 변화과정 속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대만의 예가오수[葉高樹]가 지적한 바와 같이 양립이 불가능한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는 로스키와 허핑티 사이에 벌어진 한화 논쟁은

87 吳莉葦(2007.5), 「18世紀歐人眼里的清朝國家性質—從《中華帝國全志》對西南少數民族的描述談起」, 『清史研究』 第2期, 28~37쪽.

차후의 연구에서도 여전히 중요할 것이지만, 한화와 비한화의 관점은 양립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⁸⁸ 또한 한화라는 개념 자체가 정의하기 어려운 데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논쟁을 어렵게 만든 이유였다.⁸⁹

물론 우리는 청 정부가 운남이나 귀주 지방의 소수민족을 한족화로부터 보호하고 종족적 보편성이나 다원화를 인정하려고 했던 점도 알고 있다.⁹⁰ 그러나 그 다원성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위에서 본 것처럼 운남과 귀주의 종족들은 경멸의 대상이었고, 위구르인들은 정복과 그 이후에 진진된 통치과정에서 일반적 전쟁상태에서보다 더 심하게 학살당하였다. 따라서 청의 지배영역 내에 포함된 소수종족들은 순수하게 한화되지도 않았으며, 한족의 경멸과 우월감으로부터도 보호되지 않았고, 통치과정에서 살해될 수도 있는 대상이었다.

V. 맺음말을 대신하여-알타이 문화권과 한국 역사의 위상

현대 중국은 청제국이 세계에 대한 헤게모니 경쟁과 고정된 영토를 확보한 데 참여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리고 오히려 자신을 희생자로서만 부각시켜 왔다.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는 자신을 괴롭힌 주변이지 자신들이 그 주

88 葉高樹(2008), 앞의 글, 206쪽.

89 윤영인(2005.2.26), 「만주족의 정체성과 “중국화” 이론에 대한 서구 학계의 최근 연구동향」, 『만주연구의 새로운 모색-만주학회 제10차 학술발표회』, 대전 카이스트, 53~58쪽.

90 汪暉(2004), 『現代中國思想的興起』上卷 第2部, 帝國與國家, 北京:三聯書店, 534~550쪽.

체는 아니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였으며, 특히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이 이데올로기는 거의 불변의 진리인 양 선전되고 교육되었다.

이 때문에 중국 학자들에게 만청 식민주의 담론은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으며,⁹¹ 이에 따른 대응논리로 유교적 천하국가론이나⁹² 조공 개념의 재분석,⁹³ 한화론의 재검토, 다민족 통일국가의 고대 기원론 등 다양한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구미 학자들이 번(藩)·조공(朝貢) 등의 개념을 식민지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오류를 범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학자들, 특히 사회경제사가들은 만청 식민론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유럽과 유사한 발전과정을 거쳤다는 주장에는 수긍하면서 중국의 근대를 18세기 혹은 17세기에서 찾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⁹⁴

명백한 사실은 오늘날의 중국은 청제국의 중요한 유산, 곧 광대한 영토와 다민족국가의 틀을 물려받았으며, 그것은 군사정복과 식민화의 결과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알타이학파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필자는 10여 년 전부터 약소국가나 약소민족 등 중국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지역에서 볼 때, 근대 중국의 위상은 어떠하였는가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⁹⁵ 이 때문에 이들 만청 식민주의에 부분적으

91 夏明方(2006.6), 「十八世紀中國的“現代性建构”」, 『史林』, 116~139쪽.

92 汪暉(2004), 앞의 책, 1~102쪽.

93 張世明(2004), 「清代宗藩關係의歷史法學多維透視分析」, 『清史研究』 제1기, 32~35쪽.

94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장근(2008), 「중화인민공화국 시대의 청사 연구동향과 만주족의 지배 문제」, 『중국의 청사공정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171~191쪽 참조.

95 유장근(1997), 「동아시아의 근대에 있어서 중국의 위상」, 『경대사론』 10, 137~151쪽 참고.

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 패권국가의 중국 경제론이나 “너도 우리와 같은 제국주의야. 그러니까 너무 민족주의를 내세워 피해자인 척하지 마”라는 의식이나, 군사력을 앞세워 중화질서를 유지해 왔으면서도 마치 도덕국가인 양 자신을 위장하는 중국 측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러한 논쟁에 비판적인 시각을 체계화시키지 못하는 국내의 학계에도 아쉬움이 많다.

하지만 국내 학계에서도 이른바 중국 근대의 ‘식민주의’ 문제에 관해 조금씩이나마 연구자들이 관심을 보이거나 나름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김성수는 량치차오의 대민족 논의나 쑨원의 오족공화를 청대 이래 중국의 변강을 형성하고 있던 번부의 독립을 막아보겠다는 일념이자, 중국의 경제건설에 필요한 식민지 개발이라는 욕구가 새롭게 작용한 결과로 파악하였다. 나아가 중국 내의 식민지 개발 논의는 항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중국 사회 각계의 관심사가 되어 있었던바, 특히 서북 변강에 대한 학계의 활기찬 연구는 민족주의와 자본주의적 팽창의 상승작용을 일으킨 탓이었다는 것이다.⁹⁶ 중화민국 시대에 전개된 식민 논의가 청대의 변강 지배방식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조경란은 식민주의론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19세기 말 중국에서 민족 담론이 생성될 때, 소수민족은 중국 내부의 타자이면서 ‘식민지’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었고, 그것은 요컨대 국내의 헤게모니와 맞닿아 있었다고 지적하였다.⁹⁷ 이

96 김성수(2008), 「중국 티베트학의 성립 배경과 티베트사 서술의 특징」, 『중국 학자들의 소수민족 역사 서술』, 동북아역사재단, 158~162쪽.

97 조경란(2006), 「현대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국민화’ 이데올로기-중화민족론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17(가을호), 372~373쪽.

와는 약간 다른 시각에서 유용태는 근대의 중화주의와 일본의 식민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유사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가 사례로 든 황염배(黃炎培, 1878~1965)의 저술 『조선사』에는 일본인의 식민사관을 비판이나 검증 없이 수용하는 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그들의 중화사관까지 결합시켜 ‘중화주의와 식민주의’를 상호 친화성을 가진 내부논리로 묶었다고 비판한다.⁹⁸ 곧 번부나 조공국에 대한 인식의 기초에는 중화주의라는 오래된 우월의식이 자리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청대의 번부 지배와 조공관계의 틀은 근대기의 민족국가 형성과정에서 변질된 형태로 이행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알타이학파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일까? 이들은 변경에 대한 만청 정부의 정복과 지배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청왕조가 만·한 협력체제를 발전시키면서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변경지역의 군사정복이나 새로운 통치제도, 인구식민 등은 만청 정부의 의도뿐만 아니라 인구과잉과 자원부족 등 청나라 내부의 사회경제적 모순들이 중복되면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만청제국의 유목성이나 변경성에 지나치게 경도되는 경우 이 시대의 특수한 문제들이 간과될 수 있다.

또한 알타이학파는 만주 지역에 대한 청조의 지배방식이나 한족 이주에 대해 대체로 무관심한 편이다. 그것은 그들의 역사학이 탈유럽을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청조의 유라시아 정복과 그에 따른 러시아와의 대립 구도를 중시한 데서 비롯된 것 같다. 이는 부지불식간에 청조사를 다시 유럽사 중심의 구도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98 유용태(2006), 『환호속의 경종: 동아시아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성찰』, 휴머니스트, 164~172쪽.

그들은 만주 지역도 물론 내륙아시아의 중요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기는 하지만, 신강이나 티베트에 대해 갖는 관심도에 비하면 약한 편이다. 현재 만주 지역은 인구 구성상 사실상 한인 사회이며, 이 점에서 현지 토착민들의 문화와 사회체제가 작동하고 있는 여타의 내륙아시아 지역과 구별된다. 이는 만주 지역에서 알타이 문화 혹은 내륙아시아적 요소가 상당히 지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른바 알타이 문화권 중에서 큰 마디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이 문화권과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관계를 맺어 왔던 한국 사회도 그 점에서는 고립적인 상태에 놓인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알타이 지역과 한국은 고대부터 비교적 다양한 방면에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종교-샤머니즘, 언어-알타이어,⁹⁹ 역사상에 남겨진 문화유산들-신라의 고분 양상, 금관과 각종 유리제품 등 넓은 지리문화적 맥락에서 보았을 때, 상당한 유사성을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샤머니즘을 통해 이 지역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만주족만의 고유한 특성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시피, 북부아시아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살고 있는 에벤키·오로촌인 따위의 퉁구스계 주민, 한국인,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내륙아시아의 몽골과 터키계 주민 대다수가 오늘날에도 관습적으로 숭배하는 ‘종교’이다.¹⁰⁰

청과 조선조차도 여러 면에서 공통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었다. 백두산 일대는 누르하치의 탄생신화에서 매우 신성시되는 공간이지만, 이는 또한 고구려의 시조설화와 연관된 곳이기도 하다. 또한 조선 태조 이성계는 출신 지인 함주(咸州) 일대에서 여진족과 혼인관계를 맺는 등 여진 사회와 긴밀한

99 김주원, 「알타이어족과 한국어」, 『공학교육』 11-1, 98~101쪽.

100 Mark Elliot(2001), pp. 238~240.

관계를 맺으면서 정치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¹⁰¹

물론 만주 지역과 한반도 지역을 역사와 문화의 맥락에서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단위로 보는 이 관점은 일찍이 일본 학자들이 시도하였다. 그것은 이른바 만선사관(滿鮮史觀)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는 ‘식민주의 사관’이라는 딱지를 붙인 채 불온한 의미로 소통되고 있다. 하지만 이 불온성은 학문적 논리의 정당성보다 그 이론에 덧씌워진 정치논리 때문에 야기된 것인 만큼 좀 더 냉정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⁰² 특히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역시 역사학을 규제하여 온 과도한 민족주의 담론에서 자유로워져야 할 것이다.

또 청과 조선의 관계를 특징짓는다는 조공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점도 우리의 관심거리이다. 분명한 사실은 청조의 대외정책을 책봉과 조공이라는 틀 속에서 이해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패러다임 역시 중화중심주의의 산물인 동시에 페어뱅크(John K. Fairbank)가 강조했던 ‘중화적 세계질서(Chinese World Order)’의 핵심 개념에 속한다. 중화중심주의가 비판을 받고 페어뱅크의 도전과 응전 이론조차 이미 퇴락한 상황 속에서 조공이란 틀로 청조의 대외관계를 서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조 역시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외교정책을 펼쳐 나갔으며, 조공 역시 그 방법 중의 하나였을 뿐이기 때문이다.

조선 정부의 조공을 매우 모범적인 형태로 평가하는 연구도 있지만¹⁰³

101 조재진(1993), 「고려말 동북면의 통치와 이성계 세력의 성장」, 『史學志』 26, 180~181쪽.

102 홍성구(2009), 「중국학계의 청조흥기사 연구동향」, 『중국 역사학계의 청사연구 동향』 참조.

103 조·청 사이의 조공관계를 ‘가장 모범적인 형태의 조공’이라고 한 책은 Susan

이 관계는 청대 대외관계의 전체 양상을 볼 때, 모범적이었다기보다는 매우 특이한 형태였다. 카자흐와 청의 관계를 검토한 제임스 밀워드(James Millward)는 양국 사이에 거래된 말 무역조차도 청조에서는 ‘공마(貢馬)’로 인식하는 등 실질적인 무역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모든 대외관계는 사실상 조공관계였다’는 중화적 관점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¹⁰⁴ 순전히 무역을 목적으로 찾아온 외국 상인들이 종종 중국의 관리들에 의해 조공사로 둔갑한 경우도 있으며, 상대가 전혀 조공의 의사를 갖지 않았고, 공식 문서에서도 대등한 관계로 표현된 외교가 중국 측에서 조공으로 탈바꿈하여 기록했다는 사실은¹⁰⁵ 중국 측이 설정한 조공관계의 허위성을 그대로 드러내 준다. 따라서 이를 모델로 삼아 청의 조공관계나 대외정책 전반을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라리 18세기 말에 월남 당국자들이 인식한 바와 같이 ‘방교(邦交)’라는 틀을 책봉·조공관계의 상위에 놓고 청조와 주변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다.¹⁰⁶ 오늘날 중국의 ‘청사공정’ 팀에서도 청과 인근 국가와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기본개념으로 방교와 조공의 사용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인 끝에 ‘방교’를 채택하고 각종 ‘지(志)’ 속에 ‘방교지’를 설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¹⁰⁷ 조공이란 용어를 배제한 이유는 사실상 그것

Naquin and E. S. Rawski(1987), p. 28.

104 James Millward(1998), *Beyond the Pass: Economy, Ethnicity, and Empire in Qing Central Asia, 1759~1864*,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48~49.

105 이성규(1992), 「중화사상과 민족주의」, 『철학』 37, 49쪽.

106 俞長根(1985. 2), 「18世紀末 越·中關係의 一研究-西山黨事件을 中心으로」, 『慶大史論』 1, 95~131쪽.

107 김형중(2008), 「중화인민공화국에서의 청사편수」, 『중국의 청사공정 연구』, 101

이 오늘날에도 외교적으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데다,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청조가 일방적으로 강제 규정하였던 ‘조공체제’가 내륙아시아로의 팽창이나 식민정책 혹은 19세기 중엽 이후에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이다. 청조의 팽창은 상호 연동되어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임오군란기 이후 진행된 청의 조선에 대한 군사침략은 이 사건만을 고립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전후한 청조의 군사활동이나 지배력 강화 등과 관련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유구의 멸망에 대한 대응, 신강(1884)과 대만(1885)의 건성(建省) 작업, 베트남의 식민화를 둘러싼 청불전쟁 등과 연계시켜 볼 때, 청조 말기의 군사활동의 성격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¹⁰⁸

청조의 중국 지배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며, 특히 혁명사적 혹은 민족주의적 패러다임을 벗어나면 더욱 그렇다. 만청 식민주의 문제도 그 개념부터 시작하여 황제의 성격과 그것을 뒷받침한 제도들, 제국의 판도 내에 들어온 몽골, 티베트, 신강 등의 지배방식의 유사성과 차이점, 현대 중국에 남긴 청조의 유산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하면 앞으로의 과제는 여전히 많은 편이다.

~107쪽.

108 김기혁은 임오군란 이후의 청조의 무력개입과 명치 일본의 대한정책을 2차적 제국주의(secondary imperialism)이라고 규정하였다. 1차적 제국주의(primary imperialism)는 청이나 일본에 대한 서양 열강의 정책을 지칭한다. 김기혁(2007), 『근대 한·중·일 관계사』, 연세대학교출판부, 156쪽.

| 참고문헌 |

〈사료〉

- 故宮博物院(1932),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文海出版社, 1963影印.
- 故宮博物院(1933), 『滿清入關前與高麗交涉史料』, 國學文庫第六編, 北京.
- 國家清史編纂委員會 編(2007), 『李鴻章全集』 39卷, 中華書局.
- 吉林師範大學古籍研究所 編(1995), 『二十六史中朝關係史料選編』, 吉林文史出版社.
- 吉林省檔案館藏(2000), 『清代中朝關係史料選輯』, 吉林人民出版社.
- 鳴哈(1980), 『朝鮮李朝實錄中的中國史料 1-12』, 中華書局.
- 朴興鎮 等(2007), 『東亞三國關係史料全輯-中國廿六史及明清實錄』, 全五冊, 延邊大學.
- 楊昭全·孫玉梅 編(1994), 『中朝邊界沿革及界務交涉史料彙編(上·下)』, 吉林文史出版社.
- 王崇實 等選編(1991), 『朝鮮文獻中的中國東北史料』, 吉林文史出版社.
- 王彥威 輯·王亮 編(1999), 『清季外交史料(全書)』, 影印, 天津: 學苑出版社.
- 王種翰(1979), 『朝鮮李朝實錄中的女真史料選編』, 遼寧大學歷史係.
- 劉子敏 主編(1996), 『中國正史中的朝鮮史料 1·2』, 延邊大學出版社.
- 李毓澍(1977), 『清季中日韓關係資料三十種綜合分類目錄 2冊』, 中文研究資料中心.
- 鄭毅 主編(2005), 『東北農業經濟史料集成 1-4』, 吉林文史出版社.
- 第一歷史檔案館 等編(2006), 『東北邊疆檔案選輯 151冊』, 廣西師範大學出版社.
- 第一歷史檔案館 等編(2006), 『琿春副都統衙門檔 238冊』, 廣西師範大學出版社.
- 趙中孚·張存武·胡春惠 主編(1988), 『近代中韓關係史資料彙編』, 國史館.
-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1996), 『清代中朝關係檔案史料匯編-續編』, 國際文化出版公司.
-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1972), 『清季中日韓關係史料 全11卷』,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국내서〉

- 강상중(1997),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산.
- 강석화(2000),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 고구려연구재단 편(2004), 『한중관계사 연구논저 목록(중세)』, 고구려연구재단.

- 고구려연구재단 편(2005), 『한중관계사 연구논저 목록(근현대)』, 고구려연구재단.
- 고성훈(2003), 「조선 후기 조·청 국경문제에 대한 연구사 검토-백두산정계비를 중심으로」, 한철호 등저, 『한중관계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국사편찬위원회.
- 權赫秀(2000), 『19世紀末 韓中關係史 研究-李鴻章의 朝鮮認識과 政策을 中心으로』, 백산자료원.
- 권혁수(2007), 「중국 학계의 근대 중한관계사 연구현황에 대하여」, 『근대한중관계사의 재조명중』, 해안.
- 김기혁(2007), 『근대한·중·일관계사』, 연세대학교출판사.
- 金基勳(2005), 「近代 中國東北(滿洲)史 研究의 動向」, 『白山學報』 47.
- 김기훈(2006), 「韓人의 만주이민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백산학보』 76.
- 김성수(2008), 「중국 티베트학의 성립 배경과 티베트사 서술의 특징」, 『중국 학자들의 소수민족 역사 서술』, 동북아역사재단.
- 김위현(2002), 『韓中關係論著目錄(1900~1999)』, 예문춘추관.
- 김춘선(2002), 「鴨綠·豆滿江 국경문제에 관한 한·중 양국의 연구동향」, 『韓國史學報』 第12期.
- 김춘선(2003), 「朝鮮人의 東北移住와 中·朝(韓) 國境問題 研究動向-중국학계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韓中關係史 研究의 成果와 課題』,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학회.
- 김춘선(2005), 「조선 후기 한인의 만주로의 ‘犯越’과 정착과정」, 白山學會 編, 『韓中領土의 관한 研究』, 백산자료원.
- 김한규(1999), 『한중관계사』, 아르케.
- 김형중(2004), 「1990年以來의 韓國における 清代政治史研究의 動向」, 『中國史學』 14.
- 노기식(2004), 「중국의 청 전기 만주(東北) 및 조선 관계 연구 동향」, 『중국의 東北邊疆 연구 동향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 박지향(2000), 『제국주의』, 서울대학교출판부.
- 배성준(2004), 「중국의 조·청 국경문제 연구 동향」, 『중국의 東北邊疆 연구 동향 분석』, 고구려연구재단.
- 白山學會 編(1996), 『韓中領土의 관한 研究』, 백산자료원.
- 白山學會 編(2005), 『韓中領土의 관한 研究』, 백산자료원.
- 송기호(2007), 『동아시아의 역사분쟁』, 솔.

葉高樹(2008. 11. 14), 「최근 십년(1998~2008) 대만 淸史研究의 동향」,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본 청사연구-청사공정을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소 제33회 정기학
술회의 논문집.

俞長根(1985. 2), 「18世紀末 越 中關係의 一研究-西山黨事件을 中心으로」, 『慶大史
論』, 創刊號.

유장근(2004), 「중국근대에 있어서 생태환경사 연구」, 『근대중국의 지역사회와 국가
권력』, 신서원.

유장근(2008), 「중화인민공화국 시대의 청사 연구동향과 만주족의 지배 문제」, 『중국
의 청사공정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유지원(2005), 「청대 황실 제사의 종교적 성격」, 『명청사연구』 23.

李陽子(2002), 『朝鮮에서의 袁世凱』, 新知書院.

임계순(2000), 『청사-만주족이 지배한 중국』, 신서원.

全海宗(2000), 「동북(만주)사에 대한 중국에서의 연구(1949~1988)」, 全海宗, 『동아
시아사의 비교와 교류』, 지식산업사.

정혜중·김형중·유장근(2008), 『중국의 청사공정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陳偉芳 著, 권혁수 譯(1996), 『淸·日甲午戰爭과 朝鮮』, 백산자료원.

崔韶子(2005), 『淸과 朝鮮: 근세 동아시아의 상호인식』, 해안.

최정연(1982), 「理藩院考(上)」, 『東亞文化』 20.

최형원(2002), 「네르친스크 條約의 滿洲文 考察」, 『알타이학보』 12.

하병체 지음, 정철웅 옮김(1994), 『중국의 인구』, 책세상.

하정식(2008), 『태평천국과 조선왕조』, 지식산업사.

이시바시 다카오 지음, 홍성구 옮김(2008), 『대청제국: 1616~1799』, 휴머니스트.

르네 그루쎈 지음, 김호동·유원수·정재훈 옮김(1998),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사계절.

엘프레드 크로스비, 안효상·정범진 옮김(2000), 『생태제국주의』, 지식의 풍경.

조나선 스펜스, 김희교 옮김(1998), 『현대중국을 찾아서』, 이산.

조나선 스펜스 지음, 이준갑 옮김(2001), 『강희제』, 이산출판사.

존 맥닐·윌리엄 맥닐 지음, 유정희·김우영 옮김(2007), 『휴먼 웹: 세계화의 세계사』,
이산출판사.

프라젠지트 두아라 지음, 문명기·손승희 옮김(2004), 『민족으로부터 역사를 구출하

기』, 삼인.

〈중국서〉

- 姜龍範(1998. 1), 「關於清季中朝邊務交涉的研究」, 『延邊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 姜龍範(2000), 『近代中朝日三國對間島朝鮮人的政策研究』,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 姜龍範(2000. 4), 「吳祿貞與東疆主權」, 『東疆學刊』.
- 姜洪源(2006. 1), 「甘肅冒賑案: 清代第一大貪污案」, 『檔案春秋』.
- 卿汝揖(1956·1956), 『美國侵華史』2卷, 三聯書店.
- 賈建飛(2007), 「“明清之際 中外關係史” 學術研討會會議綜述」, 『中國史研究動態』第11期.
- 高翔(1993), 「康乾盛世淺議」, 『清史研究』1號.
- 高翔(1995), 『康雍乾三帝統治思想研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高翔(1999), 「伍十年來的清史研究」, 『清史論叢』.
- 高翔(2000. 6. 30), 「從全盛到衰微-18世紀清帝國的盛衰之變」, 『光明日報』.
- 顧誠(1980. 8), 「論清初的社會矛盾-兼論農民軍的聯明抗清」, 『清史論叢』2輯.
- 高中華(2003), 「肅順和中俄邊界交涉」, 『中國邊疆史地研究』2號.
- 龔麗琴(1999), 「從“延吉籌邊”看吳祿貞的外交思想」, 『長沙大學學報』第9期.
- 龔書鐸·李文海 主編, 王東平 著(2004), 『中華文明起源和民族問題的論辯』, 百花洲文藝出版社.
- 郭成康(1995), 「18世紀後期中國貪污問題研究」, 『清史研究』第1期.
- 郭成康(2000), 「也談滿族漢化」, 『清史研究』第2期.
- 郭成康·成崇德·趙雲田·劉鳳雲·李景屏·黃愛平(1994), 『乾隆皇帝全傳』, 學苑出版社.
- 郭成康·鄭寶鳳(1997), 「乾隆年間侵貪問題研究」, 『清史研究集』8號.
- 歐立德(마크 엘리엇)(2006), 「滿文檔案與新清史」, 『故宮學術季刊』24-2.
- 權赫秀(2003), 「馬相伯在朝鮮的顧問活動初探(1882. 11~1884. 4)」, 『近代史研究』3號.
- 祁美琴(2006), 「對清代朝貢體制地位的再認識」, 『中國邊疆史地研究』第1期.
- 金龜春(1994), 『中朝日關係史』, 延吉: 延邊大學出版社.
- 金龜春 主編(1995), 『中朝韓日關係史研究論叢』, 延邊大學出版社.
- 吉林師範大學歷史系(1976), 『沙俄侵華史簡編』, 吉林人民出版社.
- 南慧英(2008. 2), 『19世紀末20世紀初俄國東方戰略中的朝鮮』, 『邊疆經濟與文化』.

- 盧經(1995),「乾隆朝貪婪督撫家資一瞥」,『清史研究』3號。
- 盧經(1996),「乾隆斂財與督撫貪污」,『龍江社會科學』第2期。
- 盧經(2001. 3),「乾隆朝甘肅捐監冒賑衆貪案」,『歷史檔案』。
- 魯良(2006. 12),「雍正與“康乾盛世”」,『源流』。
- 段自成·寧貫曉(2006),「梁啓超國際視野下的康乾盛世」,『平頂山學院學報』第1期。
- 戴逸(1980),『簡明清史』(上),北京:人民出版社。
- 戴逸(1983),「談清史研究」,『文史知識』第3期。
- 戴逸(1992),『乾隆帝及其時代』,中國人民大學出版社。
- 杜保鋒(2004),「乾隆朝治理官員腐敗之鑑思」,『勝利油田黨校學報』第5期。
- 杜慧月(2008),「張寧出使朝鮮與『庚辰皇華集』考述」,『遼寧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1期。
- 馬大正(2000),「近代東北亞國際關系史研究的新進展:讀姜龍範著“近代中朝日三國對間島朝鮮人政策研究”」,『中國邊疆史地研究』4號。
- 馬大正等(2004),『二十世紀的中國邊疆研究——門發展中的邊緣學科的演進歷程』,黑龍江教育出版社。
- 馬大正, 이영옥 옮김(2004),『중국의 동북 변강 연구』, 고구려연구재단。
- 馬大正, 조세현 옮김(1998),『중국의 국경·영토의식-20세기 중국의 변강사 연구』, 고구려연구재단。
- 莫東寅(1958),「明末建州女真的發展及其建國」,『滿族史論叢』,人民出版社。
- 孟姝芳(2004),「從乾隆朝處分中透視皇權的強化」,『河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3期。
- 毛立坤·張金萃(2008. 4),『甲午前夕朝鮮海上對外貿易初探(1884~1893)』,安徽史學。
- 穆鴻利(2004),「關於清前史研究的幾個問題的思考」,『滿族研究』第3期。
- 朴鍵一 主編(2006),『中國對朝鮮半島的研究』,民族出版社。
- 朴眞奭(1984),『中朝經濟文化交流史研究』,遼寧人民出版社。
- 房建昌(1997),「近代中印西段邊界史略」,『歷史研究』5號。
- 復旦大學歷史系 編(1975),『沙俄侵華史』,上海人民出版社。
- 夫馬進·蔡亮(2008),「1765年洪大容的中國京師行與1764年朝鮮通信使」,『復旦學報(社會科學版)』4號。
- 夫馬進 編(2007),『中國東アジア外交交流の研究』,京都大學學術出版會。
- 費馳·劉曉東(2001),「1868~1869年“中英新修條約”談判評述」,『吉林大學社會科學學

報』第2期。

- 相藍欣(2007),『傳統與對外關係;兼評中美關係的意識形態背景』,北京:三聯書店。
- 尙鉞(1955),「清代前期中國社會之停滯·變化和發展」,『教學與研究』第6·7期。
- 商鴻逵(1980),「清初內地人民抗清鬭爭的性質問題」,『中華文史論叢』1輯。
- 徐東日(2008, 2),『朝鮮朝燕行使者眼中的關羽形象』,東疆學刊。
- 徐亮之(1952),『韓中關係史話』,香港:自由出版社。
- 徐萬民(1996),『中韓關係史 古代卷』,社會科學文獻出版社。
- 薛瑞漢(2003, 2),『從‘中俄解決縣案大綱協定’的簽訂看蘇俄早期對華政策』,歷史教學。
- 薛虹(1984),「中國古代史上的民族關係和堅持民族原則問題」,『史學集刊』第4期。
- 成崇德(1998),「清朝邊疆統一論」,『清史研究』2號。
- 蕭一山(1923),『清代通史』,商務印書館。
- 孫喆·王江(2006),「對1689~1727年中俄外交關係的考察」,『邊疆史地研究』1號。
- 孫春日(2002),「清末中朝日“間島問題”交涉之原委」,『中國邊疆史地研究』4號。
- 孫春日(2002, 12),「清末中朝日“間島問題”交涉之原委」,『中國邊疆史研究』。
- 宋連生等編著(2003, 10, 1),「乾隆懲貪秘檔」,珠海出版社。
- 新良主編(2002),『中朝關係史-明清時期』,世界知識出版社。
- 沈予等(1992),『日本侵華七十年史』,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沈載權(2007),「朝鮮與明清公文比較研究」,南京師範大學 박사논문。
- 楊公素(1991),『滿清明外交史』,北京大學出版社。
- 楊光斌(2007),『中國國內政治經濟與對外關係』,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
- 楊軍等(2006),『中國與朝鮮半島關係史論』,社會科學文獻出版社。
- 楊昭全(1992),『中朝關係簡史』,遼寧民族出版社。
- 楊昭全(1992),『中朝關係史論文集』,遼寧民族出版社。
- 楊昭全(2007),『中國朝鮮·韓國文化交流史 1-4』,昆侖出版社。
- 楊昭全·孫玉梅(1993),『中朝邊界史』,吉林文史出版社。
- 楊昭全·何彤梅(2001),『中國-朝鮮·韓國關係史』,天津人民出版社。
- 楊昭全·何彤梅(2004),『中國-朝鮮·韓國文化交流史』,昆侖出版社。
- 楊昭全·韓俊光(1992),『中朝關係簡史』,瀋陽:遼寧民族出版社。
- 楊樹森(1962),「關於清政權入關後戰爭性質問題的商榷」,『民族團結』第1期。
- 楊雨蕾(2005),『十六至十九世紀初中韓文化交流研究』,復旦大學 역사지리학과 박사

논문.

- 梁俊艷(2005), 「清代章學誠方志思想淺析—兼評“康乾盛世”」, 『新疆地方志』第1期.
- 梁俊艷(2006), 「全球視野下康乾盛世研究學術史回顧」, 『北京聯合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第2期.
- 楊海英(2007), 『朝鮮士大夫的“季文蘭情結”和清初被擄婦女的命運』, 清史論叢.
- 嚴亞明(1999), 「清末中日“間島”交涉述論」, 『綏化師專學報』第2期.
- 嚴亞明(2000), 「清末中日“間島”交涉述論」, 『大庆高等專科學校學報』第1期.
- 嚴亞明(2000. 8), 「“間島”交涉與清政府外交形象的轉變」, 『社會科學』.
- 嚴亞明(2004), 「“間島”交涉與清末日本對華擴張」, 『忻州師範學院學報』第6期.
- 嚴志梁(1997. 5), 「關於“間島”問題」, 『歷史教學』.
- 呂堅(2001), 「乾隆朝貪污大案何以屢禁不止」, 中國檔案報.
- 厲聲 等編(2002), 『中國邊疆史地研究綜述(1989~1998)』, 黑龍江教育出版社.
- 呂一燃 主編(2007), 『中國近代邊界史 上下』, 四川人民出版社.
- 易俠原(2005), 「雍正：二代管理者的楷模評論推荐」, 『管理人』第11期.
- 閻崇年(1984), 「清入關前滿洲的社會經濟形態」, 『社會科學輯刊』第4期.
- 吳莉葦(2007), 「18世紀歐人眼里的清朝國家性質—從《中華帝國全志》對西南少數民族的描述談起」, 『清史研究』5號.
- 溫兆海(2008), 「朝鮮時人李尙迪與晚清學人劉喜海」,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第1期.
- 王家儉(1988), 「清史研究的回顧」, 『六十年來的中國近代史研究』上, 臺北：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 王家範(2005), 「明清易代的偶然性與必然性」, 『史林』第1期.
- 王建朗·鄺永慶(1999), 「50年來的近代中外關系史研究」, 『近代史研究』5號.
- 王景澤(2002), 『清朝開國時期八旗研究(1583~1661)』, 吉林文史出版社.
- 王明星(1998), 『韓國近代外交與中國(1860~1910)』,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王思治(1985), 「明清之際的歷史應置于世界範圍來考察」, 『史學集刊』第3期; 孫文良, 『1644年 中國社會大動蕩』, 遼寧大學出版社.
- 王紹坊(1988), 『中國外交史』, 河南人民出版社.
- 王松濤(2007), 「朝鮮學者朴趾源觀承游記談」, 『社會科學論叢(學術研究卷)』7號.
- 王如繪(1999), 『近代中日關係與朝鮮問題』, 人民出版社.

- 王雄軍(2004),「從甘肅捐監冒賑案反思清朝乾隆時期的吏治腐敗成因」,『巢湖學院學報』第5期。
- 王義全(2003),「“康乾盛世”施政措施與彼得大帝改革之比較」,『貴州文史叢刊』第3期。
- 王政堯(1999),「18世紀朝鮮“利用厚生”學設與清代中國-『熱河日紀』研究之一」,『清史研究』3號。
- 王鐘翰(1957),「滿族在奴爾哈赤時代的社會經濟形態」;「皇太極時代滿族向封建制的過渡」,『清史雜考』。
- 王鐘翰(1995),「清軍入關與滿族的政治思想文化」,『社會科學輯刊』第1期。
- 王種翰(1999),『清代民族宗教政策』,王種翰,『王種翰學術論著自選集』,北京:中央民族大學出版社。
- 王振忠(2008, 2),「朝鮮柳得恭筆下清乾嘉時代的中國社會-以哈佛燕京圖書館所藏抄本《冷齋詩集》為中心」,中華文史論叢。
- 汪暉(2004),『現代中國思想的興起』,北京:三聯書店。
- 魏建猷(1955),『第二次阿片戰爭』,上海人民出版社。
- 魏明倫(2003),「“康乾”不應稱“盛世”」,『中州統戰』第8期。
- 魏明倫(2006),「“康乾”不應稱“盛世”」,『政工學刊』第1期。
- 魏志江(2006),『中韓關係史研究』,中山大學出版社。
- 劉家駒(1986),『清代初期的中韓關係』,臺北:文史哲出版社。
- 劉建新(1986),「論明清之際的松錦決戰」,『清史研究集』4輯。
- 劉金質等編(2000),『中朝中韓關係文件資料匯編(1919~1949)』,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劉金質等編(2006),『中國與朝鮮半島國家關係文件資料彙編(1991~2006)』,世界知識出版社。
- 劉大年(1955),『美國侵華史』,人民出版社。
- 劉大年(1961),「論康熙」,『歷史研究』第3期。
- 俞雷(2006),「從“康乾盛世”的衰落看創新」,『浙商』第4期。
- 劉文俊(2007),『近代中國西南地區的經濟開發與對外關係』,廣西師大。
- 劉培華(1986),『近代中外關係史』,北京大學出版社。
- 劉鳳云(2003),「清康熙捐納對吏治的影響」,『河南大學學報』43-1。
- 劉小萌(2007),「關於清代北京的俄羅斯人-八旗滿洲俄羅斯佐領歷史尋踪」,『清史論叢』。
- 劉宇(2004),「孫嘉金偽稿案與乾隆朝政治」,吉林大學。

- 劉爲(2001),「朝鮮赴清朝使團的文化交流活動」,『中國邊疆史地研究』3號。
- 劉爲(2002),『清代中朝使者往來研究』,黑龍江教育出版社。
- 劉爲,『試論攝政王多爾袞的朝鮮政策』,中華文史網編輯部。
- 劉爲,『宗藩關係下的貢賜與貿易:清代中朝朝貢貿易研究之一』,中華文史網編輯部。
- 劉煥性(2003),「“康乾盛世”之設的由來」,『清史研究』1號。
- 劉曉霞(2006),「從噠前影視文藝作品看“康乾盛世”的另一面」,『文史雜誌』第3期。
- 陸水林(2004. 1),「乾隆時期巴爾蒂斯坦(小西藏)與清朝關係初探」,『中國藏學』。
- 衣保中(2005. 7),「“間島問題”的歷史真相及中日交涉的歷史經驗」,『史學月刊』。
- 李景屏(1995. 2),「康乾盛世與奢靡之風」,『北京社會科學』。
- 李金明(2005),「清初中日長崎貿易」,『中國社會經濟史研究』3號。
- 李尚英(1999),「關於“康乾盛世”的歷史分期問題」,『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第4期。
- 李尚英,『中俄密約的簽訂』,中華文史網編輯部。
- 李洵(1978),「公元15世紀到17世紀中葉建州女真社會問題性質的探討」,『吉林師大學報』第4期。
- 李洵(1985),「40天與一百年」,『史學集刊』第1期。
- 李雲泉(2004),『朝貢制度史論』,新華出版社。
- 李育民(1992),「近代中國的“條約制度”論略」,『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第6期。
- 李育民(1997),「英國與近代中國的不平等條約」,『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
- 李育民(2006),『近代中外關係與政治』,北京:中華書局。
- 李治亭(1994. 1),「康乾盛世與西方文明」,『社會科學輯刊』。
- 李治亭(1995),「建國四十年來清前史研究述評(上)」,『歷史教學』第12期。
- 李治亭(1996),「建國四十年來清前史研究述評(下)」,『歷史教學』第1期。
- 李治亭(1996. 1),「略說康乾盛世」,『百科知識』。
- 李治亭(2000. 9),「輝煌的日落-17, 18世紀全球變局中的“康乾盛世”」,『領導科學』。
- 李治亭(2001. 11),「再論康乾盛世」,『人民論壇』。
- 李治亭(2005),「給青史以準確的歷史定位」,『河南師範大學學報』第6期。
- 李海鴻(2008),「貪污:文化的?抑或制度的? 西方學者關於清代貪污的研究」,中華文史網。
- 李鴻彬(1979),「清入關前滿族的社會性質」,『社會科學輯刊』第2期。

- 李鴻彬·郭成康(1984),「奴爾哈赤1601年建旗考辨」,『故宮博物院刊』1981年 第4期;
同,「八旗建立的年代考異」,『社會科學輯刊』第1期。
- 李華年·蔡汝鼎(1993),「清光緒八年平定朝鮮李昰應之亂與黎庶昌的文化外交」,『貴州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2期。
- 李華麗(2004),「關於“康乾盛世”的再思考」,『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2期。
- 李花子(2006),『清朝與朝鮮關係史研究-以越境交涉為中心』,延邊大學出版社。
- 李花子(2008),『清朝與朝鮮關係史研究-以越境交涉為中心』,延邊大學出版社。2006 → 『朝清國境問題研究』,集文堂。
- 林乾(1990),「乾嘉督撫與清中葉的政治危機」,『松遼學刊』第3期,社會科學版。
- 林明德(1970·1984),『袁世凱與朝鮮』,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 林香娥(2004),「盛衰之際一乾隆后期士人思想動態研究」,『浙江大學』。
- 章開沅(2000),「張謇與中韓文化交流」,『華中師範大學學報:人文社科版』第6期。
- 蔣非非 等(2005),『中韓關係史 古代卷』,社會科學文獻出版社。1998 → 김승일 역,『中韓關係史』,범우。
- 張雪永(2003),「19世紀末的中法文化關係述論(1860~1900)」,『西南民族學院學報:哲社版』第1期。
- 張世明(2004),「清代宗藩關係的歷史法學多維透視分析」,『清史研究』第1期。
- 張玉興(1981),「關於薩爾淪戰役性質的商榷」,『北大學報』第4期。
- 張玉興(1981),「清初中國社會主要矛盾筆談」,『社會科學輯刊』第1期。
- 張玉興(2004),「明清易代之際忠貳現象探蹟」,『清史論叢』18輯。
- 張偉(2005),「吳錄貞與中日“間島”交涉」,『遼寧大學學報(哲社版)』第2期。
- 張維華(1954),「滿族未統治中國前的社會形態」,『文史哲』第10期。
- 張存武(1987),『清代中韓關係論文集』,臺北:商務印書館。
- 張存武(1989),「近代中韓關係史的研究」,『六十年來的中國近代史研究』下,臺北: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 張存武(2001),『清韓宗藩貿易 1637~1894』,臺北: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1983 → 김택중 等譯,『근대한중무역사』,교문사。
- 張存武 等編(2000),『清入關前與朝鮮往來國書彙編(1619~1643)』,臺北:三民書局。
- 張惠民(2006),「不要過分頌揚“康乾盛世”」,『歷史學習』第2期。
- 丁名楠·余繩武(1958),『帝國主義侵華史』,科學出版社。

- 寧一(2004. 2),「馬戛爾尼眼中的“康乾盛世”」,『歷史教學』.
- 鄭天挺(1979),「清入關前滿族的社會性質」,『歷史研究』1962年 第6期;同,「清入關前滿族的社會性質續探」,『南開學報』第4期.
- 鄭天挺(1980),『清史簡述』,中華書局.
- 趙秉忠·白新良(1992),「乾隆帝在懲貪上的功與過」,『清史新論』,沈陽:遼寧出版社.
- 曹雯(2008),「晚清政府對外政策的調整與朝鮮」,『清史研究』2號.
- 刁書仁(2001),「中朝邊界沿革史研究」,『中國邊疆史地研究』4號.
- 刁書仁(2003),「康熙年間穆克登查邊定界考辨」,『中國邊疆史地研究』9號.
- 刁書仁 編(1995),『中韓關係史研究論文集』,吉林文史出版社.
- 曹錫玲(1951),『中蘇外交史』,上海世界知識出版社.
- 曹松林(2001),「乾隆朝的貪污腐敗」,『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30-1.
- 趙中孚(1991),「近代東北移民開發史研究的回顧」,陳生璽·杜家驥 編(1991),『清史研究概況』,天津教育出版社.
- 趙興元(2007. 3),『18世紀朝鮮學者朴趾源的人與自然觀』,古代文明.
- 周武(2001. 10),「論康乾盛世」,『社會科學』.
- 周思源(2002),「質疑康乾“盛世”說」,『中國文化研究』第4期.
- 朱誠如(2002. 2),「乾隆建儲與訓政述評」,『管窺集·明清史散論』(故宮博物院學術文庫),紫禁城出版社.
- 朱誠如(2002. 2),「論清前期的歷史走向」,『故宮博物院院刊』.
- 周遠廉(1979),「從“諸申”身分的變化看入關前滿族的社會性質」,『社會科學輯刊』第1期;同(1979),「關於滿族從奴隸制向封建制過渡問題」,『社會科學輯刊』第4期.
- 周熊(2005),「赫德與中國海關關係新探」,『中國社會經濟史研究』第3期.
-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集體撰(1976~1978),『沙俄侵華史』4卷,人民大學出版社.
-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明清史研究室(2001),『清史論叢』1999年號,河北教育出版社.
- 陳開科(2005),「1850年以前俄國東正教駐北京布道團的內部整頓及其經濟情報收集情況」,『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青年學術論壇』.
- 陳尚勝(1997),『中韓關係史論』,齊魯書社.
- 陳雙燕(2000. 1),「經世致用與中國近代外交觀念的產生」,『學術月刊』.

- 陳生璽(2006),「明清之際的歷史選擇」,『文史哲』第3期。
- 陳生璽·杜家驥(1991),『清史研究柳說』,天津教育出版社。
- 陳聯芳(1959),『朝鮮問題與甲午戰爭』,三聯書店。
- 陳澧(2007),「康乾盛世成因蠡析-兼論歷史必然性與偶然性」,『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學報』第5期。
- 陳捷先(1997),「乾隆肅貪研究」,『清史論集』。
- 陳紅民(2008),「晚清外交的另一種困境:以1887年朝鮮遣使事件為中心的研究」,『歷史研究』2號。
- 蔡永鉉(1993),「“朝鮮問題”與19世紀后期東北亞國際關係」,『吉林大學社會科學學學報』第4期。
- 戚其章(1962),『中日甲午威海海戰』,山東人民出版社。
- 鈔曉鴻·鄭振滿(2003),「二十世紀的清史研究」,『歷史研究』第3期。
- 崔志海(2001),「試論1903年“中美通商行船續訂條約”」,『近代史研究』5號。
- 湯仁澤(2003),「清代江南學術群體的特點」,『浙江社會科學』第4期。
- 彭明(1955),『中蘇友誼簡史』,中國青年出版社。
- 鮑正鵠(1954),『阿片戰爭』,上海新知出版社。
- 馮佐哲,『乍浦港與清代中日貿易,文化交流』,中華文史網編輯部。
- 馮智(2004),「清“康乾盛世”冊封達賴與治藏的階段性特點評述」,『西藏研究』第4期。
- 夏明方(2006, 6),「十八世紀中國的“現代性建構”」,『史林』。
- 何瑜·張波,『清代中緬宗藩關係述論』,中華文史網編輯部。
- 何仁珍(2006),「“盛世而衰”值得當代反思-(落日的輝煌)」,『評介湖北師範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第26卷,第4期。
- 『學習時報』編輯部編(2001, 3, 1),『落日的輝煌:17, 18世紀全球變局中的“康乾盛世”』,中共中央黨校出版社。
- 向陰生·羅曉東(2005),「試論清史的基本特徵」,『貴州社會科學』第3期。
- 許毅·王國華(1995, 8),「康乾盛世到嘉道中落的歷史教訓」,『真理的追求』。
- 許毅·王國華(2002),「從康乾盛世到腐朽衰落的歷史演變」,『財政研究』第7期。
- 胡繩(1950),『帝國主義與中國政治』,三聯書店。
- 胡玉海(2007),『近代東北鐵路與對外關係』,遼寧大學。
- 黃枝連(1992),「東亞的華夏秩序-中國與亞洲國家關係形態論」,『天朝禮治體系研究』上

卷, 北京: 人民大學出版社.

黃枝連(1994), 「東亞的禮義世界-中國封建王朝與朝鮮半島關係形態論」, 『天朝禮治體系研究』中卷, 北京: 人民大學出版社.

黃枝連(1994·1995), 『天朝禮治體系研究 上中下』, 中國人民大學出版社.

黃枝連(1995), 「朝鮮的儒化情境構造-朝鮮王朝與滿清王朝的關係形態論」, 『天朝禮治體系研究』下卷, 北京: 人民大學出版社.

胡秋原(2004), 『近百年來中外關係』, 海峽學術出版社.

侯中軍(2006), 「不平等概念與近代中國的不平等條約」, 『中國社科院研究生院學報』第2期.

欽本立(1976), 『美國經濟侵華史』, 世界知識出版社.

〈일본서〉

武内房司(1992), 「清代雲南燒畑民の反亂-1820年永北リス族蜂起を中心に」, 『响沫集』7.

石橋崇雄(2000), 『大清帝國』, 講談社.

安部健夫(1971), 『清代史の研究』, 創文社.

マークエリオット(2008), 「ヨーロッパ, 米國における滿洲學: 過去, 現在, 未來」, 『東洋文化研究』(學習院大學) 10號.

〈영어권 도서〉

Cohen, Joanna W.(1991), *Exile in Mid-Qing China; Banishment to Xinjiang, 1758~1829*, Yale University Press.

Cohen, Joanna W.(June 1998), "Religion, War and Empire in Eighteens-Century China,"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20-3.

Cohen, Joanna W.(2004), "The New Qing History," *Radical History Review*, 88.

Crossley, Pamela Kyle(1990), "Thinking about Ethnicity in Early Modern China," *Late Imperial China*, 11.

Crossley, Pamela Kyle(1999), *A Translucent Mirror: History and Identity in Qing Imperial Ide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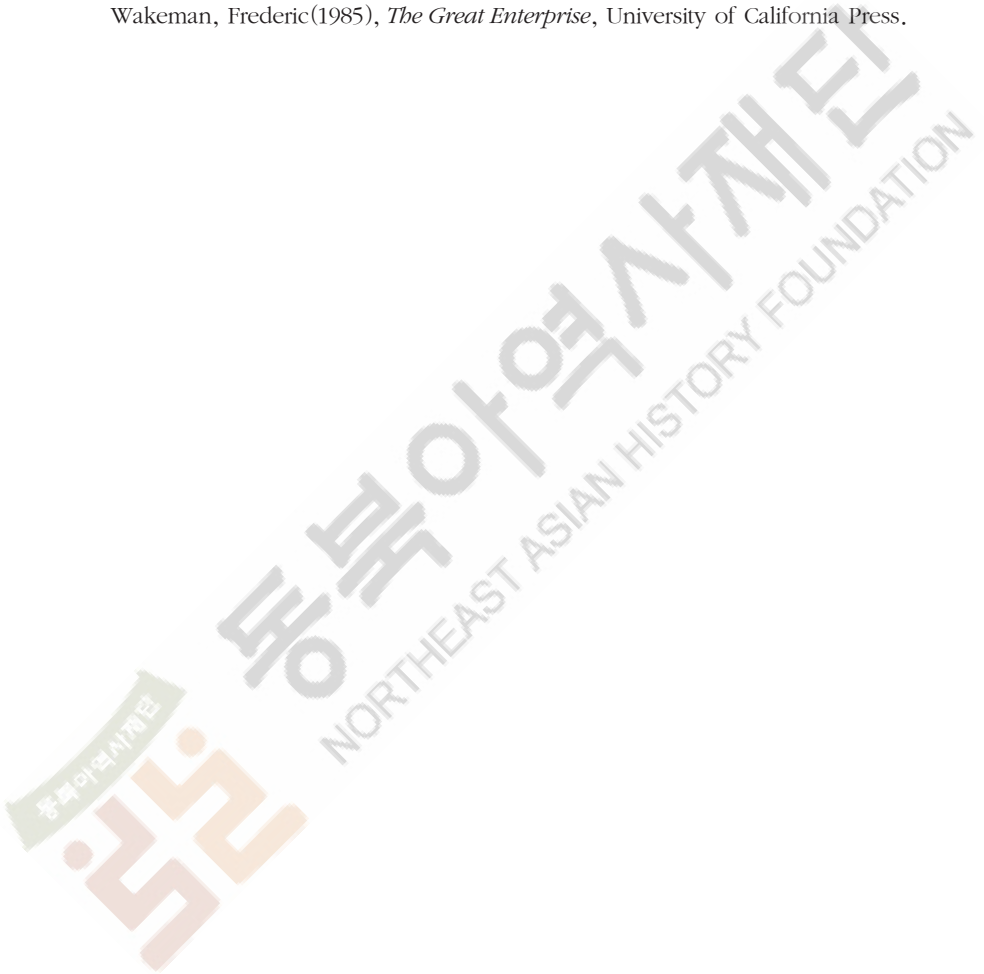
Di Cosmo, Nicola(1995), "Rethinking Tribute: Concept and Practice," *Paper Presented at the Association of Asian Studies Annual Meeting*, Boston.

- Di Cosmo, Nicola(1998), “Qing Colonial Administration in the inner Asian Dependencies,”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20, No. 2.
- Elliot, Mark(June 2001), “The Manchu-Language Archives of the Qing Dynasty and the Origins of the Palace Memorial System,” *Late Imperial China*, 22-21.
- Elliot, Mark(2001), *The Manchu Way: The Eight Banners and Ethnic Ident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University Press.
- Herman, John E.(2007), *Amid the Clouds and Mist China's Colonization of Guizhou 1200~1700*, Harvard University Press.
- Hidehiro Okada(2005), “Saghang Erke Sechen Khong Tayiji and his Erdeni-yin Tobchi in the Light of Their Relations with the Ch'ing Supremacy,” 『알타이학보』 15.
- Ho, Ping-ti(1967), “The Significance of Ch'ing Period in Chinese History,” *Journal of Asian Studies*, 26-2.
- Ho, Ping-ti(1998), “In Defence of Sinicization :A Rebuttal of Evelyn Rawski's Reenvisioning the Qing,”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7-1.
- Hostetler, Laura(2000), “Qing Connections to the Early Modern World : Ethnography and Cartography in Eighteenth-Century China,” *Modern Asian Studies*, 34-3.
- Millward, James(1998), *Beyond the Pass: Economy, Ethnicity and Empire in Qing Central Asia, 1759~1864*, Stanford University Press.
- Millward, James(1999), “‘Coming onto the Map’ : ‘Western Regions’ Geography and Cartographic Nomenclature in the Making of Chinese Empire in Xinjiang,” *Late Imperial China*, 20-2.
- Naquin, Susan and Rawski, E. S.(1987), *Chinese Society in the Eighteenth Century*, Yale : Yale University Press.
- Perdue, Peter(1998), “Comparing Empires : Manchu Colonialism,”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20-2.
- Perdue, Peter(2005), *China Marches West: the Qing Conquest of Central Eurasia*, Harvard University Press.

Rawski, Evelyn(1996), “Presidential Address : Reenvisioning the Qing : The Significance of the Qing Period in Chinese History,” *Journal of Asian Studies*, 55-4.

Rawski, Evelyn S.(1998), *The Last Emperors: A Social History of Qing Imperial Institution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Wakeman, Frederic(1985), *The Great Enterpris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Abstract |

A Study on Qing History Research Trends in China

The primary goal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Qing History National Project being conducted by Chinese Qing history scholars. Understanding the Chinese project is important in the sense that it helps to see the currently trends of scholarly activities fund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nd also in the sense that the project, as a continuum of traditional history compilation led by the Chinese government, may influence Korean history scholarship and national policy making. Given the premises, this research examines the Qing history research trends in China under the following five topics.

The first topic is “The Research Trends of the Rise of the Qing Dynasty in Chinese academia.” Here, it is noticeable that a great deal of research conducted in China concerns the stability and unity of society as a means of the rise of the Qing Dynasty.

In other words, the research focuses on how to resolve societal conflicts and problems that had resulted from the advent of a multi-ethnic society in Latter Jin. Hence, one may assume that Chinese scholars are finding their way to associate the multi-ethnic characteristic of modern China with the rise of the Qing Dynasty.

The second topic is “The Current Research Trends of High Qing in Chinese academia.” This paper shows that the research conducted about the period of the Kangxi and Qianlong Emperors is not necessarily oriented toward exploring historical facts of the past but toward correcting the present situation. That is, the research suggest that China today is having its prime time and has to learn the lesson of corruption prevention from Qing history.

The third topic is “The Current Research Trends of Qing History in China-With an Emphasis on Joseon-Qing Relations and Border Problems.” Her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China has already produced a great number of publications in this subject area and are poised to produce scholarly works on highly concentrated topics as well. This research also implies that China is now ready to take the lead in this area of research.

The fourth topic is “The Current Research Trends of the Qing Dynasty’s Foreign Relations in China-With an Emphasis on the History of Joseon-Qing Relations.” This area of research has drawn a great deal of attention in Chinese academia since the 1990s. Especially, as for Joseon-Qing relations, much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such issues as economic relations, vassal tribute system, Joseon-Qing relations with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fifth topic is “Discussions of Manchu Colonialism in China and Overseas.” Recently, European and American scholars have presented research results pointing out that the Qing Dynasty maintained a colonialistic ruling system against Xinjiang and Tibet. They also state that the system has become the political foundation for the vast multi-ethnic territory of modern China.

All in all, the mainstream of scholarship on Qing history in relation to the Qing History National Project concerns research on the connection between the rise and fall of the Qing Dynasty and modern China. Such research trends will be reflected in the Qing History National Project to a large extent. Yet in order to avoid conflic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issues concerning them are discussed within the framework of diplomatic relations rather than using the notion of the vassal tribute system. Chinese history academia in Korea needs to be fully aware of the research trends in China and to develop research frameworks and approaches of its own.

All the participants of this research hope that its results will be reflected in the public domain. Especially, as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ntend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must be reflected in national policy making and school and civic education.

Due to the geographical proximity of Korea and China, they are deeply involved in a complex system of diplomatic interests, and that is also the reason why the two countries have maintained an uneasy relationship for a long time. The two countries, therefore, must rethink history and resolve controversies in order to maintain peace and coexistence in East Asia. That is what the participants of this research have intended from the beginning.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찾아보기 |

ㄱ

- 근대 중국의 위상 244
- 근대중일삼국대간도조선인적정책연구 132
- 근대중한관계사료선편(近代中韓關係史料選編) 118
- 근세북방국경관련사료초집록(近世北方國境關聯史料抄錄輯) 119
- 근현대중국변강계무자료(近現代中國邊疆界務資料) 113
- 근현대중국변강계무자료 속편(續編) 113
- 길림사범대학교적연구소 108
- 길림성당안관(吉林省檔案館) 110
- 김경문 127
- 김병렬 135
- 김승일 123
- 김지남(金指南) 127
- 김택중 121

ㄴ

- 내륙아시아 제국 196
- 네르친스크조약 197
- 노계현(盧啓鉉) 139
- 누르하치 162, 202
- 니시지마 사다오[西島定生] 168, 173
- 니콜라스 트리코(Nicholas Trigault) 194

ㄷ

- ‘다민족국가’의 형성 191
- 다민족적 사회 215
- 다이이(戴逸) 62, 63, 66, 72, 76, 77, 79, 87, 88, 90, 91, 221
- 달라이 라마 199
- 달라이 라마 5세의 북경 여행 201
- 당자(堂子) 제사 202
- 대소 금천(大·小金川) 206
- 대외관계사 151, 152, 154
- 대일통(大一統) 40
- 대일통(大一統) 이념 203
- 대중매체 75
- 대청(大清) 23, 31, 32

대청역조실록 109
 대청일통지도(大清一統地圖) 212
 데이비드 파르크하르(David Farquhar) 190
 도르곤[多爾袞] 163
 도전과 웅전 이론 192
 동문회고(同文彙考) 109, 119, 142, 184
 동북공정 21~23, 38, 39, 101, 135
 동북변강당안선집 : 청대·민국(東北邊疆檔案
 選輯 : 清代·民國) 111
 동아시아삼국관계사료전집-중국26사급명칭실록
 (東亞三國關係史料全輯-中國廿六史及明清
 實錄) 108
 동화록(東華錄) 109
 둔전병 214
 디아오수런[刁書仁] 122, 124, 130

ㄹ

량치차오의 대민족 논의 225
 린쑹신[廉松心] 124
 뤼이란[呂一燃] 124, 130
 류웨이[劉爲] 124, 131
 류융즈[劉永智] 122
 류자취[劉家駒] 121

류즈민[劉子敏] 108
 류큐[琉球] 181~183
 리오리엔트 191
 리위주[李毓澍] 105
 리주텐[李澍田] 107, 109
 리즈팅[李治亭] 124
 리화쯔[李花子] 125, 133
 린밍더[林明德] 121
 린즈허우[林子侯] 121
 □
 마건충(馬建忠) 133
 마르티노 마르티니(Martino Martini) 195
 마크 엘리엇 193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94
 만몽사관(滿蒙史觀) 37~39
 만문노당 162
 만선사관(滿鮮史觀) 37~39
 만족(滿族) 221
 만족공동체(滿族共同体) 48, 51, 55
 만족공동체론 54
 만주 39, 41, 42, 51, 53, 54
 만주공동체 56

- 만주민족공동체(滿洲民族共同體) 50
- 만주어 자료 193
- 만주팔기 162
- 만주학 195
- 만청 식민주의(Manchu Colonialism) 192
- 만·한 협력체제 226
- 명실록(明實錄) 108
- 목극등(穆克登) 126, 128, 130, 138, 141, 142
- 몽골 37, 42, 51, 53, 54
- 무역조공제국 207
- 문수의 화신 200
- 문화적 우월감 214
- 미야자키 이치사다[宮琦市定] 190
- 미타무라 다이ске[三田村泰助] 190
- 민족주의 담론 228
- 민족주의 레토릭 188
- 민족주의적 패러다임 230
- 민족지 조사 211
- 비**
-
- 바이신량[白新良] 124
- 박권(朴權) 127
- 박지원 179
- 발터 폭스(Walter Fuchs) 195
- 방교(邦交) 229
- 방교지 182, 183, 229
- 백두산기(白頭山記) 127
- 백두산답사기 138
- 백두산비 130
- 백두산 정계비 126
- 백두산 정계비의 비밀 135
- 백두산 정계비 자료집(白頭山定界碑資料輯)
119
- 백 210
- 변강 이주 213
- 보살의 화신 203
- 복지서원출판유한공사 113
- 본(Bon)교 211
- 부정의 지리적 공간 189
- 북방(내륙) 아시아 36, 37
- 북방민족 35
- 북방 아시아 37
- 북정록(北征錄) 127
- 북정일기(北征日記) 127
- 비한족 지역으로의 한족 이주 214

人

사강 세첸(Saghang Sechen) 199
사행 177
생태 제국주의 219
샤루어번 210
샤머니즘 202
서남부 변경지역 214
서역문견록(西域聞見錄) 211
성경장군주집당(盛京將軍奏摺檔) 113
성세의식 89, 96
성세인식 82, 88, 93
‘세계사’의 일부 187
소유관계 218
속국전(屬國傳) 182
쉬완민[徐萬民] 123
승려와 세속 군주 201
시노다 지사쿠 139
식민지배 방식 209
식민지적 성격 214
식민지 정책 211
식민화 과정 208
신강의 식민화 215
신청사 36~39

신해혁명 31, 47

순원의 오족공화 225

순웨이귀[孫衛國] 124

순위메이[孫玉梅] 117, 122, 126

송자오린[宋教仁] 118, 130

송후이위안[宋慧娟] 124

오

아편전쟁 28, 34, 87

안드레 프랑크(Andre G. Frank) 190

알타이학과(Altaic School) 189

알타샤르 212

양자오취안[楊昭全] 117, 122, 124, 126,
133

양권[楊軍] 124

양태진 119

에리히 하우어(Erich Hauer) 195

에스니시티 220

역사공정 152

연길변무보고(延吉邊務報告) 114, 118, 127,
135

연행록 157, 160, 176~178, 184

연행록선집 184

- 열하일기 157
- 영사사관 89
- 영사(影射)사학 69
- 예치시스템론 161, 179
- 옥수수 218
- 올드 월드 웹 189
- 옹화궁(雍和宮) 200
- 와다 세이[和田清] 190
- 왕량[王亮] 105
- 왕루후이[王如繪] 123
- 왕명성[王明星] 123
- 왕종한[王種翰] 107, 198
- 왕충스[王崇實] 107
- 왕치궈[王其珪] 107
- 요령성당안관(遼寧省檔案館) 111
- 우라 렌이치[浦廉一] 190
- 우루룬[吳汝綸] 115
- 우뤄진[吳祿貞] 118, 127, 130, 135
- 우한[吳晗] 107
- 윈세개 159, 166, 167
- 월드 와이드 웹 189
- 윙(R. Bin Wong) 190
- 웨이즈장[魏志江] 124, 133
- 유럽의 ‘만주학’ 194
- 유럽의 해외 식민지 209
- 유럽 중심사관 192
- 유목사회 내부의 군사화 207
- 유목적 전통 207
- 유목제국 208
- 유형제도 215
- 이나바 이와키치[稻葉岩吉] 190
- 이마니시 쉼[今西春秋] 190
- 이번원(理藩院) 208
- 이블린 로스키(Evelyn S. Rawski) 220
- 이이제이 166
- 이중행정제국 207
- 이홍장(李鴻章) 115, 118, 165, 166
- 이홍장전집(李鴻章全集) 115~117
- 인종적 차별 214
- 일본의 식민주의 225
- 임오군란 167
- 임채정 140
- 임척서 216
- 입관(入關) 23~25, 27~29, 31~35, 41~45, 47, 50~52, 54~56
- 입판도(入版圖) 211

ㄸ

- 자오싱위안[趙興元] 124
- 자오중푸[趙中學] 106, 121
- 자오취안[楊昭全] 122
- 장룡관[姜龍范] 124, 132
- 장백총서(長白叢書) 109
- 장비보[張碧波] 124
- 장서우진[張守眞] 121
- 장성(長城) 29
- 장지엔[張謇] 133
- 장춘우[張存武] 121, 129, 130
- 장페이페이[蔣非非] 123
- 차사크 210
- 전륜성왕 199
- 전청사연구(前清史研究) 49, 50, 56
- 전홍석 123
- 정계비 127, 128, 136~138
- 정이[鄭毅] 109
- 정체성(ethnic identity) 24
- 제일역사당안관 111
- 조공무역론 173
- 조공 문제 228
- 조공제국 207
- 조공제도 153, 168~170, 181, 183
- 조선도(朝鮮圖) 139
- 조선시대 북방사 자료집 119
- 조선시대 선비들의 백두산 답사기 119, 136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107, 119, 127, 130, 136, 138, 142, 184
- 조선책략 166
- 조셉 플레처(J. Fletcher) 190
- 조아생 부배 212
- 조약체제 155
- 조천록 176
- 조청국경문제연구 133
- 조·청 국경회담 자료집 119
- 중번관계 164, 165, 167, 176
- 중족성(ethnicity) 192
- 왕지파[莊吉發] 198
- 주장판사대신(駐藏辦事大臣) 208
- 준가르제국 206
- 준가리아 분지 212
- 중국근대변계사(中國近代邊界史) 124, 130
- 중국문사망 41
- 중국 민족주의 역사가 208
-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111

중국제일역사당안관(中國第一歷史檔案館)

110

중국 중심사관 192

중양아시아 일대 190

중양연구원근대사연구소 105

중조변계사(中朝邊界史) 117, 122, 126, 138

중조변계연혁과 계무교섭사료회편[中朝邊界沿革及界務交涉史料彙編] 117

중학교 국사 136

중한관계사 163

중화문사망 26~28, 49, 50, 54~56, 152, 154, 156, 158, 160

중화민족 21~23, 37, 48, 49, 52~54, 57

중화민족사관 192

중화민족주의 221

중화적 세계질서 228

중화주의와 식민주의 226

중화중심주의 228

지도 만들기 211

지리적 위계성(geographic hierarchy) 216

직접과세제국 207

진구이춘[金龜春] 122

진위푸[金毓黻] 105

天

천상성[陳尙勝] 123, 125, 158, 170, 183

천후이[陳慧] 129

천웨이팡[陳偉芳] 122

천조예치체제(天朝禮治體制) 180

청대변강사료초고본회편(清代邊疆史料抄稿本彙編) 112

청대사 테제 220

청대중조관계당안사료회편(清代中朝關係檔案史料匯編) 110

청대중조관계사료선집(清代中朝關係史料選輯) 110

청대중조도문강경계연구-목극등비문을 중심으로 129

청사고 182

청사공정 22, 23, 26, 27, 41~45, 49, 54~56, 59, 60, 62, 66, 68~70, 72, 75~79, 82, 85, 87, 88, 90, 95, 96, 98, 153, 154, 158, 182~184

청사연구 77

청사연구소 59, 61, 66~69, 71, 72, 76, 78, 79, 82, 83

청실록(淸實錄) 108

청의 정복전쟁 205

청조여조선관계사연구-이월경교섭위중심(清
朝與朝鮮關係史研究-以越境交涉爲中心)
125, 133

청조의 유산 230

청조의 종교정책 210

청조흥기사 23, 24, 26, 27, 29, 31, 33, 34,
41, 43, 46, 47, 49, 50, 54~56

청·현대의 유사성 191

체계적인 한화 219

추이피[崔丕] 122

칠십일 211

ㅋ

케네스 포머란츠(K. Pomeranz) 190

코스모(Di Cosmo) 207

쿠빌라이 칸 199

쿠틉투(qutughtu) 199

ㄷ

통일다민족국가 22, 23, 26, 37, 40, 46, 47,
53, 221

티베트 불교 199

티베트 불교 세계의 중심 201

교

파멜라 크로스리(Pamela K. Crossley) 220

팍파 라마 200

팔기제도 25

피서산장 201

피아오싱진[朴興鎭] 108

피아오진시[朴眞奭] 121

피아오젠이[朴鍵一] 124

피터 퍼듀(Peter Perdue) 199

등

하마시타 다케시 173

학습시보(學習時報) 70, 72

한국간도학회 139

한문 자료 193

한족의 변강 이주 214

한족 중심주의 194

한중관계사 153

한중수교(韓中修交) 160, 180

한권광[韓俊光] 122

한화(漢化) 35, 40, 41, 50, 51, 55, 56, 219

한화론(漢化論) 52, 54

허통메이[何彤梅] 124

허핑티[何柄棣] 219

헤게모니 220

현대 중국의 영토 204

혼춘부도통이문당(琿春副都統衙門檔) 111

홍대용 177

홍타이지 162, 163, 205

화이론(華夷論) 29

환경재해 219

황모파 200

황여방격전도(皇輿方格全圖) 212

황여서역도지(皇輿西域圖志) 212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 138, 212

황염배(黃炎培) 225

황준헌(黃俊憲) 133

황즈렌[黃枝連] 122

후앙 데 팔라폭스 이 멘도사(Juan de Palafox
y Mendoza) 195

19세기말 한중관계사 연구-이홍장의 조선인
식과 정책을 중심으로 133



중국 역사학계의 청사연구 동향

초판 제1쇄 인쇄 2009년 10월 1일

초판 제1쇄 발행 2009년 10월 9일

지은이 홍성구, 차혜원, 김형중, 정혜중, 유장근

펴낸이 정재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 록 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 화 02-2012-6065

팩 스 02-2012-6187

e-mail book@historyfoundation.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09

ISBN 978-89-6187-142-6 93910

-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 책값은 뒤표지에 있습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